

지식과 교양

Knowledge and Liberal Arts

통권 제 6호, 2020년

교양교육혁신연구센터

본 학술지는 목원대학교 학술연구지원에 의하여 발행되었음.

차 례

[섹션 1: 지식과 문화]

■ 김 명 자 ■

시대변화에 따른 창작판소리의 특징 연구 9

■ 이 희 성 ■

생활문화 현황분석과 정책과제 연구 37

■ 한 상 철 ■

1950년대 대전의 시문학 연구 69

[섹션 2: 지식과 교육]

■ 김 영 희 ■

게임 활동 영어 학습에 대한 대학생의 정의적 태도에 관한 연구 89

■ 김 유 미 • 김 향 미 ■

학습참여 동기 유형에 기반한 노인미술교육의 필요성 115

■ 문 달 주 ■

한국여자중학생의 체력요인과 학업성취도 129

■ 홍 영 예 ■

통합 수업을 지향하는 대학영어의 수업 방안과 그 효과 145

[섹션 3: 지식과 사회]

▣ 권 미 란 ▣

여성 범죄자 보도 형식과 여성의 자기서술 167

▣ 안 효 성 ▣

한나 아렌트의 실존철학 201

- 교양교육혁신센터 『지식과 교양』 논문투고 규정 223
- 교양교육혁신센터 『지식과 교양』 논문심사 규정 233
- 교양교육혁신센터 『지식과 교양』 연구윤리 규정 236
- 교양교육혁신센터 『지식과 교양』 편집위원회 규정 245

Knowledge & Liberal Arts

VOL 6. 2020

liberal Arts Innovation Center, Mokwon University
DAEJEON, KOREA

TABLE OF CONTENTS

[Section 1: Knowledge & Culture]

|| Kim, Myung Ja ||

Research into the Characteristics of New Pansori that Changes with the Times 9

|| Lee, Hee Sung ||

A Study on the culture-into-life Status Analysis and Policy Tasks ... 37

|| Han, Sang Chul ||

A Study on the Poetics of Daejeon in the 1950s 69

[Section 2: Knowledge & Education]

|| Kim, Young Hee ||

A Study on the Korean University Students' Affective Attitudes on Learning English using Games 89

|| Kim, Yu Mi • Kim, Hyang Mi ||

Necessity of Senior Art Education based on the Motivation Types of Learning Participation 115

|| Mun, Dal Ju ||

Type Physical Factors and Academic Achievement of Korean Girl's
Middle School Students 129

|| Hong, Young Yeah ||

College English as an Integrated Course and Its Effectiveness 145

[Section 3: Knowledge & Society]

|| Kwon, Mi Ran ||

The Format of Reporting on Female Criminals and the Pattern of
Responding to Female Criminals 167

|| Ahn, Hyo Soung ||

Hannah Arendt's Existential Philosophy 201



시대변화에 따른 창작판소리의 특징 연구: 대표작을 중심으로*

김명자**

목차

1. 들어가며
2. 창작판소리의 역사적 흐름
3. 창작판소리 대표작의 특징
4. 맺음말

1. 들어가며

이 논문은 창작판소리¹⁾의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양상과 그 특징을 고찰한 것이다. 창작판소리는 전통5바탕 외에 새롭게 만들어진 판소리이다. 그 창작의 방식은 과거 판소리의 더늠의 확장과는 완전히 다른, 작가의 개성화

* 본 논문은 목원대학교 학술연구지원사업에 의해 지원받은 논문임

** 판소리치유센터 대표

1) 이 글에서 말하는 창작판소리의 범주는 <춘향가>, <심청가>, <홍보가>, <수궁가>, <적벽가>의 5바탕을 제외하고 20세기 이후에 새롭게 만들어진 판소리를 말하며 단가와 창극 및 더늠은 제외한다. 김연(김연, 「창작판소리의 발전과정 연구」, 『판소리연구』 제 24집, 판소리학회, 2007. 참조)의 견해와 같이 한다.

의 방식으로 만들어진 것이 현대적인 창작판소리라고 할 수 있다.²⁾ 따라서 창작판소리는 작가 개인의 문제의식과 예술화 방식이 고스란히 드러나게 되는데, 그것은 시대성의 발현위에서 드러나는 것이다.

김현주는 판소리의 매체적 구성요소 또는 매체 형식으로서 필요한 것이 ‘소리’와 ‘이미지’, 그리고 ‘이야기’와 ‘표현방식’이라는 네 측면이 있다고 한다.³⁾ 판소리는 후대의 문화양식들과 만날 때, 이 네 가지 매체 형식들을 변주하면서 수많은 파생 장르들을 만들어낸다는 것이다. 본고는 위 네 가지 중에서 이야기와 표현방식을 주목해 보고자 한다. 여기서 말하는 이야기는 창작되는 사실을 뜻하는 것으로 보았고, 표현방식은 판에서 펼쳐지는 연희방식을 의미한다고 보았다.

사실의 창작에 있어서 전통판소리에서 플롯의 일관성이 훼손되더라도 이 즐거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해학 지향의 판짜기 전략이 동원되는⁴⁾ 반

2) 창작판소리와 판소리 창작에 관련된 논의는 다음과 같다. 김기형, 「창작판소리의 사적 전개와 요청적 과제」, 『판소리학회 제43차 학술발표회 요지』, 2003.; 김기형, 「창작 판소리의 사적 전개와 요청적 과제」, 『구비문학연구』 18, 한국구비문학회, 2004.; 김현주, 「창작 판소리 사설의 직조방식」, 『판소리연구』 17, 판소리학회, 2004.; 유영대, 「20세기 창작판소리의 존재 양상과 의미」, 『한국민속학』 39, 2004.; 김연, 「창작판소리 발전과정 연구」, 『판소리연구』 제24집, 판소리학회, 2007.; 이유진, 「창작판소리 <예수전> 연구」, 『판소리연구』 27집, 2009.; 김현주, 「판소리의 다문화적 성격과 문화연변」, 『구비문학연구』 제26집, 한국구비문학회, 2008.; 김향, 「창작 판소리의 문화콘텐츠로서의 현대적 의미-이자람의 <사친가>와 <역척가>를 중심으로-」, 『판소리연구』 제39집, 판소리학회, 2015.; 장윤희, 「창작판소리의 변화양상과 판소리 세계화의 담론」, 『한국음악연구』 57, 2015.; 이정원, 「임진택 창작판소리 <똥바다>의 예술적 특징」, 『판소리연구』 제44집, 판소리학회, 2017.; 이진오, 「<금수궁가>의 패러디 전략과 양식적 변모 연구」, 『판소리연구』 제44집, 판소리학회, 2017.

3) 네 가지 측면은 다음과 같다. “소리는 판소리의 음악성을 이루는 부분으로서 선율과 성음, 그리고 창법의 제구면을 포괄하는 것이고, ‘이미지’는 극중 상황으로부터 유추되어 환기되는 시각성(장면성)과 연행 현장에서의 너름새와 발림을 통해 환기되는 시각적 구면을 함께 아우르는 개념이 된다. ‘이야기’는 판소리의 극 속 내용, 즉 사건과 인물, 그리고 주변 상황이 주는 소재 또는 제재적 원천이다. 그리고 ‘표현방식’은 판소리를 판소리답게 만드는 그 고유의 기술들, 즉 해학적이고 골계적인 담화방식이라든가 판소리체라는 운율적 문제 등의 연술적 표현 관습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김현주, 「판소리의 다문화적 성격과 문화연변」, 『구비문학연구』 제26집, 한국구비문학회, 2008, 117쪽.

면 현대에 창작되는 사설은 플롯의 일관성이 훼손된다는 것은 지극한 결함을 의미한다. 현대에 창작되는 사설은 앞뒤 맥락이 맞아 합리성을 갖춰야 하는 데, 왜냐하면 현대인들은 자신들이 합리적인 사고를 하고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또한 표현방식을 보아도 시대에 따라 달라지기 마련인데 그 시대만이 갖는 가능한 표현의 방식이 있기 때문에 시대성이 반영되는 특징을 포착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는 창작판소리를 세대별로 나누어 시대를 반영하는 사실과 표현방식의 특징을 살펴볼 것이다. 왜냐하면 창작판소리가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시대를 반영한 작품을 만들어서 당대 청중과 함께 호흡하는 것이다. 그것이 제대로 되었을 때만이 창작판소리의 미덕이 발휘될 수 있다.

그 동안의 창작판소리 연구는 20세기까지의 작품의 내용 연구로 다루어졌으나 시대 변화에 따른 세대별 연구는 없었다. 본고에서는 창작판소리의 출발부터 현재 21세기의 작품까지 세대별로 나누어서 작품에 반영된 시대 분위기와 작품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그리고 세대별로 분류된 창작판소리 중에서 뚜렷한 족적을 남긴 대표작을 뽑아서 그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2. 창작판소리의 역사적 흐름

창작판소리의 발전 단계에 대해서 학계에서는 여러 견해를 보이고 있다.⁵⁾ 이 글에서는 각 시대마다 뚜렷한 변화를 일으킨 창작판소리의 군(群)을 세대별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시대의 변화는 창작 사실과 연행

-
- 4) 김대행, 「판짜기 원리에 관한 한 가정」, 『판소리연구』 제1집, 판소리학회, 1989, 42쪽.
 5) 창작판소리 발전단계에 대해 김기형, 유영대는 4단계, 김연은 5단계, 장유희는 6단계로 잡고 있다. (김기형, 「창작판소리의 사적 전개와 요청적 과제」, 『판소리학회 제43차 학술발표회 요지』, 2003; 김연, 「창작판소리 발전과정 연구」, 『판소리연구』 제24집, 판소리학회, 2007.; 유영대, 「20세기 창작판소리의 존재 양상과 의미」, 『한국민속학』 39, 2004.; 장윤희, 「창작판소리의 변화양상과 판소리 세계화의 담론」, 『한국음악연구』 57, 2015.).

하는 방식에서 그 시대를 반영한다는 것을 전제하는 속에서 이루어진다. 창작판소리의 역사를 살펴보면 그 내용과 표현방식에 있어서 새로운 양식이 출현하는 시기가 있었고 수용자의 반응 또한 크게 일었던 때가 있었다. 이것을 기본으로 하여 대강 5세대로 나눌 수 있었다.

1) 제1세대

창작판소리의 시작은 박만순이 쓰고 박동실이 작창하여 부른 <열사가> 부터라고 의견을 모으고 있다.⁶⁾ 따라서 창작판소리의 제1세대는 해방직후 부터 1950년대까지로 잡도록 한다. 박동실의 <열사가>는 10년 이상 지속적으로 대중적 인기를 누렸으며 성공적인 창작판소리로 평가 받는다.⁷⁾ 박동실의 <열사가>가 상당히 지속적인 인기를 누릴 수 있었던 요인으로는 일제에 장렬하게 항거했던 역사적 인물들에 관한 이야기가 인기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 시기의 작품은 박동실 작창, 박만순 사설의 <이준열사가>, <안중근열사가>, <윤봉길열사가>, <유관순열사가>, <김유신보국가>, <해방가> 등 이상 6편이 있고, 주태익 사설의 김소희의 <탕자가>(1955), 이보라 작, 박초월 창 의 <탄일가>(1956) 등이 있었다.⁸⁾

박동실은 그의 제자들, 즉 김소희, 한애순, 한승호, 장월중선 등에게 <열사가>를 가르쳤다. 또한 열사가는 해방 후에도 여러 사람들에게 의해 꾸준히 만들어졌다. 박동실·김연수·정철호 등이 그런 사람들이다. 박동실의

6) 박동실과 <열사가>에 대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최동현, 「분단에 문헌 서편소리의 대부분 박동실론」, 『판소리 명창과 고수연구』, 신아출판사, 1997.; 정병헌, 「명창 박동실의 선택과 판소리사적 의의」, 『한국민속학』 36, 한국민속학회, 2002.; 김기형, 「판소리 명창 박동실의 의식지향과 현대판소리사에 끼친 영향」, 『판소리연구』 13, 판소리학회, 2002.

7) 최동현, 「박동실 명창의 창작판소리 열사가」, 『한국음악사학보』 제12집, 한국음악사학회, 1994, 245쪽.

8) 서민수, 「창작판소리에 관한 예술사회학적 연구-1970~2000년대 창작판소리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문학박사 학위논문, 2018, 240쪽.

제자들에게 전승되었던 〈열사가〉는 이성근, 정순임 등의 제3세대, 그리고 현재는 권하경까지 이어지고 있다.

2) 제2세대

제2세대는 박동진이 출현한 시기로 196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를 일컫는다. 이 시기는 박정희의 유신시대로 사회전반에 국악이 서양음악에 비해 열등한 예술로 인식되면서 판소리는 대중들에게 고리타분한 유물로 인식되던 시기였다. 이런 시기에 박동진의 연속된 판소리 완창은 신선한 충격을 주기에 충분했다. 이 시기에 발표된 작품은 주태익⁹⁾ 작, 박동진 작창의 〈예수전〉(1969), 박동진이 사설까지 짠 〈충무공 이순신〉(1973)이 있다. 이후 〈예수전〉은 오래도록 관심과 사랑을 받았고 박동진은 박동실처럼 제자들에게 〈예수전〉을 가르쳤다. 지금도 심심찮게 교회 ‘현장’에서 〈예수전〉이 불리어지는 것은 박동진의 제자들이 교회 행사에 가서 공연을 하기 때문이다. 박동진의 〈예수전〉은 처음 발표된 이래 현재까지 꾸준하게 향유되면서 창작판소리도 전통판소리와 같이 전승에 성공을 거둘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충분한 작품이다.

이 시기에 발표된 창작판소리로는 심우성이 작사하고 정철호가 작창한 〈성웅 충무공 이순신 장군〉(1979), 〈권율장군〉(1979), 〈큰 별은 바다에 떨어지고〉(1979), 〈녹두장군 전봉준〉(1979), 〈이준열사〉(1979), 〈안중근의사〉(1979), 〈국내외 독립투사들〉(1979)과 같은 열사가 씨리즈가 있다.

3) 제3세대

9) 주태익(1918~1978) 평안남도 대동군 임원면 노성리 출생하였다. 희곡을 쓰고 1955년부터는 라디오 방송작가로 활동하면서 〈솔피마을의 미륵이〉, 〈민들레꽃도 봄이면 핀다〉, 〈젊음의 뒤안길〉, 〈정지상〉, 〈녹죽부인〉, 〈이것이 인생이다〉 등을 썼다. 한국 크리스트문학가협회 초대 회장, 한국방송작가협회 이사장을 역임했다. 이유진, 「창작판소리 〈예수전〉 연구」, 『판소리연구』 27, 판소리학회, 2009, 319쪽. 참조.

제3세대는 김지하의 담시(譚詩)에 임진택이 작창하여 부른 시대를 말한다. ‘판소리를 통한 사회 비판과 풍자’라는 표현에 걸맞게 창작판소리는 사회적 발언의 성격이 강한 쪽으로 창작 작업이 이루어졌다.¹⁰⁾ 김지하의 작품들은 군사독재에 대하여 신랄한 풍자와 혹독한 비판, 그리고 강한 저항의 정신이 담겨 있다. 시에 담겨있는 강렬한 야유와 풍자를 통해서 독자들은 후련한 정서를 공유할 수 있었고 임진택은 그의 시에 작창을 하고 소리판을 연행 하였다.

이 시기에 발표된 <소리내력>(1974), <똥바다>(1985), <오적>(1993) 등은 대학생, 지식인들뿐만 아니라 대중들에게 폭발적 인기를 누렸다. 그의 예술에 전폭적인 지지와 갈채를 보낸 청중은 판소리 애호층 보다는 다른 층위의 청중이었던 것이다.¹¹⁾ 그 외 김명곤의 <금수궁가>(1988), 정철호의 <김대중 옥중단시>(1988), 김준태 사설에 윤진철 작창의 <무등산 진혼가>(1989), 임진택의 <오월광주>(1990) 등이 있다. 또한 광주를 다룬 창작 판소리가 정철호의 작창으로 이루어졌는데 <그날이여 영원하라>(1993)가 그것이다. 이후로도 창작판소리는 지속적으로 이어졌다. 김연의 <혼불>(1999), <김개남가>(1994), <용담유사가사8편> 등이 이 시기에 속한다.

4) 제4세대

제4세대는 ‘포랑광대’¹²⁾ 시기라고 할 수 있다. 2000년이 되면서 새로운 판소리에 대한 열망이 드러나기 시작했는데 그 대표주자들이 포랑광대들이다. 이 시기에 포랑광대로 활동했던 이들을 보면 판소리 전공자와 비전공자가 섞여 있었으며 임진택의 후예들인 마당극판 광대들의 활동이 두드러졌다. 이들은 기량을 우선하기 보다는 창작을 바탕으로 한 판소리의 대중

10) 유영대, 앞의 논문, 191쪽.

11) 유영대, 앞의 논문, 191쪽.

12) 포랑광대란 소리판의 전문용어로서 소리꾼이 전국적인 명창이 되지 못하고 동네 포랑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는 광대를 비하해서 하는 말이다.

화에 힘을 기울였다. 이들은 ‘판소리의 한글화, 판소리의 현재화, 판소리의 현장화를 지향했다.’¹³⁾ 포랑광대 선언문¹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살아 숨 쉬는 오늘의 판’을 부흥시키기 위하여, ‘진보적 소리집단 포랑광대’가 되어 소리판의 선봉에서 서서 ‘연대운동’을 펼쳐 나갈 것을 천명하였다. 그래서 포랑광대들의 소리판은 다분히 시대정신을 담은 운동적인 성격을 띤 작품들이 많았으며 형식과 격식을 파괴하는 경향을 보였다.

포랑광대 콘테스트는 작품 생산의 장(場)이었으며 2001년에 1회를 시작으로 2008년 파작으로 막을 내리기까지 8년간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작품이 창작되고 연행되었다. 작품 내용은 박태오의 <스타대전 중 저그 초반 러시 대목>(제1회), 김명자의 <슈퍼덱 씨름대회 출전기>(제1회) 이규호의 <예수전>(제2회), 김수미의 <나는 포라이인지도 모른다>(제2회), 이일규의 <선녀와 나무꾼>(제4회), 김지희의 <횡성댁 쌀타령>(제5회) 등 작품 소재가 컴퓨터 게임, 음담패설, 작가의 이야기, 월드컵, 동화, 농사, 무술까지 다양하다. 포랑광대 콘테스트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었으며 화가, 시인, 풍물굿패들, 마당극패들, 판소리 전공자들, 아마추어 소리꾼들, 농부, 목사, 심지어는 지나가는 사람도 우연히 참가하는 것을 환영하였다. 판소리 대중화를 목적으로 한 이러한 무분별한 판 벌림으로 인해서 판소리의 저변확대라는 긍정적인 평가와 작품의 수준미달이라는 부정적인 평가가 공존하기도 하였다.

이 시기(2000년~2008년)에는 바닥소리의 <토끼와 거북이>(2002), 정유숙의 <눈먼 부엉이>(2003), 이덕인의 <아빠의 벌금>(2003), 남상일의

13) 윤중강, 「판소리의 유쾌한 이단아, 대중에게 손 내밀다 판소리를 살리는 창작판소리」, 『문화예술』, 2003년 7월호, 53쪽.

14) 포랑광대 선언문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서민들과 함께 하며 소통했던 소리판의 의미는 사라지고 자본화 된 거짓명예로 화석화 되었다. 시대가 요구하니 살아 숨 쉬는 오늘의 판을 부흥시키기 위해 굳건한 연대운동으로 나아갈 것을 천명한다. 이 선언문은 포랑광대 전국협의회의 발대식에 준하여 발표되었고 김지영이 이 선언문을 작성하였다. 저자 주. 출처: 다음카페 [얼씨구포랑광대], <http://cafe.daum.net/NewAgePansori>

〈노총각 거시기가〉(2003), 왕윤정의 〈10대 애로가〉(2003), 유수곤의 〈월드컵전〉(2004), 장인완의 〈화산논검〉(2005), 신설희의 〈나라를 구한 방귀며느리〉(2006), 서미화의 〈금쪽같은 내새끼〉(2008) 외 다수가 있다.

5) 제5세대

제5세대는 작품의 완성도를 추구하는 전문가 협업시대로서 작가, 소리꾼, 연출가 등이 모여서 자신들의 전문영역을 공유하며 창작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앞선 또랑광대들이 넓고도 얇게 판소리의 지평을 넓혀 놓았다면 이후 5세대들은 창작판소리의 부흥기에서 안정기로 넘어오면서 판소리의 전문성과 깊이를 추구했다고 볼 수 있다. 제4세대와 제5세대의 시기는 겹치는 면이 있지만 추구하는 점은 확실히 다르다고 볼 수 있다. 제4세대 또랑광대들은 판소리 전공자와 비전공자들이 합세하여 판소리의 판을 넓히는 작업을 하였다면 이들은 판소리 전공자로서 깊이 있는 창작판소리 작품을 가지고 세계로의 진출에 힘을 쏟고 있다는 점이 다르다.

제5세대들의 광대들을 보면 이들은 대부분 대학에서 판소리를 전공한 전문가들이며, 연극의 전문성을 흡수하여 판소리의 작품성을 심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대표적인 경우가 이자람의 〈사천가〉(2007)이다. 〈사천가〉를 만든 스텝은 총 14명으로¹⁵⁾ 브레히트의 희곡을 저본으로 하여 소리꾼 이자람을 위시하여 연출가, 음악감독 및 극장의 전문가들의 협업으로 창작판소리를 성공적으로 만들어 낼 수 있었다. 조정희의 〈바리데기 바리공주〉(2009)의 경우에도 수많은 전문 예술인들이 동참하였는데 그 인원이 12

15) 〈사천가〉를 만든 사람들은 다음과 같다. (제작: 판소리만들기 자/ 각색과 작창: 이자람 / 연출: 남인우/ 드라마터지: 최예정/ 무대감독: 김지명/ 무대디자인: 원여정/ 음향감독: 장태순/ 의상디자인: 강정화/ 조명디자인: 이유진/ 소리꾼: 이자람/ 악사(베이스스트): 장혁조/ 고수: 이향하/ 타악: 신승태/ 코러스배우: 이운재, 오유진, 김정훈/ 기획: 남순우/ 원작: 베르톨트 브레히트.) 김윤경, 「창작판소리 〈사천가〉를 통해서 본 판소리 현대화에 대한 소고」, 『콘텐츠 문화』 제2호, 2019, 57쪽.

명에 달한다.¹⁶⁾ 이제 창작판소리의 경향은 여러 전문가들이 모여야만 되는 시대가 되었다.

이 시기의 작품은 이자람의 〈억척가〉(이자람 각색, 이자람 작창, 2011.), 김봉영의 〈날아라 에코맨〉(오미영, 오준석 작사, 김승진 작창, 2013.), 최용석의 〈방탄철가방〉(최용석 작사, 황호준 작창, 2014.), 박인혜의 〈필경사 바틀비〉(임영욱 연출, 허먼 멜빌 작, 박인혜 작창, 2017.) 등이 있다.

3. 창작판소리 대표작의 특징

앞서 시대성을 반영한 창작판소리의 흐름을 5세대로 구분하였다. 각 세대마다 수많은 작품들이 탄생하였고 연행되었다. 이 중에서 각 세대별로 대표작을 뽑아 그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앞서 창작판소리의 중요성은 시대를 반영한 작품을 만들어서 당대 청중과 함께 호흡하는 것이고 그것이 제대로 되었을 때만이 창작판소리의 미덕이 부각된다고 밝힌바 있다. 판소리의 미래는 창작판소리에 달려있다고 보는바, 그간 성공했던 대표작들을 특징을 탐색하여 성공 요인을 찾고 미래에 판소리 창작에 참고가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대표작의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역사적 사건과 분위기가 작품의 사설에 잘 반영될 것

둘째, 판소리 연행의 표현방식에 잘 녹아들어서 당대의 수용자들과 소통이 잘 될 것, 이상이다.

16) 조정희의 〈바리데기 바리공주〉에 참여한 인원은 다음과 같다. 제작: 문화행동 바람/ 기획: 노희정/ 사설과 연출: 김수형/ 배우와 소리: 조정희/ 음악감독: 신현정/ 예술감독: 김재욱/ 작창: 조정희, 류수곤/ 고수: 최용석/ 안무: 김영란/ 무대와 의상: 서은진/ 헤어와 메이크업: 이순/ 디자인: 송혜진/ 원작: 황석영.) 신동훈, 「창작판소리의 길과 〈바리데기 바리공주〉」, 『판소리연구』 30, 판소리학회, 2010.

위와 같은 기준으로 각 세대별 대표적인 광대와 작품은 다음과 같이 꼽을 수 있었다.¹⁷⁾

제1세대(해방전후) : 박동실 <열사가>

제2세대(1960년대) : 박동진 <예수전>

제3세대(1980년대) : 임진택 <똥바다>

제4세대(2000년대) : 김명자 <슈퍼덕 씨름대회 출전기>

제5세대(2007년 이후) : 이자람 <사천가>

위 대표 작품의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제1세대. 박동실 <열사가>

<열사가>는 박동실(1897~1968)이 의욕적으로 작창하고 보급했다는 데는 이의가 없는 듯하다. 사실 창작은 박만순이 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자료는 찾아보기 힘들다. 박동실은 작곡 능력이 뛰어나서 박석기 등과 같이 운영한 화랑창극단에서 새로운 창극의 작곡을 맡았다고 한다. <열사가>의 내용은 민족의 암흑기를 딛고 일어서는 열사의 영웅적 모습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를 제시하고 있다. 열사가의 서사적 전개는 <이준열사가>, <윤봉길 열사가>, <안중근열사가>가 50분 정도 이어져 있고, <류관순 열사가>(19대목)가 독립적으로 40분 정도 떨어져서 구성되어 있다. <열사가>는 음악적으로는 이전의 전통판소리의 음악적인 면은 충실히 계승하면서도 서사적 전개는 이전의 전통 판소리와는 구별된다. 비장과 골계의 반복이나 긴장과 이완의 연속을 통하여 삶의 진실 속으로 끌어당기는 기존의 판소리와는 달리 긴장과 비장의 연속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이완이나 골계가 침투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것이다. 주인공 자

17) 대표작은 본 연구자 임의로 정한 것임을 밝힌다.

체를 희화시키면서 일어나는 풍자와 골계의 현상이 용인될 수 있는 여지를 <열사가>는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있다.¹⁸⁾

품안에 든 칼을 번듯내여 가슴을 콕 찌르니, 선혈이 북받쳐 오르고, 왜놈 낮에다 선혈을 뿌리며, "이놈 왜놈들아!" 앞니를 아드득, 태극기를 번듯내여, "대한독립만세 만세 만세" 삼창을 부르시더니 명이 점점 지는구나. (이준 열사가)

감추었던 태극기를 번듯내어 휘드르며 "나는 원수를 갚았다. 이천만 동포들 쇠사슬에 걸려놓은 우리 원수 이등박문, 내손으로 죽였오. 대한독립만세." (안중근 열사가)

민족자결 높은 소리 해외로 건너가고 손병희씨 선두로서 삼일운동 투사로다. 태극기 높이 들어 '대한독립만세', 강산이 우근우근, 천지가 뒤끓을 제…… (윤봉길 열사가)

'반만년 우리 역사가 일조 일석에 무너져 왜놈들게 무참히 뺏긴 심혈에 민족자결을 응하여 독립운동 시위행렬을 하자'는 말이 끝나자 태극기 높이 들어 '대한독립만세' 천지가 되높은 듯 강산이 뒤끓어 매봉산이 떠나가듯……(유관순 열사가)

<열사가>는 해방당시의 현실과 긴밀한 연관을 맺기를 원했고 관객은 환호했다. 관객이 호응했던 소리판은 관객에게 선택되어지는 것으로 그 시대의 판소리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가 되기도 한다. <열사가>는 해방 후에 유행처럼 번져서 수많은 창자가 배웠고¹⁹⁾ 10여 년간 인기가 지속되었

18) 정병헌, 앞의 논문, 220쪽.

19) 유영대, 앞의 논문, 190쪽.

다고 한다. 1950년대 중반이 되도록 <열사가>는 소용 가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으며 청중들의 울분을 삭혀줬다고 볼 수 있다.

판소리의 기본적인 특성을 볼 때 첫째, 아니리와 창 의 교직 및 교체 둘째, 노래, 이야기, 연극의 결합 셋째, 서정, 서사, 극의 결합적 사설을 들 수 있다. <열사가>는 '창과 아니리의 교직 및 교체'라는 기본적인 요건을 충족시켰을 뿐, '노래, 이야기, 연극의 결합'과 '서정, 서사, 극의 결합'이라는 요건까지는 충족시키지 못했다.²⁰⁾ 또한 판소리의 미적 특질이 관객을 울리고 웃기는 것에 있다면, <열사가>의 영웅들은 시종일관 당당하거나 비장하여서 경직된 부분이 두드러진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열사가>의 특징은 전통 판소리의 음악을 그대로 수용하면서도 사설은 비분강개(悲憤慷慨)한 감정을 특화시킨 비장미로 본다.

2) 제2세대. 박동진 <예수전>(1969)

박동진(1916~2003)의 스승은 정정렬, 김창진, 박지홍, 유성준, 조학진 등으로 여럿이다.²¹⁾ 사승관계가 분명한 판소리 세계에서 5바탕을 각각의 스승에게 배운 예는 흔치 않다. 스승이 많으면 다양한 목과 소리제를 경험할 수 있고 판소리가 고정적이란 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판소리 어법에 숙달된 창자이므로 그리 어렵지 않게 복원시켰으나 그가 복원시킨 작품들이 그다지 인기를 누린 것은 아니었다.²²⁾

박동진의 업적으로 인정받는 것은 판소리계를 완창판으로 변화시킨 것에 있다. 1960년대부터 흥보가(5시간), 춘향가(8시간), 심청가(7시간), 적벽가(6시간)까지 유례없는 기록을 세웠다. 그가 발표한 <충무공 이순신>

20) 이유진, 앞의 논문, 346쪽.

21) 김기형, 「판소리 명창 박동진의 예술세계와 현대 판소리사적 위치」, 『어문논집』 37, 안암어문학회, 1998, 1쪽.

22) 유영대, 「20세기 창작판소리의 존재 양상과 의미」, 『한국민속학』 39, 한국민속학회, 2004, 197쪽.

역시 완창판소리 형식으로 창작했고 실제 공연시간은 총 9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대작이다.²³⁾ 판소리 완창은 판소리 창작의 기회로 이어진다. 〈예수전〉이 탄생한 데는 극작가 주태익이 박동진에게 불쑥 방송대본을 내밀었는데 그것이 〈예수전〉이 었다는 것이다.²⁴⁾

〈예수전〉은 1부가 1969년, 2부가 1972년까지 3년간 창작, 작창이 이루어졌으며 라디오방송을 통해 연속창극 형식으로 발표되었다. 내용을 보면 1부는 전체 약 1시간으로 성경의 기록을 크게 확장하여 이야기를 더욱 풍성하게 하는 양상이 나타나며, 2부는 전체 약 80분으로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그 이면의 정서를 섬세하게 묘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²⁵⁾ 〈예수전〉은 성경을 다뤘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적 시선으로 그려져 있는데 요셉이 만삭이 된 마리아를 데리고 여관을 찾아다니는 장면 등에서 볼 수 있다.

(아니리) 아 이런 제장, 마리아의 배가 열 달이 차서 가뜩이나 약한 것이 여자인데 부를 만치 부른 배를 안고 오백 리 먼먼 길을 왔으니 노독인들 어 떠허며 요셉의 심정이 어떠하랴 응?

(중모리) 어른들이 일러주어 말로만 듣던 고향 그리운 베들레헴 오기는 왔다마는 아는 사람 하나 없고 만리 타량이 그 아닌가. 해는 어이 저물어져 저녁연기 비졌난디 쓸쓸한 두 나그네 갈 곳 몰라 하는구나……(〈예수전〉 중에서)

이 장면은 성경에는 “그들이 베들레헴에 가 머물러 있는 동안 마리아는 달이 차서 드디어 첫아들을 낳았다. 여관에는 그들이 머무를 방이 없었기 때문에 아기는 포대기에 싸서 말구유에 눕혔다.”(루가 2장 6-7절)라는 단 두 문장의 서술이 주태익 작가는 이것을 바탕으로 18분 20초 분량의 풍부

23) 서민수, 앞의 논문, 98쪽.

24) 「무형문화재 박동진 장로 신앙간증(8)」, 『기독신문』, 1999, 3, 17. 이유진, 앞의 논문, 321쪽.

25) 이유진, 앞의 논문, 338쪽.

한 사설을 만들어냈다고 한다.²⁶⁾ 작가의 상상력과 구체적인 서술도 좋지만 서정성을 드러내는데 탁월한 능력을 보이고 있다. ‘해는 어이 저물어져 저녁연기 비져난다...’와 같은 경우에 사막 지역에 저녁연기가 날 리도 없거니와 쓸쓸한 두 나그네의 풍경은 마치 박목월의 시〈나그네〉²⁷⁾를 연상케 한다. 베들레헴이라는 서양 지역을 배경으로 하지만 서정성은 한국적 정서가 물씬 풍기고 있는 것이다.

박동진은 소리판을 이끌어 가는 연출력도 뛰어났다.²⁸⁾ 공연 도중에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사설을 확장하고 아니리와 재담을 능숙하게 구사하고 육담과 육설 등을 즉흥적으로 삽입함으로써 판소리의 묘미를 잘 살려낸 판의 고수였다. 따라서 〈예수전〉의 성공 요소이자 특징은 첫째 최고의 작가적 역량과 광대적 기량의 합작, 둘째 당대 라디오드라마라는 매체를 이용한 것, 셋째 파격적인 서양 종교적 내용을 한국적으로 소화한 것에 있다고 볼 수 있겠다.

3) 제3세대. 임진택 <똥바다>(1985)

임진택(1950~)의 〈똥바다〉는 1985년에 발표되었다. 원작인 〈분씨물어(糞氏物語)〉가 창작된 해가 1973년이므로 유신 체제에 대한 냉소적 비판이 여전히 힘을 발휘했던 시대임을 감안하여야 한다. 창작판소리사에서 위인을 벗어나 당대의 삶과 소통하는 것으로 바꾼 것은 임진택이었고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김지하의 담시가 있었기 때문이다. 김지하의 담시는 판소리로 연행하기에는 지나치게 긴장 일변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소리

26) 이유진, 앞의 논문, 344쪽.

27) 강나루 건너서/ 밀밭 길을/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길은 외줄기/ 남도(南道) 삼백 리/ 술 익는 마을마다/ 타는 저녁 놀/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박목월 〈나그네〉(1946)

28) 김기형, 「판소리 명창 박동진의 예술세계와 현대 판소리사적 위치」, 『어문논집』 37권, 민족어문학회, 1998, 5쪽.

판에서 연행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임진택이 〈똥바다〉를 작창할 때 원작을 과감하게 수정하여 적절한 이완의 지점을 만들어 냈다.²⁹⁾ 예를 들어서 ‘금분법 금분령’ 대목을 보면 알 수 있다.

사해동표주의같이 생긴 식민주의 똥, 대동아공영성 제5인터내쇼날의 깃발이 달린 똥, 제 게바라 초상화를 들고 있는 자본가의 똥, 모택동 어록을 들고 있는 자위대 간부의 똥, 평화헌법의 활자 속에 미소 짓는 동조(東條)의 쿡구멍 곁에 붙은 똥…… (담시 〈분씨물어〉 중에서)

위는 김지하 담시에서 주로 등장하는 지적인 개념어나 지적인 역설이 드러나는 부분이다. 판소리에서는 잘 쓰이지 않는 어려운 개념어, 한자로 표기된 익숙하지 않은 단어들은 음절수에 비해서 의미 내용이 많아지고 복잡해지면서 무거워진다. 김지하 담시는 판소리 악곡으로 감당하기엔 지나치게 상징적인 압축이 강한 내용성을 담고 있다.

똥 싸는 그림 그리는 것도 절대금지. 똥 싸는 노래 부르는 것도 절대금지. 똥 싸는 소설, 똥 싸는 영화, 똥 싸는 연극, 똥 싸는 무용, 똥 싸는 평론, 똥 싸는 설교, 똥을 연상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 금지 금지……(창작판소리 〈똥바다〉 중에서)

어려운 부분을 과감히 잘라버리고 사실이 쉽고 알아듣기 쉽도록 리듬감을 살려서 작창을 하고 있다. 사실 곳곳에는 비속어와 은어 등이 적나라한 표현으로 거침없이 쏟아지면서 언어유희가 돋보인다. 원작의 과감한 절

29) 이영미는 김지하의 담시가 판소리적이지 못한 점을 ①서사의 취약함, ②연극성의 부재, ③문체와 언어에서 지나친 긴장감과 압축성, ④해학성 없는 풍자와 지식인적 비장감, ⑤공연의 긴장-이완 구조의 미흡함을 들었다. 이에 관한 논문(이영미, 「김지하 담시의 판소리적 연행성에 대하여」, 『음악이 있는 마을』, 이강숙회갑기념문집 편집위원회, 1996.) 참조.

단, 긴장과 이완의 적절성, 그리고 희극성의 부각 등으로 인한 작창의 리듬이 사설과 얽혀서 절묘한 말의 묘미를 느낄 수 있다.

임진택은 마당판을 연출한 ‘판짜기’의 명수이다. 흔히 ‘소리를 짠다, 사설을 짠다’ 하듯이 소리판도 짜는 것이다. 판짜기는 판의 성격과 현장 분위기에 따라 광대가 청중과의 즉흥적인 대거리, 동선 등을 전략적으로 또는 즉석으로 기획하는 것이다. 이러한 판짜기의 속성으로 인하여 소리판은 같은 판이 있을 수 없으며 판짜기란 결국 판소리가 진행되는 속에서 이루지는 ‘생성’의 예술³⁰⁾로 만들 수 있는 것이다. 임진택은 희극, 풍자, 언어유희에 강한 광대이면서 재치있고 촌철살인의 유머가 그의 장기이다.³¹⁾ 따라서 <똥바다>의 특징은 당대의 청중과 조우하는 날카로운 시대비판과 재치있는 판짜기, 그리고 빛나는 골계미적 언롱(言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4) 제4세대. 김명자 <슈퍼덱 씨름대회 출전기>(2001)

2001년 제1회 또랑광대 콘테스트에서 김명자의 <슈퍼덱 씨름대회 출전기>는 현대인들의 보편적인 공감을 얻었다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2000년대 대다수의 창작판소리가 일회성 행사에 그치는 것과 달리 이 작품은 20여 년간 공연을 지속해오며 젊은 창작판소리 예술가들이 나아가야 할 전형을 제시한다.³²⁾ 김명자는 극단 아리랑 출신의 연극인으로서 10여 년간 마당극을 쓴 작가이자 마당판을 짜는 연출가이며 배우였다. 앞서 임진택의 판짜기 방식을 고스란히 물려받아서 소리판에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소리판의 광대가 되었다.

<슈퍼덱 씨름대회 출전기>의 내용은 주부들이 갖고 싶어하는 김치냉장고를 타기 위해 씨름대회에 참가한 주부의 고군분투를 코믹하게 전개하고

30) 김익두, 「공연학적 관점에서 본 판소리」, 『판소리연구』 8, 판소리학회, 1998, 157쪽.

31) 김명곤, 「80년대의 민중연극, 그리고 <장사의 꿈>」, 『김명곤의 세상이야기』, 2009.09.14.TISTORY. <https://dreamnet21.tistory.com/140>

32) 서민수, 앞의 논문, 185쪽.

있다. 판소리의 구조에 ‘김치냉장고’라는 ‘현대성’과 ‘씨름’이라는 ‘전통성’이 좋은 조화를 이루고 있다.³³⁾ 또한 ‘아줌마’가 씨름대회 나갔다는 파격성과 태극기 팬티를 입고 종횡무진하며 몸을 사리지 않는 소리꾼의 신명이 작품의 생명력을 길게 가져가는 요인으로 보인다.³⁴⁾

이 작품은 처음 2001년도엔 10분 정도였다가 시대가 지나면서 다양한 각색 작업으로 인해 2019년 현재는 약35분의 분량으로 늘어났다. 19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각 시대에 유행한 트렌드를 계속 삽입시킨 결과이다.

대한민국! (월드컵 박수, 짜자짜짼짼) 이겨라 슈퍼! (월드컵 박수, 짜자짜짼짼) 오 필승 코리아 오 필승 코리아 오 필승 코리아 오오오오레.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오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2002년 월드컵 이후 추가)

수영 잘하는 박태환이는 내 남동생여. (관객에게) 왜? 국민 남동생이니께. 아 그리고 스케이트 잘 타는 김연아는 내 여동생여. (관객에게) 왜? 국민 여동생이니께. 그럼 나는 뭐여? 나? 나는 그냥 국민여……(2007년 이후 추가)

결승전을 앞두고 초대가수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영원한 디바! 윤신나 양을 모시겠습니다. 윤신나 메들리! 박수 주세요! 난난난난나 난난난나 난난난나 난난나……(2017년 국립극장판에서 추가)

위 세 장면은 세월이 지나면서 새로 삽입된 것이다. 박태환과 김연아는 세계올림픽과 동계올림픽에서 선수들이 국민적 영웅으로 떠오르던 시대부터 삽입되었고, 월드컵가는 2002년 월드컵 이후에, 윤신나가 초대가수³⁵⁾

33) 윤중강, 앞의 글, 49쪽.

34) 이진우, 「망사스타킹에 태극기팬티 걸팠게 노는 슈퍼덕」, 한겨레신문, 2006. 1. 29일자.

35) 윤신나 초대가수는 가수 윤시내를 패러디한 것이다. 윤시내의 히트곡이 주를 이루는

로 나오는 것은 2017년 극장 버전을 만들기 위해 삽입된 것이다. <슈퍼덱 씨름대회 출전기>에 삽입되는 노래와 사설은 누구나, 남녀노소들이 다 아는 내용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트렌드의 삽입은 세월이 흐르면서 남녀노소 전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장치로 작동하며 소리판의 청중이 어느새 판에 몰입할 수 있도록 한다.

이 작품은 창과 아니리의 짧은 주기로 교체시켜 장면별 내용이 간단하여 판소리를 접한 그 누구라도 이 작품을 이해하는 데 전혀 어려움이 없다. 또한 김명자의 연행 방식에 있어서는 오랫동안 마당판과 '인사동 거리 소리판'³⁶⁾의 경험을 가지고 관객과의 근거리 밀착적 호흡을 갖는 연행은 특장이 될 만하다. 따라서 <슈퍼덱 씨름대회 출전기>의 특징은 직선적이고 단편적인 서사 전개와 트렌드의 추가, 청중들의 웃음을 유발할 수 있는 유희성의 극대화, 단순하고 경쾌한 음악어법의 부각,³⁷⁾ 그리고 현장의 관객과의 밀착 호흡에 있다.

5) 제5세대. 이자람 <사천가>(2007)

제5세대는 전문가들의 협업시대라고 앞서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이들의 공연은 소리꾼과 고수의 소리판이라기보다는 여러 예술가들의 종합적인 합작품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따라서 소리꾼뿐만 아니라 협업한 전문가들의 성향도 중요해진다. 이자람(1979~)의 <사천가>는 제5세대의 협업 시대를 알리는 작품이 되었다. 이자람은 음악하는 집안 출신³⁸⁾이면서 국악

데, '열애', '벗어나고파', '공부합시다' 등의 노래가 패러디되어 불려진다. 이 부분은 실제 씨름대회에서 결승전을 앞두고 초대가수가 나오는 것에 착안했다.

36) 판소리 부흥운동의 일환으로 시작된 인사동 거리소리판은 소리여제, 바닥소리, 타루 등 포랑광대들이 참여하였으며 3년간 지속되었다. 거리소리판은 '지나가는 관객의 발걸음을 붙들어야 하는' 혹독한 경험으로서 살아있는 판소리학교였다. 저자 주.

37) <슈퍼덱 씨름대회 출전기>의 음악 구조에 대해서는 (이규호, 「창작판소리의 음악 짜임새」, 『판소리연구』 17, 판소리학회, 2004.) 참조.

38) 이자람의 부모는 포크가수 '바블검' 듀엣으로 <연가>, <아빠는 엄마만 좋아해>, <짜사

뮤지컬집단 ‘타루’(2001)를 결성하여 초기 또랑광대의 일원으로 참가하여 활동하였다.³⁹⁾ 다양한 활동의 경험은 판소리의 실험과 맥을 같이 한다.

이 사람의 판소리에 대한 오랜 실험이 빛을 발한 것은 브레히트의 희곡 〈사천의 선인〉을 저본으로 하여 창작판소리 〈사천가〉로 각색하면서이다. 희곡의 각색은 판소리의 장면화와 인물화 하는데 매우 유리한 측면이 있다. 희곡에 아마 장면이 나누어져 있고 인물의 캐릭터가 분명히 제시되고 있다. 〈사천가〉의 성공은 전문 연극 연출가인 남인우가 공동 작업을 한 결과이다. 남인우는 〈사천가〉를 기획 단계부터 같이 해왔는데 창작판소리의 작품의 완성도를 높이는 면에서 연출의 공적을 인정할 만하다.⁴⁰⁾

남인우는 2007년 초연 당시 집중했던 핵심가치⁴¹⁾는 첫째, 판소리는 ‘이야기꾼의 이야기 곡’이라는 것이다. 이야기꾼이 무슨 생각에서 그 말을 하는 것인지, 어떤 감정으로 그 말이 나오는 것인지, 그 말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어야 하는지, 궁극적으로는 그것이 통합되어 말에 그 음이 적절한 것인지에 초점을 맞췄다고 한다. 둘째는 판소리가 가지는 ‘동시대성’인데, 정신적 동시대성과 음악적 동시대성이 어우러졌다고 한다. 정신적 동시대성은 같은 대한민국에 사는 젊은이들이 만나서 이루어지고 음악적 동시대성은 고수와 전자베이스트의 협업으로 삼바, 기타와 베이스와 같은 현대 악기도 실험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남인우는 ‘우리가 추구하는 진정한 동시대성이란 역사와 인종을 뛰어넘어, 언제 어디서나 보편적인 가치를 지니는 것이다.’ 라고 한 바, 판소리를 무대화 하는 시스템을 도입하였다. 극장으로 들어간 창작판소리는 무대 공간이 확보되어 있고 연출가를 비롯한 음악감독, 조명감독, 무대감독 등의 스태프들이 전문성을 공유할 수 있다. 소극장으

랑) 등의 히트곡을 낸 바 있다.

39) ‘타루’ 홈페이지 참조. <http://www.taroo.com/taroo/about>

40) 남인우의 연출에 관한 것은 (김윤경, 「창작판소리 〈사천가〉를 통해서 본 판소리 현대화에 대한 소고」, 『콘텐츠 문화』 제2호, 2019.)에 잘 정리되어 있다.

41) “남인우, 「판소리만들기 자 〈사천가〉 연출가 남인우의 〈사천가〉 제작노트」, 월간 『미르』 2012년 6월호, 16쪽.

로 들어간 창작판소리는 자연스럽게 연극화가 강화된다.

5세대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그들의 소리판이 소리꾼 한 명과 고수 한 명이라는 몇 백 년 된 ‘공식’에서 해체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우리 것’만을 고집하지 않으며 대부분 서양 작가의 작품을 저본으로 하여 개작하여 작품을 만들고 있다. 이자람은 브레히트의 희곡을, 박인해는 허만 멜빌의 <필경사 바틀비>, 타루는 셰익스피어의 <햄릿>을 가져왔다. 이들의 창작판소리는 글로벌 시대에 걸맞게 세계 지향적인 성향이 가미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5세대를 대표하는 이자람의 <사천가>의 특징은 전문가들의 협업시스템, 연극성의 강화, 저본의 세계화로 본다.

이상으로 각 세대별 대표작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각 세대별 대표작을 뽑고 특징을 살펴보니 몇 가지 공통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사실적인 면에서는 작가의 역량이 바탕이 된 완성도 높은 텍스트가 기본 바탕이 되었다.

둘째, 표현방식은 그 시대를 반영하는 연행방식으로 별였다.

셋째, 시대를 반영하는 사실과 표현방식을 통해 시대적 공감을 통한 청중의 높은 호응이 있었다.

넷째, 현재까지도 공연이 되는 긴 생명력을 갖게 되었다.

4. 맺음말

지금까지 창작판소리의 역사적 흐름을 살펴보고 족적을 남긴 창작판소리의 흐름과 대표작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대표작의 공통점은 작가의 역량이 바탕이 된 완성도 높은 텍스트, 시대를 반영하는 연행방식, 시대적 공감을 통한 청중의 높은 호응, 현재까지도 공연이 되는 긴 생명력을 들 수 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창작판소리는 전반적으로 시대에 부흥하고, 그 분량에 있

어서 몇 시간이 될 만큼 긴 것도 아니며, 여러 광대가 몇 십 년에 걸쳐서 거대한 공동창작을 이루는 방식이 아니며, 개인이 만들어내는 창작품이므로 플롯이 일관성 있고 합리적이다. 또한 내용에 있어서도 작가의 개성화가 도드라지고 있다. 창작판소리는 소수의 애호가로부터 시작해서 지식인층을 거쳐 근래 다수의 일반 대중으로 관객층이 이동된 것을 알 수 있다. 최근에는 일상 속 에피소드를 이야기로 꼬집어내어 보다 친근하고 단순한 판소리의 양식을 부각시켰고 이후 극장으로 들어가 작품의 수준을 높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대표작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1세대는 해방시대, 박동실의 <열사가>로서 전통 판소리의 음악을 그대로 수용하면서도 사설은 비분강개(悲憤慷慨)한 감정을 특화시켜서 비장미 위주의 특징을 볼 수 있다.

제2세대는 유신시대, 박동진의 <예수전>으로서 주태익이라는 최고의 작가적 역량과 박동진 광대적 기량의 합작, 라디오드라마라는 매체를 이용한 것, 파격적인 서양 종교적 내용을 한국적으로 소화한 것에 있다고 보았다.

제3세대는 제5공화국, 임진택의 <똥바다>는 당대의 현실비판과 풍자, 빛나는 골계미적 언롱(言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제4세대는 2000년대, 김명자의 <슈퍼덱 씨름대회 출전기>는 직선적이고 단편적인 서사 전개와 트렌드의 추가, 청중들의 웃음을 유발할 수 있는 유희성의 극대화, 단순하고 경쾌한 음악어법의 부각, 현장의 관객과의 밀착 호흡으로 보았다.

제5세대는 글로벌 시대, 이자람의 <사천가>는 전문가들의 협업 시스템, 연극성의 강화, 저본의 세계화로 본다. 이런 흐름은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

■ 참고문헌

논문

- 김기형, 「판소리 명창 박동진의 예술세계와 현대 판소리사적 위치」, 『어문논집』 37, 안암어문학회, 1998.
- 김기형, 「판소리 명창 박동실의 의식지향과 현대판소리사에 끼친 영향」, 『판소리 연구』 13, 판소리학회, 2002.
- 김기형, 「창작판소리의 사적 전개와 요청적 과제」, 『판소리학회 제43차 학술발표회 요지』, 2004.
- 김대행, 「판짜기 원리에 관한 한 가정」, 『판소리연구』 제1집, 판소리학회, 1989.
- 김연, 「창작판소리의 발전과정 연구」, 『판소리연구』 제24집, 판소리학회, 2007.
- 김윤경, 「창작판소리 <사천가>를 통해서 본 판소리 현대화에 대한 소고」, 『콘텐츠 문화』 제2호, 2019.
- 김익두, 「공연학적 관점에서 본 판소리」, 『판소리연구』 제8집, 판소리학회, 1998.
- 김현주, 「창작 판소리 사설의 직조 방식」, 『판소리연구』 제17집, 판소리학회, 2004.
- 김현주, 「판소리의 다문화적 성격과 문화연변」, 『구비문학연구』 제26집, 한국구비문학회, 2008.
- 박성환, 「21세기 창작판소리의 성과와 과제」, 『한국전통문화연구』 제14호, 한국전통문화연구소, 2014.
- 서민수, 「창작판소리에 관한 예술사회학적 연구-1970~2000년대 창작판소리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문학박사 학위논문, 2018.
- 산동훈, 「창작판소리의 길과 <바리데기 바리공주>」, 『판소리연구』 제30집, 판소리학회, 2010.
- 유영대, 「20세기 창작판소리의 존재 양상과 의미」, 『한국민속학』 39, 한국민속학회, 2004.

- 이규호, 「창작판소리의 음악 짜임새」, 『판소리연구』 제17집, 판소리학회, 2004.
- 이영미, 「김지하 당시의 판소리적 연행성에 대하여」, 『음악이 있는 마을』, 이강숙 회갑기념문집 편집위원회, 1996.
- 이유진, 「창작판소리 <예수전> 연구」, 『판소리연구』 제27집, 판소리학회, 2009.
- 장윤희, 「창작판소리의 변화양상과 판소리 세계화의 담론」, 『한국음악연구』 57, 2015.
- 정병헌, 「명창 박동실의 선택과 판소리사적 의의」, 『한국민속학』 36, 한국민속학회, 2002.
- 최기숙, 「전승과 '창작'의 관점에서 본 판소리 정체성의 재규정과 제언」, 『판소리연구』 제34집, 판소리학회, 2008.
- 최동현, 「박동실 명창의 창작판소리 열사가」, 『한국음악사학보』 제12집, 한국음악사학회, 1994.
- 최동현, 「분단에 묻힌 서편소리의 대부-박동실론」, 『판소리 명창과 고수연구』, 신아출판사, 1997.

잡지·신문

- 윤중강, 「판소리의 유쾌한 이단아, 대중에게 손 내밀다-판소리를 살리는 창작판소리」, 『문화예술』, 2003년 7월호.
- 남인우, 「〈사천가〉 연출 노트」, 월간 『미르』, 국립극장, 2012년 6월호.
- 이진우, 「망사스타킹에 태극기팬티 걸판지게 노는 슈퍼덕」, 한겨레신문, 2006. 1. 29일자.

인터넷 자료

- 블로그 『김명곤의 세상이야기』, <https://dreamnet21.tistory.com/140>
- 다음카페 [얼씨구또랑광대], <http://cafe.daum.net/NewAgePansori>
- 타루 홈페이지 <http://www.taroo.com/taroo/about>

■ 국문초록

이 논문은 시대에 따라 창작판소리의 변화하는 양상과 대표작의 특징을 고찰한 것이다. 창작판소리의 역할 중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시대를 반영한 작품을 만들어서 당대 청중과 함께 호흡하는 것이다. 그것이 제대로 되었을 때만이 창작판소리의 미덕이 발휘된다. 창작판소리의 성공 요인은 이야기를 만드는 사실의 창작과 시대를 반영한 연행 양식에서 표출된다고 보았다. 사실과 연행 양식적인 면을 감안하여 큰 족적을 남긴 작품을 세대별로 꼽아보니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제1세대는 해방전후의 박동실 <열사가>, 제2세대는 1960년대의 박동진 <예수전>, 제3세대는 1980년대의 임진택 <똥바다>, 제4세대는 2000년대의 김명자 <슈퍼덱 씨름대회 출전기>, 제5세대는 글로벌 세대의 이자람 <사천가>이다. 이 작품들의 공통점을 보면 첫째 작가의 역량이 바탕이 된 완성도 높은 텍스트, 둘째 시대를 반영한 연행방식 셋째, 시대적 공감을 통한 청중의 높은 호응, 넷째 현재까지도 공연이 되는 긴 생명력을 들 수 있다. 창작판소리는 소수의 애호가로부터 시작해서 지식인층을 거쳐 근래 다수의 일반 대중으로 관객층이 이동되었다. 2000년대부터는 일상적인 이야기를 끄집어내어 보다 친근하고 단순한 판소리의 양식을 부각시켰고 이후 극장으로 들어가 작품의 수준을 높이고 있다. 대표작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제1세대 박동실의 <열사가>는 전통 판소리의 음악을 그대로 수용하면서도 사실은 비분강개(悲憤慷慨)한 감정을 특화시켜서 비장미 위주의 특징을 보인다. 제2세대 박동진의 <예수전>으로서 주태익이라는 최고의 작가적 역량과 박동진 광대적 기량의 합작, 라디오드라마라는 매체를 이용한 것, 파격적인 서양 종교적 내용을 한국적으로 소화한 것에 있다고 보았다. 제3세대 임진택의 <똥바다>는 당대의 현실비판과 풍자 그리고 빛나는 골계미적 언롱(言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제4세대 김명자의 <슈퍼덱 씨름대회 출전기>는 직선적이고 단편적인 서사 전개와 트렌드의 추가, 유희성의 극대화, 단순하고 경쾌한 음악어법

의 부각, 현장 관객과의 밀착 호흡으로 보았다. 제5세대 이자람의 〈사천가〉는 전문가들의 협업 시스템, 연극성의 강화, 저본의 세계화로 본다. 이런 흐름은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

주제어 ● 창작판소리, 창작판소리 흐름, 창작판소리 대표작, 박동실, 박동진, 임진택, 김명자, 이자람

■ Abstract

Research into the Characteristics of New Pansori
that Changes with the Times
: Focusing on the major works

Kim, Myung-Ja

This article examines the changing aspects and characteristics through the ages of the major works of new Pansori. One of the most important functions of new Pansori is to produce works that reflect the times and breathe with the contemporary audience. Only when this function is properly fulfilled is the virtue of new Pansori exhibited. The main cause of the success of new Pansori is taken to be the creation of a narrative that tells a story and a performance style that reflects the times. Considering the narrative and performance style, the following were selected by era as works that have left a great legacy: First generation (around the time of Liberation) Park Dong-Sil's 'Yeolsaga'; Second generation (1960s) Park Dong-Jin's 'Yesoojeon'; Third generation (1980s) Im Jin-Taek's 'Ddongbada'; Fourth generation (2000s) Kim Myung-Ja's 'Superdaek Ssireumdaehwe Chuljeongi'; Fifth generation (global era) Lee Ja-Ram's 'Sacheonga'. The common characteristics of these works include: firstly, a text that has a level of completion, grounded on the composer's capability; secondly, the audience's high level of acclaim as a result of the work being in tune with the times; thirdly, longevity, with the work being performed up to the present day. New Pansori began with only a few enthusiastic supporters but has moved in terms of its audience to the mainstream of the general public via the intelligentsia. From the 2000s, more everyday stories have been drawn out, highlighting a more

familiar and simple form of Pansori, and the standard of work has been raised as Pansori has moved into the theatre.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presentative works are as follows: First generation: Park Dong-Sil's 'Yeolsaga' completely adopted tradition Pansori music but its narrative specializes in the emotion of sorrowful indignation and shows the main characteristic of tragic beauty. Second generation: Park Dong-Jin's 'Yesoojeon' is the combined work of Joo Tae-Ik's superlative writing capabilities and Park Dong-Jin's talent for entertainment. Its features are that it uses the medium of radio drama, and it digests shocking Western religious content in a Korean way. Third generation: Im Jin-Taek's 'Ddongbada' has the characteristics of being critical of the realities of the day, being satirical and its 'unlong'[traditional type of song] has a shining comedic aesthetic. Fourth generation: Kim Myung-Ja's 'Superdaek Ssireumdaehwe Chuljeongi' has the characteristics of a straightforward and fragmentary unfolding of its narrative, maximization of playfulness, a simple and cheerful musical grammar that is prominent, and a breathing together with the audience present. Fifth generation: Lee Ja-Ram's 'Sacheonga' has the characteristics of a collaborative system between experts, the strengthening of theatrics, and the globalization of the story base. These currents continue to the present.

Keywords ● New Pansori, currents of new Pansori, representative works of new Pansori, Park Dong-Sil, Park Dong-Jin, Im Jin-Taek, Kim Myung-Ja, Lee Ja-Ram

■ 논문투고일 : 2020. 10. 28. ■ 심사완료일 : 2020. 11. 11 ■ 게재확정일 : 2020. 11. 18

생활문화 현황분석과 정책과제 연구

이희성*

목차

1. 서론
2. 이론적 배경
3. 대전시 생활문화 현황분석
4. 대전시 생활문화 정책 분석 및 과제
5. 결론

1. 서론

과학의 고도화는 문화와 연계를 넘어 융합으로까지 발전하고 있으며, 이는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문화산업을 창조하여 경제적 가치를 증시하는 문화경제시대로 진입하고 있다(이윤정, 2019).

문화경제시대에 문화의 산업화는 가속화되었고, 문화가 가지고 있는 순수의 목적인 인간의 자아실현에 대한 역할로서 정책적 기능이 약화되

*단국대학교 정책경영대학원 문화예술학과 초빙교수

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국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접근성 문제는 문화정책 우선 순위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지 않는 등 소비자보다 생산자 중심에 치우쳐 있어 현시대의 발전배경에 역행하는 문화정책의 한계를 보이고 있다(이태중, 2003).

이러한 문화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접근성이 고려된 ‘생활문화’라는 새로운 용어가 학계에서 대두되고 있다(이윤정, 2016).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 2항에 따르면, 생활문화는 “지역의 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로 정의된다. 본 조문은 그간의 생활문화에서 예술과 대비되는 장르적 관점(정광렬, 2006)에 국한하지 않고, 일상성, 시민중심, 자발성의 관점으로 접근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대전시의 생활문화동호회 현황과 문화시설현황을 분석하고, 대전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생활문화 지원사업을 토대로 대전시 생활문화 실태파악을 통해 정책요인을 도출하고 생활문화 우선 정책과제를 도출하는데 있다.

먼저 대전시 생활문화 진단을 위해 대전시에서 생활문화의 유·무형의 인프라와 지원사업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기초자료를 체계화하여 도출된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정책요인들에 대한 우선순위를 지역상황에 맞게 정리하였다.

본 연구는 기대효과는 첫째, 대전시 생활문화 우선정책의 당위성 및 시의성을 제시할 수 있다. 둘째, 대전생활문화 정책기조 및 정책사업을 위한 세부적인 영역 구분이 가능한 계층이 구조화된다. 이러한 세부적인 영역 구분을 통해 구체적인 정책대안 개발이 가능하며, 정책의 실현에 용이하다.

2. 이론적 배경

1) 생활문화의 이해

(1) 생활문화 개념 및 변화

생활문화의 개념은 일본에서 유래된 개념으로 living culture로 인식해 오는 등 생활양식의 개념에서 접근해왔다(유지연, 2018). 특히 생활문화를 일상생활 영역 방식으로 각 집단, 즉 주로 가족 등에 따라 형성되는 의식주 등의 일상적인 소재를 공유하는 상징과 의미의 체계(박명희, 2003; 주영애, 2012)로 해석해 왔다.

서구에서는 직접적으로 생활문화라는 개념을 사용하지 않으며 시민문화, 자발적문화, 공식 예술, 참여예술, 아마추어 예술 등으로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생활문화는 다도, 꽃꽂이 등 예술이 아닌 장르적 개념의 문화로 문화예술진흥기본법에 규정되어 있다.

정영숙(1991)은 생활문화를 “우리의 생활양식과 결부된 문화형태를 의미하며 대중문화와 민속문화를 포함한다.”로 정의하였다. 또한 장현섭(1997)은 “일상생활을 구성하는 가족문화, 혼례문화, 친족문화, 소비문화, 음식문화, 여가문화, 상례문화를 비롯하여 학교라는 메커니즘에서 생겨나는 자녀교육문화, 입시문화 그리고 직장문화, 종교문화, 공동체문화, 방송문화, 언어문화 등” 등의 범위로 정의하였다. 이장섭(1993)은 생활문화를 “의식주와 같은 일상생활 문화(협의)와 함께 비일상적인 명절문화, 통과 의례, 관습 등의 범위까지 확대” 등의 범위로 정의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생활문화는 처음에는 문화향유 및 참여적 문화 활동의 관점에서 별도의 이론적 정립 없이 사용되었다. 초기의 생활문화개념은 창작자 중심의 정책과 대비한 문화복지의 개념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생활문화가 문화정책에 최초로 등장한 문화발전 10개년 계획(1990)에서도 문화향유 확대 및 문화복지 증진의 관점이었다. 그러나 창작자 중심

의 정책에서 수요자 중심, 문화향유 중심, 이를 위한 문화인프라 조성 등이 주요한 정책으로 제시되면서 생활문화 문화복지의 개념을 벗어나 참여적인 문화 활동을 강조하였다. 또한 별도의 문화공간에서만이 아닌 생활 속의 문화활동을 활성화하자는 문화의 일상화 정책이 강조되었다.

이러한 관점과 연계하여 문화의 영역이 생활양식 등으로 확장되면서 초기의 생활문화는 생활양식, 특히 전통생활양식 등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었다.

이러한 관점을 잘 나타내는 것이 1990년 문화부가 별도로 독립하면서 생활문화국을 신설한 것에서 잘 드러난다. 생활문화국은 생활문화과·지역문화과·박물관과·문화시설과의 4개과를 두었는데, 생활문화과는 주로 장르적 관점에서 예술이 아닌 분야를 다루었고 나머지는 모두 문화향유, 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강화하기 위한 부서였다. 생활문화국은 1993년 김영삼 정부가 출범하고 체육청소년부와 통합되면서 실국이 축소되어 사라지게 되었고, 그 이후로는 생활문화와 관련된 국 단위의 조직은 구성되지 못하였다.

(2) 생활문화 담론

생활문화의 등장은 “현대의 문화적 삶의 변화, 예술 패러다임의 변화, 예술의창작과향유 구조의 변화라는 거시적 변화 속에서 부상하는 지구적 현상”(강윤주, 2012:9)이라고 할 수 있다.

과거의 문화 정책은 공급자 중심의 문화 역량 강화에 편중하였고, 국민 개개인이 일상에서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간과하는 경향이였다. 아울러 “문화 교육에 대한 국민 전반의 통합적 담론 형성과 체계적 정책화 작업도 미흡”(강윤주, 2012:107)하였고, 기존의 엘리트 예술은 예술가들과 비평가, 그리고 상류계층 등 소수 사회집단의 전유물로 일반 대중들의 일상생활 영역으로부터 분리되어 있었다(성남문화재단, 2009).

즉, 정부의 문화 정책은 예술 그 자체를 숭배하는 예술지상주의적 예술 패러다임에서 경제 발전을 지원하고 정치적 홍보 수단의 도구로서 예술을 활용하였다. 한편으로는 저소득층, 사회적 소수자 등 문화소외계층에 대한 문화적 접근을 확대하는 데 역점을둔 결과 문화예술교육과 저소득층의 문화소비 확대 등 일련의 성과를 가져왔지만, 시민들의 문화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적 시도는 미약하였다(전병태, 2014).

그러나 경제·문화적 발전으로 중산층이 확대되면서 시민계급의 생활양식과 가치의 변화는 문화 공동체적 예술 패러다임으로 변화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 시민계급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예술의 경향은 지역과 향유자 중심의 정책으로 나타났다.

생활문화가 시민들의 문화적 창작 능력 증진, 지역주민 간의 소통과 유대 강화, 사회자본의 형성, 공동체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개인·사회·국가적인차원에서 다양한 효과를 유도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생활문화는 지역 공동체, 개인의 문화 자생력, 다양성, 공공성을 강조하는 변화의 흐름으로 확대되면서, 수동적 향유자였던 시민들이 학습과 창작을 통해서 능동적으로 성장하도록 유도한다.

생활문화 활동은 공동체 구성원의 소통과 유대강화 그리고 문화 향유층의 확대 등을 통하여 사회 자본과 문화 자본을 형성하고, 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지역의 정체성 강화에도 도움이 된다.

(3) 생활문화의 유사개념

생활문화에 대한 구체적인 개념 등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아서 같은 맥락의 문화적 활동이 연구자에 따라 ‘생활문화, 생활예술, 생활문화 예술’ 등 아직도 다양한 용어로 혼용되고 있다. 따라서 생활문화의 유사개념에 대한 국외 현황을 통해 생활예술의 개념과 용어를 정리해보고자 한다.

먼저 국내외 문화정책에서 활용되는 생활문화의 유사개념에는 생활예술, Informal

Arts, Voluntary Art, Community Art 등이 있다. 생활예술은 “소수 전문가들의 예술 활동이나 소위 예술계라고 불리는 특정 제도나 집단 안에서의 활동에 대비하여 일상생활의 영역, 즉 일, 가족, 사교 등의 사적 영역에서 자기를 계발하고 표현하는 활동”이라고 정의한다(강운주·전수환·심보선·강은경, 2012). 이와 관련하여 김기봉(2016)은 생활예술에 대해서 그간의 엘리트 지원중심의 문화민주화 전략이었던 고급예술의 대중화 전략에서 수요자 중심의 창작행위, 문화예술교육 중심의 문화민주주의 전략으로 중심이 이동되면서 대두된 개념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생활예술은 정책의 수혜 대상의 변화를 나타내며, 전문예술창작자 중심의 문화정책에서 비전문가 중심의 정책이 확대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생활예술 개념을 생활문화 개념과 비교 분석하면, 시민중심 즉, 비전문가 중심의 활동은 유사하지만, 생활문화는 공간과 공동체의 중심의 일환인 일상성이 강조된 것이 특징이다.

생활예술과 유사한 개념으로는 미국의 Informal Arts가 있는데, Wali와 Severson, Longoni(2002)에 따르면, 이는 길거리, 공원, 주택 등의 구조화되지 않은 공간에서 일어나는 자발적이고 비고정적인 예술활동을 의미한다.

반면, Formal Arts는 갤러리, 극장, 뮤지엄 등의 구조화된 공간에서 일어나는 조직화된 예술활동을 의미한다. 미국의 Informal Arts는 예술의 향유와 참여가 관객으로만 접근하는 것이 아닌, 공동체의 사회적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책의 확대를 의미가 있다. 이러한 미국의 Informal Arts는 생활문화와 생활예술과의 정책의 수혜 대상 변화와 공동체 형성 측면에서는 동일한 범주에서 해석되지만, 생활문화와는 달리 일상성 중의 중요한 요소인 실제생활과 분리되지 않는 일상성의 확장 관점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유사한 개념으로 영국의 Voluntary Art가 있는데, 이는 미국의 Informal Arts와 유사한 개념으로 자기개발, 공동체 형성, 여가와 유흥

등을 목적으로 시민중심의 아마추어 예술을 지칭하는 개념이다(민경숙, 2016).

Voluntary Art는 비전문가들의 예술로 무용, 문학, 음악, 축제, 미디어, 드라마, 수공예, 전통예술 등의 형태로 구현된다(Arts Council of Northern Ireland, 2007).

비전문가들의 개인적인 참여행위로서의 Voluntary Art는 그들의 문화자원을 개발하고, 창조적이고 활동적인 삶에 도움이 되며, 사회적 참여로서의 역할로는 공동체의 사회간접자본을 육성하게 된다(전수환, 2011). 이러한 Voluntary Art는 시민중심성과 공동체 형성 측면에서는 동일한 범주에서 해석되지만, 생활문화와 유사 개념들과는 달리 문화자원과 사회간접자본형성에 더욱 초점을 맞춘 것이 특징이다.

Community Arts는 커뮤니티 구성원들의 직접 참여를 통해 커뮤니티와 관련된 이슈를 다룬 예술작품을 창작·향유하는 것을 의미한다(용호성, 2012). 이러한 정의를 중심으로 생활문화와 비교분석한다면, 커뮤니티 구성원은 시민중심 성으로, 직접 참여는 자발성으로 해석될 수 있다.

2) 생활문화정책의 변화

전통적인 문화정책은 문화예술의 창작자 또는 문화예술기관을 위한 지원정책에 집중되어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문화정책은 결국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소수의 계층으로만 수혜가 한정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고, 이에 따라 1993년 문민정부 이후부터 국민 문화향유를 지원하기 위한 방향으로 정책적 관심이 전개되었다(양혜원, 2014; 전병태, 2014).

생활문화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것은 2004년으로 이 시기에 지역 주민들의 일상적 삶의 현장과 밀착된 일상적·능동적 문화활동 환경 조성 및 수요에 대응하는 정책기조가 마련되었다. 또한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과 생활문화동호회 지원사업이 추진되었다.

2014년을 제정된 <지역문화진흥법>은 생활문화를 지역의 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해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 및 무형의 문화적 활동으로 정의하였고, 생활문화시설은 생활문화가 직·간접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로 명문화 하였다. 이로 인해 일상에서의 문화향유 및 창작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틀이 마련되었다.

문화정책의 방향은 전통적인 창작자·공급자를 위한 문화정책에서 수요자를 위한 문화정책을 거쳐 문화민주주의와 지역문화와 관련된 지역 주민 주도의 자발적·일상적·능동적 활동을 위한 문화정책으로 변화해왔다(유지연, 2018).

<표 1> 단계별 문화정책 흐름 정리

	1단계 (1980년대 이후)	2단계 (1993년 이후)	3단계 (2004년 이후)
중심 정책	문예진흥과 향유	문화복지와 교육	생활문화정책 본격화
정책적 관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예술가, 예술 단체, 기관 등 문화 엘리트 중심 예술 창작활동 - 문화의 민주화에 대한 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취약계층 및 문화 격차 해소에 초점 - 문화접근성 확산, 문화 체험 기회 확대 - 김영삼 정부 문화의집 조성과 함께 초기 생활문화정책 시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의 일상화 설정, 이를 위해 자발성, 일상성에 기초한 생활문화 개념 확립 - 지역주민들의 일상적 삶의 현장과 밀착된 일상적·능동적 문화활동 환경 조성 및 수요에 대응 -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과 생활문화동호회 지원사업 추진
주체와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동적 문화소비자 - 소극적 참여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예술교육 관점에서 추진 - 공간과 공동체 중심의 아마추어와 비전문가 중심의 정책으로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체적 문화 창조자 - 전문예술인이 아닌 시민의 문화욕구 충족 - 전업작가나 예술가가 아닌 주민의 문화 활동

3. 대전시 생활문화 현황분석

1) 대전시 생활문화 현황

(1) 대전시 문화시설 현황

대전시 문화시설 현황은 대전세종연구원에서 연구한 대전문화예술중장기방안 보고서를 참고하였다. 보고서에 의하면 대전시는 5개구별 문화시설 격차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대전시 문화시설은 공공운영에 비해 민간운영 시설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나 대덕구는 공공운영 문화시설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대덕구 문화소비관점에서 민간영역에서 문화시설에 운영에 따른 경영 부담이 높은 것으로 보여진다. 공연시설은 유성구가 141개로 가장 많으며, 동구가 60개로 가장 적게 나타났다. 전시시설은 유성구가 30개소로 집계되었으며, 동구와 대덕구가 각각 7개소로 가장 적게 집계되었다.

〈표 2〉 2018년 대전시 구별 문화시설 현황

구분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공공	민간	계	공공	민간	계	공공	민간	계	공공	민간	계	공공	민간	계	
총계	14	39	53	28	66	94	25	68	93	33	93	126	33	29	62	
공연 시설	종합공연장	0	1	1	0	0	0	1	1	2	3	0	3	0	1	1
	일반공연장	1	0	1	1	1	2	4	2	6	1	1	2	1	1	2
	소공연장	1	1	2	1	11	12	3	7	10	2	6	8	6	2	8
	영화상영관	0	3	3	0	1	1	0	4	4	0	2	2	0	0	0
	야외공연장	0	0	0	3	0	3	1	0	1	0	0	0	0	0	0
	소 계	16	44	60	33	79	112	34	82	116	39	102	141	40	33	73
전시 시설	박물관	1	2	3	1	0	1	1	1	2	6	1	7	1	2	3
	미술관	0	0	0	0	0	0	2	1	3	0	2	2	0	0	0
	화랑	1	3	4	4	18	22	6	15	21	3	18	21	2	2	4
	소 계	2	5	7	5	18	23	9	17	26	9	21	30	3	4	7
문화 보급 전수 시설	지방문화원	0	1	1	0	1	1	0	1	1	0	1	1	0	1	1
	국악원	0	0	0	0	0	0	1	0	1	0	0	0	0	0	0
	전수회관	1	0	1	0	0	0	0	0	0	1	0	1	2	0	2
	문학관	1	0	1	0	0	0	0	0	0	0	0	0	0	0	0
	예술창작센터	0	0	0	1	0	1	0	0	0	0	0	0	0	0	0
	문화의집	0	0	0	0	0	0	0	0	0	0	0	0	3	0	3
소 계	2	1	3	1	1	2	1	1	2	1	1	2	5	1	6	
도서관	공공도서관	3	0	3	3	0	3	3	0	3	4	0	4	3	0	3
	작은도서관	5	28	33	14	34	48	3	36	39	13	62	75	15	20	35
	소 계	8	28	36	17	34	51	6	36	42	17	62	79	18	20	38

생활문화에서 가장 중요한 문화시설인 도서관은 유성구가 79개소가 가장 많으며, 동구가 28개소로 가장 적게 나타났다. 서구는 문화시설 숫자에서

는 유성구 보다 다소 낮게 집계되었으나, 대전예술의전당, 시립연정국악원, 시립미술관 등 문화시설 규모와 인지도에서 높아 대전시를 대표하는 문화도시 이미지가 형성되어 있다.

그러나 생활문화를 위한 전용공간은 매우 부족한 것이 현실이며, 특히 생활문화동 호회가 활동할 수 있는 연습공간과 발표공간의 부족은 매우 심각하다. 또한 전문예술가와 생활문화 동호인이 자유롭게 정보를 공유하고 교류할 수 있는 네트워크 공간과 생활문화지원센터 등 생활문화 시설인프라의 확대가 필요하다.

2) 대전시 생활문화 동호회 현황

생활문화 동호회 현황에 대한 자료는 대전세종발전연구원의 기초자료를 활용하였으며, 민간 동호회 현황에 대한 파악은 구체성과 타당성이 담보되지 않아 공공 동호회에 한해 집계하였다. 생활문화 공공 동호회는 대전문화재단, 대전평생교육진흥원, 평생학습원 등에서 시행하는 동호회 지원 및 파악사업에 상시적으로 관계를 맺고 지원한 동호회를 분류하였다.

〈표 3〉 대전시 생활문화 공공 동호회 현황

구 분		공연예술	문학	시각예술	기타	계
공공동호회 현황	동호회 수(개)	123	41	79	31	274
	총 인원(명)	1,696	249	741	236	2,922

대전시 생활문화 동호회는 공연예술분야, 문학, 시각예술, 기타 등 총 274개로 파악되었다.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분야는 공연예술 분야로 총 123개로 전체의 44.89%에 해당하였으며, 총 인원은 1,696명으로 58.04%의 비율을 차지하였다. 동호회 수, 총 인원 모두 공연예술, 시각예술, 문학, 기타 순으로 나타났다. 대전시 생활문화동호회 현황은 동호인

들이 함께 모여 악기를 배우고 연주할 수 있는 공연예술 분야의 비중이 높으며, 이는 공연예술 분야의 진입장벽이 비교적 낮고 수요층이 다양하고 폭넓은 장르적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1) 공연예술 분야

〈표 4〉 대전시 생활문화 공공 동호회 공연예술 현황

구 분		무용	국악	대중음악, 세미클래식	합창, 클래식	연극	계
공연 예술분야 현황	동호회 수(개)	20	36	39	16	12	123
	총 인원(명)	414	515	510	174	83	1,696

공연예술 분야의 공공 분야는 국악과 세미클래식 분야의 동호회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무용 부문은 댄스스포츠, 발리댄스 등 레저를 겸한 동호회가 평생학습센터를 중심으로 활발히 활동 중이며,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사교댄스 동호회가 많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국악 분야는 풍물단이 주를 이루었으나, 해금과 가야금 등 기악 중심으로 다양화 되는 추세이다. 음악 분야는 우쿠렐레와 오카리나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그밖에 색소폰, 기타, 하모니카 등도 인기를 얻고 있다. 연극 분야는 동화 구연이나 인형극 등 어린이를 대상으로 봉사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동호회들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2) 문학 분야

문학 분야는 거의 대부분 독서회로 구성되어 있다. 대부분의 독서회는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지만, 문학 장르만으로 국한되지 않고 사회과학이나 인문학을 폭넓게 다루면서 참여자의 토론 중심인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5〉 대전시 생활문화 공공 동호회 문학 현황

구 분		낭송/창작	독서회	계
문학분야 현황	동호회 수(개)	8	33	41
	총 인원(명)	80	169	249

(3) 시각예술 분야

시각예술 분야는 서양화, 한국화, 서예, 디자인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으며, 켈트 등 생활 공예를 소재로 모이는 동호회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표 6〉 대전시 생활문화 공공 동호회 시각예술 현황

구 분		회화	서예	디자인, 캘리	공예	계
시각예술 분야현황	동호회 수(개)	16	8	8	16	48
	총 인원(명)	161	118	79	147	505

4) 기타

기타 분야로 전문적으로 토론에 집중하는 디베이트 모임, 전래놀이 모임, 역사탐방 등 다양한 분야의 생활문화 동호회들이 활동 하고 있다.

〈표 7〉 대전시 생활문화 공공 동호회 기타 현황

구 분		기타	계
기타 분야 현황	동호회 수(개)	20	20
	총 인원(명)	215	215

3) 대전시 생활문화 지원사업 현황

(1) 생활문화 지원사업 현황

2017년 노인 및 아동, 청소년들에게 공연을 관람할 수 있도록 티켓 값

을 지원하는 사랑티켓 사업, 문화를 통해 마을의 공동체를 회복하고 예술을 통해 더불어 사는 동네를 만들기 위한 문화공동체사업, 합창을 통한 생활예술 활성화와 음악을 통해 지역 공동체 회복 및 음악도시로서의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한 대전마을합창축제 등은 모두 문화격차를 해소하는 문화복지의 개념에 기초한 생활문화 지원사업이다.

대전문화재단에서 진행하는 대전시민의 문화향유권 향상을 위한 사업은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이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 등 문화소외계층에게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는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은 문화누리카드 발급과 기획이벤트를 진행하여 2017년도 한 해 동안에는 총 52,913명의 시민에게 총 3,174,780천원을 지원하였다.

대전문화재단과 대전광역시 문화원연합회 주관으로,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문화예술, 시각예술, 공연예술, 생활문화일반 분야의 아마추어 문화예술단체에 각 100만원 ~ 250만원 지원하는 생활 속 예술활동지원사업이 진행되었다.

음악도시로서 대전의 도시 이미지를 구축하고 합창을 통해 생활예술 활성화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대통령상 전국합창경연대회 등은 대전시민의 질 높은 문화향유를 위한 사업을 진행하였다.

〈표 8〉 대전문화재단 생활문화 지원사업

(단위: 천원)

사업명	사업내용	예산
생활속에예술활동지원 ¹⁾	문화예술 동호회 활성화 및 시민 문화예술 활동 기회 제공	100
대전 마을합창단 운영	대전마을합창단 정기공연 활성화 및 운영 지원	378
통합문화이용권	문화누리카드사업(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	3,229
우리마을문화공동체 조성사업	주민주도의 예술공동체 형성 및 마을문화 환경조성	80
지역예술가공연 및 프리마켓	지역예술가공연 및 프리마켓 개설	150
대통령상전국합창경연대회	아마추어 합창단 예선 및 본선 경연	110

(2) 생활문화 주요사업별 현황

① 생활문화예술지원

사업추진배경은 생활 속에서 문화를 체감하고 스스로 즐기고 참여하는 생활밀착형 문화 프로그램 및 생활문화예술 활성화에 있다. 사업의 목적은 시민행복 증진을 위한 일상 속 생활문화예술 참여 기반을 마련하고, 예술가 중심의 문화향유에서 시민 주도의 생활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생활밀착형 문화프로그램을 활성화하는데 있다.

〈표 9〉 월별 생활문화예술지원 활동 건수 및 비율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2017 년	건수	1	1	3	3	10	15	13	16	24	34	36	23	179
	비율	1%	1%	2%	2%	6%	8%	7%	9%	13%	19%	20%	13%	100%

2017년 생활문화예술지원 사업의 총 179건으로 월별 현황을 보면 11월에 36건으로 가장 많이 진행되었으며, 10월과 12월에 각각 34건과 23건이 진행되어 주로 9월부터 12월 지원사업이 진행되었다.

〈표 10〉 지역구별 생활문화예술지원 활동 건수 및 비율

구 분	대덕구	동구	서구	유성구	중구	계	
2017년	빈도	8	8	51	18	35	120
	비율	4%	7%	43%	15%	29%	100%

2017년 지역구별 생활문화 활동 건수 및 비율을 보면 서구가 51건으로

1) 대전문화재단의 생활속예술활동지원사업은 2018년도부터 생활문화예술지원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됨.

지역구별 가장 많은 건수를 차지하였으며, 대덕구와 동구가 8건으로 가장 적은 건수를 차지하였다.

② 통합문화이용권

〈표 11〉 문화누리카드 발급 현황

구 분	대덕구	동구	서구	유성구	중구	계
발급 건 수	8,493	13,259	13,862	6,640	10,659	52,913

문화누리카드발급 건수는 서구 13,862건, 동구 13,259건으로 서구, 동구가 높은 건수를 차지하였으며, 중구 10,659건 대덕구 8,493건, 유성구 6,640건 순으로 나타났다. 대전광역시의 문화누리카드 발급 건수는 총 52,913매로 전국 1위이며 평균 발급률은 94.59%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표 12〉 문화누리카드 발급 대비 이용률

구 분	대덕구	동구	서구	유성구	중구	평 균
발급 대비 이용률(%)	94.17	91.28	90.79	89.35	92.97	91.71

반면 카드발급대비이용률은 대덕구가 94.1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중구 92.97%, 동구 91.28%, 서구 90.79%, 유성구 89.35% 순으로 나타났다.

전국 카드발급대비이용률은 90.69%이며 대전광역시 카드발급대비 이용률은 92.8%로 전국 5위를 차지하였다.

③ 우리마을문화공동체 조성사업

우리마을문화공동체 조성사업은 문화예술 활동을 매개로 마을공동체 문화 회복 및 지역의 변화를 유도하며, 지역 자원을 활용한 예술문화공동

체 형성으로 살기 좋은 문화마을을 조성하고자 실시하고 있다. 사업비는 총 8천만 원으로 공모를 통해 선정된 창작집단쟁이, 다:맘, 라비타엔뮤직 3개 단체에서 진행하였다. 창작집단쟁이는 7월부터 12월까지 <우리동네 예술아지트> 라는 주제로 가오동 작은극장 다함 일대에서 진행되었다. 다:맘은 <문화등대>를 주제로 대화동 다문화예술센터 일원에서 문화교육 및 마을축제를 진행하였다. 라비타엔뮤직은 <대화동에 불어오는 소소한 이야기>를 주제로 대화동 대화산업단지 일원에서 진행하였다.

〈표 13〉 대전문화재단 우리마을문화공동체 조성사업

연번	기간	축제/행사명	장소	주최/주관
1	07.14-12.03	2017 문화공동체 우리 동네 예술 아지트!	가오동 작은극장다함 일원	대전문화재단/창작집단쟁이
2	06.02-10.20	2017 문화공동체 대화동 문화등대	대화동 다문화예술센터 (동심1길) 일원	대전문화재단/다:맘
3	06.02-11.30	2017 문화공동체 대화동에 불어오는 소소한 이야기	대화동 대화산업단지 일원	대전문화재단/라비타엔뮤직

④ 지역예술가공연 및 프리마켓

지역예술가공연 및 프로마켓은 지역예술가들에게 활동 기반을 넓히고, 시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진행하였다. 사업예산은 15천만원으로 공모를 통해 지역예술가공연은 현대마임연구소 제스튀스와 도시여행자가 선정되었으며, 프리마켓은 (사)한국예총 대전광역시연합회가 선정되어 진행하였다.

〈표 14〉 대전문화재단 지역예술가공연 및 프리마켓

연번	기간	축제/행사명	장소	주최/주관
1	09.09-09.16	지역예술가공연 및 프리마켓<Artspace_노나다 노나다>	유성 유희공원	대전문화재단, 제스투스 현대마임연구소
2	09.23-09.24	지역예술가공연 및 프리마켓<Artspace_노나다 노나다>	공동 유희공원	대전문화재단, 제스투스 현대마임연구소
3	09.01	지역예술가공연 및 프리마켓<시티페스타>포럼	도시여행자, 문과방, 보수, 소소유랑극장	대전문화재단, 도시여행자
4	09.02	지역예술가공연 및 프리마켓<시티페스타>공연	옛 충남도청사	대전문화재단, 도시여행자
5	09.03			
6	09.09			
7	09.10			
8	09.14	지역예술가공연 및 프리마켓<시티페스타>영화상영	대전아트시네마	대전문화재단, 도시여행자
9	09.16	지역예술가공연 및 프리마켓<시티페스타>공연	옛 충남도청사	대전문화재단, 도시여행자
10	09.15-11.5	지역예술가공연 및 프리마켓 '체험하는 아트프리마켓'	대전예술가의집 아람광장	대전문화재단, 한국예총대전시자

⑤ 문화원 생활문화사업

〈표 15〉 대전시 문화원 생활문화 프로그램 (2017. 1. 1 기준)

시설명	주요 운영 프로그램
동 구 문화원	예절교육관운영, 어르신문화학교, 3.16인동장터만세운동, 전통성년식, 단오한미당축제, 감격시대, 우암문화제, 동구문화의밤, 전국시낭송대회
중 구 문화원	문화학교운영, 어르신문화프로그램, 문화원소식지발간, 문화탐방, 종구작가초대전, 향토시료집발간, 구제교류행사, 송년의밤, 보문산추곡음악이있는풍경, 뿌리백일장사생대회, 호국백일장및미술기대회, 보문미술대전, 토요문화마당, 단재 신재호 선생 헌화식, 우리동네 해피클래스, 문화기있는날, 정월대보름제, 생활속에술활동지원사업, 꿈다락토요문화학교, 문화원의날기념행사
서 구 문화원	문화강좌운영, 전통민속놀이육성, 갑천문화발간, 서구에술다운영, 충청샘머리백일장, 대한민국여성미술대전, 서구작가초대전, 가족과함께하는프로그램, 문화학교발표전시, 문화원특성화사업, 어린이토요강좌 및 교육관련 사업,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생활속에술활동지원사업 등
유 성 문화원	안산신성제, 온천수신제, 온천단오제, 서포문화제, 철화분청기획전, 전국청소년민속예술제, 달려라실버포장마차, 실버예술단, 토요탐험대, 문화답사, 전통민속문화시연, 정월대보름제
대 덕 문화원	민속보존마을행사, 생활문화공동체만들기,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꿈다락토요문화학교, 어르신문화프로그램, 김호연재여성문화축제, 동촌당문화제, 문화기죽문화탐방, 금강로하스축제, 대덕백일장, 계족산무제, 대덕미술초대전, 해맞이 행사 등

대전의 각 구별 문화원에서는 문화재단이나 지자체, 언론사 등과 공동으로 마을축제, 민속보존 행사, 문예대회 등 전통적으로 진행되어 오던 문화예술행사를 다양하게 기획 추진하였다. 중구문화원에서는 『대흥동 이야기』, 『선화동 이야기』 등 지역의 연혁과 정취를 다룬 책을 출간하였다.

4. 대전생활문화 정책 분석 및 과제

1) 생활문화 패러다임 변화 분석

(1) 주체적 참여 문화활동 증가

시민들의 주체적인 문화 활동의 증가원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문화예술교육정책사업의 확대, 문화여가 생활에 대한 관심 확대, 평생 교육의 문화프로그램 확대, 다양한 취향문화의 형성, 스마트 기술 및 미디어의 발전에 따른 프로슈머 확대 및 소통과 교류협력 활성화, 문화예술 커뮤니티 증가, 예술가와 지역주민이 함께 하는 커뮤니티아트 확대 등 다양한 사회문화적, 경제적, 기술적, 정책적 요인들로 인해 지역주민의 문화활동에 대한 트렌드가 변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욕구의 증가에 작용하고 있다.

지역주민 문화 활동공간의 다양화 작은 도서관, 카페, 동네 문화사랑방, 마을극장, 주민자치센터, 마을 공동체시설, 구민회관, 지역 유희 공간 등 소규모의 커뮤니티 공간 확대. 생활권 단위의 소규모 공간이 문화공간으로 활용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지역주민들의 문화 활동 참여 및 체험 방식이 다양화되고 있는 흐름과 연관되어 있다.

(2) 문화 활동 영역의 다양화

적극적 문화 활동 추구형 시민들은 기존의 순수예술 및 전문예술 장르

분야 외에도 문화산업, 생활문화, 전통문화, 축제, 문화이슈 등 다양한 취향에 바탕을 둔 문화 활동을 추구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다양한 유형의 하위문화가 나타나면서 문화동호회, 문화커뮤니티 활동 등 자발적 문화집단 또한 늘어나고 있다. 아마추어 예술과 전문예술의 엄격한 구분보다는 상호 연계에 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그리고 우리문화마을 조성에 관한 관심이 확대되면서, 마을 주민들이 지역의 문화적 특성을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문화 활동(공동체)에 참여하는 경향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마을의 역사와 문화자원, 생활양식이 문화 창조 활동의 중요한 기반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것은 기존에 문화 복지 맥락에서 수동적인 대상 집단으로 분류되었던 소외된 지역의 마을 주민들이 새롭게 문화 창조자로 대두되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3) 스마트 미디어 기반 생활문화 확대를 통해 지원과 홍보 협력

스마트 미디어, 소셜미디어가 지역주민들의 문화 활동 플랫폼으로 그 위상이 확대되고 있다. 생활 문화에 참여하는 동호인들의 소셜 미디어는 지자체 차원에서도 문화 수용자의 실태를 파악하고 정책을 수립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용자들의 스마트미디어 문화 커뮤니티 활동에 대한 참여가 용이해지고 있으며, 그 결과 이용자 구조가 다양해질 수 있기에 스마트 미디어를 이용하여 지역 주민 및 동호회 활동을 하는 문화 동호인들에게 홍보의 효과 및 동호인들 간의 문화교류 또한 주선 할 수 있을 것이다.

2) 생활문화정책의 방향

생활문화정책은 모든 국민이 문화 활동에 참여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것과 연관되어 있어 모든 국민이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

는 문화권에 관한 논의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생활 문화정책은 누구나 일상생활에서 문화생활에 참여하여 문화 향유 및 문화 창조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문화가 있는 삶'의 환경을 조성하고, 문화의 가치와 효용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중요한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다.

또한 생활문화는 개념, 실태, 수요조사에서 일관되게 나타나듯이 지역 문화와 연관되어 있다. 생활문화가 획일적인 모델 보다는 지역적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이러한 점에서 생활문화는 우리나라 문화의 구조적 문제점이 중앙 집중 현상, 즉, 서울에서 생산된 문화를 지방에서 일방적으로 소비하는 생산과 소비의 종속현상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생활문화의 가치는 기존의 문화예술 활동과는 달리 개인적·정서적 활동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 활동, 지역사회와 연계한 활동을 통하여 문화의 핵심 숙성인 공유와 학습, 전승 및 새로운 양식과 전승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1) 생활문화 활동 공간의 조성

대전시민은 현재 생활문화공간과 시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지만, 한편으로 지속적인 생활문화공간의 확충과 시설개선, 장비지원 등의 필요성을 높게 제기하고 있다. 생활문화 활동의 확산과 지속성을 생각할 때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대전 시민의 생활문화예술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입지적 불리함을 문화적 개입을 통한 근린 거주민들의 노력으로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문화구역 즉 생활권의 특성들의 분석을 통해 지역밀착형 커뮤니티센터가 가능한 적정 공간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경제성이나 타당성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생활문화공간을 새롭게 건립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쉬운 일은 아니다.

이러한 현실을 기반으로 생활문화 활동공간의 조성은 첫째, 현재 생활 문화 활동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설의 공간, 생활문화 활동의 적합성

및 편의성에 대해 일차적인 진단을 통해 기존 시설의 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둘째, 현재 옛 충남도청 건물 및 대전 예술가의집을 생활문화센터로 조성하여 생활문화 공간으로서 제공할 필요가 있다.

사업의 핵심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문화예술 동호회 활동이나 문화예술 창작 활동 등 생활문화예술의 기회 및 이것이 가능한 장(場)을 제공하여 '문화민주주의'의 거점을 만드는 것에 힘을 쏟는 것에 둔다는 것이다. 즉 생활문화예술 공간으로서의 복합커뮤니티센터는 이용자의 확대를 통해 교류의 공간으로 작용하고 따라서 지역공동체에 대한 소속감과 유대감을 강화시키는데 기능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2) 생활문화 매개인력 육성

주민이 생활문화를 향유하고 활동하기 위해서는 계기를 마련하는 촉진자, 매개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생활문화예술, 기술과 교류에 재미 있고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는 활동을 지원 하는 강사, 지원자(기획자)의 역할이 중요하며, 이들의 역량에 따라서 활동의 참여와 지속성에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대전에서는 생활문화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전문 인력지원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전문 인력 발굴과 지원은 대전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예술인, 출향예술인 또는 생활예술인으로서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는 사람 중 지원자를 발굴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 특히 대전 내에서 배출되고 있는 예술관련 대학 졸업생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공부해온 예술을 포기하거나 또는 수도권으로 지역 내 예술가들이 유출되는 것을 막고 대전지역 내에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청년 생활문화 매개자 양성 및 지원 사업 추진도 필요할 것이다.

생활문화강사와 함께 생활문화기획자 또한 지원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생활문화기획자는 주민의 문화적 역량을 발견하여 이를 창조적 생산

적으로 발현될 수 있도록 연계시켜주는 사람으로서 '지역사회와 연계된 특화 프로그램의 개발과 활동 지원'과도 연계시킬 수 있다.

(3) 생활문화 활동의 홍보와 공유

생활문화 활동의 활성화와 도민들의 '자발적인 생활문화 활동을 위해서는 다양한 정보제공과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생활문화 활동 활성화를 위한 홍보단계는 활동 시작 전, 활동 중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활동 시작 전, 주민들의 생활문화 활동 참여 계기는 개인의 관심 또는 친분관계에 소개로 시작되었고, 정책 홍보 등을 통한 비율은 매우 낮은 상태이다.

한편, 활동 중인 주민들 대상으로 활동 활성화를 위한 개선사항과 정책의 중요도에 있어서 '자발적 생활문화 활동을 위한 정보제공과 홍보' 항목에 높은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따라서 대전시에서는 더 많은 시민들이 생활문화에 참여하고 향유할 수 있도록 현재 생활문화 정책과 추진사업에 대해 정리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

(4) 다양한 시범사업 발굴 및 동호회 육성

대전 생활문화 진흥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개인 주민 또는 특정 동호회가 아닌 '지역사회와 연계된 특화 프로그램 개발과 활동지원'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대전은 시범사업에 대한 공모와 평가, 지원 후 성과 분석을 통한 우수 사례의 발굴과 확산을 정책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시 차원에서 특화사업을 발굴하는 것보다는 다양한 창의적인 생활문화 프로그램을 지역에서 생각하게하고 생각할 수 있는 힘을 키워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대전 지역생활문화 특화 지원사업'은 공공의 지원을 통해 사업결과뿐만 아니라 사업과정에서 지역사회와 공동체의 활력을 부여하고 지역 특화에 기여했는지가 중심이 되어야 하며 사업의 선정과 평가에 기준이 되어야 한다.

생활문화 활성화의 중요한 척도로 동호회 활동은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 생활문화 활동에 자발적 참여, 교류 증가의 결과적 형태가 동호회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현재 대전지역 동호회는 대부분 배움, 친목 단계에 머물러 있다. 생활문화 활동에 대한 문화·사회·경제적 효과를 기하기 위해서는 친목에서, 숙련, 공헌의 단계로 발전할 때 가능하다. 따라서 현재 동호회 또는 클럽에 대한 네트워크 구축과 단계적인 육성 로드맵과 동호회 활동을 위하여 공간 조성 및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3) 대전 생활문화정책 우선과제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는 매우 포괄적이며, 다양하다. 결국 정책의사결정에서 중요한 것은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다. 일반적인 생활문화 활성화 방안보다 구체적인 지원을 위해 정책요인을 생활문화의 가장중요한 주체인 시민중심, 생활문화동호회의 자발성, 생활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일상성 등이 강조된 정책요인을 통해 우선순위를 산정하고 제시하고자 한다.

(1) 하드웨어 휴먼웨어 인프라구축

생활문화는 결국 문화예술교육에서 출발하고 이를 확산하기 위해서는 인프라 요인이 가장 중요하다. 정책개발요인, 연구개발 요인 순으로 산정되어 생활문화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하드웨어, 휴먼웨어 인프라 부문을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한다.

(2) 생활문화 인식개선

인식개선 부문은 주로 불특정 다수의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사회적 마케팅 즉, 분배정책의 일환이다. 인식개선이 생활문화 정책홍보, 보편적 복지로서의 생활문화정책, 생활문화 정책 아젠다 부각, 지자체 및 유관기

관의 관심 증진, 생활문화 정책의 대중화 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인식개선을 위해서는 생활문화정책, 생활문화활성화 세미나, 대중미디어와의 협력을 통한 지역생활문화축제 등의 방법론이 있다.

대전시에서 운영하는 대전평생학습진흥원 등 지역 교육과정 내 생활문화를 포함하는 정책에 대한 가능성을 타진할 수 있다. 문화예술교육은 문화적 감성과 문화적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삶속에서 문화의 가치를 인식하고, 지식을 습득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창조적이며, 풍요롭게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이러한 개념은 생활문화 개념의 특징에 기인하며, 생활문화의 교육과정 내 포함은 시의성과 당위성이 확보된 정책기조로 볼 수 있다.

(3) 생활문화 조례 제정

생활문화진흥 조례 제정은 행정부서 및 유관기관 간 서비스 전달체계, 지역문화진흥법 개정, 생활문화 관련 법령의 지원에 대한 논의, 생활문화 바꾸처 대상 확대 등에 직접적 영향을 줄 수 있다. 기존의 생활문화관련 조례는 문화기본법을 필두로 다양한 법안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대전지역에 필요한 생활문화진흥 조례의 필요성이 있으며 이에 따라 주로 정책과정의 과학화를 위한 과정이 비교적 잘 제시될 수 있어야 한다.

(4) 생활문화 예산확보 및 집행

예산집행은 예산확보 방안, 생활문화 정책 예산의 우선순위 화 방안, 생활문화 예산의 투명적 집행 방안 등의 범위로 설정할 수 있다.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에 따르면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 등의 구성정책이 조문으로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구성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재원조달에 대한 조문이 필수적이며, 이는 동법 제20조와 제22

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역문화진흥법은 기존의 선언적·권고적 성격의 법령에 비해 재원조달에 대한 조문이 비교적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이에 구체적인 재원조달을 위해 지역문화진흥법 개정 시 이를 규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이다.

(5) 생활문화 전문인력 확보

전문인력 양성은 생활문화의 효율적인 확산과 전이를 위한 생활문화 전문가 양성을 위한 범위로 설정할 수 있으며, 지역문화진흥법 제10조 지역문화 전문 인력의 양성을 근거로 접근할 수 있다.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교육과정 및 교재 개발, 자격과정 개선 등의 양성체계를 연구해야 할 것이다. 이 중 자격과정의 개선은 관련 강사와 교육활동에 초점을 둔 문화예술교육사 관련 자격사업 개선의 필요성이 도출된 것으로 생각된다. 생활문화를 매개로 지역주민과 community 형성 및 공유, 상호작용적 학습모델을 위해서는 기획, 참여유도, 협력모델 제시 등(정광렬, 2016)이 가능한 전문인력 양성이 필요하다.

(6) 생활문화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체계 확보

생활문화 프로그램 개발은 생활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사업을 의미한다. 생활문화 프로그램 개발, 대상별 생활문화 정책사업 프로그램 개발, 생활문화 대체 프로그램 개발, 대상별 생활문화 상담 프로그램 개발, 생활문화 프로그램 홍보방안 등의 범위로 설정할 수 있다. 이 중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적극적인 개입전략으로 생활문화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정책과정 중 정책분석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대안 즉 생활문화 대체 프로그램 개발이 중요하다. 이는 일반적으로 정책사업 프로그램 개발 시 동일한 프로그램을 개발·배포하는 것과는 달리 다양한 정책대안을 통해 문화의 다양성 및 확산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평가기준 개발은 프로그램의 질을 제고하고, 효율적인 관련 주관기관과 유관기관의 운영·서비스 전달체계를 평가하고, 대상자별 적용을 위해 필요한 정책이다. 평가기준 개발은 생활문화 정책사업 프로그램 평가기준 개발, 생활문화지표 개발, 생활문화 정책 평가자료 환류체계 개발, 생활문화 활성화 모형·매트릭스 개발, 생활문화운영기관 평가기준 개발, 생활문화 컨설팅 및 코디네이터 매뉴얼 개발 등의 범위로 설정할 수 있다.

5. 결론

현재 생활문화는 기존 예술장르 중심으로 활동하는 동호회 단위로 주요 논의와 사업들이 구성, 추진되고 있다. 이는 정책 수립과 사업 추진의 실질적 측면에서 생활문화동호회는 효용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한 생활문화동호회는 자발적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있고, 욕구가 높으며 구체적 지원 단위를 형성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논의에서는 일상의 생활문화는 동호회 외 개인, 가족 등 다양한 참여자 층을 구성하고 있는데 동호회 지원으로만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현재 동호회 주요 활동층은 중장년층으로 청년층의 참여 확대가 필요한 상황에 부합되지 않으며, 예술장르에 따라 활동에 대한 진입장벽이 높기 때문이다. 또한 생활문화 활동을 위한 여가시간 확보와 비용발생에 따른 재정 부담 등 여러 제약이 발생하기 때문에 특정계층에 국한되어 보편적 문화활동이라는 생활문화의 가치를 충족할 수 없다.

기타, 색소폰, 오카리나 등의 음악, 수채화, 유화, 공예, 사진 등의 전시, 전통무용, 스포츠/방송 댄스 등의 무용, 연극 등은 현재 생활문화 활동의 주요 활동으로 볼 수 있다. 이 외 시민들의 일상 속 생활문화 활동은 무척

이나 다양하다. 또한 레고, 피규어, 프라모델 수집 등 매우 다양하며 날로 확산 중이다.

생활문화는 문화예술교육으로부터 시작된다.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기량을 습득하고, 연습하는 과정을 통해 심화되고, 공연이나 전시 등의 발표를 통해 그 즐거움을 얻는 과정을 경험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생활문화와 문화예술교육의 긴밀한 협력과 연계가 반드시 필요하다.

대전 생활문화정책 우선과제로 하드웨어 휴먼웨어 인프라구축, 생활문화 인식개선, 생활문화 유관법안 제정, 생활문화 예산확보 및 집행, 생활문화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체계 확보, 문화 전문인력 확보 등 6개과제가 도출되었다.

문화기반시설은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기량을 습득, 향상시켜 생활문화 향유의 기초를 담당하고 있으며 생활문화동호회 형성은 이 과정에서 가능하다. 동호회들이 지역의 주요한 문화자원으로 지역문화발전과 지역민들과 활동을 공유하는 상호 협력 및 지속적 재교육은 문화재단이 담당하게 하고 제도적 기반 및 재원은 대전시가 담당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대전시 생활문화동호회 현황과 대전문화재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생활문화지원사업 현황에 대한 기초자료를 토대로 분석하여 대전시 생활문화 정책의 우선과제를 도출되었다. 그러나 별도의 사전조사와 설문조사를 병행한 통계자료를 확보되지 못한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향후 연구에서 방법론적 가치를 보완하고, 이를 통해 좀 더 객관적인 정책과제를 제시한다면 실질적인 정책과제로서 효과를 거둘 것이다.

■ 참고문헌

- 강윤주 외(2012). 생활예술 지원정책방안 연구. 경희사이버대학교 연구지원팀 정책보고서.
- 강윤주, 전수환, 심보선, 강은경(2012). 생활예술 지원정책방안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 고성영 외(2013). 성남시 생활예술공동체 네트워크 확산을 위한 중장기 발전계획 연구. 성남문화재단 정책연구보고서.
- 김기봉(2016). 생활문화와 생활예술의 개념 분석. 문화예술지식DB 문화돋보기.
- 민경숙(2016). 생활문화 참여 노인 봉사자의 사회적 실천 의미. 추계예술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명희(2003). 한국의 생활문화: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경기: 교문사.
- 박상언(2017). 이성정부에서 감성정부로. 이음스토리.
- 박철희 외(2017). 충청남도 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방안. 충남연구원 전략연구 보고서.
- 용호성(2012). 문화정책 맥락에서의 커뮤니티 아트. 미술세계.
- 양혜원(2014). 생활 속 문화예술, '사치' 아닌 '잃어버린 일상의 회복'. 「월간 나라경제」, 3월호. 한국개발연구원.
- 유지연(2018). 생활문화공간조성을 통해 본 생활문화정책의 현황과 과제: 생활문화센터를 중심으로. 융합사회와 공공정책, 12(2), 105-142.
- 이윤정(2016). 생활문화를 위한 사유(思惟). 새누리 비전, 42, 132-133.
- 이윤정(2019)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정부 지원정책의 우선순위 탐색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장섭(1993). 전통생활문화 실태조사 조사시안 연구 의식주 문화를 중심으로. 문화정책논총, 5, 171-219.
- 이태중(2003). 지역 문화정책의 분석과 추진과제 관광과 연계 관점.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3(4), 247-274.

- 이성은(2017). 대전지역 생활문화예술 활성화 정책 연구. 한남대학교 사회문화·행
정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희성(2018). 대전문화정책토론회 발제문. 대전시문화원연합회.
- 장현섭(1997). 생활문화와 문화복지. 한국문화정책연구원(편), 문화정책 연구의
새로운 전망, (507-519), 서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전병태(2014).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문화자원봉사자 활동 지원방안 보고서.
- 전병태(2014).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문화자원봉사자 활동 지원 방안」, 한국문
화관광연구원.
- 전수환(2011). 영국의 VAN을 소개합니다. 플랫폼.
- 정광렬(2006). 문화기본법제정을 위한 법제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 정영숙(1991). 생활문화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방안 연구.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문
화발전연구소.
- 주영애(2012). 전통생활문화교육에 대한 인식과 실행.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0(3), 193-208.
- 한상헌(2017). 대전 생활문화향유 동호회 현황 및 정책 시사점 연구. 대전세종연구
원 기본과제 보고서.
- 경기문화재단·성남문화재단·지역문화진흥원(2018). '생활문화 삶의 안녕을 묻다'
자료집.
- 대전세종발전연구원(2018). 대전문화예술 중장기 기본계획
- 부산문화재단(2017). 문재인 정부 문화정책과 생활문화 대 토론회 자료집.
- 성남문화재단 (2009). 성남문화재단 5대 정책 2단계 5개년 발전계획 연구 보고서.
- Arts Council of Northern Ireland(2007). Art form and specialist areapolicy
2007-2012. Belfast: Voluntary Arts. Delbecq.
- Wali,A.,Severson, R.,&Longoni, M.(2002). Informal arts: Findingcohesion,
capacity and other cultural benefits in unexpected places.
Chicago: Chicago Center for Arts Policy at Columbia
College.89-93.

■ 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대전시의 생활문화동호회 현황과 문화시설현황을 분석하고, 대전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생활문화지원사업을 토대로 대전시 생활문화 실태파악을 통해 정책요인을 도출하고 생활문화 우선 정책과제를 산정하는데 있다. 먼저 대전시 생활문화 진단을 위해 대전시의 생활문화의 유·무형의 인프라와 지원사업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기초자료를 체계화하여 도출된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정책요인들에 대한 우선순위를 지역상황에 맞게 정리하였다. 본 연구는 기대효과는 첫째, 대전시 생활문화 우선정책의 당위성 및 시의성을 제시할 수 있다. 둘째, 대전생활문화 정책기조 및 정책사업을 위한 세부적인 영역 구분이 가능한계층이 구조화된다. 이러한 세부적인 영역 구분을 통해 구체적인 정책대안 개발이 가능하며, 정책의 실현에 용이하다. 대전 생활문화정책 우선과제로 하드웨어 휴먼웨어 인프라구축, 생활문화 인식개선, 생활문화 유관법안 제정, 생활문화 예산확보 및 집행, 생활문화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체계 확보, 문화 전문인력 확보 등 6개과제가 도출되었다. 또한 문화기반시설은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기량을 습득, 향상시켜 생활문화 향유의 기초를 담당하여 동호회 형성은 이 과정에서 가능하다. 동호화들이 지역의 주요한 문화자원으로 지역문화발전과 지역민들과 활동을 공유하는 상호 협력 및 지속적 재교육은 문화재단이 담당하게 하고 제도적 기반 및 재원은 지자체가 담당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주제어 ● 생활문화, 생활문화동호회, 생활문화정책, 문화기반시설

■ Abstract

A Study on the culture-into-life Status Analysis and Policy Tasks

Lee, Hee Sung

In order to revitalize the culture-into-life, we analyzed the status of the life culture club and cultural facilities in Daejeon. Based on the life culture support project operated by the Daejeon Cultural Foundation, it is to derive the policy factors and to determine the priority of the life culture policy through grasping the actual condition of culture-into-life in Daejeon. First, Daejeon collected data on tangible and intangible infrastructure and supporting projects of culture-into-life. The collected basic data was organized to prioritize the policy factors for revitalizing culture-into-life. The expected effec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justification and timeliness of the priority policy of culture-into-life in Daejeon can be presented. Second, the hierarchical structure that can distinguish the detailed areas for Daejeon Life Culture policy stance and policy project is structured. By dividing these detailed areas, it is possible to develop concrete policy alternatives and to facilitate policy implementation. As a priority for Daejeon's life culture policy, there are six tasks: building hardware human ware infrastructure, improving life culture awareness, enacting relevant laws for culture-into-life, securing and executing culture-into-life budgets, developing and evaluating a living life culture program, and securing cultural experts. Derived. In addition, cultural infrastructures can acquire and improve skills through

educational programs, and serve as the basis for enjoyment of culture-into-life. The cultural foundations are responsible for mutual cooperation and continuous re-education, in which clubs share local cultural development and activities with local people as the main cultural resources of the region.

Keyword ● culture-into-life, culture-into-life Club, culture-into-life Policy

■ 논문투고일 : 2020. 10. 27. ■ 심사완료일 : 2020. 11. 13 ■ 게재확정일 : 2020. 11. 20

1950년대 대전의 시문학 연구:

초창기 <호서문학>을 중심으로

한 상 철*

목차

1. 들어가며
2. <호서문학>의 창간과 전쟁기의 문학
3. <호서문학> 3호와 대전 문학의 전환
4. 나오며

1. 들어가며

1952년 대전에서 발행된 『호서문학(湖西文學)』 1집과 이후 1950년대를 관통하며 산통(産痛) 끝에 이루어진 세 차례의 후속 발간 작업은 초기 대전 문학사를 규명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변곡점을 이룬다.¹⁾ 다만 1950년대에

* 목원대학교 교수

- 1) 1952년 9월 1일에 간행된 『호서문학』 1집을 시작으로 1954년 2월 2집, 1956년 6월 3집, 1959년 2월 4집이 2~3년 터울로 발행되었다. 다만 이 텍스트 중 현재까지도 『호서문학』 2호가 실물로 확인되지 않고 있음은 아쉬운 대목이 아닐 수 없다. 2012년 잡지 창간 60주년을 기념하여 발간된 『호서문학 60년사』에서 당시 호서문학회 성립에 얽힌 개략적인 전후 사정과 편집 시기까지 발간된 잡지의 총목차를 확인할 수 있다. 호서문학회 편, 『호서문학 60년사』, 호서문학회, 2012. 더불어 1950년대 발간된 초창기 『호서문학』의 기본적인 서지에 대해서는 아래의 성과를 참조할 수 있다. 김현정, 「1950년

간행된 잡지를 거슬러 오르며, 작품을 읽어나가는 일은 간단치 않은 품을 요구한다. 조악한 활자 상태는 물론이고 제법 시간이 흐른 오늘에 와서는 명확하게 실체를 확인하기 어려운 낯선 저자들과 마주치거나, 앞뒤 문맥이 절단된 당시 사건의 정황을 유추하는 일이 다반사다. 그렇지만 반세기 전의 문인들이 남겨놓은 시와 산문에는 당시의 시대상이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다. 그 만물상 안에 버무려진 복합적인 세계인식은 전쟁이라는 혹독한 시절을 살아낸 결과일 것이다.

이런 맥락을 두루 전제하면서, 1950년대에 대전 지역에서 발행된 『호서문학』의 주요 시편과 산문을 읽어가며, 대전 문학의 성립에 얽힌 전후 사정을 보다 입체적으로 살피려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관련하여 최근 대전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일군의 신진 연구자들이 해방 전후에서 한국전쟁으로 이어지는 전환기에 대전과 충남의 문학이 거처온 길을 실증적으로 복구하고, 그 토대 위에서 문화사적인 의미와 접목된 결과물을 도출해내고 있음은 고무적인 일이다. 그동안 확인되지 못했던 『호서문학』 1집을 발굴되면서, 그 내용을 학술적인 검토 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것도 이러한 흐름의 연장선이다.

이어지는 본문에서는 1952년 8월에 발간된 『호서문학』 1집과 1956년에 2월에 나온 『호서문학』 3집에 실린 시 작품을 중심으로, 전쟁 이후 4년 남짓한 시간 동안 '신흥 도시' 대전의 문학장에서 일어난 변화의 조짐들을 살피고, 그 안에 담긴 의미를 구체적으로 짚어보게 될 것이다.

2. <호서문학>의 창간과 전쟁기의 문학

전쟁의 와중에 이루어진 문예지의 창간은 즉흥적인 아이디어만으로 일

대 대전 시문학의 양상」, 『망각의 로컬리티-대전-충남 문인들의 삶과 예술』, 도서출판 심지, 2018. 122~125쪽.

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따라서 식민 체제에서 벗어난 이후 대전 문학의 출발점으로 여러 차례 호명된 문학 잡지들, 『향토』와 『동백』은 물론 진보적 지식인들이 다수 참여한 문예지 『현대』와 『신성』까지를 아우르는, 초기 대전 문학장의 구성을 전제하지 않고는 『호서문학』 창간의 의미를 직시하기 어렵다. 이런 맥락에서 1951년 11월 11일, 대전의 한 다방에 모인 정훈, 홍성규, 한성기, 박용래, 권선근 등 50여 문인들이 일궈낸 ‘호서문학회’의 창립은 50년대 문학의 출발을 알리는 사건이었다. 그 회합(會合)의 소중한 결실에 해당할 『호서문학』 1집에는 해방 이후 이어져 온 대전 지역 문학운동의 우여곡절이 새겨져 있다.²⁾

1952년 9월 1일, 30쪽 분량으로 간행된 『호서문학』 1집은 편집진 중 한 명이었던 원영한의 말처럼, “편집 교정에 실수가 많아 부끄럽기 짝이 없”³⁾는 상태인 채로 세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하지만 열악한 상황이었음에도 시 부분의 경우, 다른 분야에 견주어 상대적으로 규모를 갖추고 있었다. 창간호에 실려 있는 시작품은 10편이며, 그 서지 사항은 다음과 같다.⁴⁾

시	시조 및 동시
정 훈, 비절(悲絶), 창(窓) 홍성규, 생명(生命)	남준우(시조), 제주풍경 강소천, 소라

2) 『호서문학』 창간 당시의 사정에 대해서는 송석홍·신정식, 「호서문학회소사」, 『호서문학 60년사』, 호서문학회, 2012, 41쪽을 참조할 수 있다. 이 글은 애초 1974년에 발표된 글로 60년사 편찬 과정에서 재수목된 것이다. 이와 함께 『호서문학』 1집을 학술적으로 검토한 성과로는 김현정, 「1950년대 전반 대전문학 연구-호서문학 창간호를 중심으로」, 『문학장과 로컬 히스토리』, 도서출판 심지, 2015. 참조.

3) 원영한, 「편집여백-부기」, 『호서문학』 1집, 1952. 9. 1. 30쪽.

4) 1집의 경우, 『호서문학 60년사』에 정리된 총목차와 실제 원본을 대조한 결과 일부 오류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총목차에는 홍성규의 작품 「생명」이 누락되어 있고, 남준우의 작품 「제주풍경」에는 시조 표기가 빠져 있다. 이와 별도로 전쟁 이전에 『동방신문』 5월호에 발표된 바 있는 박용래의 작품 「물오라…」는 본문 내 평론 속에 인용되어 있어 목차에서는 제외했다.

한성기, 애정(愛情) 1	동 곡, 시조
한영진, 오월단장(五月斷章)	
임강빈, 산과(山果)	
김소정, 초봄	

시 작품의 면면(面)을 살피면, 상대적으로 적은 편수에도 불구하고 『호서문학』 이 대전 문인들은 물론 충청 지역의 문인들까지 아우르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미 문명(文名)을 얻고 있었으며 문학회 창립에 주도적 역할을 했던 정훈의 시를 시작으로, 이후 한국 시단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자리할 한성기, 임강빈 시인의 등단 이전 작품과 만날 수 있다. 이와 함께 목차에 실린 작품과 별개로 전쟁이 발발하기 직전 박용래 시인이 『동방신문』 5월호에 발표한 작품 「물오리에…」가 원영한의 「詩에 부치는 글- [물오리에…] 를 읽고서」에 재수록 형태로 실려 있어 관심을 끈다. 문우(文友)의 정성스러운 감상과 함께 접하는 젊은 시절 용아의 소품은 1950년대 초반 시인의 면모와 문단 내 위상을 확인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임이 분명하다.⁵⁾

허망한 태허(太虛)다

휘- 휘- 미쳐 나르는 사(思)모의 새 (중략)

한 있는 힘은 견딜 길이 없어

5) 『호서문학』 1집에 재수록된 박용래의 시 「물오리에…」 전문을 옮겨 둔다. “긴돌다리 물이 흐른다 물오리아 산/ 그림자 움짓 안하는 물오리아 진주구/ 슬 꿈을 꾸느냐 모래밭에 목떼미를 묻는/ 꿈을 꾸느냐 바다의 자개마양 마음의/ 문 닫았느냐 말 못하는 것아 / 정지하고 있는 것 그것은 좋은 것인지/ 가을구름처럼 침상(沈想)하는 것아 하얀 낮/ 달빛이 살구나무 숲을 거닐고 있다/ 그러나 하늘의 푸르름이 몸에 배도/ 톱 외로움이 흐르느냐/ 오월 햇빛은 풀바다마양쓰다지고 멀리/ 들끝을 돌돌굴러가는 오후의 열차 -/ 아- 물오리 깊은 꿈에 잠기어 침상(沈想)하는/ 새

특 땅 위에도 떨어져

목줄기 선지가 맺이고
신경(神經)이 찢어지게 아퍼

그래도 본능(本能)인 것처럼
치치치치—
체구를 끄서 본다 (중략)

이 무슨 잔인(殘忍)한 생태(生態)냐
보기 싫은 몸짓이나

아하 슬픈 새 백조(白鳥)야
오늘도 네는 병(病)처럼 내일(來日)을 기다리지
-정훈, 「비절(悲絶)」 전문

시조와 동시까지 아우르는 다양한 장르 구성을 갖추고 있던 1집의 시편 중 먼저 관심을 끄는 대상은, “파괴(破壞)와 출혈(出血)과 기아(飢餓)와 우수(憂愁)” 속에서 “그래도 한번 우리 기운을 내보자”라는 ‘창간사’로 잡지의 포문을 연 정훈 시인의 두 작품이다. 해방 이후 대전 문학장에서 지냈던 선배 시인으로서의 위상이 일정하게 반영된 결과이겠으나, 도전 정신을 내비친 창간사의 어조와 달리 그의 작품 「비절(悲絶)」과 「창(窓)」은 창간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에 시인이 어떤 방식으로 감응(感應)하고 있었는지 엿볼 수 있는 작품이다.

인용한 「비절」의 경우, “슬픈 새 백조(白鳥)”에 대한 시적 화자의 동일시를 빼대 삼아 이루어지는 작품의 분위기는 불안한 일상이 전면화되어 있던 잡지 발간 당시의 현실을 상기시킨다. 날아갈 힘을 잃어버린 채, 땅바닥에

끌리는 '백조'의 힘겨운 몸짓에 대한 시적 화자의 감응이야말로 전쟁을 견디며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도시 속 비루한 군상들의 이미지와 겹치기 때문이다. 이처럼 다소 직설적이기까지 한 불안과 두려움의 정서는 같이 실린 소품 「창(窓)」에서도 큰 변화 없이 이어진다. 가령 시인의 눈앞에 자리한 '창(窓)'을 채우고 있는 것은 몽울진 '뭇 슬픔'과 '그리움의 화신'들이며, 그것을 바라보는 시적 화자의 '밤'은 "말곳 말곳/ 뜬 눈으로 세"워지는 불면과 고통의 시간으로 가득 채워진 채로 멈춰 있다.

엄격한 눈으로 살핀다면 두 편 모두 다소 험거운 구성과 묘사로 인해 정제되지 못한 느낌을 주는 것도 사실이다. 정훈 시인이 이미 보여줬던 시적 기량에 빗대 평가절하할 수도 있는 대목이다. 하지만 시적 화자가 느끼는 '내일(來日)'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단지 관념에 머물기보다는 현실에 대한 반응에 가깝다는 사정을 염두에 둔다면, '백조'에 겹치는 화자의 '세계감'을 작품의 형식적 측면에 기대 부정적으로만 재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런 맥락에서 두 행으로 구성된 마지막 연은 이 시의 백미에 해당한다. "오늘도 네는 병(病)처럼 내일(來日)을 기다리지"라는 시적 화자의 독백을 통해 '내일'의 의미를 '병(病)'과 접맥시키는 방식은, 시의 첫머리에서 '허망한 태허(太虛)'로 표상된 시적 화자의 아노미 상태가 해소될 마지막 기회마저도 차단하고 있다. 이처럼 출구마저 봉쇄해버리는 전개 방식은 작품에 흐르는 정서를 극단적인 허무와 슬픔으로 이끌어, 당대의 현실과 삶이 시인에게 아로새긴 상처를 고스란히 경험케 만든다.

가) 봄이 하루 더디 가던 날 어린 것들 하고
房 안에서 덩굴며 와 와 와아아.....
마주 떠다 밀기 하고 서로 간질을 피기하다

문득 먼 날 昌慶苑에서 본
어미곰하고 새끼곰이 희롱하든 날의

元始의 愛情을 내게서 느껴 보는 것이었다

-한성기, 「애정(愛情)1」, 전문

나) 햇살 안으로만

스며드는 아름다움이 있다

꽃

산과가 그늘에서 익는다

이것이

참말이라면—

스스로

그 형해(形骸)를 땅에 눕혀본다

산새가

햇살을 부시며 날개를 친다

-임강빈, 「산과(山果)」, 전문

인용한 두 시인의 작품은 앞서 살핀 정훈의 작품과 다른 결을 보여주고 있어 흥미롭다. 아직 문단 추천이 완료되지 않은 시점에서 발표된 작품이지 만⁶⁾, 간결하면서도 단단한 짜임새와 군더더기 없이 정돈된 언어 감각을 선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각 시인의 역량을 미리 확인하는 기회가 된다. 먼저 아이들과 보내는 봄날 한나절을 스케치하듯 붙잡아놓은 한성기 시인의 작

6) 한성기 시인은 1952년 『문예』로 2회 추천을 받았으나, 잡지가 폐간된 탓에 1955년 『현대문학』으로 추천 과정을 마무리하게 된다. 임강빈 시인 역시 한 해 뒤인 1956년 『현대문학』 추천으로 등단 과정을 완료했다.

품 가)는 “창경원에서 본/ 어미곰하고 새끼곰이 희롱”하던 장면과 “어린것 들 하고/ 房 안에서 덩굴며 와야”하는 시적 화자의 모습을 병렬시킴으로써, “원시(元始)의 애정(愛情)”이 현현하는 순간을 인상적으로 붙잡아 내고 있다. 단순하되 선명한 두 이미지가 포개지면서 화목한 가족에게 부여될 수 있는 감정의 한 실체를 자연스럽게 따라가게 만든다.

반면 가)와는 전혀 다른 대상을 묘사하고 있지만, 임강빈 시인이 그려낸 ‘산과(山果)’에서도 시 속의 대상을 둘러싸고 있는 감정은 부정이나 두려움, 혹은 대립이기보다는 하나의 중심으로 조화롭게 모여드는 연민과 사랑에 가깝다. 소박한 정경(情景) 속에서 ‘햇살’, ‘달 익은 ‘산과’, ‘땅’, ‘산새’로 이어지는 표상의 이동을 압축적으로 제시하는 간결한 구성 방식을 취하고 있지만,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세계에 대한 시인의 인식은 단순하지 않다. 외려 작고 약한 생명들이 조화롭게 어울려 하나의 세계로 모여드는 모습을 담담한 어조로 형상화함으로써, 서정의 영역을 시적 화자의 내부로 함몰시키지 않는다는 점에서 서정의 의미 확장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작품이기도 하다.

3. <호서문학> 3호와 대전 문학의 전환

1956년 2월 발간된 『호서문학』 3집은 192쪽에 이르는 분량이나 한층 광범위해진 문인들의 참여도 등에서 앞선 시기에 비해 지양된 면모를 보인다. 이러한 사정은 한국 사회 전반의 물리적 조건이 개선됨에 따른 결과이기도 하지만, 잡지 발간에 참여한 문인들의 위상과 그들을 둘러싼 문화적 환경이 자리 잡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같은 맥락에서 간과할 수 없는 당시 문단의 외적 조건은, 창간호 이후 2년 터울로 간행된 2집과 3집 발간을 전후하여 등단파와 비등단파 사이에 문단 추천 제도를 둘러싼 ‘인정 투쟁’이 벌어지게 된 사정이다.⁷⁾ 그 결과가 대

전의 문인 공동체 내부에 긴 파열음을 일으켰다는 증언은 여러 장면에서 확인된다. 그럼에도 수록된 작품의 규모나 내용을 볼 때, 『호서문학』 3집은 50년대 대전 문학에서 하나의 전환점으로 평가받기에 부족함이 없다. 잡지에 실린 전체 시 작품의 목록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⁸⁾

시	시조	동인지 시
청 마, 낮달 김관식, 육성(肉聲)의 통곡 (痛哭)		김명배, 개(동인지 과수원)
설창수, 분황사탑(芬皇寺塔)		안명호, 碑(동인지 과수원)
김용호, 연(緣)		윤수병, 紅柿(동인지 맥)
정 훈, 조국정서(祖國靜菴)	최장자(시조), 춘정(春情)	고창환, 길(동인지 맥)
이재복, 문(門)	최승범(시조), 잔달래꽃	배병욱, 落葉(동인지 원)
성기원, 물망초(勿忘草)	전설(傳說)	최장자, 언덕(동인지 마래)
김강정, 다방(茶房)에서		이용호, 눈길(보문고교)
김대현, 어미(魚尾)		
박희선, 새벽		
오승균, 생명(生命)		
원영한, 상(像)		
이교탁, 서신(書信)		

- 7) 『호서문학』 2집과 3집의 간행이 순탄하게만 진행된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1954년부터 1956년 사이 문단 추천 제도에 대한 문인들 간의 갈등이 본격화되었기 때문이다. 관련하여 3집의 편집 방향에서 눈여겨볼 대목은 등단파로 분류되는 시인들의 작품이 대거 누락되었다는 점과, 편집진의 변화다. 『호서문학』 3집과 같은 해 문협 중심으로 『호서문단』이 창간되었다는 사실도 대전 문학장의 문인들이 등단파와 비등단파로 갈라진 현실을 보여주는 단적인 장면이다.
- 8) 3집의 경우에는 표지 뒤에 첨부된 목차와 본문의 실제 게재 순서가 일부 일치하지 않는다. 인용된 표에 정리한 작품 목록은 본문의 배치 순서를 기준으로 교정된 결과임을 밝힌다.

전여해, 너하나만위해		
김홍규, 오월(五月)		
홍 봉, 혈맥(血脈)		
황일순, 호심(湖心)		

위의 표에서 드러나듯 26편에 이르는 시 작품의 규모나 다양성은 1집과 비교할 때 분명하게 변별된다. 대략 세 부분으로 그 차이점을 정리해 볼 수 있겠다. 첫째, 전국적 지명도를 기성 시인들, 예컨대 유치환과 김관식의 시가 첫머리를 장식하게 되면서 작가군의 폭이 한층 넓어졌다는 사실이 확인된다.⁹⁾ 이러한 편성은 1집과 달리 원고 모집의 범위가 전국 단위로 확장되었음을 아울러 지시한다. 둘째, 호서문학회 소속 동인들의 시도 1집에 비해 양적으로 풍성하게 배치되어 있다. 다만 1집에 이름을 올렸던 몇몇 시인들, 특히 한성기, 박용래, 임강빈 등의 작품을 볼 수 없다는 대목은 당시 문단의 갈등 상황과 연계된 것으로 보여 아쉬움을 남긴다. 셋째, 당시 대전과 충남을 중심으로 활동하던 문학동인회 회원들의 시가 여러 편 실려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기존 회원들의 시에 함께 지역 사회에서 발간된 시동인지를 수렴함으로써 잡지의 외연을 확장하고, 나아가 지역 공동체와 소통하려는 의지가 담긴 결과라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특징을 종합해 본다면, 3집에 오면서 『호서문학』의 편집 방향이 대전 문학을 중심으로 하되 지역과 전문성에만 집중하기보다는 더 많은 문인들과 소통하는 자리를 만들겠다는 방향으로 확장된다고도 말할 수 있겠다. 해방 이후 지역에서 활동하던 신진 시인들의 작품은 물론, 학교 등을 기반으로 활동 중인 문학동인회 회원들의 작품을 아우르는 모습 속에서 다양한 스펙트럼을 포괄하면서 정비되어가는 초창기 대전 문학의 역동성을 눈

9) 『호서문학』 총목차에 따르면 1954년에 발간된 2집에 홍효민의 소설이 실렸다는 기록이 남아 있으나, 현재까지 실물이 확인되지는 못했다. 한편 1959년 발간된 4집에서도 김현승의 「겨울 방학(放學)」과 김관식의 「검은 신이여」가 게재되어 있어, 같은 편집 방향이 유지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으로 직접 확인하게 되는 셈이다.

추야장(秋夜長) 긴긴 밤

달 밝은데

오동(梧桐)잎 지고

정적(靜寂)을 깨트는

다드밋 소리

하늘을 찢러

별이 흔들린다.

죽엄에서 소꾸치는

힘찬 한줄기 생맥(生脈)

이여

닭이 울어라.

수호(守護)의 여신(女神)이다

너 다드밋 소리.

-정훈, 「조국정서」, 부분

‘다드밋 소리’와 ‘산(山)’이라는 두 편의 시가 묶여 있는 정훈의 「조국정서」는 1집과 3집 사이에 가로놓인 시간 사이의 변화를 짐작케 하는 표지도도 읽힌다. 범박하게 말해, 초창기 『호서문학』에 실린 정훈의 시에는 상반된 두 정서가 겹쳐 있다. 1집에서 보여준 정서가 시적 화자의 절망적 세계

인식과 감정에 함몰된 폐쇄적 서정에 가까웠다면, 4년의 시차를 두고 발표된 3집의 「조국정서」에서 감지되는 것은 현실 극복을 향한 계몽적 의지와 연계 가능한 서정성의 모색이다. 이러한 사정은 해방 이후 정훈이 몰두했던 민간대학 설립 운동이나 '조선민족청년단'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정치 활동을 향한 열정과 그 실패의 반작용에서 기인한 결과로도 이해될 수 있다.¹⁰⁾

정치 관련성을 논외로 한다면, 인용 작품의 바탕을 이루는 감정은 앞선 시기에 보였던 것과는 분명 결이 달라진 모습이다. 일단 다소 경직된 느낌의 제목에서부터 개인의 내밀한 서정을 강조하기보다는 민족이라는 공동체의 관심사를 이끌어내려는 시적 화자의 지향이 강하게 표출된다. 「조국정서」 중 전반부를 구성하는 '다드밋소리'의 경우, 가을밤의 정적을 깨는 '다드밋 소리'에서 비롯한 시적 화자의 상념이 서서히 전개되다가 "죽엄(죽음)에서 소꾸치는/ 힘찬 한줄기 생맥(生脈)"과 접맥되면서 급격하게 반전되는 구조를 취한다. 시의 말미에 오면 '다드밋 소리'는 결국 "수호(守護)의 여신(女神)"으로까지 상승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가을밤의 고적한 분위기를 출발점으로 삼았지만, '다드밋 소리'를 따라가면서 시적 화자의 시선이 도달한 곳에서 만나게 된 것은 내면으로의 함몰이라는 기존의 도식과 다르다. 여기서 반복되는 감정은 시적 화자의 외부로 향하는 계몽적 교양에 가깝다. 그러므로 절망이나 불안에 사로잡혀 있던 1집의 분위기와 달리, 위의 시에 나타난 계몽적 성격과 서정의 결합은 『호서문학』 3집에 실린 여타 작품에서도 다른 방식으로 변주되곤 한다.

가) 한물이 휩쓸은
강변에나 나서 볼가.
복사꽃 울넘어로

10) 전쟁 이전 대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정훈의 정치적 활동 과정과 그 안에 내재하는 전 체주의적 성격에 대해서는 박수연, 「공통성과 획일성: 한국전쟁 이후 대전문학의 양상」, 『현대문학이론연구』 70, 현대문학이론학회, 2017. 참조.

뒤도라 보며 떠나든
우리의 순이에겐
야속스런
유리십년(流離十年)에
자랑없이 돌아온 몸일지라도

흐르는 구름같은 것!
기돌임에 다짐은 돌지라도
(중략)
하얗게 모래 토했 세사를
두고서
가자고 가자고만 썼는
포푸라 그늘로
남몰래 익힌
휘파람이나 하냥해서 나슬거나.
-박희선, 「새벽」, 부분

나) 林아 지금도 너와 같이 달려간 고향 산길
서현히 눈앞에 있고
네가 토했 피 그늘에 비친
落日같이 처참도 했니
그 좋아하든 노래며 詩 내게는
아즉 생생히 떠올라
가버린 너 오늘도 별을 향하여
숨어 있으며,
투명한 눈동자 뇌리에 새겨져
영영 잊어지지 않는고나

지금 이 검은 危懼 幻멸을
 모르고 동경만 안고 간
 너 하나만 너 하나만 위해
 때에게 감사드려야 하겠고나

아! 쏟아지는 짧은 해가 타고
 길가는 사람들 입술 파랗게 탄다.
 -전여해, 「너 하나만 위해」, 부분

전쟁 전 발간된 『동백』의 편집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했던 박희선 시인과 창간호 당시부터 동료 시인들에게 시 창작 활동을 종용받고 있던 전여해 시인의 사연 많은 작품을 만날 차례다.¹¹⁾ 앞선 잡지에서 이름으로만 등장했던 두 시인의 작품을 직접 대하는 것부터가 반가운 일이나, 두 시인 모두 피해갈 수 없었던 해방 이후 한국 근대사의 우여곡절을 암시하는 듯한 시상(詩想) 전개는 쉽게 규정하기 어려운 소회(所懷)를 불러일으킨다. 특히 후일 불교 시인으로 자리매김하며 꾸준히 작품 활동을 이어간 박희선 시인과 달리, 한 권의 시집만을 남긴 채 1960년대부터 은둔 생활을 이어가다 알려지지 않은 죽음을 맞았던 전여해 시인의 비극은 분단 체제가 이 땅 곳곳에 남긴 아픔을 고스란히 전해주는 장면이기도 하다.¹²⁾

11) 『호서문학』 1집에 실린 「호서문학잡묘」에서 편집진은 전여해 시인을 직접 거론하며, 새로운 작품을 독촉한 바 있다. 흥미롭게도 3집의 뒤에 실린 「편집여적」의 필자 중 한 명이 전여해로, 그가 3집의 편집과정에 개입했음이 확인된다. 특히 긴 품을 들여 일본 문학에 대한 모방 풍조를 극복해야 한다는 강력한 전언을 펼치는 부분은 당시 문단에 대한 통렬한 비판이자 이후 벌어질 필화 사건의 예고편처럼 보여 눈길을 끈다.

12) 1950년 4월 대전에서 발간된 『동방신문』에 평론을 발표하며 문단 활동을 시작한 전여해 시인은 생전에 간행한 유일한 시집인 『풀밭에서』로 인해 필화 사건에 휘말린 뒤 방첩대에 끌려가게 되고, 무고로 방면된 이후 평생을 은둔과 침묵 속에서 보낸 비운의 문사(文士)다. 전여해의 등단 과정과 창작 활동, 시집 발간에 따른 필화사건의 전모와 이후의 안타까운 삶을 고구함으로써 그가 대전 문학의 소중한 자신임을 확인시킨 선구적 연구로는 다음을 참조할 수 있다. 김현정, 「아나키스트 전여해의 삶과 문학」, 『망각

인용된 시들은 모두 퇴행적인 시간 의식에 기대하고 있다는 점에서 닮아 있다. 다시 말해 두 작품의 시간은 미래로의 전진이 아니라 과거로의 회귀 쪽으로 시적 화자를 이끌어 간다는 것이다. 이처럼 역전된 시간 속에서 제대로 성찰되지 못한 식민 체제의 아픔이나 전쟁으로 폐허가 된 도시의 고통스러움은 시의 기저로 가라앉게 된다. 가령 가)에 등장하는 시적 화자는 일본 유학 시절 학도병으로 끌려갔다가 탈출, 체포, 투옥 과정을 거친 후, 결국 형무소에서 해방을 맞이했던 박희선 시인의 젊은 시절을 상기시킨다. 하지만 “아삭스런/ 유리십년(流離十年)에/ 자랑 없이 돌아온 몸일지라도”라는 시적 화자의 독백은 창백한 현실과 마주 선 지식인의 고뇌와 아픔을 엿보게 만든다. 물론 시의 종결부에 이르러 순식간에 밝아지는 새벽을 맞으며, “나도 뺨을 치고 돌아와야 하겠다.”라는 일종의 의지 표명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시적 화자의 현재를 사로잡고 있는 감정이 ‘흐르는 구름’이나 ‘휘파람’처럼 의지가 거세된 표상에 더 가까이 연결되어 있다. 이런 의미에서 가)를 이끌어가는 것은 희망이나 기대보다는 회한에 가까운 감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

유사한 감정은 시인 ‘임화’를 향한 헌시(獻詩)로 알려진 나)의 경우에도 이어진다.¹³⁾ 여기서도 시적 화자를 둘러싼 시간의 방향성은 미래를 향하기보다 ‘林’과의 기억이 서린 과거로 향해 있다. 서슬 퍼런 반공주의의 시대에 개인적 인연으로 연결되어 있을지언정, 금기의 대상이었던 월북 문인을 시의 소재로 삼는 과감성이야말로 전여해라는 시인이 놓인 자리와 문학적 경향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물론 시 속에서 직접적인 언급을 삼간 채 우회적인 경로를 활용하여 자신의 마음을 담아내고자 했지만, 시의 막간을 이해하

의 로컬리티-대전-충남 문인들의 삶과 예술』, 도서출판 심지, 2018.35~58쪽.

13) 이 작품이 시인 임화를 기리는 과정에서 만들어졌다고 밝힌 사정은 시인 자신의 회고에 근거한다. 생전 전여해 시인이 남긴 유일한 육성에 해당하는 심상협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시인은 검거된 임화 시인의 모습을 떠올리며, 시의 창작과정에 대해 진술한 바 있다. 다만 시의 창작 시기나 임화와의 관계 등에 대해서는 보다 정교한 고증이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심상협, 「전여해의 삶과 철학」, 중도포커스 59호, 1996. 4. 76쪽, 참조.

고 본다면 “네가 또한 피 그늘에 비친/ 낙일(落日)같이 처참도 했니”와 같은 구절이 전쟁 이후 숙청당한 한 문인의 비극적인 운명과 겹쳐 있음을 짐작하기란 어렵지 않다.

4. 나오며

오늘의 관점에서 보자면 폭격으로 폐허가 된 1950년대 초반, 대전이라는 척박했던 도시의 시인들이 남겨놓은 흔적과 결실에 역사적 의미 이상을 부여하려는 시도가 낯설게 다가올 수도 있다.

영호남(嶺湖南)으로 분기(分岐)하는 大田驛, 두가닥 길처럼 나는 삶과 죽음의 갈래길을 오가며 오늘에 왔고 다시 한가닥 노선(路線)을 지향(指向)하여 오르려면 자꾸 아래로, 아래로 미끄러지기만 한다. 어찌다 듣는 말끝마다 “유-”하는 그 느릿느릿하고도 상냥한 사투리에 늘 정(情)을 느끼며 나는 그 어쩔 수 없는 연(緣)이란 걸 반추(反芻)한다.

-김용호, 「연(緣)」, 부분

『호서문학』 3집에 실린 김용호의 「연(緣)」은 1950년대 대전역을 지나치던 일상적 삶의 모습과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 사이에 실처럼 매여 있는 가느다란 ‘연’을 상기시킨다. 모두가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 ‘담배장수’로 아이들을 건사해야 했던 아내의 일화를 펼쳐내며, 시인은 그 신산스러운 삶의 궤적이 대전역이라는 분기점과 묶여 있다고 말한다. 그 실을 따라가 보면, “영호남으로 분기하는 대전역”의 갈라짐은 “삶과 죽음의 갈래길”로 이어진다. 시적 화자는 “다시 한가닥 노선을 지향”하며 오르려 하지만, 결국 “자꾸 아래로, 아래로 미끄러지기만 한다”라는 고백 속에 갇히게 된다. 이 순환의 고리를 끊어낼 힘을 찾는 일이야말로 중요한 발견일 텐데, 시인은

그것이 “느릿느릿하고도 상냥한” 우리네 말투라고 넌지시 전해준다. 누군가의 말이 불러온 ‘정’의 연쇄로 인해 시적 화자와 우리 사이에 이어진 ‘연(緣)’의 진정한 의미를 ‘반추’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사라진 이들의 소박한 말과 기억을 되살리고 과거와 현재의 ‘연’을 이어가는 작업은, 전쟁 이후 한국문학의 변화에 내재하는 다양한 차이의 문화적 맥락을 살피는 또 다른 통로로 확장될 여지가 크다. 한국 문학사에 몇 줄로 기록되었거나, 심지어 기억되지 못하고 사라져가는 시인들의 이름을 부르는 일이 어떤 메아리로 펼쳐져 나갈 수 있을지, 진지하게 물어야 할 때다.

■ 참고문헌

1. 기본자료

『호서문학』 1, 3, 4집

2. 논문 및 단행본

김영호 외, 『대전문학의 시원』, 도서출판 심지, 2013.

김현정, 「1950년대 전반 대전문학 연구 『호서문학』 창간호를 중심으로」, 『문학장과 로컬 히스토리』, 도서출판 심지, 2015.

김현정, 「1950년대 대전 시문학의 양상」, 『망각의 로컬리티-대전·충남 문인들의 삶과 예술』, 도서출판 심지, 2018.

김현정, 「아나키스트 전여해의 삶과 문학」, 『망각의 로컬리티-대전·충남 문인들의 삶과 예술』, 도서출판 심지, 2018.

대전광역시 편, 『대전근대사연구초』 1, 대전광역시청, 2012.

박수연, 『공통성과 획일성: 한국전쟁 이후 대전문학의 양상』, 현대문학이론연구 70, 현대문학이론학회, 2017.

박명용 편, 『대전문학사』, 한국예총대전광역시지회, 2000.

심상협, 「전여해의 삶과 철학」, 중도포커스 59호, 1996. 4.

조남현, 『한국문학잡지사상사』,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2.

충청남도지편찬위원회 편, 『충청남도지-현대문학 상권』, 충청남도, 2010.

충남근현대예술사편찬위원회 편, 『충남근현대예술사-문학사총설』, 충남문화재단, 2016.

호서문학회 편, 『호서문학 60년사』, 호서문학회, 2012.

■ 국문초록

이 논문의 목적은 1950년대 대전에서 발행된 『호서문학(湖西文學)』을 통해 초기 대전 문학의 형성과정을 규명하려는 것이다. 반세기 전의 문인들이 남겨놓은 시와 산문에는 당시의 시대상이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다. 그 안에 담긴 세계인식은 전쟁이라는 혹독한 시절을 살아낸 결과다. 이런 맥락을 전제하면서, 1950년대에 대전 지역에서 발행된 『호서문학』의 주요 시편과 산문을 읽어나가하고자 한다.

본문에서는 1952년 8월에 발간된 『호서문학』 1집과 1956년에 2월에 나온 『호서문학』 3집에 실린 시 작품을 중심으로, 전쟁 이후 4년 남짓한 시간 동안 '신흥 도시' 대전의 문학장에서 일어난 변화의 조짐과 그 안에 담긴 의미를 구체적으로 따져보게 될 것이다. 이를 통해 그간의 대전 문학사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던 작가들의 소박한 말과 기억을 되살리고, 과거와 현재의 접속을 도모하고자 한다. 이러한 작업은 한국전쟁 이후 대전 문학장의 변화에 내재하는 다양한 문화적 맥락을 살피는 통로가 될 것이다.

주제어 ● 대전문학, 1950년대, <호서문학>, 정훈, 박희선, 전여해

■ Abstract

A Study on the Poetics of Daejeon in the 1950s
—Focusing on early <Hoseo Literature>

Han, Sang Chul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investigate the formation process of early Daejeon literature through <Hoseo Literature> published in Daejeon in the 1950s. The poems and prose left by literary men from half a century ago reflect the era of that time. The world perception contained in it is the result of surviving the harsh times of war. Assuming this context, I would like to read the main psalms and prose of Hoseo Literature published in Daejeon in the 1950s. The main text focuses on the first volume of <Hoseo Literature> published in August 1952 and the third volume of <Hoseo Literature> published in February 1956. For more than four years after the war, the 'Emerging City' of Daejeon The signs of change that took place in the literary field and the meaning contained in it will be examined in detail. Through this, it is intended to revive the simple words and memories of writers that have not been properly discussed in the history of literature in Daejeon, and to promote a connection between the past and the present. This work will serve as a channel to examine the various cultural contexts inherent in the changes of the Daejeon literature hall after the Korean War.

Keyword ● Literature of Daejeon, 1950s, <Hoseo Literature>, Hoon Jung, Heesun Park, Yeohae Jeon

■ 논문투고일 : 2020. 10. 30. ■ 심사완료일 : 2020. 11. 19 ■ 게재확정일 : 2020. 11. 24

게임 활동 영어 학습에 대한 대학생의 정의적 태도에 관한 연구

김 영 희*

목차

1. 서론
2. 연구 방법
3. 연구의 실제
4. 연구 결과 및 논의
5. 결론 및 제언

1. 서론

대학 교양영어 교실의 현실은 Brown (2007)이나 Kim (2008)이 언급한 대로 영어를 배우는 학생들의 개인적인 관심사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들의 부족한 부분을 메꾸어 주기 위한 교실내의 상호작용보다는 주어진 시간 내에 해당 교재의 진도를 맞추어 진행되는 교사 위주의 교사 주도적 수업이 보편화 되어있다. 따라서 이러한 교사 주도적 수업의 틀을 깨고 학생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한 학생 주도적인 수업 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청운대학교 교수

또한 대학생들의 졸업 후 진로지도와 관련한 영어능력의 중요성을 고려하면 대학 교양영어 환경은 많은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학교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지방 대학의 경우 학습자들 개인 간 영어 수준차이가 심하고 영어 학습의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지만 학습의 동기와 흥미감이 매우 떨어진다.

따라서 위에서 언급한 대학 교양영어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영어 학습 동기와 흥미를 유발하면서 동시에 학생 주도적 상호작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학습방법을 게임을 활용한 학습법에서 그 개선책을 찾아보고자 한다.

게임에 대한 정의는 여러 학자들마다 다양한데 Gibbs(1978)는 게임이란 '어떤 규칙 아래 목적을 이루기 위해 협동하거나 경쟁하는 행위'라고 정의한다. Gorden(1970)은 '규칙에 따라 놀이하면서 기술이나 힘에 의해 승부가 결정되는 경쟁'으로, Brown(1994)는 '분명하게 계획된 교육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둘 또는 그 이상의 학습자들이 할 수 있도록 조직화된 규칙이 있는 활동'으로 교육적 게임을 정의하였다. 이외의 여러 학자들이 제시한 게임의 정의를 종합하면, 게임이란 일정한 규칙 내에서 협력과 경쟁의 과정을 통해 특정한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즐겁고 도전적인 신체적, 정신적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문창래, 1994). 즐거움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게임은 놀이의 한 형태로 인식될 수 있지만, 게임은 규칙과 목표가 명확하고 참여자 간의 선의의 경쟁과 긴장감, 더불어 학습의 동기를 자극한다는 점에서 단순 놀이와는 차이가 분명하다.

Gredler(1994)는 게임을 단순한 놀이가 아닌 교육적으로 활용할 만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설명한다. Schank(1990) 또한 게임을 통해 인간은 인지능력을 발달시킬 수 있다고 하였으며 Thorne(2008)은 게임 활동은 언어 학습에서 협력과 역할의 협상 기회를 제공한다고 설명하였다. 그는 게임을 하는 동안 자연스러운 대화가 발생하고 외국어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기존 지식을 정교화하면서 새로운 지식을 사용하게 하는 데 기여한다고 언급하였다.

게임의 장점과 게임이 지닌 교육적 효과에 대한 많은 결과(Lepper 와 Malone, 1987; Malone, 1981; Reiber, 1996; Krashen 과 Terrel, 1983)가 보고되었다. Lepper 와 Malone (1987) 그리고 Malone (1981)에 의하면 학습자의 내적 동기를 유발하는 학습 환경은 도전(challenge), 환상(fantasy), 호기심(curiosity) 그리고 통제(control)의 특징을 포함한다고 하였다. 특히 게임에서 느끼는 도전은 게임을 하는 동안 지루함을 느끼지 않도록 해주며, 통제는 게임에 참여하는 학생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을 내리도록 한다고 설명하였다. 이러한 특징을 거의 완벽하게 충족시키는 교육적 도구를 Reiber(1996)는 게임이라고 주장하면서, 특히 환상은 학습자들이 주어진 맥락 속에서 상상하며 게임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장치이기 때문에 학습자들이 게임에 몰입할 수 있도록 해주고 이것이 게임을 하고자 하는 내적 동기로 작용한다고 하였다. Krashen 과 Terrel (1983)에 따르면 게임은 그 자체가 이해 가능한 언어의 입력 수단으로 사용되고 학습자의 학습 참여를 높여 학습의 가치가 높다고 주장한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대학 교양영어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학습자의 영어 수준과 흥미를 고려하여 게임을 활용한 수업 활동을 제시하여 학생들의 영어 능력과 영어에 대한 정의적 영역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국내에서는 게임화 학습의 잠재력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미진한 편이며 특히 대학 교양영어 수업에서 게임화를 도입한 학습법이나 평가양식의 변화를 시도한 사례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다(김상경, 2014). 그나마 무선 인터넷의 보급과 함께 급격한 속도로 발달하고 있는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온라인 게임 영어 학습에 대한 선행 연구들이 대부분이고, 더욱이 대학 교양영어 교실에서 게임을 활용한 학습에 대한 선행 연구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기존 게임에 대한 선행 연구와 차별적인 수업 시간에 학습자들의 흥미도와 상호작용 활동의 기회를 높이는 게임 활동의 효과에 대한 본 연구는 시사하는 바가 클 것이다.

2.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실험대상은 충남 소재의 4년제 대학교 1학년의 교양영어를 수강하는 학생 43명이다. 해당 학교는 대학 수학능력 평균 3등급 이하의 학생들이 입학하는 수준이다. 또한 학생들의 영어 학습 능력 정도는 일반적인 중학교 수준의 영어 학습 능력을 갖고 있으며 영어 의사소통 능력은 영어 인터뷰를 통해 간단한 의사소통, 자기소개 등을 표현할 수 있다.

2) 연구도구 및 분석방법

본 연구는 게임을 활용한 교수·학습 자료를 설계하여 대학 교양영어를 수강하는 1학년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실시함으로써 영어 학습에 대한 동기 부여와 태도 변화를 통해 영어수업 참여율을 높이며 의사소통능력 향상을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해 실험을 설계하였다. 영어 학습에 대한 학습자 파악 및 태도 변화에 반응을 살피기 위해 사전, 사후 설문조사를 활용하였고, 수업 과정 중의 관찰, 면담, 학습자의 자기평가, 실험 전 후 말하기 인터뷰 평가를 활용하여 결과를 분석하였다.

실험반 학생들의 정의적 영역에 대한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사전, 사후 정의적 영역 평가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사전 설문지와, 사후 설문지로 구성하며, 사전 설문지는 영어 학습 실태조사, 영어 학습 흥미도 조사, 영어게임 인식조사로 구성하였다. 영어 학습 실태조사는 3-4단계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영어 학습 흥미도 조사와 영어게임 인식조사, 사후 정의적 영역 설문지의 각 문항은 리커트 척도에 의하여 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보통이다. 4. 그렇다, 5. 매우 그렇다의 순으로 각 1-5점을 환산하여 적용하였다. 사전, 사후 정의적 설문지의 구성요소는 다음과 같다.

〈표 1〉 사전, 사후 정의적 영역 설문지 구성 내용

영역	설문 내용	형식
흥미도	영어학습의 흥미도	5단계 Likert 척도
	영어학습의 불안감	
영어게임 인식	영어게임 경험	5단계 Likert 척도
	영어게임 참여도	

3. 연구의 실제

1) 게임을 활용한 영어말하기 교수-학습 설계

해당 학교의 교양영어는 필수 과목으로 주당 3시간으로 편성되어있다. 교양 교육과정에 따라 학생들의 취업에 필요한 실용영어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2시간은 제시된 영어교재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수업내용을 학생들의 수준에 맞게 재구성하여 수업하였다. 나머지 1시간은 게임을 활용한 영어말하기 활동수업으로 진행하였다. 수업주제는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이 높고 의사소통기능에 필수적인 표현 및 주제를 선정하여 게임을 활용한 수업활동을 제작한다. 주제는 다음과 같이 계획하여 진행하였다.

〈표 2〉 수업 차시별 주제

차시	Topic	Game
1	Music genres	K-POP, A-POP
2	Advice(should, shouldn't)	King's cup
3	April Fools	Two truths and a lie
4	Be creativity	Plan ruin game
5	Deserted Island	Deserted Island survival scenarios
6	Future tense	Virus game
7	Count nouns, non-count nouns	Ghibli game
8	Minimal pairs	Onepiece game
9	Caution(watch out)	Hearthstone
10	Library	Supermario

11	Accuse/Defend	Mafia game
12	Directions	Giving Directions

게임을 활용한 수업활동은 3단계(도입-전개-적용)로 구성하여 진행하였다. Step1은 도입단계는 수업의 시작으로 학생들과 인사하기, 복습하기, 과제확인하기, 학습동기부여하기 등으로 구성하여 진행하였으며 수업시간은 10분 이내로 진행하였다. Step2는 전개단계로 제시된 학습목표의 학습내용을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설명하였다. 읽기, 문법, 어휘, 핵심문장표현을 학생들에게 설명한 후, 학습내용을 연습할 수 있는 문제를 제시하여 이해를 강화하였다. 학생활동보다는 이론적인 내용을 제시하고 이해, 학습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Step3는 적용단계는 학습자들이 모둠을 구성하여 게임을 활용하여 제시된 과제를 해결하고 학습내용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교사는 게임 활동을 진행, 안내하는 역할을 하며 구성된 모둠 안에서 학습자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게임 활동에 따라 개인 또는 모둠활동으로 참여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표 3〉 수업 절차

단계	교수학습활동	수업방법	활동주제
Step 1 (10')	도입단계 인사하기, 복습하기, 동기부여하기 -수업목표 소개하기	상호작용	교사-학생
Step 2 (20')	전개단계 학습내용 이해하기 학습내용 연습하기	교사설명	교사 학생개 별, 모둠
Step 3 (20')	적용단계 학습과제 해결하기 목표내용 강화하기	게임활동	학생중심 모둠활동

구체적으로 수업지도안을 살펴보면, Step1. 도입단계에서는 학습자들과 교사와의 수업을 시작하기 위한 준비단계로 구성하였다. 인사하기와 전

차시학습 내용을 언급하여 학습 내용을 상기시키고 복습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후 학습자들이 배우게 될 학습주제와 학습목표를 소개하면서 시작한다.

Step2. 전개단계에서는 교사가 파워포인트를 활용하여 학습자들에게 학습주제에 대해 소개하고 학습내용을 자세히 설명하는 수업을 시작한다. 학습자들이 학습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어휘, 핵심표현 학습, 읽기활동, 말하기활동으로 구성하여 학습내용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한다. 파워포인트 학습 자료에서 목표어의 핵심표현에 밑줄을 긋거나, 눈에 띄는 색깔로 표현하며, 칠판에 새로운 어휘표현, 핵심어를 다시 한 번 적어 학생들의 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강조한다. 특히 이 단계에서는 교사의 설명에 학생들이 관심을 갖고 주의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며 학습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습득되어야 적용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전개단계의 두 번째는 교사의 목표학습내용 제시 이후에 학생들의 이해를 점검하기 위한 연습문제를 함께 풀어본다. 문제나 질문을 제시할 때 핵심표현을 강조하여 빈칸으로 두거나 하이라이트로 표시하여 쉽게 목표어를 인지하고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도록 한다. 확인학습 단계에서는 먼저 교사가 2문제 정도를 학습자들과 함께 풀어보고 학생들이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을 준 이후 개인별, 짝 활동, 조별로 수행 할 수 있도록 한다. 이후 교사는 학생들과 함께 정답을 확인하고 학생들의 오류에 대해 피드백을 준다. 창의력이나 깊은 사고력을 요하는 문제보다는 목표어를 숙지할 수 있도록 기능적이고 반복적인 연습에 목적을 두고 실시한다.

Step3. 적용단계에서는 게임을 활용하여 학습내용에 대한 이해와 연습을 바탕으로 적용, 강화하는 단계이다. 수업활동의 마지막 단계로 학습내용을 게임 활동에 적용하여 20분정도 실시하여 학습내용을 체득화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단계에서 학생들의 참여도를 높일 수 있도록 흥미와 호기심을 유발하는 게임의 경쟁적인 요소를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며 발화에 대한 불안감이나 소극적인 태도를 줄일 수 있도록 한

다. 게임 활동은 학습내용에 따라 파워포인트, 학습지, 카드, 공, 캐릭터 인형, 주사위 등을 활용하여 진행하였으며, 학습내용에 대한 숙지가 아직 안된 학생들을 위해 칠판에 적어둔 목표어를 게임 활동 중간에 어려움이 있을 때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주로 4인 1조 모둠으로 구성하여 진행하였으며, 학습활동 성격에 따라 개인별, 짝 활동 등으로 실시한다. 이때 교사는 전반적으로 게임을 진행 및 운영하는 역할을 하였으며, 학생들의 오류에 대한 피드백을 주었다. 게임 활동 마지막 5분은 정리 마무리 하는 단계로 다시 한 번 칠판에 적혀있는 목표어를 복습하고 피드백을 주었다. 또한 조별 게임 활동에서 우수한 모둠을 선정하여 보상 활동으로 스티커를 주었으며, 학생들은 개인별, 모둠별 활동에서 스티커를 받고 학기말에서 상품을 시상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마지막 다음차시 예고와 함께 수업활동을 마무리하도록 구성하여 진행하였다.

수업 시간 이후에 학습의 계속성을 유지시키기 위해 학습한 영어표현을 연구자의 블로그에 출석하여 자유롭게 영어문장을 표현하는 활동을 할 경우, 개별 스티커를 주어 영어학습의 동기부여를 유발하고자 하였다. 실제 활동에서 학습자별로 참여도의 차이는 있었으나, 수업시간에 개별스티커 습득을 확인했을 때, 게임의 경쟁효과처럼 참여하려고 하는 학생들의 비중이 늘어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게임을 활용한 영어말하기 교수-학습자료 개발

게임을 활용한 영어 수업에서 어휘 기능별 게임 유형과 게임 방법, 학습 효과에 대한 설명은 다음 표에서 제시한다.

〈표 4〉 게임을 활용한 교수-학습자료 개발

분야	게임 유형	학습목표	게임방법	학습효과
어휘	Quick Draw	기본적인 사물이나 개념의 단어를 게임을 통해 익힐 수 있다.	구글이 개발한 온라인 게임으로 학습자가 사물이나 개념에 대한 그림을 그리면 인공지능이 표현한 그림을 추측하여 점수를 부과한다.	기본적인 어휘학습을 게임을 통해 할 수 있는 활동으로 단어를 그림으로 표현하여 점수를 얻으므로 어휘학습에 대한 지루함이 없거나 불안감 없이 학습자가 즐기면서 할 수 있다. 수업시간의 자투리 시간이나 마무리 활동으로 활용하기가 용이하다.
4 skills	Jeopardy game	제시된 문제를 읽고 단어 또는 문장으로 답할 수 있다.	범주/주제별, 단계별 문제를 선택하여 풀고 정답을 맞히면 점수를 획득하게 된다. 쉬운 문제는 낮은 점수를, 어려운 문제는 높은 점수를 항목별로 설정한다.	단원학습 후 마무리 활동으로 또는 주제별 학습활동 마무리로 사용하였으며, 모둠별로 진행하였을 때 학생들이 협동심을 발휘하여 참여도가 높았으며, 단원별 복습효과가 뛰어났다.
어휘 말하기	Guessing game	제시된 정보를 사용하여 의미하는 단어를 추론할 수 있다.	단계별로 제시된 정보를 추론하여 의미하는 단어를 알아맞힌다. 단계가 낮을수록 높은 점수를, 단계가 높을수록 낮은 점수를 부과한다. 보통 3단계로 실시한다.	새로운 어휘를 학습하거나 주제별 단원 학습을 실시한 후에 게임 활동을 진행하였으며 교사가 예시 게임을 진행하고 학생들이 개인별로 게임을 준비하여 전체 활동으로 실시함.
말하기	Directions	방향에 대한 표현을 알고 길을 안내하고 찾을 수 있다.	찾아가고자 하는 곳을 안내해 주면 학습자가 지도를 보고 목적지를 찾아가는 방법을 안내할 수 있도록 한다.	짝 활동 또는 모둠활동으로 실시하였으며, 서로 길을 안내하고 찾아가는 활동을 직접 해봄으로써 말하기 활동뿐만 아니라 신체 활동까지 함께 할 수 있었음.
말하기	Will you marry me?	미래형에 대해 질문하고 답할 수 있다.	전체 학생들이 원을 만들고 지정된 학생이 1명을 지목하여 'Will you marry me?'라고 물어본다. 대답하는 학생이 웃으면 게임에서 지는 것으로 물어보는 학생과 자리를 바꾸어 앉고 게임을 진행한다.	학기 초 ice breaking 게임으로 실시하였으며, 학급구성원들을 서로 알아가고 서먹한 분위기를 없애주며 쉽지만 즐거움과 흥미를 유발하는 게임이다. 미래 형태를 학습한 이후 말하기 활동으로 사용하였다.
TBL	Deserted Island survival scenarios	제시된 과제를 해결하고 대화를 만들고 모둠별로 발표할 수 있다.	난파한 배에서 누구를 구할 것인지 그 이유를 쓰시오. 2. 무인도에서 살아남기 위해 필요한 도구와 그 이유는 무엇	모둠별 활동으로 실시하였으며 학생들에게 상황과 인물설명 후에 단계별 과제를 제시하여 모둠별로 발표하고 나누는 활동으로 진행하였다. 처음에는 인물선택,

지식과 교양 제6호

			인지 쓰시오. 3. 부인도에서 살아남은 상황을	이유발표, 상황발표, 대화문 만들기 순으로 과제를 진행하였으며 학생들의 생각을 적극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활동이었음.
문법말하기	Ghibli game	명사의 쓰임을 알고 종류를 구별할 수 있다.	셀 수 있는 명사와 셀 수 없는 명사구별, 수량을 나타낼 때 쓰이는 표현을 문제로 제시하고 점수를 부과한다.	모둠별 게임으로 진행하였으며 조원들이 논의하여 정답을 맞힐 수 있도록 함. 또한 학생들에게 친숙한 캐릭터를 사용하여 학습에 대한 거부감이 덜어지도록 함
읽기말하기	Running Dictation	제시된 문장을 정확하게 읽고 쓸 수 있다.	읽기 학습 전, 후 활동으로 문장별, 또는 단락별로 글을 제시하고 모둠별로 한명씩 읽고 조원에게 말해주며 받아쓰기 한다.	이 게임을 통해 읽기, 말하기, 듣기, 쓰기, 달리기 까지 모든 기능을 통합적으로 활용하여 사용할 수 있는 활동으로 즐기기 쉬운 시간이나 생기가 필요할 때 사용함.
쓰기과제수행	Beauty (Exquisite corpse)	창의성을 발휘하여 괴물을 그리고 창의성에 대해 이야기 나눌 수 있다.	3명을 한 모둠으로 구성하여 종이를 3단계로 접어 첫 번째 학생은 머리, 두 번째 학생은 몸, 세 번째 학생은 다리를 각각 보지 않고 상상하여 괴물을 그리고 창의성에 대해 이야기 나눈다.	각 모둠별로 그린 그림을 살펴보고 모둠별로 자신이 그릴 괴물 그림을 소개할 수 있도록 하면서 학생들의 창의성과 기발한 아이디어를 살펴볼 수 있는 활동이었음.
주제별학습	Hearthstone	caution에 대한 표현을 알고 질문에 답할 수 있다.	'caution'이 후 safe, dangerous, watch out 등의 표현을 익히고 모둠별로 문제를 선택하고 해결하는 게임형식으로 진행한다.	학생들에게 친숙한 캐릭터의 게임 포맷을 사용하여 문제를 제시하고 4인 1조의 모둠으로 문제를 해결하여 우승한 모둠은 스티커를 받는다.
말하기	Kings cup(card game)	학습한 표현을 사용하여 문장을 만들 수 있다.	4인으로 모둠을 구성하여 카드를 사용하여 게임을 진행한다. 각각의 카드에 규칙을 정하고 조원들은 돌아가면서 카드를 뽑고 정해진 규칙을 수행한다.	말하기 활동에 있어 학생들의 불안감이나 거부감이 큰 경향이 있지만 카드게임을 통해 놀이로 인식하여 학습한 표현을 사용하여 문장 만들기를 시도하는 모습을 보였음.
읽기	K-POP/A-POP	제시된 가사를 읽고 의미를	4인으로 모둠을 구성하여 게임을 진행한다. 학	학생들이 가장 흥미 있어 하는 활동 중 하나로 팝송가사를 이해

말하기		이해할 수 있다.	생들에게 친숙한 k-pop과 a-pop의 노래가사를 선정하여 영어로 옮기고 가사를 읽고 k-pop, a-pop인지, 가수와 노래 제목까지 맞힐 수 있도록 한다.	하거나, 우리나라 노래를 영어로 옮겼을 때 읽고 내용을 자연스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활동이었음. 또한 학생들의 관심과 흥미가 높은 활동이었음.
말하기	Mafia game	고 소 하기 (Accuse)와 방어 하기 (Defend)의 표현을 알고 말할 수 있다.	마피아 게임의 인물과 규칙을 설명하고 자신이 뽑은 역할에 대해 방어와 고소하는 알고 말하며 게임을 진행한다.	마피아 게임을 통해 자신을 방어하는 표현과 고소하는 표현을 자연스럽게 익히고 적극적으로 변호하는 모습을 보임.
발음 말하기	One piece most wanted	minimal pairs를 학습하고 단어를 읽고 구별할 수 있다.	모둠별로 문제를 선택하여 minimal pairs가 사용된 문장을 정확하게 읽으면 점수를 부과하고 가장 많은 점수를 획득한 조가 우승하게 한다.	minimal pairs의 개념을 설명하고 게임을 통해 자연스럽게 읽기 연습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었음.
주제 학습	Super Mario Gold Rush	Library에서 사용하는 영어 표현을 학습하고 말할 수 있다.	개인별로 게임을 진행하였으며 게임 속 문장을 읽고 각 문장을 선택하여 배당된 점수를 가장 많이 획득한 학생이 우승하게 된다.	Library에서 사용하는 표현을 자연스럽게 읽기 활동으로 이어지게 하는 게임으로 확률에 의해 점수가 주어지는 것에 학생들이 반응과 흥미가 높았음.

매 차시 수업활동은 학생들을 모둠으로 구성하여 진행하였다. 모둠당 4~6명의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게임 활동에 따라 개인 활동, 모둠활동, 전체 활동으로 진행하였다. 모둠 구성은 영어에 자신감이 있는 학생과 그렇지 않는 학생을 서로 섞어서 한 모둠으로 하고 서로 마주 보고 앉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모둠에 조장과 역할을 정하여 수업활동이 잘 진행될 수 있

도록 하였다. 주제별 단위의 수업활동은 50분으로 진행하였다. 수업모형은 PPP와 TBLT모형을 사용하여 진행하였으며, 영어의 지식적인 측면을 강조하기 보다는 기본적인 의사소통능력 향상 및 자신감 및 과목에 대한 흥미, 참여도를 높이고자 수업활동에 게임을 활용하였다. 수업의 도입부분에서는 인사하기, 복습하기, 상황제시 등으로, 전개부분에서는 주제별 학습요소 설명하기, 내용이해하기, 마무리 활동으로는 게임을 활용하여 학습내용 복습 및 연습하는 활동으로 구성하였다.

학습활동으로 게임을 한 후 이를 점수를 부과하여 승부를 가르며 학습자들에게 흥미와 학습동기부여를 하고자 하였다. 게임의 유형과 방법에 따라 조별게임과 개인별 게임을 진행하였으며, 이후 게임진행에 따라 게임별, 모듈별 점수를 부과하였으며 이 결과에 따라 개인, 모듈 스티커를 부과하였다. 이를 학기말에 개인별 시상, 모듈시상을 하여 학습동기를 강화시키고자 하였다.

4. 연구 결과 및 논의

1) 영어 학습 흥미도 조사

영어 학습에 대한 자신의 흥미도 평가 조사 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 '영어를 잘한다(10%), 영어가 재미있다(7.5%)'로 10% 미만의 수치가 나왔으며, 영어를 말할 때 불안감을 느끼는 학생의 비율은 67%이다. 또한 다른 과목에 비해 영어 과목에 흥미를 느끼는 학생들의 비율은 10%로 나타난다. 영어를 잘하고 재미있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은 10%이내이며, 전반적으로 학생들은 영어를 잘 못하여 흥미가 없고, 영어사용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교실에서 영어사용에 대한 불안 뿐 만 아니라 영어에 대한 질문하는 활동 자체에도 60%이상의 학생들이 불안감과 어려움을 느

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조사결과로 보아 학생들은 영어에 흥미를 갖고 수업에 참여하기보다는 55~85% 학생들이 영어에 흥미가 없고 불안감을 느끼며 타의적으로 수업에 참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영어 학습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거나 자신감이 없는 학생들이 비중이 90%에 달해 이러한 학생들을 위한 수업활동 모형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표 5〉 영어 학습 흥미도 설문 조사 결과

설문내용	응답구분	응답자 수 (N=40)	응답률 (%)
1. 나는 영어를 잘한다고 생각한다.	매우 그렇다	1	2.5
	그렇다	3	7.5
	보통이다	4	10
	그렇지 않다	10	25
	매우 그렇지 않다	22	55
	평균과 표준편차	M=1.77	SD=1.06
2. 나는 영어가 재미있다고 생각한다.	매우 그렇다	0	0
	그렇다	3	7.5
	보통이다	4	10
	그렇지 않다	17	42.5
	매우 그렇지 않다	16	40
	평균과 표준편차	M=1.85	SD=0.88
3. 나는 영어로 말할 때 자신감이 있다.	매우 그렇다	2	5
	그렇다	4	10
	보통이다	7	17.5
	그렇지 않다	13	32.5
	매우 그렇지 않다	14	35
	평균과 표준편차	M=2.18	SD=1.16
4. 모르는 부분에 대해 질문하면서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편이다	매우 그렇다	3	7.5
	그렇다	5	12.5
	보통이다	7	17.5
	그렇지 않다	13	32.5
	매우 그렇지 않다	12	30
	평균과 표준편차	M=2.35	SD=1.24
5. 다른 과목에 비해 영어가 흥미롭다	매우 그렇다	1	2.5
	그렇다	3	7.5
	보통이다	6	15
	그렇지 않다	14	53

	매우 그렇지 않다	16	40
	평균과 표준편차	M=1.98	SD=1.04

2) 영어 게임 인식 조사

영어 게임 인식 조사는 다음 표의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학생들은 수업 시간에 Hangman, word-search 등과 같은 어휘게임부터 다른 영어게임 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학생이 50% 이상으로 대학교 이전 교육과정의 영어수업시간에 영어게임이 활용되어 왔음을 알 수 있었다. 수업시간에 자주 했던 게임에 대한 문항에서는 주로 어휘게임 활동을 답했으며, 게임을 하였으나 게임명칭이나 방법을 설명하지 못한 학생들이 많았다. 게임 활용 수업에 대해서는 70% 이상의 학생들이 흥미가 있었다고 답하고 있으며, 게임 활동의 참여 여부에 대해서는 30% 이상의 학생들이 참여하겠다고 답했지만 20%의 학생은 그렇지 않다고 답변하고 있다.

〈표 6〉 영어 게임 인식 설문조사

설문내용	응답구분	응답자 수 (N=40)	응답률 (%)
1. 영어 게임을 해본 적이 있는가?	매우 그렇다	7	17.5
	그렇다	8	20
	보통이다	13	32.5
	그렇지 않다	5	12.5
	매우 그렇지 않다	7	17.5
	평균과 표준편차	M=3.08	SD=1.31
2. 수업시간의 영어 게임 활동에 대한 흥미는?	매우 그렇다	10	25
	그렇다	9	22.5
	보통이다	11	27.5
	그렇지 않다	6	15
	매우 그렇지 않다	4	10
	평균과 표준편차	M=3.38	SD=1.28
3. 수업 시간의 영어 게임 활동에 참여할	매우 그렇다	6	15
	그렇다	7	17.5

것인가?	보통이다	14	53
	그렇지 않다	8	20
	매우 그렇지 않다	5	12.5
	평균과 표준편차	M=3.03	SD=1.21
4. 수업 시간에 자주 했던 영어 게임 활동은?	대부분의 학생들은 hangman, crossword와 같은 게임을 수업시간에 경험해 봄		

3) 게임을 활용한 수업 활동 후 설문조사

게임을 활용한 수업 활동 후,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 결과는 다음 표와 같이 나타났다. 학습 면에서 '게임을 활용한 영어수업이 다른 수업보다 이해가 쉽다'라고 답한 학생의 비율이 55%이고 '영어게임을 활용한 영어수업으로 실력이 향상되었다'라고 답한 학생의 비율은 52%, 그렇지 않다는 18.2%로 사전 설문조사 결과와 비교해 보면, 게임 활용 영어수업이 학습자의 흥미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영어 게임을 활용한 수업이 다른 수업보다 참여도가 매우 높다'라고 답한 학생은 67% 이상이며, '자신감이 생겼다'라고 답한 학생의 비율도 67%로 나왔다. '주1회 게임을 활용한 영어수업이 대한 활동 비중은 적당인가?'라는 문항에 부정적으로 답한 학생은 73%이다. 학생들이 가장 재미있었던 수업활동으로 K-POP/A-POP 활동을 꼽았으며, 학생들에게 친숙한 게임 포맷을 활용한 Super mario, Mafia 등을 답했다.

학생들은 게임을 활용한 실험수업을 통해 영어게임활용수업이 일반 수업 교재를 활용한 수업에 비하여 흥미와 수업참여도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게임을 활용한 수업이 내용이해가 쉽고 자신의 영어실력이 향상되었다고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 게임 활동을 영어수업에 적용한 결과 학생들은 게임을 활용한 수업활동을 수업이라기보다 게임, 즉 놀이 활동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영어말하기에 대한 불안감이나 망설임 등이 게

임 활동에서는 발화에 대한 오류를 생각하지 않고 발표하는 모습으로 보아 일반 수업에 비해 낮아져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학생들은 자신의 일상생활에서 흥미와 재미를 느끼는 소재를 활용했을 때 영어 학습에 게임 활용 수업이 학습자들의 영어 학습 태도의 정의적 영역에 긍정적인 변화를 보이므로 이를 활용하여 수업활동을 전개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표 7〉 게임을 활용한 수업 활동 후 설문 조사 결과

설문내용	응답구분	응답자 수(N=38)	응답률(%)
게임을 활용한 영어수업이 다른 수업보다 내용이해가 쉽다	매우 그렇다	8	21
	그렇다	13	34
	보통이다	9	23.7
	그렇지 않다	7	18.4
	매우 그렇지 않다	1	2.6
	평균과 표준편차	M=3.53	SD=1.09
2. 게임을 활용한 영어수업으로 영어 실력이 향상되었다.	매우 그렇다	6	15.6
	그렇다	14	36.4
	보통이다	11	28.6
	그렇지 않다	7	18.2
	매우 그렇지 않다	0	0
	평균과 표준편차	M=3.5	SD=0.97
3. 게임을 활용한 영어수업이 다른 수업보다 참여도가 높다	매우 그렇다	26	67.6
	그렇다	10	26
	보통이다	2	5.2
	그렇지 않다	0	0
	매우 그렇지 않다	0	0
	평균과 표준편차	M=4.63	SD=0.58
4. 게임을 활용한 영어수업으로 영어과목에 흥미가 생겼다	매우 그렇다	14	36.4
	그렇다	17	44.2
	보통이다	6	15.6
	그렇지 않다	1	2.6
	매우 그렇지 않다	0	0
	평균과 표준편차	M=4.16	SD=0.78
5. 게임을 활용한 영어수업으로 말하기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다	매우 그렇다	12	31.2
	그렇다	14	36.4
	보통이다	7	18.2
	그렇지 않다	4	10.4
	매우 그렇지 않다	1	2.6

	평균과 표준편차	M=3.84	SD=1.06
6. 주 1회 게임을 활용한 영어 수업은 적당한가?	매우 그렇다	3	7.8
	그렇다	2	5.2
	보통이다	5	13
	그렇지 않다	15	39
	매우 그렇지 않다	13	33.8
	평균과 표준편차	M=2.13	SD=1.17
7. 게임을 활용한 영어수업에서 가장 재미있는 활동은?	노래와 관련 있는 K-POP/ A-POP 게임을 가장 선호했으며 친숙한 게임 형식을 취한 게임 활동을 좋아하는 경향임		

4) 게임을 활용한 수업 관찰 결과

(1) 게임을 활용한 수업 후 학생과의 인터뷰 결과

수업 활동 후, 학생들의 수업에 대한 피드백과 인터뷰 결과를 분석해 보면, 학생들은 일반 교재를 바탕으로 구성된 수업보다는 게임 활동을 활용한 수업이 덜 지루하며 흥미롭고 즐겁게 수업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학생들의 관심분야를 활용한 수업자료를 적용했을 때, 수업활동에 대한 참여도가 높았다. 이렇게 영어 학습에 흥미를 갖기 시작했고 자신의 일상생활에서도 영어 학습에 흥미를 이어가려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중간/기말고사 기간에 학생들의 인터뷰 결과에서 학생들의 말하기 능력의 향상도는 크게 보이지 않았으나, 자신감과 단어 수준의 말하기 표현에 있어서는 사용빈도수가 증가함을 느낄 수 있었다. 즉, 영어 학습 능력 향상에 있어서 눈에 띄는 발전은 더디었지만 영어 학습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하는 학생들의 비중이 늘어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게임을 활용한 수업 후 교사의 관찰 결과

12주 동안 게임을 활용한 영어수업을 진행한 결과, 학생들의 태도와 정의적인 측면에서 점진적인 변화를 느낄 수 있었다. 학생 자신이 좋아하고

즐기는 게임의 캐릭터와 틀을 사용하여 수업을 진행했을 때, 평소 소극적이고 참여에 미온적인 학생들의 참여가 조금씩 늘어났으며 게임 활동에서 실수를 하거나 정답을 맞히지 못했을 경우에도 불안감보다는 긍정적으로 수긍하고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낮은 수준의 학습자의 수업참여가 매우 두드러졌다. 영어 수업시간 이외 교실 밖, 온라인상에서 학생들은 누구의 강요에 의하지 않고 자유롭게 학습했던 표현들을 활용하려는 시도를 보였다.

5) 논의

연구결과 게임을 활용한 영어 학습은 학습자들의 말하기 및 정의적 영역(흥미도, 참여도, 자신감)에서 긍정적인 영향이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논의에서는 게임을 활용한 영어 학습이 대학교 교양영어 교실현장에서 적용 방안 및 실현 가능성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연구자가 가르치고 있는 지방 대학교 1학년 영어학습자는 어휘력과 읽기능력 등 기초 영어능력이 타 대학 학생들에 비해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학습 실태를 분석한 결과 학습자들의 처음 영어 학습은 초등학교 이전에 시작되었지만 현재 사교육이나 자기 주도적 학습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영어 학습에 대한 흥미와 학습참여도 면에서 영어 학습에 대한 흥미가 크게 떨어지며 수업참여도가 낮아 수업을 진행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진로와 취업, 전공교과목의 영어사용 등의 이유로 영어의 중요성과 필요성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학생들의 영어 과목에 대한 흥미도 향상과 수업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영어수업 방법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현재 학습자들은 일반 타대학에서 교양영어 교재로 많이 사용하는 실용영어 중심의 교재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학습수준에 의한 괴리감이 크며, 수업참여도 또한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영어 학습 능력이 저조한 학습자들은 학습결손을 보완하기 어려

은 특징이 있어 학교 교실 수업 내에서 학습자들의 참여도를 이끌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으로 본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

영어게임을 활용한 수업활동은 학생들의 정의적 영역(참여도, 흥미, 자신감)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다. 학습의욕과 흥미가 낮은 학습자들에게 학습을 촉진시킬 수 있는 동기를 부여했으며, 영어말하기 과정에서 불안감을 낮추고 영어 학습태도의 변화를 보인 부분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수업 교실 현장에서 영어게임을 활용한 수업을 제작하는데 시간이 많이 할애되고 있으며, 지속적인 영어 학습을 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다. 교실 뿐 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학생들의 영어 과목에 대한 흥미와 학습의욕을 지속시킬 수 있는 게임 활용 수업도구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제한된 수업시수에서 게임을 활용한 수업을 적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 학생들의 수준과 흥미를 고려하여 수업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수업활동과 교재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더불어 게임을 활용한 활동도 함께 개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지방대학의 영어 흥미감이 낮은 교양영어 학습자에게 학생 수준과의 괴리감 있는 교재 사용과 학생들의 참여도가 낮은 수업활동의 고민으로 시작되었다. 평소학생들이 컴퓨터 게임 등에 관심과 흥미가 높은 점을 활용하여 수업시간에 교과활동으로 게임과 접목하여 수업활동을 전개하였으며 이에 대해 학생들의 정서적인 부분과 영어기능적인 측면에서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학기 초 학생들은 영어수업에 대한 거부감과 불안감, 자신감이 없는 모습을 보였으며, 수업 출석률은 80%정도이며 수업 자체 참여율이 40% 밖에 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에 대해 학생들의 흥미를 갖고 있는 분야를 파악하고 학생들의 흥미와 연계하여 게임 활동을 준비하여 실시하

였다. 게임을 활용한 수업의 효과는 실제적으로 게임을 활용한 수업에 만족하고 있었으며 영어 학습에 대한 동기 및 태도에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다. 또한 말하기 인터뷰 결과에서 게임 학습 활동 후에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였다. 모둠활동으로 게임을 진행하면서 서로 도와주고 협력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자신감이 떨어지는 학생 또한 점진적으로 참여율이 증가함을 보였다.

영어게임을 활용한 영어교수학습 활동을 통해 얻은 학습효과는 다음과 같다.

- 영어게임을 활용한 학습활동은 영어 학습에 대한 흥미도, 동기를 향상시키고 영어사용에 대한 두려움을 줄여 주었다.
- 영어게임활동을 통해 영어말하기 기회를 제공하여 영어 학습에 대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변화를 가져왔다.
- 교사중심에서 학습자 중심으로 협동학습을 통해 문제해결력과 발견적 사고를 향상 시킬 수 있는 수업활동이 되었다.
- 게임을 통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영어수업을 진행, 활용하게 되었다.
- 학생들의 게임 활동을 통해 과정중심의 평가로 교수 학습으로 이끌어 갈수 있게 되었다.
- 영어말하기 능력에 있어 큰 변화는 보이지 않았으나 두려움을 낮추는 정서적인 변화가 있었다.

일반대학생들의 진로는 대부분 전공 관련 취업 혹은 대학원 진학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대부분의 대학교 신입생들은 고등학교를 마친 후 인문과목에 대한 학습활동을 마무리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영어 과목에 대해 흥미와 기초능력이 낮은 학생들도 인터뷰와 상담 결과 마음속으로는 영어를 잘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으며 어떻게 학습하고 참여하는 지에 대한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 게임을 수업활동에 활용한 결과 학습적인 면에서

는 교사가 준비하고 진행하는데 시간이 많이 할애 되어 효율성은 낮을 수 있지만 정서적인 면과 흥미도 에서는 학생들의 태도인식의 변화가 크다고 보인다. 이를 통해 스마트폰에서 영어단어를 하나라도 찾아보게 되고 들려오는 팝송제목이라도 살펴보고 모르는 표현을 물어보는 학생들의 변화를 통해 앞으로의 영어 학습에 대한 관심과 흥미가 실력으로 점진적으로 향상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본 연구였다. 많은 학생들이 영어 과목에 대해 포기 하지 않고 즐겁게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학생들의 눈높이에서 다양한 학습방법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 참고문헌

- 교육부 (2018). 2015 개정 교육과정 교육과정. 서울: 교육부.
- 김상경 (2014). 게임화의 학습효과: 상대평가제로 운영한 대학 교양영어 수업 사례 연구. *Multimedia-Assisted Language Learning*, 17(3), 69-95.
- 문창래. (1994). 초등 영어 수업의 게임 활동 효과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국 교원대학교 대학원
- Brown, H. D. (1994). *Principles of language learning and teaching*.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 Brown, H. D. (2007) *Teaching by principles: An interactive approach to language pedagogy*. White Plains, NY: Pearson-Longman.
- Gibbs, G. (1978). *Dictionary of gaming, modeling and simulation*. London: E. & F. Spon.
- Gorden, A. K. (1970). *Games for growth. Educational games in the classroom*. California: Science Research Associates Inc., College Division.
- Gredler, E. M. (1994). *Designing and evaluating games and simulations*. London: Kogan Page.
- Kim, E. (2008). Status quo of CLT-based English curricular reform: A teacher's voice from the classroom. *English Teaching*, 63(2), 43-69.
- Krashen, S., & Terrell, T. (1983). *The natural approach: Language acquisition in the classroom*. Oxford: Pergamon Press.
- Malone, T. W. (1981). Toward a theory of intrinsically motivating instruction. *Cognitive Science: A multidisciplinary Journal*, 5, 339-369.
- Malone, T. W., & Lepper, M. R. (1987). *Making learning fun: A taxonomy of*

intrinsic motivations for learning. NJ: Erlbaum.

Reiber, P. L. (1996). Seriously considering play: Designing interactive learning environments based on the blending of microworlds, simulations and games. *Educational Technology Research & Development*, 44(2), 43-58.

Schank, R. C. (1990). *Tell me a story: A new look at real and artificial memory*. New York. Scribner.

Thorne, S. L. (2008). New media language use and "Bridging Activities": Implications for plurilingual life in a (partially) digital world. *Multimedia-Assisted Language Learning*, 11(1), 35-60.

■ 국문초록

본 연구는 지방대학 교양영어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학습자의 영어 수준과 흥미를 고려하여 게임을 활용한 교수-학습 자료를 설계하고 수업 활동을 제시하여 학생들의 영어 말하기 능력과 영어에 대한 정의적 영역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영어 학습실태, 영어학습 흥미도, 게임 활용 영어학습 범주로 나누어 3-4문항을 3-5단계 평정적으로 된 설문을 38명의 대학생들에게 수업 후에 설문조사하였다. 그 결과, 영어게임을 활용한 수업활동은 학생들의 정의적 영역 즉, 참여도, 흥미, 자신감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다. 게임을 활용한 수업의 효과는 실제적으로 게임을 활용한 수업에 만족하고 있었으며 영어 학습에 대한 동기 및 태도에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다. 또한 말하기 인터뷰 결과에서 게임 학습 활동 후에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였다. 모둠활동으로 게임을 진행하면서 서로 도와주고 협력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자신감이 떨어지는 학생 또한 점진적으로 참여율이 증가함을 보였다.

주제어 ● 게임, 영어 학습, 대학 영어, 정의적 태도

■ Abstract

A Study on the Korean University Students'
Affective Attitudes on Learning English
using Games

Kim, Young Hee

This study designed teaching-learning materials using games for liberal arts English learners at local universities, taking into account the learners' English level and interest, and presenting class activities to change the students' English speaking ability and the affective domain of English. To that end, 38 college students were asked to conduct a survey after class, divided into English learning conditions, English learning interests, and game-using English learning categories, with three to four questions divided into three to five levels of equilibrium. As a result, class activities using English games showed positive changes in students' affective areas, ie participation, interest, and confidence. The effect of the lessons using games was that they were actually satisfied with the lessons using games, and there were positive changes in their motivation and attitude toward learning English. In addition, in the speaking interview results, they showed confidence after the game learning activity. While playing the game as a group activity, they showed helping and cooperating with each other. Students with low confidence also showed a gradual increase in participation rate.

Keyword ● Games, English learning, college English, affective attitude

■ 논문투고일 : 2020. 10. 30. ■ 심사완료일 : 2020. 11. 17 ■ 게재확정일 : 2020. 11. 18



학습참여 동기 유형에 기반한 노인미술교육의 필요성

김유미**

김향미***

목차

1. 들어가며
2. 고령화 현상과 노인 이해
3. Houle의 학습참여 동기 유형에 기반한 노인교육의 필요성
4. 노인을 대상으로 한 미술교육의 의의
5. 국내 노인 미술교육 현황과 시사점
6. 맺음말

1. 들어가며

‘고령화’란 전체 인구에 대한 노인 인구의 상대적인 증가를 의미하는 용어이다. 아울러 ‘고령화 사회’란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태, 즉 고령화로 진입 중인 사회임을 의미하며, 이

* 본 논문은 2017년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김유미의 석사학위논문을 대폭 수정, 보완한 연구임.

** 주저자,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 교신저자,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수

는 노인 인구가 일정 비율로 증가한 상태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고령 사회’로 이어지게 된다. 세계적인 고령화 현상으로 인해 많은 국가들이 고령화를 통해 파생된 다양한 사회문제를 겪고 있는데, 특히 실업, 연금, 의료, 요양 지원 등 노인복지와 관련된 재정 지출의 부담이 나날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도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1960년 73만 명(전체 인구의 2.9%), 2010년 545만 명(11%)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30년에는 1,269만 명(24.3%) 정도의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¹⁾ 이는 의학 기술의 발달과 보건 위생에 대한 국가적, 개인적 관심의 증대 등으로 인간의 평균 기대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노년기 연령의 폭은 점차 넓어지고 있다. 즉, 과거에 비해 은퇴 후 남은 인생의 기간이 길어짐으로써 이 시기를 어떻게 의미 있게 보낼 것인가에 대한 관심과 욕구가 증대되고 있다. 그 결과, 단순한 여가생활로서의 의미뿐만 아니라 보다 전문적인 교육을 통한 자기 계발을 도모하고자 하는 노인들도 늘어나는 추세이다.

한편, 미술활동은 이러한 노인들의 미적 안목을 길러주고 성취감을 높여 주며, 사회성을 증대시키는 등 노년기 자기 계발에 매우 유효한 영역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학습에 대한 노인들의 다양한 욕구와 동기를 고려한 노인미술교육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본 연구는 평생 교육적 관점에서 성인의 학습참여 동기유형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한 호울(Houle)의 이론을 고찰하고 이를 기반으로 노인미술교육의 의의 및 시사점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2. 고령화 현상과 노인 이해

1) 고령화 사회의 개념과 현상

1) 통계청, 「장래 인구 추계: 2010년~2060년」, 2011, 12쪽.

‘고령화란 ‘전체 인구에 대한 노인 인구의 상대적인 증가’를 뜻하며, ‘고령화 사회’는 ‘전체 인구에서 노인 인구 비율이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태의 사회’를 의미한다. 나아가, ‘고령 사회’는 ‘노인 인구가 일정 비율로 증가한 어떤 단계에 도달하여 그 상태가 지속되는 사회’를 뜻한다. UN에서는 ‘고령화 사회’를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 중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인 사회’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2018년에 이미 14% 이상을 차지하는 고령 사회로 진입하였다.²⁾

세계적인 고령화 현상으로 많은 국가들이 이에 수반되는 사회문제들, 즉 경제활동 인구 감소, 노인 의료연금을 비롯한 노인복지 관련 재정 부담 증가 등의 문제들에 직면하고 있다. 이는 나라마다 처한 상황이 각기 다르고 일률적으로 정책적 효율성 여부를 비교 분석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바람직한 해결책을 모색하기란 쉽지 않은 현실이다.

2) 노인의 특성

흔히 말하는 ‘노인’이란 늙은 사람 혹은 나이가 많은 사람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지만, 노인을 구분하는 기준과 관점은 실로 다양하다. 국제노년학회(1951)가 규정한 노인의 정의에 따르면, ‘환경 변화에 적절히 적응할 수 있는 자체 조직에서 결손이 있는 사람, 자신을 통합하는 능력이 감퇴되는 시기에 놓인 사람, 인체 기관조직 기능에 쇠퇴현상이 일어나는 시기에 있는 사람, 생활 적응성이 정신적으로 결손되고 있는 사람, 조직 및 기능 저장의 소모로 적응 감퇴현상을 겪고 있는 사람’으로 되어 있다. 당시에는 노인을 주로 감퇴 및 결손의 관점에서 특징지우려는 경향이 있었으나, 오늘날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들을 통해 노인들의 학습능력이나 업

2) 김유미, 「노인의 학습참여 동기유형을 고려한 노인미술교육의 필요성과 활성화 방안 -Houle의 이론을 바탕으로-」,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7, 7쪽 재인용.

무 수행능력 등이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음은 바람직한 일이라 사료된다. 또한, 수치에 따른 일반적인 연령 개념뿐만 아니라 협응능력이나 정신력 등 기능적 연령, 사회적 역할 여부를 기준으로 한 사회적 연령 등, 노인을 구분 짓는 기준은 매우 다양해졌다.

1956년 UN에서 정한 노인의 기준인 65세는 우리나라에서도 적용되고 있어 노인복지법이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관련 법규 상에서도 이 기준을 따르고 있다. 그러나 65세부터 80대 이상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층을 일률적인 '노인'으로 분류하게 되면, 노인의 연령별 특성을 간과할 우려가 있다.³⁾ 또한 기능적 연령에 있어서는 개인이 특정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을 때 노인으로 간주하고 있지만, 이를 판별,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은 매우 모호한 편이다. 나이가, 사회적 연령 역시 노화에 따른 사회적, 가정적 중심 역할에서 벗어난 상태를 노인으로 보지만, 이 역시 적용 기준이 간단하지 않다.

최근 들어 노인을 규정하는 이상의 기준들이 일반적인 연령과 꼭 비례하는 것은 아니라는 관점이 늘어나면서, 노인을 바라보는 인식과 노인의 특성에 대한 이해가 긍정적이고도 다층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논의들이 활발해지고 있다. 이에, 노인의 특성에 대해 정리하자면 신체·심리·사회적인 면에서 다양하게 접근해야 한다. 우선 신체적인 면에서의 노화의 특성으로는 신체 제반 기관의 기능 감퇴를 들 수 있다. 그러나 비슷한 연령대라 하더라도 개인별로 나타나는 노화의 특성과 정도는 각기 다르다.

이어서 노인의 심리적인 특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 Weinert에 따르면, 노인들은 사회문화적 요소, 예를 들어 사회적 태도 등에 의해서도 그 특성이 다르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노인의 일반적인 심리적 특성으로는, 의존적, 내향적, 수동적인 성향과 더불어, 자존감과 상실감, 외로움, 죄책감, 비애감, 불안 등에서 오는 심리적 요인이 노인의 성격 변화에 영향을 미치기

3) 신용주, 김혜수, 『노인복지론』, 서울: 공동체, 2016, 35쪽.

도 한다.⁴⁾

끝으로, 사회적인 관점에서 노인의 특성에 대해 고찰한 연구 중 대표적인 것으로는 Havighurst(1968)의 활동 이론을 들 수 있다. 그는 활동 이론을, '활동적으로 생활하고 사회적인 관계를 줄이지 않는 것이 최적의 노년을 보내는 방법'이라고 설명하였다. 이를 지지하는 학자들은 사회적 활동과 삶의 만족도와의 관계를 성공적인 노년기를 측정하는 척도로 보고 있다.⁵⁾

그 외에도 노화에 따른 사회적인 은퇴에 대해 논의한 '분리이론', 노인의 사회적 지위 변화를 산업화와 현대화 현상으로 설명한 '현대화이론' 등이 있다.

3. Houle의 학습참여 동기 유형에 기반한 노인교육의 필요성

노인교육이란 노년기 노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의미하며, 평생교육적 관점에서 생활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뿐만 아니라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새로운 가치관과 생활양식의 방법, 문화예술 전반에 걸친 내용에 대한 교육이 포함된다. 이는 노화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준비하며 세대 간 이해를 증진시킴으로써 노인을 비롯한 모든 개인이 자신의 발달단계에서 최대한의 잠재력을 발휘하며 사회 변화에 효율적으로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⁶⁾

노인교육이 필요한 이유는, 새로운 지식과 정보가 넘쳐나는 현대사회에서 이를 수용하려는 노인들의 교육에 대한 욕구가 노인들의 경제능력 향상과 자기 개발욕구 상승 등의 요인과 맞물려 나날이 증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는 평균수명의 연장에 따른 평생학습의 필요성과도 맥을 같이

4) 정여주, 『노인미술치료』, 서울: 학지사, 2010, 30-31쪽.

5) 정여주, 상계서, 32쪽, 재인용.

6) 한국노인과학학술단체연합회, 「노인교육프로그램 개발」, 2002, 1쪽.

한다. 또한 2014년 보건복지부 노인실태 조사에 의하면, 이전에 비해 고학력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된 바 있어, 이에 대한 후속적인 교육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Baltes & Baltes(1990)는 '사회적, 심리적, 신체적, 환경적으로 잘 적응하면서 진행되는 노화'를 '성공적인 노화'라는 개념으로 설명하였다. 노인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성공적인 노화와 생산적인 활동도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교육을 통해 노인의 정신건강을 유지하고 성공적인 노화를 맞이할 수 있으며, 교육활동을 통한 사회적인 교류는 노인들의 사회 참여를 촉진시킬 수 있다.

한편, 평생교육적 관점에서 성인과 노인 학습자들의 학습참여 동기에 대해 심층적인 연구를 수행한 Houle(1961)은, 학습에 대한 성인들의 성향을 목표 지향적 학습자, 활동 지향적 학습자, 학습 지향적 학습자의 세 가지로 분류하였다.⁷⁾ 먼저 목표 지향적 학습자들은 특정 목표를 달성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학습에 참여하려는 성향이 강한 사람들이며, 활동 지향적 학습자들은 특정 목적이나 지식의 습득보다는 사회적 상호작용의 기회를 얻거나 활동 그 자체를 위해 학습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들이다. 끝으로 학습 지향적 학습자들은 학습 자체를 즐기거나 새로운 직업을 위한 자격증 취득이나 지식, 기술 등의 습득 등 즉각적이고 실용적인 면에 학습의 주된 목표를 두는 사람들이다.⁸⁾

Houle이 제시한 학습참여동기 유형별 특징에 따르면, 목표 지향적 학습자들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업에서 더 높은 지위를 차지하기 위해, 직업적인 발전을 얻기 위해, 경쟁에서 뒤떨어지지 않기 위해, 상사 등의 기대 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다른 권위자의 추천을 수행하기 위해, 학습의 필요성과 흥미에 대해 스스로 인식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다음으로 활동 지향

7) 신덕상, 「성인의 학습 참여 동기 유형과 학습 메타포의 관계」, 『한국평생교육』 제2권 제1호, 2014, 103-104쪽 재인용.

8) Ssharan B. Meriam, Laura L. Bierema, 『성인학습 이론과 실천』, 서울: 아카데미 프레스, 2016, 22쪽 참조.

적 학습자들은 개인적인 교제를 충족하기 위해,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이 좋아서, 지루함에서 벗어나기 위해, 가정이나 일로부터 휴식을 취하기 위해, 공동체 작업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학습을 하는 경향이 있다. 끝으로 학습 지향적 학습자들은 단지 학습 자체를 위해, 학습하는 것이 즐거워서, 자신을 위한 지식을 추구하기 위해, 알고자 하는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스스로 에너지가 소진된 느낌을 받아서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 학습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⁹⁾

이상의 세 가지 유형에 대해 Houle은 유형 간의 우위는 없으며, 상호 중복되는 특성도 있음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성인의 학습동기는 다양한 요인과 변수에 의해 복잡하게 구성된다는 점에서 그의 이론이 이를 지나치게 단순화시켰다는 지적을 받기도 하였으나,¹⁰⁾ 성인들의 학습에 대한 참여동기를 구체화하고 평생학습 실현에 이바지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겠다.

4. 노인을 대상으로 한 미술교육의 의의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학습을 통해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수용하고자 하는 노인들의 욕구가 증대되면서, 문화예술 영역에 대한 관심 또한 늘어나고 있다. 노인을 대상으로 한 미술교육은 그러한 노인들의 관심과 욕구를 충족시켜 주며, 여러 측면에서 효용을 제공한다.

먼저 미술활동은 신체적 측면에서 노인들의 감각을 자극하고 운동기능을 촉진시킨다. 예를 들어 미술도구 및 재료를 통제하는 과정에서 대근육과 소근육 운동을 도울 수 있다. 종래 미술활동은 주로 색채나 형태를 중심으로 하는 정적인 영역으로 간주되어 왔으나, 최근 들어 노인들의 미술활동이 신체 운동적 기능까지 고려한 통합적인 영역으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¹¹⁾

9) 신덕상, 전게서, 104-105쪽 재인용.

10) 신덕상, 전게서, 104쪽.

따라서 노인의 신체적 측면을 고려한 미술활동은 노화와 질병 등으로 둔화된 노인들에게 신체적 자극과 긍정적인 기분전환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¹²⁾

이와 더불어, Petzold(1985)와 Schoeneberg(2009)는 노인미술교육의 치료적 효과에 대해, 미술재료를 다룸으로써 오감능력을 강화시킬 수 있고 뇌 손상 노인의 재활 및 근육운동의 발달을 도울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눈과 손의 협응을 돕고 미술활동을 통해 언어능력을 개선하는 등 미술은 노인의 건강한 육체를 영위하는 목적 이외에도 미술의 고유한 특성이 신체적인 질병을 지닌 노인들의 치료도구로서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¹³⁾

이어서 미술활동은 노인들의 정서적인 측면을 지원한다. 즉, 노인들로 하여금 자기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창조적 활동을 통해 그들의 심미적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다. 또한 노인들에게 휴식과 재충전, 그리고 사회 속에서 자기 주체성을 확립하여 생의 의미와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며, 노인의 정서적 행복과 창조적 의욕을 일깨워주는 역할을 한다.¹⁴⁾ 또한 미술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고 언어로 표현하기 어려운 노인 개인의 감성이나 삶의 경험을 미술작품 활동으로 표출할 기회를 제공하여 노인들의 지적·정서적 순화를 도울 수 있으며 미술을 통한 이와 같은 표출은 노인의 소외감, 우울감, 무기력, 고독감, 불안 등의 감정을 완화하고 자기 개방을 더욱 용이하게 해준다.¹⁵⁾

다음으로 사회적 측면에서 노년기는 사회적 역할로부터의 단절과 고립으로 인해 비활동적인 삶으로 이행하게 됨으로써 다양한 문제를 겪게 된다.

11) 다와라 구니테루 저, 김지균, 김향미, 황향숙 공역, 『노인복지와 미술지도』, 서울: 흥의재, 42쪽.

12) 기태욱, 「집단미술치료가 요양병원에 입원한 노인의 우울과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동국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6, 1쪽.

13) 김유미, 전개 논문, 23쪽 재인용.

14) 김종인, 「노인을 위한 미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0, 31쪽.

15) 루스 아브라함 저, 김선현 역, 『치매와 미술치료』, 서울: 미진사, 2008, 27-29쪽.

이에 대한 노인 미술교육의 효과로는, 집단 속에서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사회성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는 타인으로 하여금 자신을 이해하게 하는 데 도움을 주며, 동시에 타인에 대한 수용능력과 이해력을 높여 결과적으로 대인관계를 원활하게 해줄 수 있다. 아울러 미술을 매개로 한 상호 긍정적인 평가를 통해 노인들의 자아존중감을 강화해준다. 이로써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즐거움을 느끼게 해주며 그 결과 노인의 사회참여 욕구를 자극하게 된다.¹⁶⁾

5. 국내 노인 미술교육 현황과 시사점

국내 노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기관으로는, 보건복지부 지원을 받고 있는 노인교실과 노인복지회관, 사회복지관, 대한노인회에서 지원하는 노인대학과 노인학교, 대학교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원 및 사회교육원, 각종 종교기관과 민간에서 운영하는 노인교육기관 등이 있다.¹⁷⁾ 그중 노인복지회관은 노인 여가복지시설 중 하나로, 무료 혹은 저렴한 이용료로 노인들에 대해 각종 상담에 응하고 건강 증진, 교양, 오락, 기타 노인 복지 증진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기관이다.¹⁸⁾ 보건복지부 보고에 의하면, 2015년 기준 347개소의 노인복지회관이 운영 중으로, 10년 전인 2005년보다 88개소 증가하였다.¹⁹⁾

노인복지회관의 기본 사업으로는, 사회교육(정보화 교육, 건강 교육, 외국어 교육, 예능 교육, 취미 교육), 노인 일자리 사회참여(노인일자리 상담 및 일자리 구인처 개발, 취업알선 및 조정), 종합상담(신규이용 상담, 방문 상담, 노인부양가족 지원 상담 등 일반 상담, 법률 상담, 주택 상담, 연금 상

16) 정여주, 「노인미술치료 프로그램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노년학』, 2005, 76쪽.

17) 보건복지부, 「2014 노인실태조사 결과 발표」, 2014, 4쪽.

18) 보건복지부, 「2003년도 노인복지시설현황」, 2003, 5쪽.

19) 김유미, 전계 논문, 30쪽 재인용.

담, 보건의료 상담, 세금 상담 등 전문상담, 노인용품 상담 및 치매종합 상담), 기능회복(열전기요법, 운동요법, 한방요법, 일상생활 동작훈련, 단체요법, 작업요법), 자원봉사(자원봉사 모집 및 배치 등), 노인용품 상담(목욕 및 노인용품 전시) 등이 있다.²⁰⁾ 그 중에서 사회교육 사업 중 예능교육과 취미교육이 미술교육 분야에 해당된다.

전국 18개 노인복지회관에서 진행 중인 노인미술교육 프로그램 현황을 조사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한 학기 당 약 5개월 정도 미술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으며, 미술수업의 종류로는 크게 한글서예, 한문서예, 캘리그래피, 문인화를 중심으로 한 서예 수업과, 한국화, 사군자, 수묵화, 민화 등 동양화 수업, 수채화, 유화, 아크릴화, 데생, 크로키 등의 서양화 수업, POP 예쁜 손글씨, 풍선아트, 종이접기, 손뜨개, 냅킨공예 등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고 미술 관련 자격증 취득과도 연관되는 자격증 및 실용미술 수업과 사진이나 미술치료 등 기타 미술 수업이 있다.²¹⁾

이상 노인복지관 미술교육 프로그램의 대부분은 서예 및 회화를 중심으로 한 순수회화 과목의 실기 위주로 진행되었으며 실용미술이나 노인의 재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자격증 취득 연계 강좌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의지의 부족, 열악한 재정적 지원, 노인 학습자들의 다양한 학습동기 및 요구를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요인 등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점차 높아지고 있는 노인들의 학습에 대한 동기와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는, 여러 측면에서의 다양한 방안 모색이 시급하다. 아울러, 노인복지시설에 한정된 학습의 기회를 넓혀 나가기 위해서는, 미술관이나 박물관 등 문화예술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공조와 대응이 요망되며, 사회교육기관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이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20)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노인 문화복지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 2004, 18쪽.

21) 김유미, 전계 논문, 34쪽.

6. 맺음말

현재 우리나라는 전 인구의 13% 이상을 노인 인구가 차지하고 있으며,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국가 사회적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평균 수명 증가의 이면에는 빨라진 은퇴시기 등으로 노인 소외, 세대 간 단절 등이 커다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이제 길어진 은퇴 이후 여가시간을 어떻게 가치롭게 보낼 것인가에 대한 방안이 다양하게 모색되어야 하며, 평생학습을 통한 자기 계발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어야 하겠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노인들의 특성 및 다양한 학습동기와 욕구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전제되어야 하며, 이를 기반으로 다채로운 학습 프로그램이 구안되어야 한다. 특히 노인의 신체적, 정서적, 심리적 측면에서 높은 효용이 기대되며 생활 속에서 아름다움을 향유할 수 있는 안목을 길러주는 문화예술 관련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보완도 절실한 시점이다. 이에 대해 다음의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노인미술교육 프로그램 구성을 위한 후속 연구가 활발하게 수행되어야 한다. 둘째, 노인복지시설과 다양한 문화·예술 기관과의 연계 및 공조 체제를 마련해야 한다. 셋째,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의 성취를 위해서는 노인 미술교육을 담당할 전문적인 강사 양성이 절실하다. 이 때, 강사들은 노인의 다양한 특성에 대한 깊은 이해를 기반으로, 전문적인 교육학적 지식을 갖추고 지속적인 연찬을 통해 교육의 질을 높여 나가야 하겠다. 넷째,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재정적인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

■ 참고문헌

- 기태욱(2016), 「집단미술치료가 요양병원에 입원한 노인의 우울과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동국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유미(2017), 「노인의 학습참여 동기유형을 고려한 노인미술교육의 필요성과 활성화 방안 -Houle의 이론을 바탕으로-」,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종인(2010), 「노인을 위한 미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루스 아브라함(2008), 김선현 역, 『치매와 미술치료』, 서울: 미진사.
- 문화체육관광부(2013), 「2012 문화향수실태조사」.
- 보건복지부(2003), 「2003년도 노인복지시설현황」.
- 보건복지부(2014), 「2014 노인실태조사 결과 발표」.
- 보건복지부(2016), 「2015-2020 제3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 신태상(2014), 「성인의 학습 참여 동기 유형과 학습 메타포의 관계」, 『한국평생교육』 제2권 제1호,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신용주·김혜수(2016), 『노인복지론』, 서울: 공동체.
- 정여주(2010), 『노인미술치료』, 서울: 학지사.
- 정여주(2005), 「노인미술치료 프로그램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노년학회.
- 통계청(2011), 「장래 인구 추계: 2010년-2060년」.
- 한국노인과학학술단체연합회(2002), 「노인교육프로그램 개발」.
-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2004), 「노인 문화복지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
- 다와라 구니테루(2003), 김지균·김향미·황향숙 공역, 『노인복지와 미술지도』, 서울: 홍익재.
- Ssharan B. Meriam, Laura L. Bierema(2016), 『성인학습 이론과 실천』, 서울: 아카데미프레스.

■ 국문초록

의학기술의 발달과 보건 위생에 대한 국가적, 개인적 관심의 증대 등으로 인간의 평균 기대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노년기 연령의 폭은 점차 넓어지고 있다. 즉, 과거에 비해 은퇴 후 남은 인생의 기간이 길어짐으로써 이 시기를 어떻게 의미 있게 보낼 것인가에 대한 관심과 욕구가 증대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평생교육적 관점에서 성인의 학습참여 동기유형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한 호울(Houle)의 이론을 고찰하고 이를 기반으로 노인미술교육의 의의 및 시사점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미술활동은 노인들의 미적 안목을 길러주고 성취감을 높여주며, 사회성을 증대시키는 등 노년기 자기 계발에 매우 유효한 영역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학습에 대한 노인들의 다양한 욕구와 동기를 고려한 노인미술교육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주제어 ● 학습참여, 동기 유형, 노인, 노인미술교육

■ Abstract

Necessity of Senior Art Education based on the Motivation Types of Learning Participation

Kim, Yu Mi

Kim, Hyang Mi

As the average life expectancy increases due to the development of medical technology, the number of elderly people with various personality and learning motivation is increasing.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theory of Houle, which presented the theoretical basis for the motivation type of adult participation in learning from a lifelong education perspective, and to suggest the significance and implications of art education for the elderly based on this. Art activities are very effective in self-development of the elderly people, such as raising the aesthetic perspective, enhancing the sense of accomplishment, and increasing the sociality.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pay attention to and study on the art education for the elderly considering the various needs and motivations of them.

Keyword ● Learning participation, Motivation type, Senior, Senior art education

■ 논문투고일 : 2020. 10. 30. ■ 심사완료일 : 2020. 11. 19 ■ 게재확정일 : 2020.11.23.



한국여자중학생의 체력요인과 학업성취도*

문 달 주**

목차

1. 서론
2. 연구방법
3. 분석결과
4. 논의

1.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신체활동을 통하여 대인관계와 직업활동을 할 수 있으며 신체활동을 통하여 청소년들의 신체적·정신적 발달조절에 도움이 될 수 있다(Hecke등,

* 본 논문은 목원대학교 학술연구지원사업에 의해 지원받은 논문임. 논문은 2020년도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의 에듀데이터서비스(EduData Service System, EDSS)에서 데이터를 지원 받아 수행된 연구임

** 대구과학대학교 교수

2018).

규칙적인 신체활동은 청소년들의 건강에 긍정적 영향을 주어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고, 심폐호흡 증진에 영향을 주고 스트레스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학업성취도를 높이는데 크게 기여한다(Kwak등, 2009; Marques등, 2018; Pohl등, 2018; Silverman과 Deuster, 2014).

신체활동의 점진적 증가는 세포의 내호흡을 통한 유산소운동과 대사활동을 촉진시켜 청소년들의 인지능향상과 학습능력의 증진대로 이어질 수 있다(Lambourne등, 2013).

청소년의 신체적 활동증가는 신체활동기술의 향상을 통하여 운동기술증진과 예측적 신체조절에서 자기효과를 증진하여 신체활동과 운동수행능력에 대한 인지능력향상으로 이어지고 청소년의 신체활동의 즐거움에 대한 심리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높여 신체활동을 더욱 즐기게 된다(Loprinzi 등, 2015).

대다수의 많은 연구자들은 신체활동과 인지능력 사이에 매우 긍정적인 관계가 있다고 보고 있으며(Howie와 Pate, 2012), 인지발달의 중심에 있는 청소년의 신체활동은 청소년의 목표 지향적 행동선택을 올바르게 시작하는데 필요한 처리과정을 용이하게 하여 인지능력과 정신기능의 발달을 유도하는 간단하면서도 중요한 방법이 될 수 있다(Tomporowski등, 2008).

한편, 청소년기는 신체적 기능발달이 왕성하여 기초체력이 중요한 성장기에 있으나 학습의 강제적 강요가 체력저하 및 정신불안 그리고 시력저하 등 건강상의 다양한 문제를 초래하는 이유로 현재 많은 연구자들은 학업성취도를 향상하거나 최소한의 방해받지 않는 교육정책을 펼쳐야 된다고 주장한다(Howie와 Pate, 2012).

현재까지 청소년의 신체활동에 관한 정신적 즐거움이 성인의 신체활동 참여로 전이된다는 예측적인 인지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Loprinzi등, 2015), 신체활동이 청소년의 건강과 학업성취를 개선하는 방

법으로도 제안되었지만 신체활동 및 유산소 운동 그리고 학업성취의 관계에 관한 자료는 일부 불일치한다(Lambourne 등, 2013).

따라서 본 연구는 2014년부터 2016년도까지 전국중학교 여학생들의 왕복오래달리기 및 팔굽혀펴기 그리고 체지방에 관한 체력요인과 국어, 영어, 수학의 학업성취도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1)

2) 이론적 배경

현재 학교교육은 문제해결능력과 수학능력을 우선시 하여 문제를 풀고 시험을 치르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다(Azlina와 S, 2012). 현재 학교교육의 주요목적은 학생들에서 학업성취도의 향상이므로 신체활동증가의 목적을 토대로 신체활동을 통한 학습능력의 향상을 보여주어야 한다(Howie와 Pate, 2012). 따라서 활발한 신체활동은 청소년의 전반적인 건강상태를 향상시키고 활동 강도가 클수록 체력 및 체질량 지수 그리고 표준학업성취도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Donnelly와 Lambourne, 2011).

수백만 년 동안 사람들 사이의 인기 스포츠종목 중 하나인 오래달리기는 인류를 더욱 건강하고 행복하게 해왔다(Spittler와 Oberle, 2019). 또한 오래달리기는 유산소지구력 운동중 하나로 심폐기관의 기능적 적응을 이용한 폐의 가스교환 증가와 근육 내 산소소비 그리고 이산화탄소배출의 균형을 통한 폐의 관류를 이용하여 폐포의 환기적응과 동시에 혈류분포의 변화를 유발한다(Przybyła 등, 2016). 따라서 오래달리기는 호흡기관의 기능적 변화를 일으키는 생리적 및 생체 역학적, 심리적, 환경적 그리고 전술적 요인의 복잡한 상호작용의 조합이라고 할 수 있다(Blagrove 등, 2018).

팔굽혀펴기는 가장 단순하고 가장 인기 있는 근력강화운동 중 하나로서(Dhahbi 등, 2018), 오랫동안 상지의 근지구력을 평가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었다(Torres 등, 2017). 특히 인체의 상반신근육 중에서 가슴근 및 어깨

1) 홍길동, 「교양교육에 관한 연구」, 『교양연구』, 10호, 2015, 125~153쪽.

세갈래근 그리고 코어근의 근력 및 지구력은 전반적 체력을 나타내는 좋은 지표로 평가된다(Shah, 2012).

현재 청소년시기에 신체활동과 심혈관 및 비만 그리고 인지력과 관련된 연구들이 증가하고 있으며(Donnelly와 Lambourne, 2011), 과체중이나 비만으로 학생들은 잦은 학교결석을 하고 낮은 학업성취도를 보이며 그것으로 인해 청소년들의 자존감을 많이 낮출 수 있다(Alswat등, 2017).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현재까지 신체활동이 지적능력과 관련된다는 목시적 믿음이 있었지만 신체활동과 청소년의 인지력의 관계는 비교적 최근 까지 체계적으로 평가되지 않았으며 신체활동이 청소년의 정신발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평가하기위한 연구는 비교적 적다(Tomporowski등, 2008). 그리고 최근까지 연구에서 중학교 여학생들에 관한 신체활동요인 왕복오래달리기, 팔굽혀펴기, 체지방과 학업성취도 국어, 영어, 수학과 관련된 연구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2.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에듀데이터에서 제공하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체력측정요인중 왕복오래달리기, 팔굽혀펴기, 체지방의 항목에 모두 만족하는 전국중학교 1, 2, 3학년 여학생 153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2)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는 교육부 그리고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에서 운영하는 에듀데이터 서비스(EDSS)의 자료를 사용하여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전국

의 중학교 1, 2, 3학년 여학생을 대상으로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학생건강체력평가에 기록된 왕복오래달리기, 팔굽혀펴기, 체지방의 체력요인이 국어점수, 영어점수, 수학점수의 학업성취도에 따른 자료를 바탕으로 하였다.

3) 분석방법

본 연구의 자료는 spss 19.0 통계프로그램으로 분석하였고 중학교여학생의 체력요인 중 왕복오래달리기와 팔굽혀펴기 그리고 체지방과 학업성취도의 요인 중 국어와 수학 그리고 영어 사이의 상관성을 알아보기 위해 피어슨 상관관계분석(Pearson's correlation analysis)을 이용하였다.

3. 분석결과

본 중학교여학생의 체력요인에서 왕복오래달리기와 팔굽혀펴기 그리고 체지방과 학업성취도의 요인에서 국어와 수학 그리고 영어의 상관관계에 대한 검정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1).

체력요인과 학업성취도의 변수 중 왕복오래달리기는 팔굽혀펴기와 체지방에서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났고($p < 0.05$), 학업성취도에서 국어와 수학 그리고 영어 모두에서 음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p < 0.05$).

팔굽혀펴기는 국어와 영어 그리고 수학에서 모두 음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p < 0.05$).

체지방은 왕복오래달리기와 팔굽혀펴기에서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났고($p < 0.05$), 국어와 영어 그리고 수학에서 모두 음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p < 0.05$).

학업성취도에서 국어는 왕복오래달리기와 팔굽혀펴기 그리고 체지방

모두에서 음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p < 0.05$).

수학은 왕복오래달리기와 팔굽혀펴기 그리고 체지방 모두에서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났고($p < 0.05$), 국어와 영어에서 음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p < 0.05$).

영어는 왕복오래달리기와 팔굽혀펴기 그리고 체지방 모두에서 음의 상관관계가 나타났고($p < 0.05$), 국어와 영어에서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p < 0.05$).

〈표 1〉 한국중학교여학생의 체력요인과 학업성취도의 상관관계

		왕복 오래 달리기	팔굽혀 펴기	체지방	국어	수학	영어
왕복 오래 달리기	Pearson 상관계 수	1	.628**	.683**	-.079**	-.103**	-.097**
	p	.000	.000	.000	.000	.000	
팔굽혀 펴기	Pearson 상관계 수	.628	1	.723	-.097**	-.092**	-.100**
	p	.000	.000	.000	.000	.000	
체지방	Pearson 상관계 수	.683**	.723**	1	-.088**	-.108**	-.098**
	p	.000	.000	.000	.000	.000	
국어 성취도	Pearson 상관계 수	-.079**	-.097**	-.088**	1	.618**	.627**
	p	.000	.000	.000	.000	.000	
수학	Pearson 상관계 수	-.097**	-.092	-.108**	.618**	1	.698**

성취도	상관계수						
p	.000	.000	.000	.000	.000	.000	
영어 성취도	Pearson 상관계수	-.097**	-.100**	-.098**	.627**	.689**	1
p	.000	.000	.000	.000	.000		

p<0.05

4. 논의

Cadoret등(2018)은 152명의 청소년 운동능력과 초기 학업성취도의 관계에 대한 인지능력의 매개 역할을 연구하였는데 운동능력, 인지능력 및 학업성취도가 서로 양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에서 체력요인과 학업성취도의 변수 중 왕복오래달리기는 팔굽혀펴기와 체지방에서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났고, 학업성취도에서 국어와 수학 그리고 영어 모두에서 음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이것은 꾸준한 신체 활동이 체력요인의 향상과 함께 인지조절능력의 향상으로 학업성취도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한다.

Lopes등(2013)은 초등학생의 대근육의 운동협응과 학업성취도간의 연관성을 연구하였는데 대근육협응력이 낮은 청소년은 학업성취도가 낮을 확률이 높았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Wollseiffen와 Schneider(2019)는 운동이 학교에서 대뇌피질활성도와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는데 인지적 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 팔굽혀펴기는 국어와 영어 그리고 수학에서 모두 음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이것은 신체활동이 대뇌피질활성도를 증진하여 인지조절능력과 학습능력의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된다.

Cadoret등(2018)은 충분한 신체활동은 공식적으로 근육의 섬세한 협

응력을 증진하여 시각운동통합능력에 영향을 주고 이것은 다시 인지기능을 증진으로 이어져 학생들의 수학능력 및 읽기 그리고 학업성취도에 충분히 기여를 한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Davis와 Cooper등(2011)은 과체중 청소년의 체력, 비만, 인지, 행동 및 학업 성취도를 연구하였는데 체력 및 비만은 인지, 행동에 영향을 준다고 보고하였다.

신체활동의 정서적 즐거움이 청소년의 운동기술발달과 신체활동 사이의 관계를 연결 할 수 있고(Loprinzi등, 2015), Benjamin-Neelon등(2019)은 297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녹지공간과 신체활동 그리고 체질량의 관계를 연구하였는데 신체활동은 녹지공간의 크기와 명확한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의 체지방은 왕복오래달리기와 팔굽혀펴기에서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났고, 국어와 영어 그리고 수학에서 모두 음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이것은 체지방이 체력요인과 학업성취도 모두와 관련이 있고 신체활동으로 인한 인지력의 향상이 운동통합능력에 영향을 주어 체지방지수의 감소 및 체력요인의 증가 그리고 학업성취도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Alswat등(2017)은 중고등학생 424명을 대상으로 체질량 지수와 학업 성과의 연관성을 연구하였는데 비만 학생이 정상 체중 학생보다 물리과목을 제외하고는 체질량과 허리둘레 그리고 학교성적 사이에 상관관계가 없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의 학업성취도에서 국어는 왕복오래달리기와 팔굽혀펴기 그리고 체지방 모두에서 음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이것은 신체활동과 인지조절능력 사이에서 관계는 몰입이나 정신력집중이라고 생각한다.

Gao등(2013)은 춤과 빠른 발의움직임 그리고 활기찬 음악 및 영상과 결합한 비디오게임에 기반한 운동을 통해 208명의 청소년 신체건강 및 학업성취도를 연구하였는데 비디오게임의 운동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청소년의 심폐호흡의 내구성과 수학점수를 향상시켰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 수학은 왕복오래달리기와 팔굽혀펴기 그리고 체지방 모두에서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났고, 국어와 영어에서 음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이것은 신체활동이 세포내 물질대사의 증진을 이유로 인지조절능력과 집중력의 향상 그리고 체력요인의 발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된다.

Drollette등(2014)은 급성운동이 40명의 청소년에서 뇌 기능과 인지에 관한 유산소효과의 연구에서 유산소운동의 효과는 인지능력의 증가로 인한 학습능력의 향상을 촉진하며 이는 효과적인 교육환경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 영어는 왕복오래달리기와 팔굽혀펴기 그리고 체지방 모두에서 음의 상관관계가 나타났고, 국어와 영어에서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이것은 신체활동은 유산소운동과 관련되고 이는 인지조절능력의 향상과 학업성취도의 향상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의 결론은 한국중학교 여학생들의 체력요인이 왕복오래달리기, 팔굽혀펴기, 체지방과 학업성취도 국어, 영어, 수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신체활동이 세포내 유산소운동을 통한 기초체력을 증진시키기에 착안하여 향후연구는 단계별 체력의 변화를 통한 학업성취도를 충분히 조사할 것을 제안한다. 그리고 청소년의 신체활동능력을 효과적으로 개발하고 인지능력 및 신체 활동의 즐거움과 관련된 영역의 개선을 통해 신체 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안한다.

■ 참고문헌

- Alswat et al.(2017), The association between body mass index and academic performance. *Saudi Med J*, 38(2).
- Azlina, W. and S. Zulkiflee. A.(2012), A pilot study: The impact of outdoor play spaces on kindergarten children. *Sbs Pro J*, 38, 275-283.
- Benjamin-Neelon et al.(2019), Greenspace, physical activity, and BMI in children from two cities in northern Mexico. *Prev Med Rep*, 14.
- Blagrove, Richard. C., Howatson, Glyn., and Hayes, Philip. R.(2018), Effects of Strength Training on the Physiological Determinants of Middle- And Long-Distance Running Performance: A Systematic Review. *Sports Med*, 48(5), 1117-1149.
- Cadoret et al.(2018), The mediating role of cognitive abilit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motor proficiency and early academic achievement in children. *Hum Mov Sci*, 57, 149-157.
- Davis, Catherine. L., and Cooper, Stephanie.(2011), Fitness, fatness, cognition, behavior, and academic achievement among overweight children: Do cross-sectional associations correspond to exercise trial outcomes?. *Preventive Medicine*, 52, 65-69.
- Dhahbi et al.(2018), Kinetic Analysis of Push-Up Exercises: A Systematic Review With Practical Recommendations. *Sports Biomech*, 4, 1-40.
- Donnelly, JE., and Lambourne, K.(2011), Classroom-based physical activity, cognition, and academic achievement. *Prev Med*, 1, 36-42.
- Drollette et al.(2014), Acute exercise facilitates brain function and

- cognition in children who need it most: An ERP study of individual differences in inhibitory control capacity. *Dev Cogn Neurosci*, 7, 53-64.
- Gao et al.(2013), Video Game - Based Exercise, Latino Children's Physical Health, and Academic Achievement. *Am J Prev Med*, 44(3), 240-246.
- Hecke et al.(2018), Public open space characteristics influencing adolescents' use and physical activity: A systematic literature review of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studies. *Health Place J*, 51, 158-173.
- Howie, Erin. K., and Pate, Russell. R.(2012), Physical activity and academic achievement in children: A historical perspective. *J Sport Health Sci*, 1(3), 160-169.
- Kwak et al.(2009), Associations between Physical Activity, Fitness, and Academic Achievement. *J Pediatr*, 10(4), 600-606.
- Lambourne et al.(2013), Indirect and direct relations between aerobic fitness, physical activity, and academic achievement in elementary school students. *J mhp*, 6(3), 165-171.
- Lope et al.(2013), Associations between gross Motor Coordination and Academic Achievement in elementary school children. *Hum Mov Sci*, 32(1), 9-20.
- Loprinzi, Paul. D., Davis, Robert. E., and Fu, Yang-Chieh.(2015), Early motor skill competence as a mediator of child and adult physical activity. *j pmedr*, 2, 833-838.
- Marques et al.(2018), How Does Academic Achievement Relate to Cardiorespiratory Fitness, Self-Reported Physical Activity and Objectively Reported Physical Activity: A Systematic Review in

- Children and Adolescents Aged 6-18 Years. *Br J Sports Med*, 52(16).
- Przybyła et al.(2016), Long-distance running and its effects on cardiorespiratory adaptation and physiological strain in marathon runners, *cej*, 13(1), 81-87.
- Shah, Salvi.(2012), Effect of pushup training on upper body strength and power in young adults. *ijcrr*, 4(2).
- Spittler, Jack., and Oberle, Lauren.(2019), Current Trends in Ultramarathon Running. *Curr Sports Med Rep*, 18(11), 387-393.
- Silverman, Marni. N., and Deuster, Patricia. A.(2014), Biological mechanisms underlying the role of physical fitness in health and resilience. *Interface Focus*, 4(5).
- Tomporowski et al.(2008), Exercise and Children's Intelligence, Cognition, and Academic Achievement. *Educ Psychol Rev*, 20(2), 111-131.
- Torres et al.(2017), Shoulder Muscle Activation Levels During the Push-Up-Plus Exercise on Stable and Unstable Surfaces. *J Sport Rehabil*, 26(4), 281-286.
- Wollseiffen, P., and Schneider, S.(2019), The effects of exercise on brain cortical activity and academic achievement in school. *J Neurol Sci*, 405(15).

■ 국문초록

본 연구는 2014년부터 2016년도까지 전국중학교 여학생들의 체력요인과 학업성취도의 관계를 분석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방법은 에듀데이터에서 제공하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전국중학교 1, 2, 3학년 여학생 1530명을 대상으로 학생건강체력평가에 기록된 왕복오래달리기, 팔굽혀펴기, 체지방의 체력요인이 국어점수, 영어점수, 수학점수의 학업성취도의 상관관계분석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체력요인과 학업성취도의 변수 중 왕복오래달리기는 팔굽혀펴기와 체지방에서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났고($p < 0.05$), 학업성취도에서 국어와 수학 그리고 영어 모두에서 음의 상관관계($p < 0.05$). 팔굽혀펴기는 국어와 영어 그리고 수학에서 모두 음의 상관관계가 나타났고($p < 0.05$). 체지방은 왕복오래달리기와 팔굽혀펴기에서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났고($p < 0.05$), 국어와 영어 그리고 수학에서 모두 음의 상관관계가 나타났고($p < 0.05$). 학업성취도에서 국어는 왕복오래달리기와 팔굽혀펴기 그리고 체지방 모두에서 음의 상관관계가 나타났고($p < 0.05$). 수학은 왕복오래달리기와 팔굽혀펴기 그리고 체지방 모두에서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났고($p < 0.05$), 국어와 영어에서 음의 상관관계가 나타났고($p < 0.05$). 영어는 왕복오래달리기와 팔굽혀펴기 그리고 체지방 모두에서 음의 상관관계가 나타났고($p < 0.05$), 국어와 영어에서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났고($p < 0.05$). 본 연구의 결론은 한국중학교 여학생들의 체력요인 왕복오래달리기, 팔굽혀펴기, 체지방이 학업성취도 국어, 영어, 수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향후 단계별 체력의 변화를 통한 학업성취도연구를 충분히 조사 할 것을 제안한다.

주제어 ● 심폐지구력, 근력·근지구력, 순발력, 체지방지수

■ Abstract

Type Physical Factors and Academic Achievement of Korean Girl's Middle School Students

Mun, Dal Ju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physical factors and academic achievement of Korean middle school girls from 2014 to 2016. The method of this study was based on the data provided by Edudata, and the subjects were 1530 female students in the 1st, 2nd, and 3rd grades of Korean middle schools from 2014 to 2016. This is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physical factors and academic achievement.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ed a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physical factors and academic achievement in push-ups and body fat in reciprocating long running ($p < 0.05$). In academic achievement, negative correlations were found in both Korean scores, mathematics scores and English scores ($p < 0.05$). Push-ups showed negative correlations in both Korean scores, English scores and mathematics scores ($p < 0.05$). Body fat had a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long reciprocating running and push-ups ($p < 0.05$). Negative correlations were found in both Korean scores, English scores and mathematics scores ($p < 0.05$). In academic achievement, Korean scores had a negative correlation in both reciprocating long running, push-ups, and body fat ($p < 0.05$). Mathematics scores showed a positive correlation in both reciprocating long running, push-ups, and body fat ($p < 0.05$). There was a negative correlation between Korean scores and English scores ($p < 0.05$). In English scores, there was a negative correlation in both reciprocating long running, push-ups, and body fat

($p<0.05$). There was a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Korean scores and English scores($p<0.05$). The conclusion of this study is that the physical factors of Korean middle school girls have a positive effect on academic achievement. In future research, it is suggested to sufficiently investigate the study of academic achievement through changes in physical factors by step.

Keyword ● Cardiopulmonary, Muscle strength, Muscle endurance, Quickness, Body mass index

■ 논문투고일 : 2020. 10. 29. ■ 심사완료일 : 2020. 11. 16 ■ 게재확정일 : 2020. 11. 18



통합 수업을 지향하는 대학영어의 수업 방안과 그 효과

홍 영 예*

목차

1. 들어가며
2. 대학영어 수업의 3단계
3. 통합 수업의 효과
4. 맺음말

1. 들어가며

인간의 언어 활동은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의 네 가지 영역으로 구성된다. 언어 교육을 하다 보면 가끔 학생들로부터 이 중에서 어느 영역이 가장 중요하냐는 질문을 접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필자는 항상 같은 대답을 되풀이하곤 한다. 이 네 가지 영역 중에서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모국어에 견주어 생각하면 쉽게 깨달을 수 있지만, 외국

*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어로서의 영어를 학습하는 학생들은 학습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영역에만 몰두하고 싶어한다. 그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영어 교사들은 통합 수업(integrated course)을 통하여 네 가지 영역을 병행하여 학습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언어 습득일 뿐 아니라 학습 효과 또한 증진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현 대학에서는 여러 가지 형태의 교양영어 수업이 존재한다. 어느 대학에서는 20세기에 전반적으로 시행되었던 의사소통 능력과는 동떨어진 독해와 문법 위주의 수업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가하면 어느 대학에서는 학생들의 취업에 도움이 되고자 토플이나 토익 등의 영어 인증시험에서 고득점을 받기 위한 시험 준비반을 개설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모든 형태의 수업을 실전에서 가르쳐 본 경험이 있는 필자는 학생들의 입장에서 가장 효과적인 수업 형태를 모색해 온 결과, 읽기 자료를 기반으로 한 통합 수업이 가장 바람직한 영어교육이라는 결론에 도달하여¹⁾ 이 논문을 통하여 대학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교수들에게 그 수업 방안을 제안하고 그 실효성에 관하여 평가받고자 한다.

2. 대학영어 수업의 3단계

필자가 제안하는 대학영어 수업은 읽기 자료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읽기 전(pre-reading) 학습, 읽기 중(while-reading) 학습, 읽은 후(post-reading) 학습의 3단계로 나눌 수 있다. 읽기 전 학습으로는 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배경 지식과 관련된 토론을 하고 본문에 나오는 새로운 어휘들에 대한 개념을 정리한다. 읽기 중 학습으로는 문장을 쉬운 표현으로 바꾸어 말하기(paraphrase), 글 속에 암시되어 있는 내용을 유추(inference), 문단의 주제(main idea)를 말하거나 내용을 요약

1) 이러한 결론은 오랜 기간동안 학생들의 강의 평가와 교수들의 수업 개발 회의를 통하여 나온 것이다.

(summary)하는 등의 작업 등을 수행한다. 읽기 후 학습으로는 본문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를 확인하는 절차로 사지선다형이나 짧은 응답을 구하는 질문을 하거나, 글의 완전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자신이 읽은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절차를 갖는다. 마지막으로 글의 주제와 관련하여 자신의 의견을 표명하는 에세이를 써보는 것도 독려한다. 교사는 이러한 3단계 학습과정을 통하여 학생들의 읽기 능력²⁾을 향상시켜줄 뿐 아니라 언어습득의 4가지 영역을 골고루 연습할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으로 제공해준다.

1) 읽기 전 학습

배경 지식은 학생들의 독해 능력에 크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글을 읽기 전에 그 글의 주제와 관련된 내용을 토론하는 것은 말하기 연습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읽기 훈련을 위한 선행 학습이 된다. 이 논문에서는 인터넷을 통하여 쉽게 접할 수 있는 Psychology Today에 실린 “Strangers Need Not Apply”라는 글을 사용하여 각 학습 단계의 구체적인 예를 보여주려고 한다.³⁾ 이 글에서 다루고 있는 개념은 친족등용(nepotism)이다.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글의 주제와 관련된 질문을 작성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수업 시간에 소규모 그룹을 형성하여 자유롭게 토론하도록 한다.⁴⁾

2) 읽기 능력이란 다음과 같은 종합적인 능력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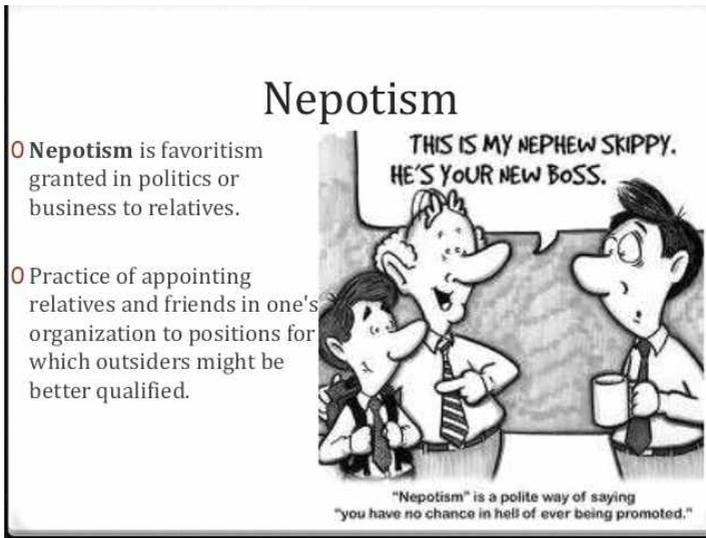
- 1) 사실적인 정보를 찾아내는 능력
- 2) 글의 흐름이나 시간적, 공간적 순서를 이해하는 능력
- 3) 주제와 요지를 찾는 능력
- 4) 원인과 결과를 파악하는 능력
- 5) 비교와 대조를 하는 능력
- 6) 추리하는 능력
- 7) 결론을 내리는 능력
- 8) 글에 나온 등장인물들의 성격을 파악하는 능력
- 9) 글의 원전을 알아내는 능력

3) Maestripiერი, D. (2012), Strangers Need Not Apply. Psychology Today.

4) 고급반(advanced class)의 경우는 질문을 대하자마자 토론을 시작할 수 있으나 중급반(intermediate class)의 경우에는 전 시간에 질문을 미리 알려주고 대답을 준비할 시간

가. Pre-Reading Discussion Questions

- a. How do people get good jobs?
- b. Do you think getting a good job through networking is fair or unfair?
- c. What kind of contacts do you think are the most helpful in getting a job—friends, teachers, or relatives? Explain.



토론을 마친 후에는 그룹당 대표 한 명이 토론 내용을 요약하여 발표한다. 5) 이러한 토론과 발표를 통하여 글의 배경을 이해시킬 뿐 아니라 영어로 말하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을 줄 필요가 있다.

- 5) 영어로 말하기에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은 종종 토론할 때나 발표할 때 그 내용을 글로 작성하여 읽으려는 시도를 한다. 이때 주제어(keyword)를 적어놓고 토론이나 발표시 잠깐씩 보는 것은 상관없으나 원고(script)를 작성해놓고 읽는 것은 지양하도록 강조해야한다.

학생들이 영어로 쓰인 글을 읽을 때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은 어휘력 부족에 기인한다. 학생들이 모르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일일이 사전을 찾아가면서 글을 읽으면 글의 흐름을 파악하는데 방해가 될 뿐 아니라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하는데도 어려움이 있다. 또한 사전에서 단어의 의미를 찾았다 하더라도 맥락(context)에 맞는 의미를 선택했는지도 의문이다. 따라서 필자는 글을 읽기 전에 학생들에게 문맥에 맞는 단어의 정의를 제공하고 학생들은 본문에서 그 단어를 찾아내는 간단한 어휘 연습문제를 숙제로 내준다.

나. Vocabulary Exercise⁶⁾

Read Strangers Need Not Apply to find the words that match the definitions below. You will find the words within the paragraphs listed above each set of definitions.

Paragraphs 1~2

	n.) a person who is protected and aided by the patronage of another person
	adj.) most typically representative of a quality, state, etc.: perfect
	adj.) using power unfairly in order to get jobs or other benefits for your family or friends
	v.) to give approval or sanction to
	phr. v.) to have a hope or likelihood of winning, succeeding, etc.
	v.) to manipulate in a fraudulent manner, especially for profit

고급반의 경우는 본문을 이해하기 위하여 꼭 알아야 할 단어들을 중심으로 그 의미를 영어로 정의하도록 하는 어휘 숙제로 대체할 수 있다.

이처럼 학생들에게 글에 대한 배경 지식을 공부하게 하고 그와 관련된 어휘들을 미리 생각해보게 하는 방법이 글의 내용을 가장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6) 어휘 연습문제는 분량이 많아서 지면상 앞 두 문단의 정의만 소개하도록 하겠다.

마지막으로 듣기 훈련도 간과할 수 없는데 필자의 경우는 학생들에게 원 어민이 전문을 읽은 mp3 파일을 제공하여 학생들 스스로 되도록 여러 번 듣고 소리내어 따라 읽는 훈련을 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학생들이 얼마나 열심히 듣고 읽는 훈련을 했는지는 다음 단계인 읽기 중 학습에서 학생들에게 한 문단씩 읽어보도록 함으로써 어느 정도 확인이 가능하다.

2) 읽기 중 학습

읽기 전 학습을 통하여 배경 지식과 새로운 어휘에 관해 준비가 된 학생들은 본격적으로 글을 읽는 과정에 들어간다. 이때 교사는 문단별로 세부 사항보다는 주제(main idea)에 관련된 이해도 측정 문제를 만들어서 학생들로 하여금 그 답을 찾아 발표하도록 한다. 답을 찾는 과정은 개인 활동보다는 그룹 활동으로 토론을 통하여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 Reading Comprehension Questions⁷⁾

Ph 1	What is the difference between a usual job recommendation and an Italian job recommendation?
Ph 2	What does a letter of recommendation usually provide?
	In Italy, what is the recommendation usually made with?
	How important is a phone call from a very powerful person?
Ph 3	What can you infer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a country's economic situation and the amount of nepotism?
Ph 4	Why do some <i>baroni</i> turn down academically outstanding students?
Ph 5~6	Why couldn't the author and his friend find an adviser after they were admitted to a doctorate program?

7) 고급반의 경우에는 교사가 질문을 제공하는 대신에 학생들이 직접 질문을 작성하고 그 질문을 사용하여 상대방을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한다.

	What was evident to the author after graduation?
Ph 7	What has been a hot issue in the academia of Italy?
Ph 9	Why have many qualified job candidates left Italy?
	What do you infer from the fact that eight professors shared the same last name?
Ph 10	Why is nepotism selfish?
Ph 11	What is the similarity between rhesus macaque societies and human societies?
Ph 12	Why is nepotism neither good nor bad in the animal world?
Ph 13~14	What three kinds of crimes are mentioned as associated with nepotism?
Ph 15	How has American capitalism gradually changed?
Ph 16	What did Carmela Sopranos do?

문단별로 읽기를 할 때는 세부적인 사항을 다루는데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복잡하고 어렵게 쓴 표현을 쉬운 표현으로 풀어서 다시 말해보는 것(paraphrase)과 본문에 직접적으로 서술되어 있지는 않지만 글의 맥락(context)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내용을 유추(inference)해보는 것도 읽기 중 학습에서 다루어진다. 또한 문장과 문장 사이의 연결 관계를 이해하기 위하여 적절한 전환어(transition word)를 확인하고 대명사가 언급하는 선행사(antecedent)를 파악하는 것도 읽기 중 학습에서 다루어질 수 있는 사항들이다.

3) 읽은 후 학습

읽은 후 학습은 읽은 글의 내용을 총정리하고 자신의 이해도를 평가해보는 종합적인 학습 단계이다. 글이 담고 있는 주제에 대한 기존의 선입견과 읽기 전 학습에서 알고자 했던 내용과 읽기 중 학습을 통하여 학습된 내용과의 관계성을 규명하여 한 차원 높은 의미를 형성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창조적 활동의 단계라고 할 수 있다.⁸⁾

읽은 후 학습 활동은 다음과 같은 선다형(multiple choice) 문제를 풀면서 글의 부분적인 이해도를 평가할 수 있다.

라. Multiple Choice Question

a. Which of the following is NOT true according to the given passage?

- ① The affluent country is less nepotistic.
- ② Those who entered academia without recommendation could not expect to go further.
- ③ Nepotism is also bad in the animal world.
- ④ American capitalism increasingly resembles Italian nepotism.

문제의 유형은 학생들의 수준에 맞춰서 다양한 형태로 변화를 줄 수 있다. 한편, 글의 전체적인 이해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전체 글의 요약문을 완성시키는 활동을 한다.⁹⁾

마. Summary Activity

Fill in the blanks of the following summary using the clues in the box.

• abide	• kin selection
• biological	• media attention
• career advancements	• nepotistic
• common	• network
• equality	• powerful people

8) Hong, YoungYeah. (2016), Teaching Method and Evaluation of English Reading Class. Journal of English Linguistics, 11, 77-88.

9) 고급반에서는 그룹 활동으로 학생들이 직접 요약문을 작성하는 훈련을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thical rules • extreme • family members • favoritis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qualification • reproduced • selfishness • unethical
--	---

In Italy, success in getting a job and _____ are dependent on the recommendation rather than the _____ of the applicant. There is a _____ of university professors who tend to admit students who are their _____ or people recommended by social contacts or _____. There has been a lot of _____ given to scandals involving nepotism among Italian professors.

From the _____ point of view, nepotism is simply _____ toward kin which is a natural feature of animal behavior evolved through _____. It is _____ in disguise because the reason an animal helps kin first is to make its family strengthened and _____. Some animals like rhesus macaques are highly nepotistic, but they don't break any _____.

Nepotism among humans may be considered _____ and criminal depending on how _____ it is. The author moved to America because American society was founded on merit, fairness, and _____, but it is gradually becoming more _____. Many people don't _____ by the rules, and nepotism is so _____ nowadays.¹⁰⁾

마지막으로 글을 읽고 배운 내용을 토대로 하여 논리적인 글을 작성함으로써 학습 내용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10) 요약 활동의 모범 답안은 부록에 수록하였다.

바. Writing Activity

Write about the nepotism in Korea.

이러한 학습을 통하여 학생들이 언어수행 능력을 증진할 뿐 아니라 교양을 높이고 폭넓은 사고를 할 수 있다는 예시로서 중급반과 학생의 작문과 고급반 학생의 에세이를 각각 하나씩 소개하도록 하겠다.¹¹⁾

사. Students' Writings

a. One-Paragraph Writing from an Intermediate Class

Three Aspects of Korean Nepotism

Korean nepotism is generally unfair because it considers the following three aspects. First, Koreans help their relatives to enter university or to get a job. Second, Koreans favor people from the same region with them. Last, Korean employers are especially generous to applicants who graduated from the same school with them regardless of the applicants' school grades or qualifications. These aspects are unfair since they are not related with personal efforts. Therefore, they should be eradicated.

b. Five-Paragraph Essay from an Advanced Class

Three Causes of Persistent Poverty

The expression "a gold spoon" is derived from the phenomenon of Korean society in which parents' power and wealth

11) 여기에 실린 학생들의 글은 담당교수의 피드백을 반영하여 수정한 최종본이다.

are passed on to their children. Do you know that not only power and wealth but also poverty and debt are hereditary? Koreans call the child who inherited his parents' poverty and debt "a dirt spoon." Literally, a dirt spoon is an expression which represents persistent poverty. I found three main causes of the persistent poverty which are related to education, nepotism, and living environment.

The most important cause of the persistent poverty is hereditary succession of low education. Poor families cannot spend much money on their children's education. The most authoritative and profitable jobs in the modern society are those that require a high degree of education. For example, there are doctors, lawyers, and so on. The families often cannot afford to pay for their children's tuition until they are highly educated, and they often stop their studies at an early age. As a result, such a lack of education is passed on with poverty to the next generation because there are few jobs that a less educated person can get and most of them are unprofitable.

The second cause is nepotism, which is prevalent in Korean society and which means getting jobs or other benefits by using power. Unlike the education in poor families, rich families enroll their children in prestigious elementary schools or kindergartens, thus creating their own "rich" community. Therefore, the children

from the families can easily get a good job through their relationships that they have formed from the community since they were young. For the rich, such relationships can be their background. However, for poor families, background does not exist at all because almost everyone around them is also poor. They have to get a job on their own without any help from others.

Finally, the surrounding environment also affects the persistent poverty. Usually, the poor live in poor neighborhoods, while the rich live in rich neighborhoods. Unlike the rich neighborhoods where much money is spent on security, the poor neighborhoods are often a den of crime. Therefore, the children in the poor neighborhoods are more vulnerable to drugs, violence, and crime than those in the rich neighborhoods. This makes them difficult to preserve the right values for them and more likely to be involved in crime. Since the employer tends to avoid people related to crime, it is hard for them to participate actively in society.

To sum up, hereditary succession of low education, cronyism, and poor living environment are the main causes of ongoing poverty. To solve this problem, I think the government should create and implement certain policies related to education, employment, and housing to support the poor and to end the vicious circle of poverty. Without this kind of help, the poor and their children will not have an opportunity to escape from poverty.

이와 같은 활동들은 학습된 내용들을 자신이 가지고 있던 기존 지식 체계와 결합시킴으로써 자신의 지식 체계를 보다 광범위하게 넓힐 수 있도록 도와준다.

3. 통합 수업의 효과

본 논문에서는 언어수행 능력의 4가지 영역을 골고루 학습하기 위한 수업 방안으로 읽기 교재를 선택하고 수업의 단계를 읽기 전, 읽기 중, 읽기 후로 나누어 각 단계에서 어느 한 가지 영역에 치중되지 않는 통합 수업이 될 수 있도록 적절한 활동들을 소개하였다.

필자는 이와 같은 수업을 디자인하고 시행해오면서 이 수업이 상당히 효과적이었다는 것을 다음과 같이 학생들의 강의 평가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었다.

아. Course Evaluation¹²⁾

- I really enjoyed the activities. It makes me understand the subject more.
- 적극적으로 수업을 위해 준비해주신 것이 좋았고 학생들과의 의사소통을 중시한 것이 좋았다.
- 영어를 별로 잘 하지 않아서 걱정이 많이 되었었는데 너무 좋았어요! 발표가 좀 많긴 했지만 영어를 의미있게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 어눌한 발표나 토론, 질문에도 칭찬해주시고 성의있는 대답을 해주셔서 좋았습니다.
- 수업시간에 학생에게 발표를 시키는 것이 부담스러웠음. 하지만 수업준비를 엄청 꼼꼼히 해오셔서 수업 이해에 도움이 많이 됐음. 장단점이 있었던 수업.
- 매 article마다 그룹끼리 의견을 나누고 activity들을 하는게 솔직히 힘들기도 했지만 전반적으로 그 article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된거같아서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 과제들을 수행하면서 영어를 더 접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수업도

12) 강의 평가 참여율을 높이기 위하여 우리말로 작성하는 것을 허용하였다.

article을 함께 읽으면서 어려운 부분을 같이 해결해나가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 교수님께서 학생들이 작은 참여라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셔서 영어 실력이 향상되도록 도와주신 것 같다. 자신이 열심히 매 수업에 참여한다면 영어 실력이 조금이라도 향상되는 수업이었다.
- 제 영어의 부족함을 많이 배웠고, 더불어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 영어 토론에 좀 더 활발하게 참여했다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있다.
- 스스로 문제를 내거나 교수님께서 내주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통해 그 주제에 대한 이해력이 높아졌으며 공부를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 수업내내 교수님이 학생들의 이해도를 신경써주시고 학생들끼리의 교류가 활성화되도록 도움을 많이 주셔서 부담스럽지않고 즐겁게 수업 내용을 공부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 평소에 영어의 모든 면에 있어 자신감이 부족했으나 대학영어를 수강하면서 조원들과 토론 활동을 통해 의사소통 능력이 어느 정도 향상될 수 있었고, 에세이를 쓰고 피드백을 받는 과정에서도 글 쓰는 방법, 문법적인 면에서 나도 모르게 향상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 학생들 배려 많이 해주시고 피드백 엄청 빠르세요! 구체적으로 평가기준이 있는 점이 무척 좋았습니다.
- 교수님이 수업 전에 내주시는 과제와 수업 과정에서 진행하시는 prereading discussion, reading comprehension, summary 모두 유익하고 수업 내용을 전반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교수님의 일방적인 수업이 아니라 학생들이 영어로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 주신 점에 대해 굉장히 감사하고, 영어실력이 향상되는데 도움을 많이 준 최고의 강의였습니다.

모든 것이 영어로 진행되는 것에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은 처음에는 무척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지만 이러한 상황에 곧 익숙해졌고 때로는 또래 친구들의 도움을 받기도 했다. 이 논문에서 소개한 통합 수업 형태는 학생들에게 끊임없이 의견을 구하고 이를 긍정적이고 건설적으로 반영한 결과물이다.

4. 맺음말

이 논문에서는 읽기 전, 읽기 중, 읽은 후의 3단계 학습 지도 방법을 소개하고 이러한 수업 방식이 단지 읽기 영역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말하기, 듣기, 쓰기 능력까지 병행하고 활용하는 것이라는 점을 피력하였다.

읽기 전 학습에서는 글의 주제와 관련된 내용으로 그룹별 토론을 하면서 말하기 능력을 개발하고 토론 후 발표를 통하여 발표력을 키운다. 또한 어휘 숙제를 통하여 어휘력을 갖추고 mp3 파일을 통한 듣기 훈련을 통하여 정확한 발음을 확인하고 소리 내어 읽기에 대한 자신감을 얻을 수 있다.

읽기 중 학습에서는 그룹 활동을 통하여 구성원끼리 토론을 하면서 교사가 준비한 이해도 측정 문제의 답을 찾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4가지 언어 수행능력이 모두 필요한 통합 수업이 강조된다. 문단별로 읽기를 할 때는 주제문 찾기, 문단 요약하기, 다른 말로 바꾸어 말하기, 유추하기, 맥락에 맞는 전환어 사용하기, 대명사의 선행사 찾기 등의 활동이 이루어진다.

읽기 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는 학생들이 글의 주제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인데 너무 세부적인 사항에 주력하다 보면 전체적인 글의 흐름을 놓칠 수 있다. 따라서 읽기 후 학습에서 요약문을 작성하는 것은 학생들이 글의 전체적인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해볼 수 있는 척도가 된다. 마지막으로 본문의 주제와 관련된 글을 쓰는 창의적 활동을 수행함으로써 자신의 지식 체계를 넓히고 교양을 높일 수 있다.

이러한 통합 수업을 진행하면서 학생들의 만족도를 확인해 본 결과 대부분의 학생들이 큰 성취감을 느낀다고 말하고 있다. 다만 이 논문에서 소개한 수업 방식과 수업 자료는 중급반과 고급반을 대상으로 디자인되어서 초급반 학생들에게는 적합하지 않다. 초급반 학생들을 위한 적절한 통합 수업도 조속히 개발해야 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Allport, A., MacKay, D., Prinz, W., & Scheerer, E. (Eds.). (1987), *Language Perception and Production*, N.Y.: Academic Press.
- Bloome, D. & Green, J. (1984), Directions in the sociolinguistic study of reading. In Pearson, P. (Ed.), *Handbook of reading research*. White Plains, N.Y.: Longman. 395-452.
- Brown, D. (1994), *Teaching by Principles -An Interactive Approach to Language Pedagogy*. N.J.: Prentice Hall Regents.
- Brumfit, C. & Johnson, K. (Eds.). (1979), *The Communicative Approach to Language Teaching*.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 Carrell, P., Devine, J., & Eskey, D. (1988), *Interactive Approaches to Second Language Reading*.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arroll, D. (1994), *Psychology of Language*. 2nd Ed. Pacific Grove: Brooks/Cole Publishing Company.
- Chomsky, N. (1957), *Syntactic Structures*. N.Y.: Mouton.
- Freeman, Y. & Freeman, D. (1992), *Whole Language for the Second Language Learners*. Portsmouth: Heinemann.
- Hadley, A. (1993), *Teaching language in context*. Boston: Heinle & Heinle Publishers, Inc.
- Hong, YoungYeah. (2016), Teaching Method and Evaluation of English Reading Class. *Journal of English Linguistics*, 11, 77-88.
- Maestriperi, D. (2012), Strangers Need Not Apply. *Psychology Today*.
- Malarcher, C. (2005), *College Reading Workshop*. Seoul: Compass Publishing Inc.

- Nunan, D. (1989), *Designing Tasks for the Communicative Classroom*.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Olge, D. (1986), K-W-L: A teaching model that develops active reading of
expository texts. *The Reading Teacher*, 39, 564-570.
- Pearson, P. & Stephens, D. (1994), *Learning about literacy: 30-year
journey*. In Ruddell, R., Ruddell, M., & Singer, H. (Eds.),
Theoretical models and processes of reading. N.Y.: International
Reading Association Inc.
- Reynolds, R. et al. (1982), Cultural schemata and reading comprehension.
Reading Research Quarterly, 3, 353-366.
- Rosenblatt, L. (1994), The transactional theory of reading and writing. In
Ruddell, R., Ruddell, M., & Singer, H. (Eds.), *Theoretical models
and processes of reading*. N.Y.: International Reading Association
Inc.
- Song, Heshim. (2002), Changes in English Reading Education. *Journal of
English Linguistics*, 7, 39-51.
- Widdowson, H. (1978), *Teaching Language as Communication*.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 Widdowson, H. (1979), *Explorations in Applied Linguistics*.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 Appendix

Summary Activity—Answer Key

Fill in the blanks of the following summary using the clues in the box.

<ul style="list-style-type: none">• abide• biological• career advancements• common• equality• ethical rules• extreme• family members• favoritism	<ul style="list-style-type: none">• kin selection• media attention• nepotistic• network• powerful people• qualification• reproduced• selfishness• unethical
--	---

In Italy, success in getting a job and career advancements are dependent on the recommendation rather than the qualification of the applicant. There is a network of university professors who tend to admit students who are their family members or people recommended by social contacts or powerful people. There has been a lot of media attention given to scandals involving nepotism among Italian professors. From the biological point of view, nepotism is simply favoritism toward kin which is a natural feature of animal behavior evolved through kin selection. It is

selfishness in disguise because the reason an animal helps kin first is to make its family strengthened and reproduced. Some animals like rhesus macaques are highly nepotistic, but they don't break any ethical rules. Nepotism among humans may be considered unethical and criminal depending on how extreme it is. The author moved to America because American society was founded on merit, fairness, and equality, but it is gradually becoming more nepotistic. Many people don't abide by the rules, and nepotism is so common nowadays.

■ 국문초록

본 연구는 교양교육으로서의 대학영어가 지향해야할 모델로 언어활동의 4가지 영역이 골고루 강조된 통합 수업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수업 방안을 소개하였다. 통합 수업은 학생들의 교양을 높이고 사회 참여 의식을 신장할 수 있는 읽기 자료를 기초로 구성되며 읽기 전 학습, 읽기 중 학습, 읽기 후 학습의 3단계로 나누어질 수 있다. 읽기 전 학습에서는 토론을 통하여 배경 지식을 쌓고 글 속에 등장하는 어휘들을 미리 공부하여 글의 내용을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기초를 다지고 읽기 중 학습에서는 이해도 측정 문제를 풀면서 글의 전체적인 내용 뿐 아니라 중요한 세부 사항들을 이해한다. 마지막으로 읽기 후 학습에서는 전체 글의 요약문을 완성 또는 작성하고 글의 주제와 관련된 에세이를 쓰는 창의적 활동을 수행한다. 대학영어의 중급반이나 고급반을 위하여 디자인된 이러한 통합 수업은 학생들의 강의 평가를 통하여 그 효율성이 충분히 검증되었다.

주제어 ● 대학영어, 통합 수업, 읽기 전 학습, 읽기 중 학습, 읽은 후 학습

■ Abstract

College English as an Integrated Course and Its Effectiveness

Hong, Young Yeah

This paper suggests that College English for liberal arts education should aim at an integrated course which emphasizes all four skills of language abilities almost equally and then introduces the teaching process specifically. College English as an integrated course is based on the reading material which enhances the level of students' culture and encourages their social participation, and it is divided into three steps such as pre-reading, while-reading, and post-reading. Before reading, students will cultivate the background knowledge through group discussion and study new vocabulary words to understand the contents of the reading material more effectively. While reading, students will develop more advanced reading comprehension and critical thinking skills with guidance from the instructor and through discussions with their peers. After reading, students will perform more creative activities such as summarizing the entire article and writing an essay of which topic is related to the given article. This course has been designed to develop English language proficiency for intermediate and advanced classes, and its efficiency has been proven through students' course evaluation.

Keyword ● College English, Integrated Course, Pre-Reading, While-Reading, Post-Reading

■ 논문투고일 : 2020. 10. 30. ■ 심사완료일 : 2020. 11. 17 ■ 게재확정일 : 2020. 11. 19

● ● ●

여성 범죄자 보도 형식과 여성의 자기서술: 신정아 사건을 중심으로*

권미란**

목차

1. 들어가며
2. 언론의 법적 담론의 서사 방식: ‘악녀’ 탄생
3. 자서전: 여성 범죄자의 ‘자기서술’과 자아 형성
4. 맺음말

1. 들어가며

2020년 5월 3일, 일명 “신정아 사건”의 주인공 변양균(전 청와대 정책 실장)에 관한 짙막한 기사가 난다. 내용은 그가 자신의 연금을 감액 지급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 소원을 냈다 기각되었다는¹⁾ 사실이었다. 몇몇 신문

* 본 논문은 목원대학교 학술연구지원사업에 의해 지원받은 논문임

** 동서울대학교 시간강사

1) 허경구, 「“연금 감액은 합헌”...‘신정아 사건’ 변양균 헌법 소원 기각」, 『국민일보(2020. 05. 04)』의 기사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10년이 지난 지금도 당시 사건을 기억하게 하는 것은 권력자 변양균이 아닌 여성 범법자 신정아다. 그의 이름 바로 앞에 붙은 ‘신정아 사건’이란 수식어가 이를 증명 해준다.

기사를 통해 학력위조와 공금 횡령으로 1년 6개월 형을 선고받은 신정아와 다르게, 그는 신씨와 연관된 혐의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받고 2010년 사면되었다는 사실을 새삼 확인하게 되었다.

2007년 9월 신문에는 신정아 학력위조 사건의 여파로 드러난 자신의 학력위조를 밝히게 된 저명인사들의 고백과 언론과 법정에서 쉽 없이 불리던 '신정아'란 여성에 관한 이야기로 가득하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당시 한국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정치 추문 '신정아-변양균' 사건에서 남은 것은 학벌 중심주의도, 권력형 비리도 아닌 오직 '신정아'라는 이름 석 자뿐이다.

신문은 담화를 위한 수단이나 정보를 넘어서, 개인의 사고방식에 영향을 준다. '독자와 끊임없이 진행되는 지적 대화에 참여하는 적극적이고 필수적인 기여자다. 신문은 '실제로' 일어난 일에 대한 증거로 신문을²⁾ 인용한다. 이런 점에서 독자에게 신문은 가장 진실성 있는 자료이자 정보로 인식된다. 독자는 신문에 실린 내용이 우리 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이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가치 있는 진실이자 사실이라고 믿는다.

하지만 일명 '신정아-변양균' 게이트라고 불리는 사건을 다루는 언론, 특히 신문 매체의 태도는 언론이 지향하는 진실과 사실 보도의 맥락에서 한참 벗어나 있다. 일례로, 한 신문기자는 前 동국대 교수 신정아가 '꽃뱀'이라는 증거라며 그녀의 나체 사진³⁾을 대중에게 공개한다. 공신력을 가진 언론사가 한 여성이 성 로비를 했다는 증거라며 신체의 중요 부위만 가린 선정적인 사진을 신문 지상에 마치 먹잇감처럼 던져놓은 것이다.

당시 언론 보도는 신정아라는 여성 범죄자를 '팜프파탈'로 규정하기 위해, 사건과 관련 없는 정보까지 제공한다. 언론의 관심은 그녀가 진짜 학력

2) Kieran Mcevoy(1996), "Tall Stories? Reading Law and Literature", Dartmouth, p181.

3) 문화일보는 2007년 9월 3일 자 신문 3면에 신정아의 나체 사진을 게재한다. 이에 11개 언론·여성 단체는 문화일보 사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신씨의 나체 사진 게재를 규탄했다. 그들은 한국사회에서 돈과 권력이 관련된 사건에서 여성이 성을 매개로 돈과 권력에 접근했다고 결론짓는 일이 다반사라며, '알몸 사진' 게재 역시 우리 사회에 내재된 여성비하가 얼마나 심각한지 나타낸다고 성토했다.

위조를 했느냐가 아니라, 오직 그녀가 누구와 무슨 거래를 했고, 그 거래에서 여성이라는 점⁴⁾이 어떻게 작용했는지에 있었다.

신정아-변양균 사건을 보도하는 언론의 서사 방식은 가족, 남성, 여성, 권력, 학력 등으로 가시화된 한국 내 집단인식을 보여준다. 법과 언론이 '여성 범죄자'를 다루는 방식에서 우리 사회에 뿌리 깊은 남성 중심적 사고가 드러난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신정아-변양균 사건'을 다루는 언론과 법의 태도를 하나의 사회 현상이라 보고, 그 현상 속에 드러난 여성 범죄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성 인식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새삼, 신정아 사건에 주목하는 데는, N번 방 사건⁵⁾을 비롯해 각종 여성 혐오 범죄가 일어나는 지금이야말로, 여성 범죄자 또는 범죄와 관련된 여성을 다루는 언론의 보도방식을 논의할 적기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제껏 범죄와 관련된 여성들은 피해자이든 가해자이든 독자의 흥미를 끌 만한 소

4) 미모의 여성에 관한 사회적 편견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매우 뿌리 깊다. 신문상에 신정아라는 이름은 1999년을 기점으로 큐레이터라는 직업을 알리고, 국내 미술전시회나 문화예술 동양을 알리는 전문가로 종종 등장하게 된다. 2007년 7월 9일 광주비엔날레 감독 발탁 기사와 함께 그녀의 가짜 학위 논란이 있기 직전까지 신정아에 대한 평가는 젊은 나이에 성공한 전시기획자로 '수완도 뛰어(「여성이 경쟁력이다(15): 미술계... 큐레이터 세계의 우먼 리더들」, 『한국경제』 2001.03.15.)'날 뿐 아니라, "해박한 지식과 발로 뛰는 적극성(「미술: 신정아씨가 전하는 큐레이터로 산다는 것」, 『동아일보』 2005.05.03.)"까지 겸비한 인재였다. 하지만 이렇게 온갖 미사여구로 칭송되던 그녀의 성과는 곧 그녀의 젊고 아름다운 외모 덕분으로 순식간에 호도된다.

5) n번 방에 대한 언론 보도에서 범법자 조주빈은 "막을 수 없을 것 같았던 악마의 삶을 중단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2020. 03. 25.)"라며 자기 스스로 자신을 악마라고 칭한다. 이에 여성 인권단체들은 조주빈을 악마라고 칭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한다. 그 이유로, "서사가 있는 악마는 위험하다. 범죄를 관대하고 정당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여지를 만들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조주빈, 악마야... '씻을 수 없는 상처'도 없다.」, 『이데일리』, 박지혜, 2020.03.29. 이는 신정아를 악녀로 취급했던 언론과 함께, 인간을 정상과 비정상으로 이분화하는 서사 방식을 문제 삼는다. 악마와 악녀란 칭호를 얻는 순간 범죄자는 인간에서 악마가 된 서사의 주인공이 된다. 그리고 언론은 독자의 관심을 끌만한 조주빈의 과거 일화를 무분별하게 보도할 것이다. 언론에 의해 악녀가 되었던 신정아와 다르게 조주빈이 스스로 악마를 자처한 것은 이 때문이다. 남성 범죄자는 스스로 악마가 되어 자기 범행을 정당화하는 서사를 만들고자 하고, 여성 범죄자는 언론에 의해 악마로 규정되는 극명한 차이를 확인하게 된다.

재로 대상화되었고, 신정아-변양균 사건을 보도한 언론의 태도와 관점들이 이를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다시 말해, '신정아-변양균' 사건은 한국사회 속 여성비하와 혐오적 태도가 만연하다는 증거다. 신정아는 남성 권력자의 힘에 기대어 어린 나이에 감히 넘볼 수 없는 '사회적 지위'를 얻은 발칙한 불륜녀로 낙인찍혔고 범죄 사실과는 무관한, 개인 신상 정보는 물론이고 엄연한 사실도 거짓으로 날조되는 마구잡이식 폭로의 대상이 된다. 이는 매체의 폭력성을 고발하게 하며 그 매체가 개인의 사고와 인식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한 사회가 자녀야 할 시민의식과 법의식 그리고 문화의식을 양산하는 기제로서 매체의 역할을 다시금 논의하게 한다.

근대 이후, 독자라는 소비자가 등장한 이후 매체는 그들에게 주체로서의 경험과 대상을 대하는 관점을 제공해왔다. 그리고 그 관점과 경험적 지식을 토대로 독자는 개별적인 사고의 과정을 거쳐 자기 스스로 '진실'을 추구하는 '읽기'의 과정⁶⁾을 수행한다. 그러므로 매체가 제공하는 정보는 독자에게 어떤 현상을 바라보는 기준과 관점이 된다. 독자는 매체가 제공하는 정보가 모두 '진짜'라고 믿기 때문에 그 정보나 관점을 쉽사리 비판하지 못한다.

따라서 '신정아-변양균 사건'을 다루는 언론의 태도는 사건의 본질인 '학력위조'보다 신정아의 사생활 파헤치기에 주력했다는 점에서 문제시된다. 인터넷 댓글 등에서 확인되는 독자 반응, 특히 여성 혐오성 발언들이 '신정아-변양균 사건'을 언론의 폭력성과 범죄자의 인권, 성 이데올로기 등 우리 사회의 문제를 나타내는 현상으로 각인시킨다.

우리는 언론이 신정아를 촉망받는 인재에서 '사회 비리의 온상이자 타락의 주체'로 만들어가는 과정에 주목한다. 이는 한국사회의 법의식과도 연결된다. 그래서 여성 범법자를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을 포착하기 위해, 법에서 규정한 '죄'와 별도로 언론 보도방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6) 엘리자베드 프로인드(2005), 신명아 역, 『독자로 돌아가기』, 인간사랑, 3쪽.

‘신정아 사건’ 보도의 양상과 그 서사 방식을 명확히 규명하고, 그 안에 공유되는 사회적 담론을 밝힐 것이다. 담론 논의는 여성 또는 여성 범죄자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나 확언을 유도하는 우리 사회의 문제와 함께 올바른 법 의식과 집단 의식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효과를 지닌다.

이러한 맥락에서 신정아의 자서전 『4001』은 우리에게 필요한 ‘새로운 관점’이자 일말의 ‘가능성’을 담보하게 한다. 그녀의 글에는 언론과 법이 지닌 비논리성을 비난하는 주체의 목소리가 담겨 있다는 점에서 ‘신정아-변양균 사건’이라는 텍스트를 객관화할 정보가 담겨있다.

저자와 독자가 공유하는 텍스트에서, 양자 모두가 공유하거나 같은 목적으로 만든 결과물이라 해도 어떤 것은 명확하게 인식되지 않고 애매하게 남겨진다. 그것은 텍스트가 단지 현재 상황이나 목적에 의해 일시적으로 무언가를 나타내고 있을 뿐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준다. 따라서 텍스트는 어떤 목적이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읽힐 수 있다. 그리고 독자는 형식에 대한 무지·감수성 없음·불신·과도의 감수성 등⁷⁾ 무어라 확신할 수 없는 상태에서 텍스트를 읽는다. 독자의 반응은 오직 텍스트가 쓰여진 목적과 상황에 대한 이해로 가늠될 뿐이다. 그래서 언론 보도가 이루어진 목적과 상황을 검토할 때 우리는 비로소 그 결과물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고에서는 ‘신정아-변양균 사건’을 통해 우리 사회의 법과 문화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시도한다. 이를 위해 이 사건을 다룬 신문기사와 신정아의 자서전 『4001』을 분석하고자 한다. 신문은 우리 사회의 핵심이 되는 사건과 경향을 기록한 문서라는 점에서, 신정아의 자서전은 여성 범죄자가 자신의 범죄 사실과 공판 기록 그리고 재판 과정은 물론 자신을 다룬 언론에 대한 견해도 밝힌다는 점에서 분석의 대상이 된다. 이를 통해, 여성 범죄자를 다루는 우리 사회의 표면화된 담론들과 여성범죄자 신정아의 대응 양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7) 제임즈 클리포드·조지 E. 마커스(2000), 이기우 옮김, 『문화를 쓴다』, 한국문화사, 225쪽

2. 언론과 법적 담론의 서사 방식: ‘악녀’ 탄생

문학은 항상 독자에게 “어떠한 상황”을 제공한다. 독자는 뛰어난 상상력을 바탕으로 다채로운 상황 속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며 현 사회가 요구하는 행동과 사고를 습득한다.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특정 어휘는 독자가 수용해야 할 것들을 표면화한다. 그러므로 문학은 간접 체험이라는 경로를 통해 독자가 만나야 할 세상을 만든다. 이러한 문학의 성격은 현실에 대한 기록, 그 서사 방식에서도 드러난다. 우리는 기록된 누군가의 이야기나 사건에서 현실의 단면을 보게 된다. 그래서 문학과 사회·문화·예술의 관계는 마치 인물과 사건처럼 밀접하다.

하지만 실제 사건을 다룬 서사는 허구의 문학과는 다르게 ‘진실성’⁸⁾에 초점을 맞춘다. 그래서 독자는 진실이라고 여기는 ‘절대적 경계’가 허물어졌을 때, 그 서사 방식을 비판한다. 가령, 법의 작동원리인 정의가 그 타당성을 잃는다면 법 자체는 물론, 그 법을 수행하는 사회 시스템 전체를 문제시하게 된다. 그러므로 매체의 서사 방식은 사회 전체 지반을 흔들 수 있는 강력한 힘을 지닌다. 왜냐하면, 언론은 국민을 대변하는 말하기이자 글쓰기이기 때문이다.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기자가 제공한 ‘정보’들은 진실을 호도하는 허구가 될 때 사회적 폭력이 된다. 그 폭력의 사례가 바로 ‘신정아-변양균 사건’에서 언론의 태도다.

언론은 유독 신정아를 꽃뱀, 사기꾼, 악녀로 묘사하는 데 열을 올렸다. 그들의 악녀 만들기는 신정아가 젊은 나이에 성공한 미혼 여성이라는 점에서 비롯된다. 신정아는 학력 위조범보다는 정계 고위층을 이용한 파렴치한 악녀로 그려졌다. 그녀의 혐의는 몸으로 성공을 얻어낸 도덕 불감증으로, 형

8) 진정성은 ‘꾸밈없고 자연스러운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 그 개념은 그게 아닌 것이 무어냐를 집어내 그 반대로 이해하는 것이 최적인 용어다. 트릴링은 사물의 외관과 실재를 구분하는 일이 결국에는 지극히 도덕적인 성격을 갖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렇게 보임과 ‘정말로 그러함’ 사이의 구별, 즉 외양과 실재의 구분이 바로 진정성 논의 핵심인 것이다. Lionel Trilling(1972), Sincerity and Authenticity, p 93.

별은 법정 밖, 언론에서 내려졌다. 언론이 만들어낸 ‘악녀 신정아’라는 허상은 마치 진짜 사실처럼 부풀려지며 법정에서도 사용된다. 언론이 만들어낸 허상과 픽션을 확인하는 법정공방, 즉 여론이 만들어낸 허상과 픽션을 법정이 확인하는 식이 된다.

‘내러티브는 기대된 것과 지나가 버린 것 사이의 변증법적 대립으로, 이야기는 규범적인 것을 의심하게 만든다. 그래서 하나의 이야기가 성립하려면 예기치 않은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한다. 즉 이야기는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라기보다는 발견하는 도구⁹⁾로, 우리는 ‘신정아 사건’을 통해서 우리 사회 저변에 존재하는 문제들을 발견하게 된다.

신정아-변양균 사건 보도는 범법행위를 고발하기보다 여성을 비하하고 난도질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처럼 여겨진다. 신정아 사건은 그녀의 사생활을 파헤치고 일거수일투족을 보도하는 언론의 과열 경쟁을 불러일으켰다.

신정아-변양균 사건 보도는 범법행위를 고발하기보다 여성을 비하하고 난도질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처럼 여겨진다. 신정아 사건은 그녀의 사생활을 파헤치고 일거수일투족을 보도하는 언론의 과열 경쟁을 불러일으켰다. 물론 그 과정에서 한국사회에 만연한 문화·예술 비리들이¹⁰⁾ 밝혀지기도 했지만 가십 기사에 비해 턱없이 부족했다. 그녀의 외모와 패션에 대한 과잉된 집착은 여성을 ‘보여지는 자’로, 계산적이고 영리한 존재로 그려내면서 여성성을 소비 주체¹¹⁾로 강조한다.

아래의 기사문은 신정아가 금호미술관 큐레이터일 때, 전시회를 설명한 부분이다. 전시회의 기획자로 소개된 그녀의 말은 신뢰할 만한 공신력 있는 정보로 기능한다. 주요 신문에서 전도유망한 미술 전문가로 소개되었던 신정아는 곧 로비스트 린다 김과 사기꾼 황우석 박사¹²⁾와 동급 취급된다.

9) Jerome seymour Bruner(2010), 강현식·김경수 역, 『이야기 만들기』, 교육과학사, 77쪽.

10) 당시 신문에는 학벌중심주의와 각 문화예술 분야의 학력위조 사례를 들며 우리 사회의 병폐를 지적한다.

11) 이경숙·김훈순(2010), 「소비주체로서 젠더 이미지와 사회문화적 함의:(남녀탐구생활)을 중심으로」, 『언론과학연구10(3)』, 한국지역언론학회, 362쪽.

금호미술관 큐레이터 신정아씨는 “90년대 말 뉴욕 현대미술관에서 열렸던 ‘High & Low’전의 개념을 확장한 전시회”라며, “미술 뿐 아니라, 국가의 문화생활 전체가 어떻게 변천해왔는가를 총체적으로 보여주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조선일보 2000. 2. 10 진성호 기자

젊은 인재로 추앙받던 ‘신정아’는 곧 권력형 비리의 주모자이자 ‘고위 관직자를 유혹한 꽃뱀’이 된다. 미디어와 인터넷은 경쟁적으로 더욱 선정적인 이미지로 신정아를 그려낸다. 즉 ‘신씨가 남성을 유혹하여 파탄에 빠지게 한 ‘악녀’의 이미지를 썼다면 변씨는 잘못은 했지만, 피해자라는 동정론이 나온다. 이는 미디어나 네티즌의 인식이 남성 중심적인 문화를 반영¹³⁾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언론은 신정아와 당시 정권을 조롱하며 변씨의 권력 횡포를 비판하다가 신정아를 비난하는 데 초점을 둔다.

검찰이 신씨 오피스텔에서 압수한 보석 23점 가운데 11점은 변씨가 준 4048만 원어치 상품권으로 산 것 ... 변씨가 추적이 안 되는 상품권을 누군가로부터 뇌물로 받아 애인한테 준 것이다. ... 청와대 정책실장이 그렇게 권력을 사유물처럼 써왔는데도 “시스템으로 작동한다.”라고 자랑해온 이 정권의 공직감시 시스템은 움직이지 않았다. 청와대 대변인은 언론을 향해 “이렇게 무책임한 주장을 함부로 기사라고 쓸 수는 없다”며 “법적 대응하겠다”고 협박했다.

- [사설] ‘권력형 비리’로 판명 난 ‘깜도 안 되는 의혹’ : 2007.11.01.

12) 신정아는 2007년 6월까지도 각 신문사에 에세이와 문화칼럼을 연재하는 미술 전문가로 높은 인지도를 쌓아갔다. 하지만 사건 이후 대담한 거짓말 행각과 도덕불감증으로 ‘예술계의 여자 황우석’으로 불린다. 「광주비엔날레 감독 신정아의 대담한 거짓말 행각」, 『연합뉴스』, 임화섭·임은진 기자, 2007.07.01

13) 이기중·김명준, 「빅터 터너의 “사회적 드라마” 이론으로 본 “신정아-변양규사건”」, 『사회과학연구16권』, 사회과학연구소, 2008, 417쪽.

신정아는 미술전문가라는 한 인격체에서 변씨의 애인 신씨로 명시되며 한 가정의 남편을 빼앗고 한 나라의 기강을 어지럽힌 희대의 악녀가 된다. 그녀가 가진 것은 모두 사치품으로, 신정아는 ‘공직자인 늙은 애인에게서 받은 돈’으로 선심을 쓰는 이상한 여자가 된다. 그 여자의 남자 변양균, 그 변양균의 정부인 노무현 정권도 정부 관리 체계의 허점을 드러냈다고 비난 받는다. 이후 언론은 그녀가 얼마나 비정상적인 인간¹⁴⁾인지를 나타내는 데 주력한다. 아래의 두 기사문에서 ‘~가능성이 있는’과 ‘인격적으로 파탄한 사람’이 강조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신정아 교수가 임용 당시 동국대에 제출한 서류에도 예일대 사무실의 팩스 번호가 감쪽같이 찍혀 있다. 신 교수도 학위 위조 업체를 통해 서류를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가짜 美 박사證 수십만원이면 산다위조학위증 발급사이트 수백개 넘어 대학·학점 등 원하는대로 ‘맞춤 제작’ : 권경안 기자 2007.07.21.

한 이사장은 “신씨는 인격적으로 파탄한 사람이라 쓸 수 없다”고 말했다.

- 광주비엔날레 이사진 사표... 신씨 고소, : 권경안 기자: 2007.07.19.

신정아는 거짓말쟁이 또는 허언증을 앓는 ‘악녀’가 되기에 충분한 인간이 되었고, 그 근거는 그녀가 젊다는 것, 아름답다는 것에 대한 대중의 분노 그리고 유복한 환경에서 자랐다는 것, 고학력자 등의 요건이 부정되는 과정

14) 여성은 공격적이지 않다는 성별화된 신화 내에서 여성 행위는 사악하거나 비정상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특정한 맥락과 배경에 있는 여성의 동기, 감정, 저항, 좌절, 한계, 선택, 결정의 과정과 그 이유를 삭제하기 위한 것이었다. 허민숙(2015), 「피해자 그리고 가해자로서의 여성은 누구인가: 가족살해, 젠더 전형성, 그리고 문화부정의 관한 시론」, 『여성학논집(34)』, 103쪽.

에서 더욱 확고해진다. 그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언론은 그녀와 친분이 있던 사람들이 그녀와의 관계를 부정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녀가 일찍 성공할 수 있었던 ‘마당발’ 인맥의 허상을 보여줌으로써 철저하게 신정아를 부정한다. 사람들은 신정아라는 이름을 거론하는 것만으로도 자신도 ‘거짓말쟁이’로 몰릴지 모른다는 공포에 휩싸인다.

신씨와의 친분으로 저명인사들이 전전긍긍하고 있다. 신씨에 관한 질문에 하나같이 “나는 신씨를 잘 모른다”며 손사래를 쳤다. 이들은 혹시라도 자신이 거명될까 불안해하는 모습…예일대 출신 교수 B씨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신씨가 공식적인 행사에서 한 차례 옆자리에 앉은 적이 있을 뿐”이라고 했다가 금방 “이름을 밝힐 수 없는 지인이 신씨를 소개해 줘 이야기를 나누는 적은 있다”고 말을 바꿨다. 미술계 원로 C씨는 명절 때 신씨에게서 선물을 받는 등 신씨와 친밀한 관계였지만, 기자와의 통화에서는 “시상식장에서 한 번 본 것뿐”이라며 신씨와의 관계를 부인했다.

-신씨와 친분 저명인사들 ‘전전긍긍’수사 빨라지자 자신 이름 거론될까 불안 “행사 때 한 번 본 것뿐” “신씨 잘 모른다” 장상진 : 2007.09.12

신정아와 관계된 사람들이 느끼는 공포는 대중에게는 통렬한 복수, 또는 만족감을 선사한다. 마치 마녀를 잡은 정의의 사도처럼 언론은 미술계에서 철저하게 배척당하는 신정아의 근황을 세세하게 보고하며 그녀를 “이상한 여자”로 규정한다. 그래서 법정에서도 신정아가 변양균을 ‘오빠’라고 부르는 과정을 유독 자세히 설명한다.

재판 시작과 함께 검찰 측이 “두 사람이 연인 관계가 맞느냐”고 질문하자 신씨는 “네”라고 답변한 뒤 본격적으로 사귀기 시작한 시점에 대한 질문에는 “2003년 가을부터”라고 답했다. 신씨는

검찰이 뒷자리 번호 4개가 똑같은 휴대전화 번호를 보여주며 “이 중 하나를 변 전 실장이 사용했느냐”고 묻자 “네”라고 답했지만, “변 전 실장을 ‘오빠’라고 부른 적 있느냐”는 질문엔 “죄송한데…”라며 답변을 피했다. 하지만 검찰이 “2004년 11월부터 2005년 1월까지 이 휴대폰에 보낸 문자메시지에 ‘오빠’라고 지칭된 인물이 변 전 실장이 맞느냐”고 묻자 신씨는 “네”라고 짚막하게 시인했다.

- 변양균씨와 연인맞나” 문자 신정아씨 “네” 어제 두번째 공판.
박시영 : 2007.12.04

신정아 변양균이 연인이 된 시점이나 그들이 연인임을 증명해주는 같은 휴대폰 뒷번호, 그리고 오빠라는 호칭은 본 사건과는 무관한 정보다. 신정아를 교수로 만들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변씨가 사용했는지, 변씨가 한 공금 횡령 또는 뇌물수수와 같은 구체적인 범죄행위에 대한 설명은 배제된 채 오직 그녀와 변씨가 어떤 관계이고 어떤 식으로 서로를 호칭했는지에 초점을 둔 언론의 보도는 분명 ‘여성범죄자’를 다루는 특이한 습성처럼 보인다. 신용불량자인 신정아가 ‘에르메스의 여인’이라고 불렸다거나 그 가방을 사준 것도 변씨일 거라는 가설도 마치 사실처럼 보도된다. 그녀가 2003년 호텔에서 쓴 거액의 회식비와 2003년부터 변씨와 관계가 시작되었다는 점을 교묘하게 연결해 그녀가 쓴 돈의 출처를 의심하게 만들기도 했다.

그녀가 고가의 에르메스를 선물해 사람들의 호감을 샀던 ‘에르메스의 여인’으로 알려져 있다. ... 신씨는 작년 3월부터 생활비를 뺀 월급 대부분을 빚(1억420만원) 변제에 써야 했지만, 지난해 말에는 광화문의 한 주상복합아파트로 이사했다. 돈 씹음이 또한 상당히 컸다. 직장동료였던 한 전직 큐레이터는 “2003년에 월간미술대상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때 받은 상금(1000만원) 턱을 내느라고 C호텔 바를 아예 다 빌려서 전 직원 회식을

시켜줬다”고 말했다.

-외제車 몰던 ‘에르메스의 여인’이 신용불량자 신정아, 도대체 누구 돈으로...박란희 : 2007.08.27

언론에 의해 신정아는 고위공무원을 유혹해 세금으로 보석을 사는 시대의 팜므파탈로 묘사되고, 사건의 본질인 허위 학력은 변씨로 인해 권력형 비리로 확장된다. 언론은 어린 여자를 사랑한 변씨가 아니라, 아버지뻘에 남자를 유혹한(?) 신씨의 도덕성과 그녀의 직업 그리고 미술계를 비난하는데 열을 올린다. 변양균에게 신정아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무엇이든 주고 싶은 감정”을 갖게 하는 대상으로, 신정아에게 변양균은 자신의 출세욕을 채우기 위해 이용한 희생물로 설명한다. 그러나 이 정보들은 범죄와는 무관한 것들이다.

변 전 실장은 둘 사이의 ‘특별한 날’을 맞아 신씨에게 목걸이와 귀고리 등이 담긴 보석 세트를 선물했다. 변 전 실장은 이 선물 세트를 언제 어디에서 얼마에 산 것인지를 한눈에 알 수 있도록 하는 물증으로 자신의 사인이 들어있는 신용카드 전표를 동봉했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변 전 실장이 만약 신씨가 보석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교환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한 것으로 짐작된다”고 말했다. ... 다만 “사랑하는 사람에게 무엇이든 주고 싶은 감정이 생겼을 때 오간 것 같다”고 말해, 싸구려 선물은 아님을 암시했다. ... 검찰은 이와 관련한 후속 질문에 모두 “밝힐 수 없다”는 대답만 반복해 세간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 변양균씨, 신정아에 高價 보석 선물 사인한 신용카드 전표와 함께 보내...“부적절한 관계 물증” 이항수 : 2007.09.13

이는 언론도 인지한 사실이지만 독자의 호기심을 자극하기 위해 두 사람의 불균 사실을 알리는 정보를 계속 제공한다. 또 검찰이 ‘밝힐 수 없는 또

다른 증거가 있다며 다분히 유희성 가득한 말을 남기는 태도로도 확인된다. 변씨의 죄는 사랑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동정론으로 묵인된다. 하지만 신정아는 오빠 또는 보석상자, 카드명세서와 같은 물질적 증거로 인해, 또 변씨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하고 여유로운 모습을 보인다는 점에서 '범죄자적 자질'을 지닌 '죄를 뉘우치지 않는 뻔뻔함'을 지녔다고 보도된다. 언론 보도는 그녀가 얼마나 범죄를 저지르기에, 충분한 조건을 갖추었는지만 설명하기 바빴고 신문 어디에도 그녀에 대한 동정은 없었다.

이는 검찰 조사 후 대면한 변씨와 신씨를 설명하는 데 언론의 태도에서 확실하게 드러난다. 변씨에 대해서는 '맥 풀린' 표정과 함께 지쳐있다고 쓴 반면에, 신씨는 비교적 여유가 있다며 강인한 인물로 표현한다. 고위 공무원인 중년의 남자도 맥이 풀려버릴 만큼 힘들었던 조사를 꺾어내는 신정아를 큰 사건을 일으키고도 멀쩡한 특별한(?) 존재로 마치 신정아가 이 모든 사건의 주범인 것처럼 만든다.

변 전 실장은 맥 풀린 표정이 역력했다. 검찰청사 계단을 내려올 때는 허리를 굽히고 비틀거리는 등 제대로 걷지조차 못했다. 반면 신씨는 다소 침통한 표정이면서도 비교적 여유 있는 모습이어서 변 전 실장과 대조됐다.

-변·신씨 구속 안팎 신씨 “그동안 잘못된 판단으로 심려 끼쳐 죄송” 김진·박시영: 2007.10.12

“신씨는 ‘2003년 봄’이라고 한 반면, 변 전 실장은 ‘2003년 9월’이라고 했다가, 검찰의 추궁이 계속되자 나중엔 “신씨 말이 맞는 것 같다”고 말을 바꾸었다. 검찰은 이 때문에 만난 최초 경위에 대한 두 사람의 진술이 말을 맞춘 것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두 사람 처음 만난 시점·경위 못 밝혀 : 이진동 기자 : 2007.10.12.

특히 그녀가 관계를 주도했다는 서술은 그녀가 변양균을 유혹했을 것이라는 향간의 추측을 기정사실로 만든다. 그녀의 당당한 태도는 그녀가 의도적으로 학력을 속이고, 위조된 학력으로 교수가 되어 세상을 조롱한 증거가 된다. 자신은 브로커에게 속아 가짜 학위를 받은 피해자라고 주장한 신정아의 주장과는 상반된다. 언론은 세상을 속인 신정아의 ‘대범함’과 ‘당당함’¹⁵⁾을 강조하며 그녀가 거짓말에 탁월한 재능을 가졌다고 주장하다.

신정아의 외모는 특수함으로, 그녀가 일반여성과는 다르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특징이 된다. 언론은 이제까지 그 어떤 남성 범죄자에게도 하지 않았던 잔혹한 방법으로 신정아를 ‘악녀’로 만든다. 신정아의 초췌한 모습은 그녀가 입는 값비싼 옷의 가격으로 동정받지 못하고 그녀의 치부를 더듬는 취재는 그녀가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 범죄자라는 점에서 용인된다.

신씨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쓰러질 것처럼 비틀거리면서 엘리베이터를 탔다. 1층에 내린 신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서 걸어가다가 갑자기 넘어지듯 주저앉았다. ... 장원장은 “어제(19일) (신씨가) 지금 당장 검찰 조사를 못 받을 만한 건강상의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또 “신기능이 저하되고 갑상선 종양이 하나 발견됐지만 이번 사건으로 인해 나빠진 건 아니며 종양도 음성이어서 수술할 필요도, 일상 생활에 지장도 없다”고 말했다.

- 검찰조사 마친 신정아씨 행방묘연 수 시간째 병원으로 돌아오지 않아, 김경은 : 2007.09.21

신정아씨가 검찰에 붙잡혀 가면서 갑자기 몸을 휘청거리고 구토를 하는 모습을 보이고,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모범택시

15) [사실] 가짜 박사가 10년 동안 주물러온 미술계와 학계 : 2007.07.13

를 타고 검찰에 출두한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피의자나 피고인들이 동정심을 자극하기 위해 사용하는 제스처”라고 말한다. 이른바 ‘떼법(군중심리)’에 호소하거나 모성애를 자극해 사법처리의 칼날을 무디게 하려는 계산된 행위라는 것이다.

- 피의자들 “동정심을 일으켜라” “월제어 출두 원조격은 정태수 前한보회장” 손진석·김연주·변희원: 2007.09.19

언론은 희대의 살인마들 얼굴은 공개하지 못했지만, 신정아 사건에서는 그녀의 벗은 몸을 공개하는 등 공격적이고 야비한 방식도 불사한다. 범죄 사실이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신정아에게 개인의 권리는 마치 없는 것처럼 언론은 신정아를 추적하고 추리하며 그녀의 신상 정보를 모두 공개한다. 신정아의 사랑은 불륜으로, 신정아의 직업은 허영으로 몰아붙인다. 신정아는 연인의 도움으로 교수가 되었다는 추측만으로, 삶 전체가 공개되도 마땅한 ‘관찰대상’이 된다. 심지어 언론은 신정아의 가족과 직장동료 그리고 어린 시절 동창생들까지 인터뷰한다.

신정아의 행동 하나하나를 관찰하듯 서술하는 신문 기사를 통해서 우리는 ‘신정아-변양균 사건’을 다룬 언론이 필요 이상의 추적과 관찰을 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이러한 기사는 본래 언론의 목적을 수행하지 못한다. 이는 국민의 알 권리에 기반을 둔 사실 보도나 투철한 고발의식이 아니라, 관찰일기에 불과하다. 기자는 파파라치처럼 사람을 훑쳐보는 행위¹⁶⁾로 정당성을 잃는다.

이날 오후 5시 35분 신씨는 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렀으나 “삐릭 삐릭” 경고음만 나고 문이 열리지 않았다. 순간 당황한 신씨가 재차 비밀번호를 눌렀지만 문은 계속 열리지 않았다. 신씨는

16) 대상에 대한 동의 없이 진행된 언론의 무차별적 관찰과 그 보고는,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범법행위로 볼 수 있다. 이는 곧 언론 보도의 현상이 인권 유린의 현상이 된다는 점에서 문제시된다.

“문이 안 열려… 누가 번호를 바꿨나봐…”라고 혼잣말을 하고는 오른손으로 입술과 턱을 만지작거리며 다른 번호를 눌렀지만 그래도 문은 열리지 않았다. 당시 이웃주민들이 복도로 나와 당황해 하는 신씨를 휴대폰으로 촬영했다.

- 신씨 “문이 안열려…”퇴원후 광화문 오피스텔로 돌아왔지만 현관문 비밀번호 바뀌어 한때 못 들어가, 김경은 : 2007.09.29

결국, 언론의 과도한 신정아 파헤치기는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신정아를 ‘악녀’로 확정하며 ‘과대망상자’ 또는 ‘허언증’을 가진 병자의 이미지 또는 남자를 유혹하는 ‘요부’ 또는 ‘팜프파탈’로만 기억하게 만든다. 이는 그녀의 실제 모습과 별개로 그녀의 정체성을 규정한다는 점에서 엄연한 폭력이다.

신씨가 직접 학위 관련 문서들을 위조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들이다. 그래서 검찰은 신씨가 박사학위 논문을 쓸 때 도움을 받았다는 ‘존 트레이시’라는 여성이 가공의 인물일 … ‘트레이시’라는 인물은 1980년대 중반 시드니 셸던의 베스트셀러 ‘내일이 오면’에 등장하는 매력적인 여성 사기꾼 이름이다. 이 소설은 1986년 인기 드라마로도 방영됐으며, 주인공 ‘트레이시 휘트니’는 명석한 두뇌와 미모를 이용해 전 세계 유명 미술품과 보석을 훔쳤다.

- [변양균·신정아게이트] 申씨 가짜 논문 브로커 ‘트레이시’는 가공 인물? 박란희 2007.09.22

기자들은 ‘신정아 티셔츠’를 비롯해 그녀가 입고 들었던 것들이 팔려나가는 사태를 비판하고, 이러한 사태를 신정아의 악녀성으로 귀결시킨다. 언론은 신정아 열풍을 대중의 소비심리라고 했지만, 실상 신정아의 옷과 구두에 정보를 제공한 것은 언론이었다. 그로 인해 ‘신정아’는 호기심의 대상이자 유희적 도구가 된다. 그러므로 ‘신정아 신드롬’은 여성 범죄자를 대하

는 언론의 관점이 비정상적이었음을 알려주는 증거다.

“신정아 티셔츠가 명품 브랜드라는데, 어디 제품이죠?” 신씨가 지난 7월 중순 해외로 도피하면서 미국 뉴욕 JFK공항에 모습을 드러냈을 때 입었던 티셔츠가 네티즌들 사이에 화제가 되고 있다. … ‘신정아 티셔츠’는 영국 디자이너 알렉산더 매퀸 (Alexander McQueen)이 디자인한 ‘McQ’ 제품으로 20대 젊은 층을 겨냥한 명품 브랜드다. 티셔츠 한 장 가격이 20만원대에 달하며, 한국에 출시된 지도 얼마 안돼 서울 시내 대형 백화점 한두 곳에서만 판매됐었다.

- ‘신정아 티셔츠’ 어디 제품이야? 7월 중순 도피때 美공항서 입은 옷 네티즌들 사이 50여일째 화제, 김연주 : 2007.09.06

언론의 비정상적 관점은 문화일보가 몸 로비의 증거라며 ‘신정아 누드’를 올리며 절정에 이른다. 언론은 그녀의 육체를 보여주고 또 누드를 찍었다는 사실로 그녀가 성 로비를 했다고 확신한다. 객관적이어야 할 언론이 사진 한 장을 근거로 억지 주장을 한 것이다. 이는 사회 비리와 불온함을 적발하는 언론의 기능과 역행한다. 게다가 그 사진이 합성된 가짜라는 일리 있는 주장에도 또 다른 사진이 있을 수 있다는 가설로 비난을 피해간다.

신씨는 “누드사진을 찍은 적이 없으며 2006년 봄 갤러리 인에서 사진작가 황규태씨의 사진전이 열렸을 때 내 얼굴에 가슴이 엄청나게 큰 백인 여자의 몸을 합성해 놓은 작품을 보고 떼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 신씨가 언급한 ‘합성 사진’이 이 일간지에 보도된 사진은 아닐 수도 있다. 문제의 누드사진은 신씨의 얼굴을 한 여성의 알몸 사진 … 신씨의 주변인들은 “삼풍백화점 때 사고로 팔에 굵힌 상처가 있는 신씨의 몸이 상처 하나 없이 깨끗하게 보이는 게 이상하다”고 의문을 제기했었다.

- 내 누드사진은 합성된 것” 신씨 주장, 이규현 : 2007.09.17.

적의에 찬 신정아에 대한 언론 보도는 검찰 측 언급에서도 확인된다. 하지만 신정아에 대한 적의는 실상은 ‘이 정권’에 있었다. ‘신정아 사건’이 부풀려진 맥락에는 언론의 정권비판의식이 함유되어 있었고 더불어 힘 있는 여성이 늘어나는, 새로운 세대가 중심이 되는 시대에 대한 구세대의 불안까지 더해져서 ‘신정아’는 악녀가 된다.

여성 범죄자를 악마화 하는 일은 남성 범죄자보다 훨씬 수월하다. 언론은 신정아를 규정할 때 특정한 어휘나 개념을 반복적으로 사용했다. 그녀가 한 명품 소비, 뛰어난 인맥, 과도한 승부욕과 진취적인 태도는 그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만드는 데 작용했다. 여성은 마치 태생적으로 안전감과 평화를 추구하는 소극적인 존재여야 한다는 고정관념이 신정아를 특별한 존재로 만들었다. 즉 여성성에 대한 완고한 틀이 신정아를 쉽게 ‘악녀’로 만든다.

또 그녀의 미국행은 그녀를 엄청난 범죄자로 만들었다. 그녀는 순순히 죄를 시인하지도 반성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자신이 지은 죄의 범주를 명백히 밝히고 자신을 향한 무차별적 언론의 보도행위를 고발했다. 하지만 대중은 ‘신정아-변양균 사건’을 통해서 드러난 사회 비리가 말끔하게 처리되는 모습을 꿈꾼다. 하지만 실현되지 못했고 그 분노¹⁷⁾는 고스란히 ‘신정아’에게로 쏟아진다.

그러나 우리는 언론이 만든 ‘신정아’에 대해 의문을 품게 된다. 신정아와 관련된 정보는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보도되었다. 마치 사회 비리의 원천이 신정아에게서 비롯된 것처럼 말이다. 하지만 우리는 왜 ‘여성’만을 문제 삼았는지, 그리고 언론이 ‘무언가를 진실처럼 꾸며낼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한다. 진실은 오직 다각적으로 이해되는 주체들의 말하기를 통해서 겨우 그

17) 대중이 느끼는 분노감은 신정아를 악녀로 만든 매체에 그 책임이 있다. 당시 언론매체는 오직 신정아에 대한 부정적 정보들을 실어나르기 바빴다. 그로 인해 대중은 실제 해결해야 할 권력 비리의 뿌리는 보지 못하고 남성 권력자를 이용해 이득을 취한 여성의 이름만 기억하게 된다.

모습을 보여준다. 그래서 신정아 사건의 주체이지만 객체화된 인물인 신정아의 『4001』에서 사건의 진실에 좀 더 다가가고자 한다.

3. 자서전: 여성 범죄자의 자기서술과 자아 형성

자신에 대해 말하는 것은 우리가 누구고 무엇을 하는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무슨 까닭으로 그 일을 하는지 등에 관한 이야기를 만드는 것이다.¹⁸⁾ 또 자기가 어떻다는 것을 또는 어떠한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행위는 자신이 속한 사회문화적 맥락과 연결된다. 이를 부르너는 ‘자아-구성 내러티브’라고 한다.

신정아의 자서전 『4001』은 여성 범죄자가 자기 존재를 그리고 자신이 저지른 범죄를 구체적으로 서술한다는 점에서 ‘자아-구성 내러티브’가 된다. 어떤 평론가는 이 책이 ‘보복의 굿폴이’¹⁹⁾라고 했는데, 사건과 관련된 사람들의 실명을 그대로 썼기 때문이다. 이 책의 출간을 앞두고 ‘범죄자’의 자기 고백서를 출간하려는 출판업계의 ‘대박’ 열망과 판매 부수 집착은 크게 비판받는다.

신정아는 부정적 여론에도 불구하고 책을 출간한다. 신씨는 마지막 공판에서 자신은 “봄을 기다리는 초라한 여인”으로 앞으로 “사죄하며”²⁰⁾ 살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리고 책을 낸 목적이 자기반성의 기회를 통해 새로운 인생을 살기 위한 ‘날개’를 달기 위해서라고 설명한다. 이를 위해 ‘감추어져 있던 사건의 진실’²¹⁾을 밝히겠다고 했다. 그녀는 성장 과정과 사회 활동을 통해 개인의 정체성을 보여주었고 사건과 관련된 변호사, 언론인, 법조인 등을 언급하며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그 설명에는 법과

18) Jerome seymour Bruner, 앞의 책, 99쪽.

19) 김광일, 「보복의 굿폴이 벌인 신정아씨」, 『조선일보』 A35면, 2011.03.28.

20) 김아진, 「마지막 공판 신정아 “누구에게나 비밀은 있다.”」, 국민일보, 2008.03.12

21) 김지영, 「신정아, “진심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시사저널, 2011, 03.28.

법조인 그리고 언론과 언론인에 대한 견해가 포함된다.

그러므로 신정아의 자서전은 여성 범죄자가 자신의 범죄를 현 사회와 연관시킨다는 점에서 자아-구성 내러티브의 성격을 갖는다. 신정아의 서술 방식은 자신과 친분이 있는 언론인에 대한 사적 정보를 근거로 글의 허점을 밝히는 공통점을 보인다. 이는 가장 악랄한 기사 내용과 그 글을 쓴 기자와 자신의 관계를 설명하는 자기 경험적 서사로, 당시 언론 보도 자료를 근거로 자신에 대한 세간의 의혹을 풀어낸다.

신세미 기자로 2000년 무렵부터 알고 지낸 사이다. 기자라기보다는 거의 가족 같았다 ... 신기자가 말한 '특종'이란 결국 문화일보에 나온 누드사진이었다. 신기자는 다른 기자들보다도 더 악랄하게 기사를 썼다. ... 신세미 기자는 나를 허영과 사치에 물든 여자처럼 기사를 써놓았다. (68~72쪽)

양성희 기자의 경우에는 함께 저녁이라도 먹게 되면 자정이건 새벽이건 아무리 늦어도 잠실 집에까지 바래다주곤 했다. (78쪽)

후라이걸 신정아씨는 가짜 예일대 박사학위를 들이대며 펄펄 '날았고', 진짜 그 이상으로 후라이를 쳤다. 이런 쇼쇼쇼가 온통 우리 사회를 뒤덮고 있다. 쇼쇼쇼의 최고 가치는 흥행이다. 학위와 학력은 쇼의 흥행을 위한 네온사인 간판처럼 여겨진다. 「정진홍의 소프트 파워」 ... 가깝게 지낸 중앙일보 안혜리 기자가 정진홍 논설위원과 함께 점심이나 하자고 해서 삼청동 '비나리'에서 함께 점심을 하고 헤어진 적이 있었다. (80~81쪽)

신정아는 기사 내용과 함께 그 기사를 쓴 기자와의 일화를 소개한다. 평소 자신이 알고 있던 그들의 가식적인 행동이나 부도덕한 모습을 근거로 언론 보도의 정당성을 부정한다. '신정아-변양균 사건' 보도는 각종 루머를

양산했는데, 그중 가장 악랄하고 잔혹한 기사들이 대부분 자신과의 친분을 부정하기 위한 기사들에 의해 쓰였다며 자신의 피해 사실을 공고히 한다. 신정아는 자신은 결코 ‘명품족’이나 ‘팜므파탈’이 아니라고 진술하는 한편, 명품을 입는다는 사실로 자신을 ‘악녀’로 몰아간 언론에 대 분개한다. 그녀는 옷과 시계의 가격을 두고 설전을 벌인 매스컴이 얼마나 황당한 논리를 펼쳤는지 보여준다.

황당한 기사에 화가 치밀었지만, 설령 내가 베르사체만 입고 페라가모만 신는다고 해도 그게 무슨 기삿거리가 되는지 알 수 없었다. (73쪽)

내가 구속되어 재판받을 때 검사에게 명품 신발이 52켈레나 있다면서 재판부에 신발장 사진을 제출했고, 조선일보는 그것까지 받아서 기사를 냈다. … 나를 호송한 교도관은 자기도 신발이 30켈레가 넘을 거라고 말을 건넸다. … 사건이 확대되자 언론은 이미 사건의 본질을 벗어나 나를 사치와 허영에 물든 여자로 매일같이 보도했다. 내가 정신병자임을 보여주기 위해 심리학자나 의사들의 인터뷰까지 끌어왔다. 언론 보도대로라면 나는 사형으로도 모자랄 인간말종이었다. 언론에서는 내가 착용한 옷과 소지품 모두에 가격을 매기면서 손목시계 옆에 7백만 원이라고 적은 적도 있었다. 그런데 그 시계는 처음 내 변호를 맡았던 박종록 변호사 사건 진행비를 후하게 받은 사례라며 내게 선물해준 2만 8천 원짜리 스위치 비닐 손목시계였다. (75쪽)

그리고 언론이 유포한 잘못된 정보로 자신이 입은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알린다. 신정아는 ‘사건의 본질’을 명확히 알려야 할 언론이 오히려 본질을 흐리는 데 앞장섰다는 사실 강조한다. 그리고 ‘언론 보도’의 허술함을 알리기 위해 자신의 이메일과 통화기록 그리고 공판 기록 등 실증적 자료를 활용해 언론이 자의적으로 짜놓았던 정·재계 인사와 자신의 관계를 새롭게 정

리한다. 또 범조인과 법체계의 무능함, 인격 모독적이었던 조사과정과 감옥 생활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비판한다.

이러한 그녀의 태도는 자신의 범죄를 설명하는 데서도 드러난다. 신정아는 자신은 학력위조범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는 대신, 자신이 학위를 받은 과정이 불법적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신정아는 자기 스스로 자기가 지은 죄의 본질과 범주에 대해 논하며 당시 언론이 하지 않았던 ‘국민의 알 권리’를 실현한다.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성실하게 공부하고 혼자 힘으로 논문을 써서 박사학위를 받은 것은 아니었지만, 몇 년간 학비를 내고 리포트도 성실히 제출했으며, 논문자격시험 통과는 물론이요 지도교수와 대학원 부원장을 포함한 세 명의 예일대 교수들 앞에서 논문 디펜스까지 치렀다. 박사학위는 그런 연후에 수여되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여자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다고 손가락질할 지도 모르지만 이것이 내가 아는 전부다. (22쪽)

구구절절 과정을 설명한다 해도 결국 학위가 가짜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으며, 설령 학위가 진짜였다고 해도 대필 혹은 표절로 취소되었다는 것까지 부정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다만 나는 학위를 받기 위해 작게나마 노력을 기울인 것이 사실이었다. (31쪽)

신정아는 학력위조범이라는 자신의 죄명을 부정하며, 해당 학과의 이수과정, 논문에 참여했던 교수의 실명 그리고 예일대에 학위 사실을 문의하고 답변을 받았다는 증거를 제시한다. 즉 자신이 학위논문을 직접 쓰지 않았다는 사실은 맞지만, 학위는 취득했기 때문에 자신은 학력위조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신정아는 예일대 학위를 받은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도의적 책임만 있을 뿐 학력위조의 혐의는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오

히려 신정아는 자신의 학력을 의심하는 세력들로 인해 학위가 취소된 피해자라고 말한다. 만약 자신의 학위가 정말 위조된 것이라면 자신은 오히려 피해자이고 범인은 따로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자신은 혐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즉 자신은 학력위조범이 아니라 단지 '세상의 이치에 무지한 여학생'일 뿐이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그녀의 주장은 이미 실형을 확정받은 범죄자라는 점에서 자기 경험과 기억에 빚댄 변명²²⁾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신정아는 서울대 교수직과 관련된 비리 수사 당시, 자신의 범죄 사실을 입증할 증거는 찾지 못하면서, 권력자를 옹호하는데 급급했던 검찰의 태도를 비판하는 것으로 자신의 무고함을 주장한다. 그리고 자신과 정총장의 관계를 나타내는 통화기록으로 당혹스러워하던 검사들의 모습을 통해, 법적 정의를 실현해야 할 올바른 법조인의 자세를 문제 삼는다.

정 총장이 잇달아 여러 통의 전화를 했는데 내가 전혀 받지 않은 기록들도 나왔다. ...내 앞에서 것처럼 당황해하던 검사들이 정 총장의 진술서를 판사에게 제출하며 서울대 임용 제안이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하는 것이었다. 통화기록에 대한 사실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정 총장이 잡아 떼 내용만 진실인 양 재판정에 돌아다녔다. ...검찰이 무엇을 하는 집단이며 재판은 왜 하는지, 죄는 무엇으로 가리는 지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다. (106쪽)

이는 자신을 '악녀'로 내몰았던 언론과 법의 불온함에 대한 고발 행위로, 신정아는 자신의 사생활을 파헤치는 데 혈안이 되었던 언론과 자신의 말을 믿지 않고 오직 언론과 권력자의 말만을 신뢰하던 법조계를 비논리적이고 황당한 집단으로 만든다.

22) 신정아는 자신이 논문을 쓸 수 없었던 근거를 저명인사가 한 '말'에서 찾는다. 박성용 명예회장이 "일을 많이 해서 집에도 못가고 늘 사무실에서 침대 놓고 자는 녀석이 언제 공부까지 다 하느냐(245쪽)"고 자신을 칭찬했다거나, 회장이 직접 자신의 예일대 재학 사실을 조회했다며, 유명인과의 일화를 제시한다. 책은 사적 경험과 사적 대화를 증거로 하는 해명이 주를 이룬다.

내 사건이 터지자 방송사 기자들은 청송에까지 찾아가 내 초등학교 동창생들을 인터뷰했다. MBC에서는 〈뉴스 후 플러스〉, SBS에서는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프로에서 같은 날 같은 시간에 방송을 내보냈다. (169쪽)

그리고 대중과 평단에서 높이 평가받았던 자신의 전시회를 깎아내린 언론의 이중적 태도를 꼬집는다. 신정아는 학력위조라는 죄명 아래 무자비하게 자신의 성과를 폄하하는 언론 보도를 비판한다. 큐레이터로서의 소명의식, 자신이 생각하는 전시회의 목적과 의미를 설명하며 자신은 학벌이 아니라 현장에서 능력으로 인정받아 온 미술전문가였다고 주장한다.

큐레이터로서 내게 가장 중요했던 것은 '일상 속에서 호흡하는 미술'이었다. ... 나는 늘 전시회의 주인은 작가도 큐레이터도 아닌 관객이라고 생각해왔다. 그런 점에서 작품과 관객의 소통, 즉 미술의 대중화에 도움이 되는 전시회라면 다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회화, 조각, 사진, 설치 등 이른바 '파인아트'에만 국한하지 않고, 디자인, 일러스트, 음악, 사운드 등 다양한 장르들을 순수 미술과 접목해보려고 노력했다. (222쪽)

미술 전문가라는 자긍심은 현장 능력과 더불어 노무현 대통령, 정운찬 총리, 김우중 회장과 같은 저명인사에게 받은 각별한 애정과 환대로 더욱 강조된다. 신정아는 화려한 인맥으로 유명해졌고 학력위조사건으로 인해서 그 인맥을 모두 잃게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그녀는 자신을 특별한 존재로 생각했던 유명인사와의 일화, 그들의 언급으로 자신의 지위를 복원시키고 있다.

노대통령과의 인연은 이렇다. ... 노대통령은 내 이야기를 말없

이 한참 들으시더니 나를 재미있는 표정으로 바라보며 “어이구, 말씀은 참 잘하시네.”라고 놀리셨다. … “어린 친구가 묘하게 사람을 끄는 데가 있다”고 하시면서 더 큰일을 하기 위해 한번 세상에 나서보지 않겠느냐고 물어오셨다. 신정아가 세상을 흔들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인지 한번 지켜보시겠다고 하셨다. (147쪽)

신정아는 명품이 아닌 사람을 끄는 매력 때문에 화려한 인맥이 생겼다고 주장한다. 그 근거로 저명인사가 한 칭찬의 말들, 특별한 가정환경으로 인한 추억을 예로 든다. 자신의 매력은 타인에게 무언가를 베풀 때 드러난다며 자신이 꽤 ‘괜찮은 인간’임을 강조한다. 이러한 자기서술은 언론의 폭력적 행태를 설명할 때도 드러난다. 그녀는 언론에서 말한 ‘명품족’이나 ‘꽃뱀’의 이미지는 진짜 자기 모습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악의적인 기사를 쓴 신세미와 가족 같은 사이였고 자신에게 자격지심을 갖고 있었으며 명품 사재기를 해서 자신이 말렸다는 등 기자의 사생활을 들춰내며 자신의 무고함을 주장한다.

신세미 기자는 나를 허영과 사치에 물든 여자처럼 기사를 써놓았다. 기사에 쓴 ‘명품족’ ‘과소비’라는 표현을 보고 나는 실소를 참을 수 없었다. 내가 예쁜 옷을 입으면 브랜드가 궁금하다며 목 뒤에 있는 옷 상표를 뒤집어보던 사람이 신 기자였다. 자신도 어디 어디에서 옷을 샀다며 목 뒤에 붙은 브랜드를 자랑삼아 보여 주기도 했다. 기분이 우울해지면 명품 옷을 이십여 벌이나 사와서 재연이와 내가 뜯어말린 적이 여러 번이었다. … 내가 이렇게 시시콜콜 부끄러운 얘기를 털어놓은 것은 ‘명품족’이라는 말 한마디로 멸칭한 사람을 비정상적인 사람으로 바꿔버리는 언론의 폭력성 때문이다. …나를 그토록 대단한 명품족으로 만들어 놓았으니, 내가 거기 못 미치는 것이 오히려 미안할 지경이었다. (72~73쪽)

신정아는 언론 보도의 문제점을 자신의 패션을 따라 하던, '가족 같았던 신세미 기자'가 자신을 '명품족'이라고 비난하는 '어이가 없는 일'이라고 일축한다. 분별력 없는 기자가 엮어낸 추측성 이야기라고 비웃는다. 이러한 비난은 불륜녀 신정아의 부도덕함을 그녀의 직업적 자질과 경력을 비난하는데 쓴 언론의 논리와 일맥상통한다. 그리고 자신과 함께 '삼총사(69쪽)'로 불렸던 유명일간지 여기자들이 쓴 악의적 기사들은 개인적인 배신이자 인륜상의 도리에 어긋난 부도덕한 행위가 된다. 즉 신정아는 오직 판매 부수를 올리기 위해 친구인 자신을 팔아먹은 기자의 글쓰기 행위를 비윤리적이라고 비판하고 신변잡기식 정보를 마구잡이로 보도한 언론을 한 인간의 인생을 무참히 짓밟는 부조리한 '집단의식'으로 규정한다. 이 집단의식은 자신이 여성이기에 더욱 가혹했던 언론과 법의 잣대로 환치된다.

내가 만약 남자였다면 언론들이 그렇게까지 내 문제를 물고 가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한다. 남자가 잘하면 능력 덕분이고 여자가 잘하면 분명히 뒤에 배경이 있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내가 젊은 여자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능력보다는 또 다른 무언가가 있을 거라 의심했고, 그들 입맛에 그 무엇이란 반드시 '남자'여야 했다. 용케도 나는 거기에 딱 걸려버렸다. (88쪽)

그러면서 신정아는 이제까지 여성이기에 감수해야 했던 불이익을 문제 삼는다. 미혼 여성의 사회적 성공은 모두 '반반한 얼굴값(90쪽)'으로 치부하는 한국사회의 민낯을 기술하고 젊은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만 보는 남성 중심주의적 사고를 고발한다. 그 근거로 자신의 성희롱 경험을 제시한다.

C기자는 춤을 추는 게 아니라 아예 더듬기로 한 모양이었다. 허리를 잡는 것까지는 어쩔 수 없었지만, 손이 다른 곳으로 오자 나는 도저히 구역질을 참을 수가 없어서 화장실로 피해버렸다.

(93쪽)

신정아는 남자들에게 성적 호감을 주는 외모로 입은 피해를 설명한다. 성희롱이 빈번한 한국 사회에서 그녀는 능력을 인정받기 위해 스스로 '선머슴(95쪽)'이 되기로 한다. 그런데도 여전히 자신이 젊고 아름다운 여성이라는 약점이 자신을 '팜프파탈'로 몰고 간다고 말한다. 유혹한 것은 자신이 아니라 변양균이며 그가 먼저 자신에게 접근했다는 사실을 통해 세간의 의혹을 바로잡는다. 그리고 자신은 권력자가 아니라 '아버지'와 같이 '따뜻한 남자'에게 사랑을 느낀 것이라고 고백한다. 이는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한 기억과 연결되면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근거로 활용된다. 또 체질적으로 결벽증이 있어 자신을 희롱한 남자들에게 역겨움을 느꼈다는 것도 반박의 근거가 된다.

결과적으로 신정아는 자신의 범행과 관련된 세간의 의혹을 다음의 세 가지 측면에서 반박한다. 첫째는 미혼 여성으로서 사회에서 받은 불이익이고 둘째는 삼풍백화점 사고로, 그녀의 팔에 난 상처(94쪽)가 문화일보에 게재된 누드가 합성 사진이라는 증거가 된다. 마지막 세 번째는 자신이 매력적인 존재라는 것이다. 그 매력은 유복한 가정환경과 특출난 미술적 재능으로 대표된다. 게다가 외할머니(전 대통령의 부인)로 인해 형성된 고위층과의 인맥도 중요하게 작용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변양균은 신정아의 스폰서가 아니라 조력자가 되고 사건 이후에는 오히려 신정아가 변양균을 규명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했다는 점에서 오히려 변양균의 보호자로 여겨진다.

자서전의 제목 『4001』은 신정아의 수인번호다. 그녀는 다시는 감옥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다짐과 새로운 삶을 살아가겠다는 의지로 책의 제목을 수인번호로 했다고 한다. 이 책에서 우리는 신정아가 '악녀'인지 아닌지를 확신할 수는 있는 객관적 정보를 얻을 수는 없다. 다만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바꾼 사건의 주체이자 객체였던 한 여자의 자기서술을 통해서 여성 범죄자의 자기 내러티브의 가능성을 확인할 뿐이다.

이것은 우리 사회가 여성과 여성성을 바라보는 관점을 확인하는 구체적 인 사례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신정아의 진술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문제가 되지 않다. 오직 신정아로 대표되는 여성 범죄자를 다루는 우리 사회의 방식을 읽어내는 것, 여성 범죄자를 악녀로 만드는 언론의 서사 방식을 분석하고 이를 관성 화하는 집단 의식을 살펴보는 것이 핵심과제라 하겠다.

4. 맺음말

우리에게 문학은 상상력이라는 점에서 변화하는 공간으로 여겨졌다. 그 상상력의 공간은 독자에게 열려있고 그 열린 공간은 개인을 형성하는 다채로운 가능성을 포괄한다. 그러나 문학적 상상력은 우리 각자가 경험해온 사회 속 가치와 기준으로 규정된 틀 속에서 움직인다. 그래서 우리에게 공백이 인지되는 순간 우리는 그 공백을 채워 넣을 수 있는 의미를 찾는다.

이러한 맥락에서 법적 서사는 대체로 '문제성 있는 서사'로, 그것은 소설처럼 완결된 형태가 아니라 상황에 따라 다시 구성될 수 있는 잠정적 서사이자, 의미가 확정되지 않는 서사로 간주된다. 그러므로 법의 서사는 완성된 형식이 아니라 임의로 구성되는 것으로, 새로운 자료나 증거에 의해 그 내용과 형태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가변성²³⁾을 지닌다. 그러나 법의 서사 속 공백은 독자가 함부로 채워 넣을 수 없는 진실들의 연계로 여겨졌다. 왜냐하면, 법의 서사가 지니는 가변성은 자료나 증거라는 객관적 산물을 기반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는 그 몇몇 가치나 기준으로 인해 감지하지 못했던 우리 사회의 모순을 자각하게 된다. 그리고 그 문제를 자각하기 위해서 우리는 불필요하다고 여겼던 약자의 목소리를 인정해야 한다. 그 목소리를 인정하는 것이 곧 우리가 법의 서사에서 채워 넣어야 할 공백이다.

23) 최경도(2009), 「헤라클레스의 활: 법과 문학의 서사전략」, 『새한영어영문학 51권』, 새한 영어영문학회, 188쪽.

그것은 우리가 사는 세계를 이해하는 수단이자 변화하는 세상과 현 질서의 변형을 인식하는 방법이다. 즉 문제 인식은 현실 세계에 대한 변형이나 재규정의 필요성을 요구하는 상상력을 제공한다. 이는 문학이 현실참여의 도구로 쓰이는 것으로, 개인과 개인을 둘러싼 세계 사이의 본질적인 상호작용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과정이다. 이는 문학은 “문제 해결에의 교훈이 아니라 문제를 발견하도록 이끄는 초대”의 역할을 한다는 브루너의 명제와 상통한다.²⁴⁾

우리는 여성 목소리의 재현이라 판단되는 ‘신정아-변양균’ 사건을 사회 변화를 이끄는 중요한 변화의 지점으로 보았다. 특히 법과 언론의 문제를 정면에서 다루는 자서전은 ‘악녀’로 몰린 여성의 삶보다는 자신이 겪은 사회적 억압을 직접 기술한다는 점에서, 여성이 자기 권리를 찾는 과정으로 신정아의 자아-구성 내러티브의 가치를 찾게 한다.

24) Jerome Bruner, *Making Stories-Law, Literature, Life*, Harvard U.P., 2002. p.94. : (김경수, 「한국 현대소설의 문학법리학적 연구」, 『현대소설연구 38』, 2008, 15쪽, 재인용)

■ 참고문헌

- 신정아 (2011), 『4001』, 사월의 책.
- John morison and Christine bell(1996), "Tall Stories? Reading Law and Literature", Dartmouth.
- 한국소설학회편(1996), 『현대소설 시점의 시학』, 한국소설학회.
- 제임즈 클리포드·조지 E. 마커스(200), 이기우 역, 『문화를 쓴다』, 한국문화사.
- 조지 마커스·마이클 피셔(2005), 유철인 역, 『인류학과 문화비평』, 아카넷.
- 앤드류 포터(2016), 노시내 역, 『진정성이라는 거짓말』, 마티.
- 엘리자베드 프로인드 (2005), 신명아 역, 『독자로 돌아가기』, 인간사랑.
- Jerome seymour Bruner(2010), 강현석·김경수 역, 『이야기 만들기』, 교육과학사.
- 이기중·김명준(2008), 「빅터 터너의 "사회적 드라마" 이론으로 본 "신정아-변양균 사건"」, 『사회과학연구 16권』, 사회과학연구소.
- 김경수(2008), 「한국 현대소설의 문학법리학적 연구」, 『현대소설연구 38권』, 한국현대소설학회.
- 최경도(2009), 「헤라클레스의 활: 법과 문학의 서사전략」, 『새한영어영문학 51권』, 새한영어영문학회.
- 정미량(2010), 「신정아 사건」을 계기로 본 한국 학벌 구조의 폐해」, 『사회와 역사 86권』, 한국사회사학회.
- 이경숙·김훈순(2010), 「소비주체로서 젠더 이미지와 사회문화적 함의:〈남녀탐구 생활〉을 중심으로」. 『언론과학연구10(3)』, 한국지역언론학회.

■ 국문초록

이 논문의 목적은 여성 범죄자를 다루는 언론의 무자비한 보도 방식을 밝히고 사건의 진실을 밝히려는 여성의 서술방식을 설명하는 데 있다. 신문과 방송은 가장 신뢰받는 언론으로 대중과 독자에게 범죄 사건의 진실을 알려주는 매체로 여겨졌다. 그러나 여성과 관련된 범죄 사실을 보도하는 언론의 태도는 사실 보도와는 거리가 멀었다. 그들은 범죄와는 무관한 정보들, 개인의 사적 정보를 마구잡이로 활용해, 한 여성을 '악녀'로 만든다. 특히 여성의 외모나 소비 행태 등을 비유적으로 활용한 날조된 정보들이 사실 정보보다 더 중요시된다. 이러한 언론 보도방식은 괴상한 성적 담론을 만들어내며 성에 대한 잘못된 편견과 고정관념을 양산한다. 여성과 관련된 범죄를 보도하는 언론의 잔혹성은 독자의 흥미를 자극하기 위해 여성을 성적으로 대상화한다는 점에서 문제시된다. 이는 대중에게 여성을 사회적 약자로 인식하게 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이 문제와 함께 여성의 서술방식을 살펴보기 위해 신정아 사건(2007)을 다룬 언론의 서사 방식을 분석하고 그에 대응하는 여성의 목소리로 신정아의 자서전 『4001』을 분석하고자 한다.

주제어 ● 여성 범죄자, 성 담론, 악녀, 신정아 사건, 언론 보도

■ Abstract

The format of reporting on female criminals and
the pattern of responding to female criminals
: Focusing on Shin's case

kwon, Mi Ran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reveal the ruthless way of reporting by the media dealing with female criminals and to explain the way women self-describe to reveal the truth of the case. Newspapers and broadcasts were considered the most trusted media, and were considered media outlets to inform the public and readers of the truth of criminal cases. However the media's attitude of reporting crimes involving women was far from true. they were adept at turning a woman into a 'evil girl' by using information unrelated to crime, personal information indiscriminately. In particular, fabricated information using figuratively such as women's appearance and consumption patterns often became more important than factual information. This method of media coverage creates bizarre sexual discourse, producing false prejudices and stereotypes about sex. This problem is also linked to the recent incident of a female idol who died in malicious comments. The brutality of the media in reporting women's crimes is problematic in that it sexually targets women to stimulate readers's interest. This is all the more problematic in that it makes the public perceive women as socially disadvantages. In addition to this issue, we are going to analyze the way the media narrated the Shin Jeong-ah case(2007) and analyze Shin's autobiography "4001" in the voice of a woman.

Keyword ● female criminal, sex discoures, villain, shin Jeong-ah case,
media coverage

■ 논문투고일 : 2020. 10. 30. ■ 심사완료일 : 2020. 11. 14 ■ 게재확정일 : 2020. 11. 19



한나 아렌트의 실존철학: 인간의 조건과 정치적 삶

안 효 성*

목차

1. 서론
2. 인간의 조건과 활동적 삶
3. 분투적 행위의 지향
4. 정신적 삶의 계발을 통한 행위 능력 강화
5. 결론

1. 서론

한나 아렌트(Hannah Arendt, 1906-1975)는 하이데거(Martin Heidegger, 1889-1976)와 야스퍼스(Karl Jaspers, 1883-1969)라는 현대 독일철학의 두 거장을 차례로 스승으로 삼음으로써 그들의 학문 방법론을 상당 부분 계승하였다. 즉 아렌트의 철학은 현상학, 해석학, 실존철학의 성격을 짙게 지니며, 특히 하이데거와 야스퍼스의 인간관과 세계관, 그리고

* 대구대학교 교수

역사관의 영향 하에서 독창적인 정치사상 및 정치이론을 발전시켰다.

본 연구는 한나 아렌트 철학의 기저를 이루는 실존철학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그녀의 사상과 철학의 개요를 설명함으로써, 최근 학계와 언론을 비롯해 시민사회와 대학 교양교육에서도 관심이 높아진 아렌트의 사유 체계와 근본 관심을 교양 지식적 수준에서 일목요연하게 파악하는 것을 돕고자 한다. 우리는 본 연구를 통해 아렌트가 인간 실존의 조건과 활동 양식을 무엇이라 보고 있는지, 인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고 고귀한 것을 무엇이라 여기고 있는지, 그것들은 서로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아렌트 철학의 구성 체계를 탄탄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2. 인간의 조건과 활동적 삶

인간과 인간의 삶을 바라보는 한나 아렌트의 기본 관점은 다음과 같다. 인간의 조건은 어디까지나 제한되어 있다. 즉 동물의 환경과 구별되는 어떤 고유성 내에서 전개되는 것이 인간의 실존이다. 아렌트는 인간의 본질보다는 한계를 주목함과 동시에 그 한계로부터의 초월을 시도하는 가운데 나타나는 인간의 활동 양식에 주목한다. 다만 이때 ‘초월’이란 고대로부터 이어져 온 전통적인 형이상학적 맥락의 초월이 아니다. 아렌트는 서양의 형이상학적 전통을 비판하면서 보다 더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실천철학적 방향을 제시하고자 했다. 아렌트는 그녀의 저술 전반에 걸쳐 인간의 조건들, 인간의 활동들, 인간 활동들이 실행되는 장소에 대해 주로 다룬다.

[인간 실존의 조건과 그에 상응하는 활동 양식]

인간 실존의 조건	활동 양식
생명	노동

세계성	작업
다원성	행위

1) 인간의 조건

아렌트는 그녀의 실존철학적 관점을 체계화한 거의 유일한 책이라 할 수 있는 『인간의 조건』에서 인간이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고유한 존재 조건으로 생명, 세계성, 다원성, 그리고 탄생성과 사멸성, 지구를 나열한다.

① 생명: '생명'은 하나의 생명체로서 살아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② 세계성: 인간 조건으로서의 '세계성'은 생성과 소멸을 반복하는 자연의 필연성으로부터 벗어난 '영속적인' 자기 세계를 가져야 한다.

③ 다원성: 인간은 그러한 세계를 '말과 행위를 통해' 공유할 수 있는 타인들과 더불어 있어야만 하는 존재라는 점에서 '다원성(복수성)'을 존재 조건으로 갖는다.

④ 탄생성과 사멸성: ①~③ 모두에 앞서는 근본조건으로서 인간의 피할 수 없는 운명이 갑작스러운 시작(동시에 모든 가능성의 주어짐)으로서의 '탄생성'과 언젠가 반드시 죽고야 만다는 '사멸성'이다. 시간적으로 유한한 존재인 인간에게 주어지는 존재 조건이다.

⑤ 지구: ①~④는 모두 지구 안에서 벌어지는 사건이라는 특정성과 한정성을 갖는다. 지구는 인간의 떠날 수 없는 거주 공간으로서 가장 핵심적인 인간의 조건이 된다.

한편 아렌트는 핵폭탄의 발명과 우주과학 기술의 발전으로 장차 인간의 조건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인간의 조건은 결코 필연적이거나 항구적인 것은 아닌 것이다. 아렌트의 판단에 따르면 인간이 증명한

과학과 기술의 성취로 인해 지구로부터 우주로의 탈출이 가능한 현실이 되었고(“인류는 지구에 영원히 속박된 채 머물지는 않을 것이다.”), 근대 이후의 노동 일변도 사회나 현대의 자동화 등 노동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노동으로부터의 자유가 야기한 ‘세계로부터 자아 속으로의 도피’, 부(wealth)의 추구만을 남긴 소유(property)의 상실은 ‘세계소외’를 불러왔다. 심지어 핵폭탄의 등장은 인류가 직접 자신의 기술로 지구 자체를 파괴할 수 있음을 보여준 놀라운 사건이다.

2) 활동적 삶의 양식

고대 그리스인들은 생명(삶)을 몇 가지 차원의 것으로 나누어 보았다. 그들의 관점에 따르면 생명(삶)에는 동물적 삶(zoe)과 인간의 자율적 삶(bios), 그리고 가계적 삶(oikos, 살림살이)이 있다. bios에는 정치적 삶과 정신적 삶이 있다. 고대에는 사적인 삶 외의 두 번째 삶으로서 정치적 삶은 불멸성(eternity)을, 철학자의 정신적 삶은 영원성(immortality)을 추구한다고 간주했다.¹⁾ 아렌트는 일반적 인간의 활동적 삶과 정신적 삶에 관심을 가졌고, 근대 이후 사적 영역인 oikos의 집체화인 사회가 등장하여 공적 영역을 대체하는 현상이 나타났으며 그것이 인간의 삶을 고귀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렌트는 인간이 가치 있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공적 영역과 정치적 삶의 회복이 관건이라고 주장한다.

① 노동(labor): 아렌트는 유기체적 생명을 유지하는 신진대사 활동을 ‘노동’으로 규정한다. 따라서 아렌트가 보기에 노동은 동식물과 공유되는 활동이며, 자연의 필연성에 속박된 활동이다.

1) 불멸성은 시간 안에서 영속하고 지상의 세계에서 죽지 않는 삶으로서 주로 영원히 되풀이되는 자연과 외적인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면 죽거나 늙지 않는 신이 갖는 힘이다. 영원성은 시간과 삶, 우주를 초월한 영속성이다. 일종의 정지한 시간이다.

② 작업(work): '작업'은 인공세계를 구성하는 사용물을 제작하는 세계제공 활동이다. 작업은 상대적 영속성을 남기는 활동이다. 여기서부터를 인간 고유의 활동 양식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작업은 자연과 자유 사이의 중간적 활동이기도 하다.

③ 행위(action): 모든 사람에게 의미 있는 공동의 세계에 관해 논의하는 활동이 '행위'다. 그것은 다원성 활성화 활동이며, 인간 활동의 규범적 토대가 된다. 노동의 필연성과 작업의 도구성 어느 것도 절대화되지 않게 해주는 가장 인간다운 활동이 행위다.²⁾ 행위는 말하는 능력을 함축하며 사실상 정치행위를 지시한다.³⁾ 또한 필멸적 존재인 인간에게 행위는 불멸성(eternity≠영원성immortality)을 추구하는 활동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아렌트에 따르면 문제는 근대 이후 작업도 노동으로 간주되면서 노동과 경제활동 본위의 사회가 되어 bios는 사라지고 zoe만 남게 되었다는 점이다. 현대 사회는 행위의 상실과 정치의 망각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고 이것은 휴머니즘의 상실로 이어진다. 따라서 아렌트는 무행위와 무사유를 벗어나 정치를 회복할 것을 역설한다. 한편 아렌트는 행위 능력의 강화는 활동적 삶과 대비되고 연계되는 인간의 또 다른 삶인 정신적 삶의 계발을 통해 이룰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런 생각은 그녀가 인생 후반기에 '정신적 삶'에 관한 연구와 집필에 전념하게끔 이끌었다.

3. 분투적 행위의 지향

2) 노동의 절대화는 인간을 자연의 필연성에 예속시키고, 작업의 절대화는 인간의 자연적 성격을 박탈한다는 것이 아렌트의 시각이다.

3) 아렌트에 따르면 모든 행위는 정치지만 모든 정치가 행위는 아니다.

한나 아렌트는 인간사의 영역을 '활동적 삶(vita activa)'과 '관조적 삶(vita contemplativa)'으로 나누고 다시 그 각각을 '노동(labor) · 작업(work) · 행위(action)⁴⁾와 '사유(thinking) · 의지(willing) · 판단(judging)'으로 구분하는데, 이 중 '행위'는 사실상 '정치행위'이며 인간의 가장 고차원적 활동능력이자 순수한 인간의 조건으로 간주된다. 아렌트에 따르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치적 삶(bios politikos)'이란 용어를 명백히 행위 곧 프락시스(praxis)를 강조하는 인간사의 영역만을 지시하는데 사용했으며, 이때 행위는 특별히 인간사를 확립하고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활동을 의미한다. 반면 노동과 작업은 인간의 필요와 욕구에 구속된 채 필요하고 유용한 것을 제공하고 생산해온 까닭에 결코 자유로운 활동일 수 없다.⁵⁾ 통제 불가능한 자연적 순환과 필요의 생물학적 과정에 빠져있는 한 인간은 전혀 특별하지 않다. 이때의 인간은 그저 자연적 유기체로서 존재할 뿐이다. 아렌트의 노동 · 작업 · 행위가 각각 무엇을 지시하는지 잠시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다.

먼저 '노동'은 인간 신체의 생물학적 과정에 상응하는 활동이다. 노동이라는 인간조건은 생명 그 자체와 결부되어 있다. 가장 기본적인 차원에서 인간은 생명—육체적 생존—을 유지하기 위해 먹고 마시고 자고 성적 결합을 한다. 이것들은 필요에 의한 활동들이다. 그러므로 노동은 삶의 필연성에 관계하는 것이며, 그렇게 본다면 노동은 특별히 인간만의 활동이라고는 볼 수 없다.⁶⁾ 둘째, '작업'은 인간 실존의 비자연적인 것에 상응하는 활동이

4) 아렌트는 인간의 세 가지 근본활동으로 '노동(labor)', '작업(work)', '행위(action)'을 제시한다. 아렌트에 따르면 이것들은 순수한 정신활동을 제외한다면, 인간이 지상에서 살아가는데 주어진 기본조건들에 상응하기 때문에 인간의 근본활동이라 할 수 있다.

5) Hannah Arendt, *The Human Condition*, Chicago & Lond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8, p.13 참조.

6) 이런 차원에서 노동을 규정하자면, 노동은 인간 활동 중 최고로 동물적이며 최저로 자기 충족적이며 가장 자유스럽지 못하다. 확실히 이것은 헤겔 및 마르크스적 전통과 이질적인데, 아렌트 본인도 자신의 노동 개념, 그리고 노동과 작업의 구분이 '유별난' 것임을 인정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렌트가 볼 때 노동의 성격은 '선-인간적(pre-human)'이다. 그에 반해 작업은 인간적 활동이다. 또한 작업의 차별화된 성격은 목적성으로, 동시에 모든 작업은 내구적이며 오래 가는 산물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다. 작업은 ‘인간 종’의 반복되는 생활주기에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며, 자연적 환경과 전적으로 구별되는 ‘인공적’ 세계의 사물들을 제공해준다. 인간의 모든 개별적 삶은 인공적 세계의 경계 내에 있다. 그러나 이 세계 자체는 개별적 삶 모두보다 오래 지속하고 초월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아렌트에 따르면, 작업과 노동은 흔히 혼동되어왔으나, 두 활동은 질적으로 다르다. 우리가 의자·책상·집 및 각종 용구를 만드는 활동들과 책을 쓰거나 시를 짓고 음악을 작곡하는 활동들이 모두 작업에 포함되며, 도시의 건설은 특히 작업의 정수다. 인간은 이렇게 인공물을 만듦으로써 인간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세계를 구성한다. 또 객관적인 사물세계는 상당기간 동일성을 유지함으로써 인간이 자신의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준다. 단, 공작인(homo faber)의 작업 곧 제작은 언제나 폭력의 요소를 포함한다. 공작인은 인공물을 만드는 과정에서 자연을 파괴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서양 정치철학의 전통은 플라톤 이래 정치를 ‘행위(praxis)’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제작(poiesis)’의 관점에서 이해함으로써 정치에 관한 잘못된 관념을 유포했다고 아렌트는 비판한다. 셋째, ‘행위’는 사물이나 물질의 매개 없이 인간 사이에 직접적으로 수행되는 유일한 활동이다. 행위의 근본조건은 복수의 인간들이 지구 위에 살며 관계의 총체인 세계에 거주한다는 사실에서 비롯되는 ‘복수성 또는 다원성(plurality)’⁷⁾이다. 복수성이란 한 종류의 인간이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일 사람들이 차이가 없다면 사람들은 자신을 타인들에게 이해시키기 위한 어떠한 행위나 발언도 불필요할 것이다. 인간조건의 모든 측면들이 다소라도 정치에 관련되어 있지만 복수성은 모든 정치적 삶의 특별한 조건이다.⁸⁾

한다. 곧 작업은 본질적으로 도구적이며 시작과 끝이 있는 활동이지만 만들어진 산물 혹은 작품은 상대적으로 영구성을 가진다. 반면 노동 과정은 영원한 자연의 순환성을 특징으로 한다. *ibid.*, pp.79-93; Dana R. Villa, *Arendt and Heidegger*, Princeton,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6, pp.26-27 참조.

7) 복수성은 동등성과 차이성이라는 이중성을 가진다.

행위를 통해 사람들은 각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그 고유한 정체를 드러낸다. 노동을 통해서서는 신체적인 필요를 드러내고, 작업을 통해서서는 숨씨를 드러내듯이, 행위를 통해서서는 ‘자신’을 드러낸다. 행위는 이렇듯 주체의 현시일 뿐 아니라, 무엇인가를 시작하는 활동이기도 하다. 인간만이 어제까지 없었던 그 무엇을 시작하는—물론 천지창조와 같은 신(神)의 시작하는 능력과는 감히 비견할 수 없겠지만—능력을 가지고 있다. 동식물 같은 다른 존재자들은 그저 어제처럼 오늘을 살고, 오늘과 다르지 않게 내일을 살 것이다. 인간만이 예측 불허의 시작들을 벌이며 자유를 경험하고 자신의 특장(特長, virtuosity)을 세계에 내보인다.⁹⁾

행위는 열린 무대에서 펼쳐는 퍼포먼스나 예술 공연과도 같다. 인간의 활동적 삶에 있어 노동은 유기체적 생명활동이므로 자연적이고,¹⁰⁾ 작업은 비로소 인간적 활동이기는 하나 작업이 만든 인공적 세계는 자연과 인간 사이에 있으므로—인공 세계적 사물들은 자연의 천연재료들을 가공하여 만들어지며, 도시의 외벽은 인간의 거주 공간과 자연을 갈라놓는 동시에 양쪽 사이에 걸쳐 있는 경계라는 점에서—자유와 자연의 중간적 활동이며, 행위야말로 독특하고 순전한 인간적인 활동이다. 행위는 인간에게 자유를 확인시켜 주는 자유로운 활동이며 그것이 바로 정치이다. 다만 행위는 정치라고 할 수 있지만, 모든 정치가 행위는 아니다.

실존적인 차원에서 보자면, 사람들은 누구나 세계라는 무대에서 항상 자기 자신을 다른 이들로부터 차별화하면서 독특한 행위나 탁월한 업적을 통해 그가 다른 이들 중 최고임을 입증해야 하는 요청에 회부된다. 이러한 자기 현시가 이루어지는 장이 정치의 영역이고, 아렌트는 이를 특별히 ‘공

8) “모든 인간 활동은 사람들이 더불어 살아간다는 사실에 의해 조건지어져 있다. 하지만 인간사회를 벗어나서는 상상되어질 수조차 없는 것은 오직 행위뿐이다.……행위만은 전적으로 타인의 지속적인 현존에 의존한다.” Hannah Arendt, op. cit., pp.22-23.

9) 이상 아렌트의 노동·작업·행위에 대한 요약적 설명은 *ibid.*, 7-9; 김비환, 『축복과 주주의 정치사상—20세기와 한나 아렌트』, 파주: 한길사, 2001, 92-105쪽 참조.

10) 자연적이라는 것은 필연성에 얽매어있다는 의미이다.

적 영역(the public realm)'이라 명시하며 '사적 영역(the private realm)'과 구분 짓는다.¹¹⁾ 정치 영역이 '공적 영역'에 해당하는 까닭은 그것이 '사적 영역'처럼 내밀하게 은폐된 공간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것은 모두에게 개방되어 있으며, 이 공간에서는 자신도 타자도 그 누구일지라도 자신을 드러내 보이는 일종의 공연의 주체이자 동시에 관람객이다. 이 공간에서야말로 우리는 우리가 세계-내-존재임을 투철하게 경험하게 된다.

때문에 아렌트는 정치와 강한 친밀성을 갖는 것으로 예술 공연의 예를 든다. 그녀에 따르면 그리스인들은 “정치적인 것을 다른 활동과 구별하기 위해 피리 불기, 춤추기, 치료행위와 같은 은유를 사용했다.”¹²⁾ 비록 은유 일지라도 통상적으로 정치가 예술로 정의되어 온 것은 정치행위에 포함된 특장이 보통 공연예술에 속한다고 여기는 탁월함(excellence)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정치와 예술 양자가 공공성을 공유한다고 보아서일 것이다.

“공연예술가—무용가, 연극배우, 음악가 등—는 자신의 특장을 선보일 관객을 필요로 한다. 이는 마치 행위자¹³⁾가 자신을 드러내 보일 타인의 현전을 필요로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공연예술가와 행위자 양자 모두 자신의 ‘작품’을 위해 공적으로 조직된 공간을 필요로 하며, 행위 수행 그 자체를 위해 타인에게 의존한다. 그러한 외견의 공간은 인간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사는 곳이라면 어디에서든지 허용된다.”¹⁴⁾

11) 안효성, 「정치의 고유성과 공공성: 정치철학의 근본문제와 경계 설정」, 『범한철학』 제69집, 범한철학회, 2013, 255쪽 참조.

12) Hannah Arendt, *Between Past and Future*, New York: Penguin Books, 1977, pp.151-152.

13) 정치행위의 주체를 아렌트는 행위자(the agent)라 부른다. 다만 이 대목에서 아렌트는 'the agent' 대신 'action men'이란 낱말을 사용하고 있다.

14) Ibid., p.152. 물론 이러한 외견의 공간이 현실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적이 있었던가는 실제적 경험의 문제가 남게 된다. 이런 외견의 공간 혹은 공적 영역이 현실적으로 부재하다면, 전적으로 자유롭게 자신을 말과 행위로 현시할 수 있는 행위자도, 분투 정신에 의해 추동되는 정치도 존재하기 어렵다는 것은 분명하다. 아렌트는 진정으로 행위할 수 있는 외견의 공간을 실제로 제공했던 정부 형태로 그리스의 '폴리스'를 예

아렌트에 따르면 무대 위에 오른 연주자의 바이올린 연주나 피리 연주 또는 무용은 다른 어떤 것을 달성하기 위한, 다른 목적을 수행키 위한 수단

로 든다. 비록 아렌트가 정치적인 것의 고유성과 그 영역을 처음으로 발견했던 공동체적 경험으로서 고대 그리스 폴리스의 삶을 특별하게 다루지만, 그녀도 인정하듯 폴리스의 삶은 전 인류역사에서 매우 한시적이기만 했던 이념형에 불과하다. 그리고 폴리스가 제공한 외견의 공적 영역을 자유로이 향유할 수 있었던 정치적 행위자들이 폴리스가 인정한 제한적 시민들, 즉 노예로 인해 가정경제로부터 해방될 수 있었던 남성 '주인'들로 한정되어 있었다는 엄연한 현실을 무시해서는 안 될 것이다. 게다가 아렌트보다 현실정치적 감각이 뛰어나고 역사상의 정치적 변동과정을 보다 사실적으로 설명해내는 프랑스의 정치사상가 클로드 르포르(Claude Lefort, 1924~2010)의 경우, 그리스 폴리스가 외양적 평등에도 불구하고 실제 정치에서는 불평등한 의사결정 수단의 동원이나 권위의 최종 작동이 있었으며 그 정치가 군사적 목적 등을 지니고 있었음을 지적하면서, 아렌트의 그리스 폴리스에 대한 지나친 예찬을 비판한다. Claude Lefort, *Democracy and Political Theory*, trans. David Macey, Cambridge: Polity Press, 1988, pp.53-54 참조. 그럼에도 아렌트는 폴리스적 정치 경험이 실제의 역사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나지는 않더라도 그러한 정치 원형이 마치 인류에게 선형적으로 주어져 있는 것인 양, 그것만이 유일한 참된 정치 형태일 수 있다고 줄곧 일갈한다. 아렌트의 이런 태도는 '정치적인 것'에 대해 우리의 주의를 환기시키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며, 이전의 정치사상 및 철학사에서 찾아보기 드문 독보적인 메타 정치학의 정립 시도라는 것만은 주지의 사실이다. 어차피 아렌트는 현실 정치의 여러 양상들이나 정치사상의 전통을 방만하게 포섭하고 수렴할 의도는 추호도 없었다. 아렌트는 자기가 인식한 정치 혹은 정치적인 것에 묻어있는 수많은 불순물들을 사그리 건어내고 정치를 순수하게 홀로 세우고자 했을 뿐이다. '정치적인 것'이란 용어를 학적으로 의미 있는 개념으로 제일 먼저 사용했던 이는 독일의 정치학자이며 법학자인 카를 슈미트(Carl Schmitt, 1888~1985)였다. 그는 정치영역 내의 대립, 곧 정치적 적대가 경제적·미학적·도덕적 대립과 구별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정치적인 것'이란 개념을 끌어들었다. 카를 슈미트, 김효전·정태호 역, 『정치적인 것의 개념』, 파주: 살림, 2012 참고. 정치의 본성에 제대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치에 앞서 '정치적인 것(the political)'의 본성을 파악해야 한다. 흔히 우리가 떠올리는 '정치(politics)'는 제도적인 차원이라 할 수 있고, '정치적인 것'은 인간 사회에 고유한 인간의 존재론적 조건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정치 현상들을 다른 인간적 현상들과 구별 지어 주는 내적 특성 내지는 토대이기 때문이다. 르פור는 정치를 '경험적 정치(la politique)'와 '형이상학적 정치 또는 정치사상이나 정치철학에서 주로 다루는 정치(le politique)'로 구분한다. 전자는 정치 또는 정치학(politics)에 해당하고 후자가 '정치적인 것(the political)'에 해당하는데, 후자가 정치사상이나 정치철학자들의 주된 관심 대상이 된다. 아렌트 역시 '정치적인 것'을 파악하는 현상학적 방법을 통해 비로소 '정치'의 의미를 분명히 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이었다.

이나 과정이 아니라, 관객에게 보이는 그 공연 자체가 목적이고 시작이요 끝이다. 그 공연에는 다른 외적 동기가 있지도 않다. 있다면 다만 공연을 통해 나의 특장이나 기교를 뽐내 관객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뿐이다. 정치 역시 결코 다른 영역의 부속물이 아닌 자신의 단독적인 표지를 갖는 활동이다. 정치행위와 공연예술은 자기충족적이며 자기완결적이라는 점에서 닮아있다. 아렌트는 정치를 논함에 있어 진리나 형이상학을 끌어들이지 않으며, 정치를 초월적 토대나 다른 목적에 종속시키지 않고자 한다.¹⁵⁾ 아렌트는 정치가 서로 더불어 세계적으로 살아가는 '복수의 인간(Men)'과 그들이 구성하는 '공적 영역' 속에서 비로소 의미를 갖는 것이라고, 더 풀어 말하자면 정치란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 살면서 각기 다른 개성을 드러내는 가운데 공동의 생활을 유지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여기에는 다양성과 차이에 대한 존중이 자리 잡고 있으며, 공적 공간에서의 언어를 통한 의사소통과 토론 및 심의, 그리고 합의와 공동 행위의 중시가 존재한다. 만일 토론과 설득 행위가 부재하고, 야만강제력이나 명령이 지배한다면 그것은 비정치적이다. 정치행위는 근본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능력이다. 지배를 정치로 여기는 것은 적어도 아렌트가 보기에는—본래적으로는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들로서의 모든 행위자들이 더불어 함께 참여하는 것인—정치에 대한 오해이며 인간 존엄성에 대한 모독이다. "정치적 인간의 자유는 타인의 현존과 평등성에 결정적으로 의존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는 것이 중요하다."¹⁶⁾

'정치적인 것'을 인간 실존에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보는 아렌트는 공적 영역의 창조와 보전에 관한 것들을 순전한 정치담화와 정치행위로 인정한다. 아렌트가 종종 정치행위의 모범적 사례로 드는 것은 아테네 민주주의 광장에서의 연설들, 미국의 건국 혁명,¹⁷⁾ 혁명위원회¹⁸⁾의 토의들, 시민권

15) 아렌트는 정치를 비토대적이고 무목적적인 것, 자기충족적이고 자기완결적인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정치를 인간사의 다른 영역들과 현격히 구별되는 고유한 것으로 재취급한다.

16) 한나 아렌트, 제롬 콘 편집, 김선옥 역, 『정치의 약속』, 파주: 푸른숲, 2007, 212쪽.

운동이나 반전 운동 등과 같은 특정한 시민불복종 행위들이다. ‘더불어 삶’의 기초적 문제들에 밀착하는 정치는 일상에서 시민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율적인 자치 권력을 창출하고 행사하는 것으로서, 마을이나 학교·회사·공공장소 등 일체의 다양한 광의의 광장에서 자신들이 단위 공동체에서 직면한 공적 문제를 직접 의제로 삼아 토론하고 심의해 결정하며 실제 행동으로 옮기게 함으로써 민주주의를 발전·심화시켜 나가는 데 기여하고, 크게는 헌법의 기초와 새로운 정부 형태의 수립과 같은 건국 행위를 정초하는 것이다.

공적 자유를 위한 공간 확립을 정치의 가장 순수하고 고유한 임무로 생각했던 아렌트는 헌법의 기초와 건국 행위야말로 새로운 정치영역을 세우는 행위로서, 인간의 탄생성에서부터 운명적으로 주어지는 ‘시작하는 힘’의 아름답고 탁월한 공공적 실현이며 자유의 확립 기반 건설이라고 간주한다.¹⁹⁾ 아렌트에게 헌법이란 사람들이 행위와 실질적 자유를 누리기 위한 조건 공간을 건설하는 수단에 대한 기초적 합의이며, 정치 체제의 토대 놓기이다. 그리고 그것은 자유와 평등 같은 권리 보장의 장전(章典)이자 원리일 뿐 아니라 정치적 인간으로서 온전히 실존하기 위한 장소의 창조와 보전 방식이다.²⁰⁾ 아렌트는 정치적 자유를 확립하고 보호하는 것이 진정한 혁명

17) 아렌트는 특이하게도 프랑스 혁명을 실패한 혁명으로 미국 혁명을 보다 성공한 혁명으로 간주한다.

18) 미국혁명 당시의 타운미팅, 프랑스 공민회의, 러시아 소비에트, 1918년 독일 노동자들과 군인들의 위원회(Räte), 1956년 헝가리 혁명 등의 평의회들을 가리킨다.

19) 인간 행위의 가장 위대한 가치는 그것이 무엇인가를 시작한다는 점이다. 자연의 순환 고리 안에 미리 있는 적이 없던 그 무엇을 인간의 행위는 개시한다. 인간은 자연 안에 있던 적이 없던 무엇인가를 기술적으로 만들어 내며(인공물의 창조), 사물의 매개 없이 직접적으로 이루어지는 인간행위는 (자연상의 혹은 제도적 제약만 없다면 전적으로 자유로운 것이기에) 가장 창발적이며 예측불가능하다. 그러나 그 속에서 인간은 가장 인간답게 되며 자연세계의 자동적 과정을 중단시킨다. 시작 능력은 “모든 인간의 활동을 활성화하고 고무한다. 또한 모든 위대하고 아름다운 것을 생산하는 숨은 원천이다.” 한나 아렌트, 앞의 책, 230쪽.

20) 정치적 자유를 일종의 공간적 구조물로 간주하는 아렌트가 보기에 헌법에 의한 정치, 입헌정치는 권리의 보장, 공사의 엄밀한 구분, 인민의 자유롭고 평등한 공적 영역 참

이라고 보았으며, 자발적 평의회를 구성해 자유의 확립을 이루고 그를 보전
 키 위한 지속적인 제도들을 설립하는데 집중한 미국 혁명을 주목함으로써,
 정치적인 것의 차원에서 미국 혁명을 프랑스 혁명보다도 우위에 둔다.²¹⁾
 한 마디로 아렌트는 헌법을 단순한 제도적 구조물을 넘어 하나의 특별한 정
 치적 삶의 방식으로 대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아렌트에게 정치는 인간성 실현의 특별한 방식이자 인간만의 공존 양
 식이라 간주되었다. 때문에 아렌트의 정치철학이 독자적인 정체성의 형성
 과 발휘라는 개인적 측면과 공적 영역의 확보라는 세계적 측면을 두 기반으
 로 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라 할 수 있으며, 아렌트는 모든 사람이 정치행
 위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자신을 각성하고 즉각 행위를 실
 행하기를 바랐다.²²⁾ 아렌트에 의하면, 활동적 삶의 최고 서열인 행위를 판
 단하는 적절한 기준은 '위대함(greatness)'이다. 행위는 그 본질상 일반적
 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을 파기하고 예외적인 것에 이르는 것이기 때문이다.
 즉 행위는 평범한 행위와의 차이에 의해 평가된다. 행위는 분투 혹은 영웅
 적인 것으로서 드러난다. "인간의 세계는 말과 행위, 인간사와 관계들의 그
 물망, 그리고 이것들의 산물인 이야기들의 무대"이며, 사람들은 "그것에 관
 해 말하고 거기에서 거주"²³⁾한다.

4. 정신적 삶의 계발을 통한 행위 능력 강화

여의 제도화 등을 통해 인간의 정치행위를 상대적으로 영구화 할 수 있게 해 주는 최선
 의 정치방식으로 여겨졌을 수 있으리란 추정이 가능하며, 그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롤
 즈의 정의론을 '정치적인 것'의 선상에서 고민해볼 여지를 가지게 된다.

21) Hannah Arendt, *On Revolution*, London: Penguin Books, 1990, p.87 참조.

22) 아렌트는 공공의 문제에 대한 무관심과 개인주의에 입각한 무한 경쟁 등이 팽배한 비
 정치화 사회가 결국 전체주의를 낳았다고 지적한다. Hannah Arendt, *The Origins of
 Totalitarianism*, London: George Allen & Unwin, 1963, p.336 참조.

23) 하나 아렌트, 이진우·태정호 옮김, 『인간의 조건』, 한길사, 1996, 267쪽.

독일의 나치 친위대 장교였던 아돌프 아이히만(Adolf Eichmann, 1906-1962)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의 유대인 집단학살 정책의 책임자로서 수많은 유대인을 집단수용소로 보내 죽음으로 몰아넣었다. 독일의 패전 후 미군에 붙잡혔으나 1946년 포로수용소에서 탈출했고, 중동지역을 거쳐 아르헨티나에 숨어 살다가 1960년 부에노스아이레스 인근에서 이스라엘 비밀경찰에게 붙잡혀 이스라엘로 끌려간 뒤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았다. 1961년 4월 11일에서 12월 15일까지 계속된 재판에서 아이히만은 교수형을 선고받고 죽임을 당한다.

아렌트는 당시 아이히만이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는 소식을 접하고 미국의 교양잡지 뉴욕커의 재정 지원을 받아 특파원 자격으로 재판을 참관하였다. 재판을 쫓 지켜보던 끝에 아렌트는 뉴욕커에 기고한 아이히만 공판에 대한 보고서에서 그 유명한 ‘악의 평범성(banality of evil)’²⁴⁾ 개념을 끌어들이게 된다. 재판 과정 속에서 아렌트가 지켜본 아이히만은 결코 포악한 악인이 아니었고 광신도나 성격장애자도 아니었다. 오히려 지극히 평범하고 가정적인 사람이었고 우리가 흔히 만날 수 있는 일반적인 이웃과 다름없었다. 심지어는 정신과 의사들도 아이히만을 매우 정상적인 사람이라 진단하였다.

이에 충격을 받은 아렌트는 인간의 행위가 설혹 극히 잔혹하더라도 그 행위자는 괴물이나 악마가 아니며, 그가 저지른 악행은 그 사람의 약점이나 병리학적 측면, 혹은 이데올로기적 확신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인격적 천박함에 근원하는 것일 수 있음을 깨달았다. 이에 따라 아렌트는 아이히만을 그 시대 대표적 범죄자들 중 한 명이 되도록 만든 것은 어리석음과는 같지

24) ‘악의 진부함’으로 번역하기도 한다. 악이 근본적인 것이 아니고 단순히 평범한 사람들이 그들의 활동이나 비활동이 낳을 결과에 대한 비판적 사고 없이 명령에 복종하거나 다수 의견에 따르려 하는 경향에서 비롯되는 뻔한 것일 수 있음을 부각시킨 개념이다. 아렌트는 ‘전체주의(totalitarianism)’에서 근본악을 목도한다. 아렌트의 통찰에 따르면, 전체주의는 총체적 폭력과 테러를 본성으로 하며, 총체적이고 확실한 인간지배를 수단으로 삼아 인간의 조건을 파괴하고 인간성을 말살시킴으로써 정치의 폐지 상태를 만들어 낸다. Hannah Arendt, op. cit., 참조.

않은 ‘순전한 무사유(sheer thoughtlessness)’였다고 결론 내리게 된다.

아렌트가 보기에 아이히만은 세 가지 무능력이 있었다. 말하기의 무능력(inability to speak), 사유의 무능력(inability to think), 판단의 무능력(inability to judge)이 그것이다. 특히 판단의 무능력은 그가 전혀 타인의 관점에서 바라볼 능력이 없었다는 것을 말한다. 아렌트가 아이히만의 처형 장면에서 그가 가르쳐준 교훈을 요약하며 ‘악의 평범성’이라 지칭한 것은 이 세 가지 전적인 무능력에서 비롯된다. 인간 속에 존재할 수 있는 모든 악을 합친 것보다도 더 많은 대파멸을 불러올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런 무능력에 처할 때일 수 있다.²⁵⁾ 아렌트는 이런 무능력에 빠지지 않는 방향으로 인간의 능력을 단련할 필요성을 피력한다. 그녀는 ‘사유, 의지, 판단’이라는 정신의 삶의 세 층위를 적극 계발하는 것, 특히 올바른 판단력을 갖추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인간다움을 상실하지 않고 훌륭한 삶을 살게 하는 비결이라고 믿었다.

아렌트는 타인의 현존 속에 살아가는 복수적 인간의 활동적 삶과 정신적 삶, 또는 사유와 정치행위를 매개하는 인간의—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지성에 근거한—정신 능력으로서의 ‘판단(력)(judging)’을 중시하였다. 그리고 그녀는 각기 다른 개별적 사람들을 공동체와 세계의 일원으로서 이어주는 ‘공통감(common sense)’과, 부재하는 것을 불러와 정신에 표상시키는 확장된 정신인 ‘상상력(imagination)’, 그리고 상상력이 준비해준 재현작용 속에서 거리감을 확보한 채 쾌불쾌를 결정하는 정신작용인 ‘반성(reflection)’의 정치판단에 대한 기여를 강조하였다.²⁶⁾

한편 아렌트는 인간들(men)이 ‘인간(human)’일 수 있는 것은 모든 각각의 사람 안에 현존하는 인류(mankind)의—우리의 반성을 규제할 뿐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행위를 고무시키는—이념(idea)의 덕(virtue)에 의해

25) 한나 아렌트, 김선옥 역, 『예루살렘의 아이히만』, 2006, 391-392쪽 참조.

26) Hannah Arendt, *Lectures on Kant's Political Philosophy*,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2, pp.72-74(김선옥 역, 『칸트 정치철학 강의』, 푸른숲, 2002, 139-142쪽) 참조. 이하 번역본은 괄호 안에 쪽수만 표기.

서이고, 인간이 문명화되었다거나 사람답다고 불릴 수 있는 것은 이 이념이 인간의 '판단'만이 아니라 '행위'의 원리가 되는 한도 내에서라고 역설했다. 정치 행위자(actor)와 관찰자(spectator)²⁷⁾가 결합되는 것도 이 지점이라고 보았다.²⁸⁾

관찰자는 단수로서 존재하는 절대적 관찰자가 아니다. 현실의 관찰자는 '복수적(다원적)'으로만 존재한다. 모든 관찰자는 '동료 관찰자'와 관계하고 대화하며, 실재하는 것은 오직 '관찰자들'뿐이다. 행위가 고독이나 고립 속에서 가능하지 않은 것처럼 관찰자의 판단 역시 복수적인 것이다. 행위자는 공적 영역의 활동에 일정한 역할을 갖고 직접 참여하다 보니 부분적이고 전체를 관망할 수 없으며 자신의 현재에 충실하게 행위한다. 반면 그와 대조적으로 관찰자는 장내에서 맡겨진 부분과 역할이 없다보니 전체를 볼 수 있는 위치에 있게 되고, 직접적 참여에서 물러나와 어떤 관점을 취하는 것이 판단의 필수조건이 된다.

이때 행위자를 지배하는 동기는 '명성'과 '의견'〔doxa〕이므로, 관찰자의 판단과 의견은 행위자의 행위를 결정하거나 행위에 영향을 끼친다. 행위자는 관찰자의 평가에 의존한다. 그런 점에서 행위자는 자율적이지 않다. 행위자의 행동의 기준을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오히려 관찰자의 기준이 자율성을 획득한다. 관찰자는 공정한 판단을 위해 무관심적 관심을 보여야 하고, 불편부당한 '판단을 통해' 일어난 사건—이것은 시시각각 과거로 떠밀려 간다—의 의미를 아는 유일한 위치에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아렌트의 행위이론에서 인간 활동의 유일한 참된 자율적이고 자유로운 자였던 행위자는 판단하는 관찰자들의 등장으로 인해 자율성에 제약을 받게 되고, 오히려 가장 정치적인 능력의 지위는 판단이 가져가게 된다. 한편 앞서 보듯이 행위자도 판단을 결여하는 것은 아니며, 제한적으로나마 자신들의 행위와 관련된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은 분명하다. 이런

27) 행위자는 참여하는 행위자로, 관찰자는 판단하는 관찰자로도 풀어서 쓸 수 있다.

28) Ibid., p.75(143쪽) 참조.

전환과 난점을 두고, 그리고 선협철학을 거부해 온 아렌트가 공통감을 중심에 두는 판단이론을 선택함으로써 칸트 도덕철학의 선협성 구도에 빠져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고 의문의 가능성을 제기하는 등, 많은 학자들이 곤혹감 속에 논쟁을 거듭해 왔다.²⁹⁾

존재하는 양상만 놓고 보았을 때는 판단이론엔 두 개의 모델이 있다. 하나는 전기철학에서 두드러지는 행위자 중심의 판단 모델이고, 다른 하나는 후기철학에서 두드러지는 관찰자 중심의 판단 모델이다. 때문에 행위하는데 필요한 행위자의 판단과 평가를 통해 지나간 과거로부터 의미를 추려내는데 필요한 관찰자의 판단이 각각 존재하며, 양자는 불화하는 측면이 있어 보인다. 사건의 생산에 가담하지 않는 관찰자는 이미 발생한 일을 사후 평가적으로 판단하여 위대성을 드러내는 데 주안하기 때문에 과거지향적(회고적)이다. 반면 행위자의 판단은 앞으로 할 행위에 대한 결정에 주로 관여한다는 점에서 미래지향적이다.³⁰⁾

관찰자의 판단은 반성적 판단이라고 달리 말할 수 있고, 행위자의 판단은 정치적 판단이라고 달리 말할 수도 있다. 정치적 판단인 행위자의 판단은 현실의 일을 직접 성찰하는 1차적 반성으로서 구체적인 정치행위의 지침으로 활용되는 실천적 성격의 것이며, 반성적 판단인 관찰자의 판단은 정치행위자와는 구분되는 역사가나 이야기꾼의 회고적 판단으로서 행위자의 판단에 대해 판단하는 2차적 반성의 성격을 갖는다고 정리해 볼 수도 있다.³¹⁾

29) 가령 번스타인은 아렌트의 판단이론에 행위중심 정치이론과의 모순이 존재한다는 쪽을 대표하고, 베이너는 아렌트에게서 두 개의 상이한 판단이론이 체출된 것이고 후기 판단이론을 통해 판단을 정치에서 단절시킨 것이라고 보는 쪽을 대변한다. 그 외에도 판단이론이 동일한 목적을 향해가던 아렌트의 이론적 발전의 결실이라고 해석하는 입장도 존재한다. Richard J. Bernstein, "Judging—the Actor and the Spectator", *Philosophical Profiles*, Cambridge: Polity Press, 1986; Ronald Beiner, "Hannah Arendt on Judging", *Hannah Arendt, Lectures on Kant's Political Philosophy*, pp.89-156(161-267쪽); 김선욱, 『한나 아렌트 정치판단이론』, 푸른숲, 2002, 98-116쪽 참조.

30) Richard J. Bernstein, op. cit., p.233 참조.

아렌트는 복수의 인간들이 서로 관계 맺고 어울려 사는 인간사의 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라고 보았다. 아렌트가 보기에 인간의 참된 실존은 결코 개인적 실존일 수 없었고, 복수적 인간의 실존이요 공동체적 실존이야말로 참된 실존이었다. 현자들만이 모여 사는 것이 아닌 매우 다양한 보통의 사람들이 모여 사는 인간의 사회에서, 인간을 가장 인간답게 만들어 주고 인간 아닌 다른 존재자들과 구별시켜 주는 인간의 활동은 '말과 행위로서의 정치'라고 믿었던 것이 아렌트였다.

그러나 그녀가 보기에 정치가 인간의 활동적 삶의 가장 탁월한 것이기는 하였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현실에서 도무지 행할 수 없는 저 하늘의 별과 같은 형이상학적인 것과 강하게 연관되어서도 곤란한 일이었다. 강력한 도덕이나 종교, 형이상학적 철학과 같은 진리를 앞세운 체계가 정치에 개입하거나 정치를 지휘하게 될 경우, 진리의 폭정을 맞이하게 됨으로써 인간의 탁월한 활동인 정치는 오히려 타락할 것이라는 것이 그녀의 우려였다.

이성을 통한 강제의 난점은, 소수만이 그것에 종속되기 때문에, 정치체를 구성하는 다수의 사람들을 어떻게 같은 진리에 복종할 수 있게 하겠는가라는 문제다.³²⁾

그러나 각기 다른 감각의 차이와 정신활동을 갖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역전을 가진 개인들로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은 평화로운 정치의 가능성을 위협하는 조건일 수도 있다. 정치는 포기할 수 없으나 보편적 원리의 개입은 신뢰하지 않았던 아렌트였지만, 필연적으로 다수의 사람들이 모여 함께 구성할 수밖에 없는 공적 영역에서 원활한 토론과 합의 도출을 위해서라도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는 판단된 행위는 현실적으로 중

31) 김선욱, 앞의 책, 103쪽 참조.

32) Hannah Arendt, *Between Past and Future*, New York: Penguin Books, 1977, p.107 (서유경 역, 『과거와 미래 사이』, 푸른숲, 2005, 149쪽).

요하지 않을 수 없었다. 앞서도 언급했듯이 실존적인 차원에서 보자면 사람들은 누구나 세계라는 무대에서 항상 자기 자신을 다른 이들과 차별화하면서 특별하게 현시시킬 것이 요구된다. 이러한 자기 현시가 이루어지는 장이 아렌트에게는 ‘공적 영역’이며 그곳에서의 자기 현시적 소통 행위가 바로 ‘정치’다. 정리컨대 아렌트에게 인간의 실존은 결코 단독자의 차원이 아니라 더불어 사는 복수의 인간들의 관계적 삶의 차원이다.

5. 결론

한나 아렌트는 통상의 일반적인 철학자들에 비해 정치철학자로 그 좌표가 한정되는 편이다. 그녀가 스스로 자신을 정치이론가나 정치사상가로 밝히고 있듯 아렌트는 평생에 걸쳐 정치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저술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아렌트는 현실 정치가 작동하는 속성에만 주목한 것이 아니고 ‘세계-내-존재’로서의 인간 실존의 특별함 차원에서 ‘정치적인 것’을 발굴하였다.

아렌트는 정치를 복수의 타인들과 더불어 사는 인간만의 공존 양식이며 인간성을 실현하는 특별한 방식이라고 간주했다. 그렇기 때문에 아렌트의 철학은 독자적인 정체성의 형성과 발휘에 관한 개인적인 차원과 공적 영역의 확보에 관한 세계적인 차원을 두 기반으로 하면서도, 공적 영역으로서의 ‘세계’와 그것을 실존의 조건으로 삼는 ‘세계인’의 문제를 다루는데 치우쳐 있었다. 아렌트의 철학이 정치의 고유성과 공공성을 인간 실존의 차원에서 성찰했다는 점에서 그것은 통상적인 실존철학과 차별성을 보이며, 그 때문에 그것을 정치철학의 한가지 개성적 자산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Arendt, Hannah, *The Human Condition*, Chicago & Lond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8(이진우·태정호 옮김, 『인간의 조건』, 한길사, 1996).
- Arendt, Hannah, *Between Past and Future*, New York: Penguin Books, 1977(서유경 역, 『과거와 미래 사이』, 푸른숲, 2005).
- Arendt, Hannah, *Lectures on Kant's Political Philosophy*,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2(김선욱 역, 『칸트 정치철학 강의』, 푸른숲, 2002).
- Arendt, Hannah, *On Revolution*, London: Penguin Books, 1990.
- Arendt, Hannah, *The Origins of Totalitarianism*, London: George Allen & Unwin, 1963.
- Bernstein, Richard J., "Judging—the Actor and the Spectator", *Philosophical Profiles*, Cambridge: Polity Press, 1986.
- Lefort, Claude, *Democracy and Political Theory*, trans. David Macey, Cambridge: Polity Press, 1988.
- Villa, Dana R., *Arendt and Heidegger*, Princeton,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6(서유경 역, 『아렌트와 하이데거』, 교보문고, 2000).
- 김비환, 『축복과 저주의 정치사상—20세기와 한나 아렌트』, 파주: 한길사, 2001.
- 김선욱, 『한나 아렌트 정치판단이론』, 파주: 푸른숲, 2002.
- 슈미트, 카를, 김효진·정태호 역, 『정치적인 것의 개념』, 파주: 살림, 2012.
- 아렌트, 한나, 김선욱 역, 『예루살렘의 아이히만』, 파주: 한길사, 2006.
- 아렌트, 한나, 제롬 콘 편집, 김선욱 역, 『정치의 약속』, 파주: 푸른숲, 2007.
- 안효성, 「정치의 고유성과 공공성: 정치철학의 근본문제와 경계 설정」, 『범한철학』 제69집, 범한철학회, 2013.

■ 국문초록

본 연구는 한나 아렌트 철학의 기저인 실존철학적 내용을 바탕으로 아렌트 철학의 개요를 교양 지식의 수준에서 소개함으로써, 독자들이 근래 시민사회나 교양교육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한나 아렌트의 근본 관심과 그 철학의 토대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아렌트는 정치적 삶을 인간 실존의 근본 성격으로 본다는 점에서, 그녀의 철학을 실존주의적 정치철학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 본 연구의 요지다. 다만 아렌트가 인간의 실존으로 간주하는 것이 통상적인 실존철학의 관점과는 강조점에서 차이가 있다는 것은 유념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 한나 아렌트, 실존철학, 인간의 조건, 활동적 삶, 정신적 삶, 정치

■ Abstract

Hannah Arendt's Existential Philosophy
: Human condition and political life

Ahn, Hyo Soung

These days, Hannah Arendt is receiving a lot of attention in civil society and liberal education. Based on the existential philosophical content, which is the base of Hannah Arendt's philosophy, this study introduced the outline of Arendt's philosophy at the level of cultural knowledge. This study was intended to help people understand her fundamental interest and the foundation of her philosophy. Arendt saw political life as the fundamental nature of human existence. Therefore, we must understand her philosophy as an existentialist political philosophy. However, what Arendt regards as human existence is different from the usual perspective of existential philosophy.

Keyword ● Hannah Arendt, Existential philosophy, Human condition, Active life, Contemplative life, Politics

■ 논문투고일 : 2020. 10. 30. ■ 심사완료일 : 2020. 11. 19 ■ 게재확정일 : 2020. 11. 22

논문투고 규정

2018년 3월 1일 제정

제1조(학술지 명칭)

- 1) 본 학술지는 <지식과 교양>이라 칭한다.
- 2) 본 학술지는 교양교육과 융복합, 지식의 대중화, 학문간 통섭 등에 관한 논문을 발간한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목원대학교 교양교육혁신연구센터의 학술지 <지식과 교양>의 투고·편집 및 발간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발간회수 및 시기)

- 1) 본 학술지는 연 2회 발행한다.
- 2) 본 학술지의 발행일은 5월 30일, 11월30일로 정하되, 편집위원회와 학술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발간회수를 조정할 수 있다.
- 3) 학술지의 논문 접수 마감일은 매년 1호 학술지는 4월 20일까지, 2호 학술지는 10월 20일까지로 한다.
- 4) 본 학술지에 게재가 결정된 논문은 투고일자(접수일자), 심사(수정)일자, 게재확정일자를 논문 마지막에 명기한다.

제4조(투고자의 연구윤리규정 준수)

논문투고자는 <지식과 교양>의 연구윤리규정을 숙지,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했다고 판단될 경우 편집위원회는 연구윤리규정에 의거하여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제5조(게재불가논문)

본 학술지에 투고할 수 없는 원고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편집위원회는 다음 각항에 속하는 논문이 투고되었을 경우 심사과정 이전에 투고를 제한할 수 있다.

- 1) 본 학술지의 논문주제 영역에 부합하지 않은 논문
- 2) 기존에 이미 게재되었던 논문과 이와 유사한 논문
- 3) 외국저서, 논문, 저널의 단순한 번역 논문
- 4) 석·박사 학위 논문을 단순 축약한 논문
※ 석·박사 학위 논문의 전체 또는 일부를 보완, 발전시킨 논문의 경우 투고 가능하다. 단, 각주를 통해 그 사실을 반드시 사전에 적시해야 한다. 적시하지 않은 논문의 경우 편집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투고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 5) 이전 학술지 논문심사에서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을 제목이나 내용의 수정을 가하지 않고 투고한 논문
- 6) 이전 호에서 '게재철회'를 요청한 논문은 제목이나 내용을 수정했다고 하더라도 <지식과 교양>에 재투고할 수 없다.
- 7) 부득이하게 게재확정 이후 이상이 확인된 논문의 경우, 편집위원회는 해당 투고자의 논문투고자격을 향후 5년간 박탈할 수 있다.

제6조(논문투고 방법)

투고자는 원고 마감일 이전에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논문을 투고할

수 있다.

- 1) 이메일 접수는 kl@mokwon.ac.kr로 투고한다.
- 2) 온라인 논문투고는 교양교육혁신연구센터 홈페이지 (<http://liberalarts.mokwon.ac.kr>)의 '논문투고 안내'에 따라, 투고 논문을 직접 업로드한다.
- 3) 모든 투고자는 <지식과 교양>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논문투고 신청서'를 작성하여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 4) 원고마감 일자를 경과한 논문은 해당 투고자의 동의하에 다음호의 투고 대상으로 삼는다.

제7조(투고자 논문작성 양식)

논문 투고자는 다음의 논문작성 요령에 따라 논문을 작성해야 한다.

- 1) 논문은 <지식과 교양> 논문편집양식(제6조 6항 참조) 기준 10매~ 20매(국·영문 초록, 그림·각주 포함) 내외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논문의 총 매수는 <지식과 교양> 논문편집양식 기준 30매를 초과할 수 없다. 기준 매수를 초과할 경우 장당 1만원의 추가 게재료를 부과한다.
- 2) 원고 작성 시 사용할 소프트웨어는 '한글2007' 이상의 프로그램을 사용하여야 한다.
- 3) 논문은 한국어·영어·외국어로 작성할 수 있다. 단, 영어 이외의 외국어를 사용해 작성한 원고는 한국어 번역본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논문 투고자의 국적이 외국일 경우 편집위원회는 해당 외국어의 전문가에게 한국어 번역본을 의뢰하여 작성한다. 이때 편집위원회는 소정의 번역료를 지불한다.
- 4) 원고는 논문제목, 성명과 소속 및 직책, 목차, 본문, 참고문헌, 국문초록 및 주제어, 영문초록, 영문제목, 영문성명, 영문 키워드,

부록(외국어 논문인 경우 국문요약문 등)의 순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 5) 논문의 저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주저자(제1저자)와 부저자(교신저자, 참여저자 등)를 구분하여 주저자가 첫 번째로, 부저자는 두 번째 이후로 표기한다.
- 6) 논문의 세부 편집양식은 아래와 같다.

(1) 작성 용지 설정

- ① 용지 종류 : A4용지(210×297mm)
- ② 용지 여백 : 위쪽 46, 아래 42.5 왼쪽, 오른쪽 각 50, 머리말, 꼬리말 각 10

(2) 글자 모양

- ① 글꼴 : 나눔명조(논문제목, 소제목, 필자이름 및 소속은 진한 글자로)
- ② 크기 : 논문제목 18, 성명 9.5, 소속 9, 목차 9, 본문 10.5, 각주번호 9, 각주본문 9, 참고문헌 9.5, 국문초록 10.5, 주제어 9.5, 영문(외국어)초록 10.5
- ③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각 항목별 작성 방식을 참조한다.

(3) 문단모양

- ① 본문 : 줄간격 160, 들여쓰기 2
- ② 각주 : 줄간격 130, 들여쓰기 2
- ③ 참고문헌 : 줄간격 130, 왼쪽여백 6, 내어쓰기 6
- ④ 국문 및 영문초록 : 줄간격 130, 왼쪽여백 2, 오른쪽여백 2

(4) 각 항목별 작성 방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① 논문제목 : 글자크기 18, 진하게, 가운데 정렬
- ② 성명 : 글자크기 9.5, 진하게, 가운데 정렬(논문제목과 이름 사이 한줄 띄움)
- ③ 소속 : 글자크기 9, 진하게, 가운데 정렬, 괄호 안에 소속을 명기
- ④ 소제목 : 글자크기 10.5, 정렬방식 왼쪽, 진하게
- ⑤ 본문 : 글자크기 10.5, 정렬방식 양쪽정렬

(5) 원고의 번호 붙임은 아래와 같이 한다.

- 1단계 : I. II. III.....(2줄 띄고, 14p, 중고딕, 가운데, 진하게)
- 2단계 : 1. 2. 3.....(1줄 띄고, 1칸에서 시작, 11p, 중고딕, 진하게)
- 3단계 : 1) 2) 3).....(4칸에서 시작, 10p, 신명조, 진하게)
- 4단계 : (1) (2) (3).....(4칸에서 시작, 10p, 신명조)
- 5단계 : ① ② ③.....(4칸에서 시작, 10p, 신명조)

(6) 논문에서 사용되는 기호는 아래와 같이 한다.

- ① 영화/영상/웹툰 작품의 경우는 < >를, 문학작품인 경우는 『 』를, 음악관련 작품인 경우는 « »를 사용한다.
- ② 강조 및 간접인용의 경우에는 홑따옴표 ‘ ’를, 직접인용의 경우에는 겹따옴표 “ ”를 사용한다.

(7) 논문의 각주 작성 요령

- ① 각주는 본문의 하단에 저자명, 저서명, 출판사명, 출판사 소재지(외국어일 경우), 출판연도, 인용쪽수 등의 순서로 표기한다.
- ② 각주는 각 언어권 학술문헌의 일반적인 예를 따른다.
 - 한국어 저서인 경우 다음의 순서로 작성한다.
저자, 『저서명』, 출판사, 출판연도, 인용쪽수
예) 홍길동, 『교양교육의 역사』, 한바퀴, 2005, 78쪽.

-한국어 논문(학술지 및 학위)인 경우 다음의 순서로 작성한다.

저자, 「논문명」, 『학술지』권/호, 출판사, 출판연도, 인용쪽수.

예) 홍길동, 「교육연구의 궤적」, 『교양연구』 24집, 2009, 21쪽.

-번역서인 경우 다음의 순서로 작성한다.

저자, 번역자, 『저서명』, 출판사, 출판연도, 인용쪽수.

저자, 번역자, 「논문명」, 『저서명/학술지』권/호, 출판사, 출판연

도, 인용쪽수.

예) 잭 우드 저, 홍길동 역, 『교양교육』, 한바퀴, 2005, 81쪽.

-영문(외국어)인 경우 저서는 이탤릭체로, 논문은 “ ”로 표기한다.

Jack Wood, *Social effectiveness: on some Asian College's education in the 1980s*, trans. Celia Britton. Annwyl Williams, Ben Brewster, and Alfred Guzzetti (London: HumanArts, 1982), p.23.

Kimberly Woods, "Social effectiveness: on some Asian College's education in the 1980s", *Education*, vol. 30, no. 3 (1989), pp.51-65.

Michael Woods, *Social effectiveness: on some Asian College's education in the 1980s*, *Liberal Arts and Society* (Bloomington and Indianapolis: Indiana University Press, 1995), pp.106-121.

-신문기사의 경우 작성자, "기사명", 《신문/잡지명》, 기사날짜 순으로 작성한다.

예) 홍길동, "2000년대 대학교육 현황", 《교양일보》, 2011.05.21.

-인터넷 사이트를 참조할 경우 사이트 명, 사이트 주소, 자료 확인 날짜순으로 표기한다.

예) 〈지식과 교양〉, www.mokwon.or.kr, 2011.05.21.

③ 중복된 참고문헌을 인용할 경우 다음 표기의 예를 따른다.

-한국어인 경우 바로 위의 주(註)에서 인용한 참고문헌을 다시 인용할 때는 위의 책, 위의 논문 이라 표기한다.

예) 위의 책(위의 논문), 21쪽. 또한 바로 앞이 아닌 그 앞의 주(註)에서 인용된 참고문헌을 다시 인용할 경우는 저자명을 먼저 명기한 후 앞의 책, 앞의 논문 이라 표기한다.

예) 홍길동, 앞의 책(앞의 논문), 21쪽.

-영문(외국어)인 경우 바로 위의 주(註)에서 인용한 참고문헌을 다시 인용할 때는 Ibid., 로 표기한다.

예) Ibid., pp.20-21. 또한 바로 앞이 아닌 그 앞의 주(註)에서 인용된 참고문헌을 다시 인용할 경우는 저자명을 먼저 명기한 후 op. cit.,로 표기한다. 예) Michael, op. cit., p.21.

④ 참고문헌 작성요령: 글자크기 9.5 (단, 제목은 10, 진하게)

-참고문헌은 본문과 각주에서 언급된 모든 문헌 정보를 수록하되, 본문과 각주에서 언급되지 않은 문헌은 포함시키지 않는다. 또한 본문과 각주에서 인용된 쪽수 및 페이지 수는 명기하지 않고 생략한다.

-참고문헌은 국내문헌을 먼저 표기하고 영어, 외국어 순으로 작성하되, 단행본, 논문, 신문기사, 인터넷 사이트로 나누어 표기한다. 국내문헌은 저자 이름에 따라 가나다 순서로, 영어 및 외국어 문헌은 저자 이름에 따라 알파벳 순서로 배열한다.

-영문(외국어) 서적의 경우는 이탤릭체로 하고, 국문 서적은 『 』를 사용하고 학술지의 경우는 권, 쪽 수 순으로 작성한다.

-참고문헌 작성 시 다음의 예를 참고한다.

홍길동, 『교양교육의 역사』, 교양과 교육사, 2005.

Bergstrom, Johns. ed. Human Arts: Culture and Society, Arts Histories. Berkel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9.

Donald, Stephen. Questions of Liberal Arts.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1989.

Lacan, Jacques. "The mirror stage as formative of the function of the 'I.'" In Ecrits: a selection. Trans. Alan Sheridan. New York : Norton, 1977.

Silverman, Kaja. The Subject of Semiotic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83.

Walker, Janet. Couching resistance : women, art, and psychoanalytic psychiatry.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993.

⑤ 국문·영문(외국어)초록 및 국문요약문 작성요령: 글자크기 10.5 (단, 제목은 진하게)

-국문초록은 논문의 전체요지를 최소 1,000자 이상, A4 1매 내외의 분량으로 작성하고 국문으로 된 5개 이상의 주제어를 국문초록 다음에 반드시 첨부한다. 영문(외국어) 논문의 경우에도 국문 논문과 동일하게 국문 초록 및 국문 주제어를 명기한다.

-영문(외국어)초록은 논문의 마지막에 본문과 다른 영문(외국어)으로 최소 1,000자 이상, A4 1매 내외의 분량으로 작성하고 영문(외국어)로 된 5개 이상의 주제어(Keyword)를 반드시 첨부한다.

-영어 이외의 외국어를 사용해 작성한 원고는 본문의 언어 종류에 관계없이 영문 초록을 반드시 첨부한다. 단, 이때의 영문 초록은 국문 논문의 영문 초록과 동일하게 취급한다. 또한 최소 1,000자 이상, A4 2매 내외의 분량의 한국어 번역본을 함께 제출한다.

제8조(투고자 논문심사)

투고된 논문은 본 연구소의 논문심사 규정에 따라 심사과정을 거친다. 단, 편집위원회가 기획, 의뢰한 논문의 경우 게재의 우선권

을 부여하되, 일반논문과 동일한 심사과정을 거친다.

제9조(논문 수정)

- 1) 편집위원회는 심사결과에 따라 투고자에게 논문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정 요구 후 10일이 지나도록 저자로부터 회신이 없으면 해당호의 논문게재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 2) 논문 심사를 통과한 논문은 편집규정에 근거하여 그 편집형식을 편집위원회에서 임의로 변경할 수 있다.
- 3) 논문제목 및 내용 수정은 1차 수정본 제출 이후로는 변경할 수 없다.

제10조(논문 책임) 게재 논문 내용에 대한 최종 책임은 해당 논문의 저자가 진다.

제11조(심사료와 게재료)

투고자는 논문투고와 동시에 본인의 논문에 대한 심사비를 납부한다.

- 1) 투고 논문에 대한 심사비는 6만원으로 한다. 논문 심사료는 일반논문과 연구지원논문 모두 동일하게 부과된다.
- 2) 심사 후 원고 게재가 확정된 경우 게재료를 납부해야 한다. 구체적인 게재료는 아래와 같다.

- 일반 논문: 전임 10만원 / 비전임 5만원

- 연구비 수혜논문: 전임 30만원 / 비전임 20만원

※ 논문편집양식(제7조 6항 참조) 기준보다 분량이 초과될 경우 소정의 추가 게재료를 부과할 수 있다(제7조 1항 참조).

※ 투고자가 해당 논문에 대해 '게재철회'를 요청한 경우라도 심사 후 원고 '게재가 확정'된 경우 투고자는 '게재철회'와 관계없이

해당 게재료를 납부해야 한다.

제12조(저작권)

- 1) 게재된 모든 논문은 교양교육혁신연구센터 홈페이지 (<http://liberalarts.mokwon.ac.kr>)를 통한 원문 공개 등 기타 학술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
- 2) 투고자는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을 다른 공동연구자와 함께 <지식과 교양>에 위임할 것을 '논문투고신청서'를 통해 사전에 서약하여야 한다. 단 12조 1)항을 제외한 목적으로 논문을 사용할 경우 편집위원회는 저자의 동의를 반드시 구해야 한다.

제13조(기타)

본 세부 규정에 미비된 사항은 사안별로 본 편집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결정한다.

제13조(개정)

본 규정은 <지식과 교양> 편집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

부 칙

제14조 본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논문심사 규정

2018년 3월 1일 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지식과 교양>에 투고할 논문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편집위원회 구성 및 연구윤리규정 심사)

- 1) 본 <지식과 교양>의 논문 심사는 편집위원회에서 주관한다.
- 2)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을 포함한 편집위원 10인 내외로 구성됨을 원칙으로 한다.
- 3)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을 구성하기 전 투고된 논문에 대하여 투고 논문의 영역과 게재의 적합성, 연구윤리규정의 준수 여부, 논문투고규정의 준수 여부 등을 검토, 해당 투고 논문의 심사여부를 결정한다.
- 4) 편집위원회는 투고 논문의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논문의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제3조(심사 및 판정)

- 1) 편집위원회를 통해 심사대상으로 확정된 투고 논문은 편집위원

- 회와 편집위원이 위촉한 2인의 전문 심사위원의 심사를 받는다.
- 2) 편집위원회는 투고자의 성명 및 소속을 삭제한 심사용 논문과 심사서 양식을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심사위원에게 발송한다.
 - 3) 투고자와 동일한 소속기관인 경우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 4) 심사위원은 심사위촉을 받은 날로부터 초심인 경우 10일 이내, 재심인 경우 5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편집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 5) 심사위원은 투고 논문을 심사서에 제시된 논문 평가항목을 참조하여 '게재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의 4등급으로 판정한다.
 - 6) 심사위원의 판정은 80점 이상 '게재', 70점 이상 '수정 후 게재', 60점 이상 '수정 후 재심', 59점 이하 '게재 불가'로 한다.
 - 7)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의 판정을 내렸을 경우, 심사위원은 심사서에 평가 항목에 따른 구체적인 수정요구 사항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 8) 심사위원 2인의 판정을 종합한 결과 '게재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당 호의 <지식과 교양>에 게재한다.
 - 9) 기타 판정에 관한 결정은 편집위원회의 의견에 따른다.

제4조(이의 심사)

- 1) 논문 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논문 투고자는 편집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소정의 양식에 따라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2) 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 제기는 '게재불가'로 판정이 난 논문 투고자에 한해서만 할 수 있다.
- 3) 이의 제기는 결과 통지 후 1달 이내에 접수되어야 한다.
- 4) 접수된 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는 편집위원 전체가 검토하도록

록 하며 편집위원회에서 이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그 결과를 해당 논문의 저자에게 통지한다.

- 5) 편집위원회가 이의를 인정하게 되었을 경우 변경된 평가 결과를 논문 투고자에게 1주일 이내에 통보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제반 절차를 바로 진행하도록 한다.

제5조(기타)

- 1) 학술지에 게재되는 논문에 대한 저작권은 <지식과 교양>이 소유한다.
- 2) 논문의 심사 및 편집·출판과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기타 사항은 편집위원장이 편집위원회를 소집하여 논의를 거친 후 재적위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 결정한다.
- 3)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의에서 결정한다.

제6조(개정)

본 규정은 <지식과 교양> 편집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

부 칙

제7조 본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연구윤리 규정

2018년 03월 01일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지식과 교양〉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과학기술부 훈령 제218호)을 준수한다. 본 규정은 목원대학교 교양교육혁신연구센터에서 발행하는 〈지식과 교양〉에 수록되는 학술발표와 논문 등 저작물의 투고, 심사윤리 등에 관한 내용을 정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본 규정에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을 우선한다.

제2조(적용대상 및 서약)

- 1) 〈지식과 교양〉의 편집위원 및 학술운영위원, 논문 심사위원, 투고자는 본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하여야 한다.
- 2) 〈지식과 교양〉의 편집위원회는 원고모집을 공고할 때 본 규정을 함께 공고하여야 하고, 심사자는 심사를 승낙할 때 본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하여야 한다.

제3조(저자의 투고윤리기준)

- 1) 독창성을 갖는 저작물이어야 하며, 다른 정기학술지나 단행본에 이미 발표된 것이 아니어야 한다.
- 2) 타인의 저작물을 표절한 내용이 담겨져서는 아니 된다. 타인의 저작물은 문서를 포함한 이미지 자료도 포함된다. 표절의 기준은 국가기관 혹은 이에 준하는 기관이 정한 표절의 기준을 따른다.
- 3) 타인의 저작물의 일부를 재인용하는 경우 반드시 그 사실을 밝혀야 한다. 이미지 자료 인용 역시 문서의 재인용과 동일한 방법으로 그 출처를 반드시 명기해야 한다.
- 4) 자신이 이미 발표한 저작물을 부분적으로 활용하며 새로운 학술적 논점을 추가시켜 분석하고 있는 저작물은 <지식과 교양>에 수록될 수 있다. 단, 이때 그 작성경과를 반드시 저작물에 적시하여야 한다.
- 5) 단행본이나 정기학술지에 출간되지 않은 자신의 석, 박사 학위논문의 일부를 활용하여 작성된 저작물에 대하여도 제4항과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 6) 연구자료나 연구결과를 위조 또는 변조한 저작물이어서는 아니 된다.
- 7) 타인의 외국어 간행물의 번역을 투고하는 경우 저작권자의 서면 동의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 8) 수록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동일 저작물을 <지식과 교양>을 포함한 여러 정기학술지에 중복 투고하는 경우, 최초의 수록 통지를 받아 이를 수락한 즉시 필자는 중복 게재를 방지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9)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

저자 자격을 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 10) 저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각 저자의 역할을 표시하여야 한다. 연구와 논문작성에 있어서 가장 많은 기여를 한 저자를 “주저자”로, 논문의 투고, 심사, 출간 과정에서 〈지식과 교양〉 편집위원회, 혹은 학술운영위원회 등과 연락을 담당한 저자를 “교신저자”로 표시한다.

제4조(편집위원의 편집윤리기준)

- 1) 편집위원은 투고된 저작물에 대하여 지체 없이 심사에 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하며, 투고된 저작물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모든 책임을 진다.
- 2) 편집위원은 투고된 저작물을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기관은 물론이고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과도 무관하게 오로지 저작물의 질적 수준과 투고규정 및 심사규정에 근거하여 공평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 3) 편집위원은 투고된 저작물의 심사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능력을 지닌 심사자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 4) 편집위원은 투고된 저작물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저자에 대한 사항이나 저작물의 내용을 공개해서는 아니 되고, 저자의 인격과 학문의 자유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5조(심사자의 심사윤리기준)

- 1) 심사자는 편집위원회가 심사 의뢰하는 저작물을 심사기준이 정한 바에 따라 성실하게 심사하고, 심사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신이 해당 저작물의 내용을 평가하는데에 책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실을 편집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 2) 심사자는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저자와의 사적인 친분관계를 떠나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해 저작물을 심사하여야 한다. 심사자는 저자의 인격과 학문의 자유를 존중해야 하고,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또는 심사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게재불가 또는 수정 후 게재로 결정해서는 아니 된다.
- 3) 심사자가 투고된 저작물이 제3조의 각항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편집위원회 및 제6조에 의한 윤리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 4) 심사자는 심사를 의뢰받은 사실, 심사대상 저작물의 모든 사항 등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저작물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 저자의 동의 없이 저작물의 내용을 인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2 장 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6조(윤리위원회의 설치, 구성)

- 1) 본 규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식과 교양>의 윤리위원회를 설치한다.
- 2) 윤리위원회는 목원대학교 교양교육혁신연구센터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편집위원장을 당연직으로 하여 5인 내외의 인사로 구성한다.

제7조(회의)

- 1)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2) 회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3)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케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4)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의 권한과 의무)

- 1) 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에 대하여 출석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2) 위원회는 증거의 멸실, 파손, 은닉 또는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3) 위원회 위원은 심의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3 장 위반행위의 조사

제9조(위반행위의 조사 개시)

- 1) 위원회는 구체적인 제보가 있거나 상당한 의혹이 있을 경우에는 본 규정 위반행위(이하 '위반행위'라고 한다)의 존재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 2) 위원장은 편집위원장과 협의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 1) 위원회는 제보자·피조사자·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이에 반드시 응해야 한다.
- 2) 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및 비밀엄수)

- 1)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직, 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안 되며, 제보자의 신원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하지 아니 한다.

- 2) 위반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 3) 제보, 조사, 심의, 의결 등 조사와 관련된 모든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는 조사와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를 부당하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제12조(제척, 기피, 회피)

- 1) 당해 조사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조사 및 안건의 심의, 의결에서 제척된다.
- 2)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이유를 밝혀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신청이 인용된 경우에는 당해 안건의 조사 및 심의, 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 3)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회피할 수 있다.

제13조(이의제기 및 진술기회의 보장)

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반론의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제14조(판정)

- 1) 위원회는 이의제기 또는 반론의 내용을 토대로 조사내용 및 결과

를 확정한다.

- 2)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피조사 사실과 관련한 피조사자의 행위가 위반행위임을 확인하는 판정을 한다.

제 4 장 조사 이후의 조치

제15조(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 1) 윤리위원회가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제재를 부과하여야 한다.
 - (1) 본 규정에 위반된 저작물이 <지식과 교양>에 게재된 경우에는 해당 저작물의 게재의 소급적 무효화 및 논문목록에서 삭제
 - (2) 향후 10년 이상 <지식과 교양> 투고 금지
 - (3) 본 규정의 위반 사실을 <지식과 교양> 및 교양교육혁신연구센터 홈페이지에 공지
 - (4) 본 규정의 위반 사실을 한국연구재단에 통보
 - (5) 기타 윤리의 준수를 위해서 필요한 사안으로서 윤리위원회가 정하는 제재사항
- 2) 전항 제3호의 공지는 저자명, 논문명, 논문의 수록 권·호수, 취소일자, 취소이유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6조(결과의 통지)

위원장은 조사결과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지체 없이 제보자 및 피조사자 등 관련자에게 이를 통지한다.

제17조(재심의)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제16조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명예회복 등 후속조치)

조사결과 위반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확정될 경우, 위원회는 피조사자 혹은 혐의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9조(기록의 보관 및 공개)

- 1) 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조사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2) 판정이 끝난 이후 결과는 교양교육혁신연구센터 <지식과 교양> 학술운영위원회와 편집위원회에 보고되어야 한다. 다만, 제보자, 조사위원, 참고인,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 위원회의 결의로 그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 5 장 보 칙

제20조(개정)

본 규정은 <지식과 교양> 편집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

부 칙

제21조 본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편집위원회 규정

2018.3.1. 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교양교육혁신연구센터 학술지 〈지식과 교양〉 편집위원회 업무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것이다.

제2조(업무)

편집위원회의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다.

- 1) 학회지 투고논문 심사와 편집
- 2) 학술도서 기획과 편집
- 3) 각종 학술자료 수집 및 정리
- 4) 기타 학회의 편집 관련 업무

제3조(구성 및 임기)

편집위원회 구성 및 임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

- 1) 편집위원회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센터장이 위촉하며,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센터장이 위촉한다.
- 2) 편집위원회는 10명 내외로 구성한다.
- 3) 편집위원은 각 분야에서 대내외적 지명도가 높고 학술적 성과가 우수한 이로 하며, 각 지역에서 활동하는 연구자들이 고루

선임될 수 있도록 한다.

- 4) 심사 및 편집 실무를 위해 약간 명의 편집간사를 둘 수 있다.
- 5)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4조(회의 개최)

편집위원회는 학술지 투고 마감 이후 심사위원 선정과 위촉을 위한 편집회의를 개최하며, 심사가 일단락된 후 심사결과 판정과 학회지 편집을 위한 편집회의를 개최한다. 편집회의는 필요에 따라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다.

제5조(결정 사안)

편집위원회는 학술지 편집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의결할 수 있다.

- 1) 학회지 투고 논문에 대한 심사위원 위촉
- 2) 투고 논문 심사결과의 검토와 판정

- ◇ 연구소장 : 현승훈
- ◇ 편집위원장 : 서정일
- ◇ 편집 위원 :
구진희(목원대), 김요한(영남대), 김혜정(경인교대), 문성호(중앙대),
서유석(경상대), 서태원(목원대), 송석량(목원대), 유경아(목원대),
최혜진(목원대), 홍태한(전북대)

지식과 교양 *Knowledge & Liberal Arts*

2020년 11월 30일 / 30 November 2020

통권 제6호 / No.6

발행인 현승훈

발행처 목원대학교 교양교육혁신연구센터

발행일 2020년 11월 30일

(우편번호 35349)

대전시 서구 도안북로 88 목원대학교 캠퍼스타운 1층 교양교육혁신연구센터

Tel 042-829-8198

E-mail kl@mokwon.ac.kr

Homepage: <http://liberalarts.mokwon.ac.kr>

인쇄처 씨앤피

전화: 042-824-0701